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공통점	U	$\cap$
쟁점	M	S
(가)	핵심 + 상술	핵심 + 부연
(나)	핵심 + 이유	핵심 + 사례

## [1문단] 비교 개괄

[공통점 U] 제시문들은 \_\_\_에 대하여 논하고 있고,

[공통점 n] \_\_\_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보인다.

[쟁점 M] 하지만 제시문들은 M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쟁점 S] 이는 S에 대한 관점 차이로도 연결되고 있다.

## (2문단) (가) 정리

[핵심] 먼저 제시문 (가)에 나타난 M은 \_\_\_이다.

(상술) 이는 \_\_\_라는 것이다.

[핵심] 이에 따라 (가)는 S에 대해 \_\_\_라고 주장한다.

(상술) 이는 \_\_\_한다는 것이다.

## (3문단) (나) 정리

[핵심] 반면 제시문 (나)는 M에 대해 \_\_\_라고 말한다.

(상술) 이는 \_\_\_라고 볼 수 있다.

[핵심] 따라서 (나)에 나타난 S는 \_\_\_이다.

(상술) \_\_\_라는 것이다.

※ 쟁점(비교 기준)별로 본문을 구성할 수도 있다. 쟁점들 사이의 연관성이 약할 경우에는 쟁점별로 써도 좋다.

# 세종대 2019학년도 모의 1번

✎ 제시문 (가)와 (다)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라. (400~500자)

(가)

“사모아에서 성장을 쉽고 간단한 문제로 만드는 배경은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평상적이라는 것이다. 누구도 크게 성공하려고 모험을 하지 않으며,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고 핍박을 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목적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 곳이 사모아이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는 자식이 길 건너편으로 이사하면 해결되고, 주민과 마을 사이의 불화는 그 주민을 옆 마을로 추방하면 끝나며 …… 사랑과 미움, 질투와 보복, 슬픔과 사별은 모두가 몇 주를 넘기지 않는다. 처음 태어난 순간부터 아기는 여러 여성들의 손을 거쳐 소홀히 다루어짐으로써 한 개인을 지나치게 돌보지 말고 어느 관계에나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는다.”

- 마거릿 미드, “사모아의 사춘기”에서

위의 인용된 부분에 따르면, 사모아 사회는 평상적이고 평화롭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성공이나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억압적인 태도를 강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설령 갈등이 생기더라도 시시비비를 끝까지 가리기보다는 갈등의 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며, 극단적인 감정적 상태는 기피된다. 아이를 양육할 때에도 서구 사회에서처럼 아이에게 집중적인 관심과 기대를 쏟아 부어 아이의 자아에 큰 부담을 주는 일도 없다.

이렇듯 사모아 사회는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없으므로 사모아의 사춘기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다. 이는 당시 서구의 청소년들이 경쟁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진로에 대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에 반항하며 자유분방한 삶을 살거나, 자유분방한 삶을 포기하고 내키지 않는 삶을 살거나 하는 선택의 어려움을 겪은 점과 대조를 이루었다.

(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에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에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 한쪽이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이었던 것이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 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 줄 선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뿔뿔히지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

독해  
정리

---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가)와 (다)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라. (400~500자)

[독해]

(가) 긴장을 줄이는 삶의 방식을 통해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모아 사회

(다) 모험과 갈등을 추구함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화가 로트레크

[논리평면] 비교

공통점	인생관	-
차이점	삶의 양식	기대하는 성장의 모습
(가)	긴장을 줄이는 삶의 방식	편안한 성장
(다)	모험과 갈등이 있는 경쟁적 삶	더 나은 존재

[예시답안] 459자

제시문들은 모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각자 추구하는 삶의 양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결과로서 성장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제시문 (가)가 추구하는 삶의 양식은 긴장을 줄이는 삶이다.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으며, 문제의 궁극적 해결보다는 극단적 감정을 회피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가)가 기대하는 성장은 압박감이 없는 편안한 성장이다. 부담스럽지 않은 평화로운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반면, 제시문 (다)가 보여주는 삶의 양식은 도전적인 삶의 양식이다. 큰 목표를 향해 도전과 모험을 자처하고, 성공을 위해 갈등을 불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가 기대하는 성장이란, 더 나은 존재로 고양되는 것이다.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삶의 깊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2019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은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 성취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범교과적인 문항을 출제하였다.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된 독서 및 글쓰기 능력, 논리적·분석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력, 비판 능력 등을 토대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문항 1〉은 두 제시문에서 인생을 보는 관점을 파악하고 두 관점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는 문제이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에서 인생을 보는 관점을 추론해 낼 수 있는 주제 통합적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제시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생관을 서로 비교하는 분석적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

위에 열거한 능력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상당한 수준까지 갖추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세종

대학교 모의논술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고교 교과과정을 이행한 중간 수준의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대학 문항해설]**

〈문항 1〉은 제2012-14호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국어I-(31014)]에 따른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며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독서와 문법-(310418)]에 따른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 능력’과 [독서와 문법-(310422)]에 따른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 하는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항 1〉은 사모아의 사춘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함에 대한 글과 누구의 인생에나 있는 가시 같은 괴로움에 대한 글을 읽고, 두 글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인생관을 비교하도록 과제를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유추하고, 두 제시문의 서로 다른 인생관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술할 것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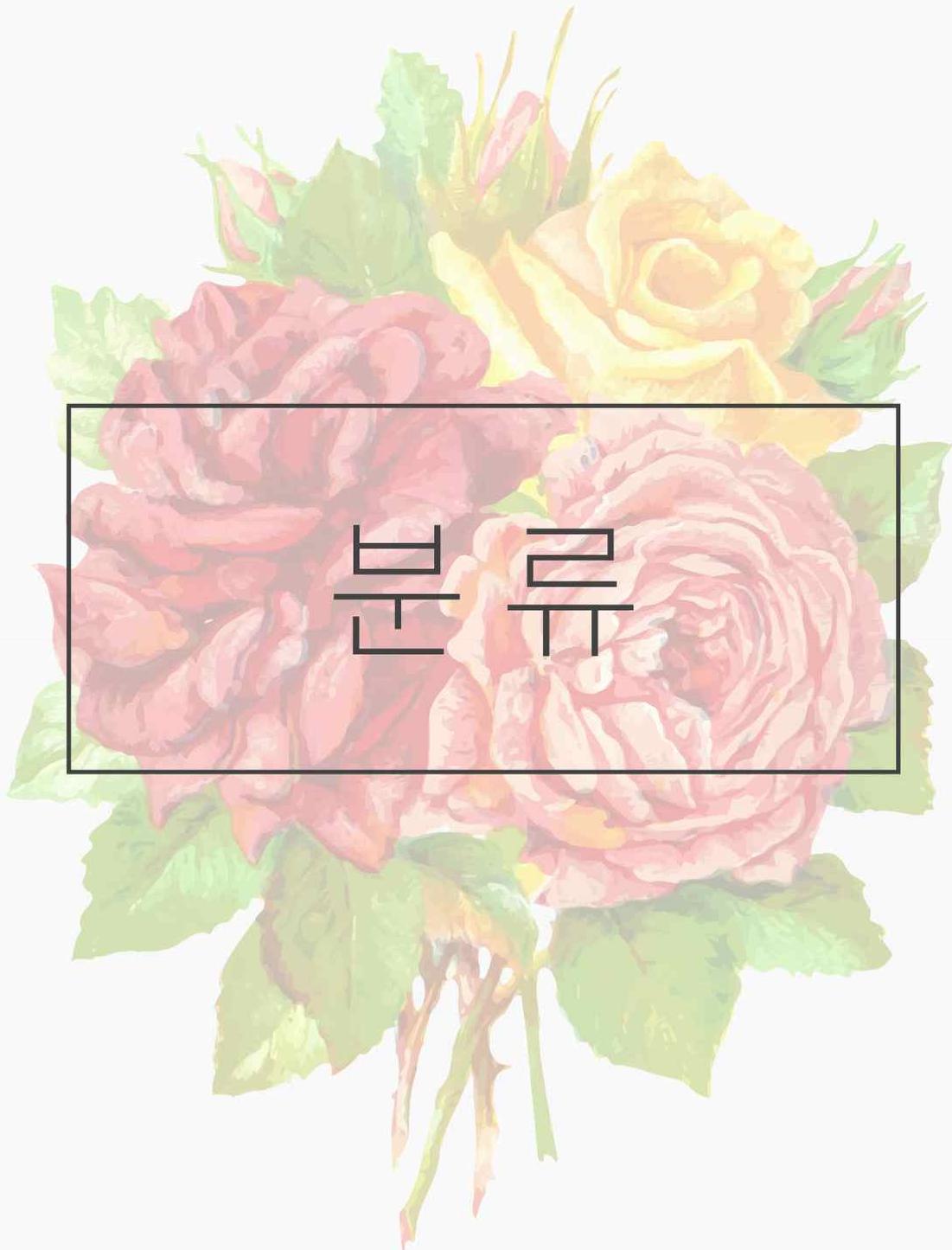
**[대학 채점기준]**

문항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1번 소문항	분석 및 이해력(차이점 서술)	140	200
	표현력	30	
	정서법	30	
	분량미달 감점	-20 ~ -80	

**[대학 예시답안] 415자**

제시문 (가)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을 꺾박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모험과 희생, 투쟁과 갈등, 극단적인 감정 등을 피하는 사모아 사회를 기술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사회는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삶, 즉 평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시문 (다)에서는 화가 로트레크의 삶을 통해 모험과 갈등 그리고 고통의 감정이 어떻게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이며, 그 때문에 비록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생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기에 고통을 회피하려 하기 보다는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두 관점을 요약하시오.”

개괄	화제	분류 기준
관점 A	개념화	구성원
관점 B	개념화	구성원

공통 주장	화제(P)	속성(Q)
핵심	P1	Q1
상술	p1	q1
핵심	P2	Q2
상술	p2	q2

## [1문단] 분류 개괄

[개괄] 제시문들은 (화제)에 대한 (분류 기준)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A 팀) 먼저 (개념화 A)를 지향하는 제시문으로 \_\_, \_\_, \_\_가 있고,

(B 팀) 반대로 (개념화 B)를 지지하는 제시문으로 \_\_, \_\_, \_\_가 있다.

## (2문단) A관점 정리

[공통 주장] 먼저 (개념화 A)는 \_\_라고 주장한다.

(핵심) 왜냐하면 \_\_이기 때문이다.

(상술) 이는 제시문\_\_에 나타나듯 \_\_라는 것이다.

(핵심) 또한 \_\_라고 볼 수도 있다.

(상술) 제시문\_\_이 말하듯 \_\_인 것이다.

## (3문단) B 관점 정리

[공통 주장] 반면 (개념화 B)는 \_\_라고 주장한다.

(핵심)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_\_를 들 수 있다.

(상술) 제시문\_\_에 나오듯 \_\_라는 것이다.

(핵심) 둘째, \_\_라는 견해도 있다.

(상술) 이는 \_\_라고 말하는 제시문\_\_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 성균관대 2018학년도 기출 1교시 1번

☞ <제시문 1>~<제시문 6>은 '인간 행위의 특성'에 관한 상반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 <제시문 1>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본래 합리적으로 활동한다고 가정했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들이 하나같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아주 정밀하게 그려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경제학자들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은 종종 장기적인 추세나 사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면서 눈에 띄는 최신 뉴스에만 지나친 관심을 쏟는다. 사람들이 비행기 사고는 걱정하면서 자기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걱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다. 투자자들은 수익을 거둘 때보다 손실을 볼 때 더 고통스러워하며, 그래서 안 좋은 주식을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곤 한다. 주식을 팔지 않는 한 손실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결국 투자자들은 자신을 과신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절제하지 못하다가 손실을 뒤집어쓴다.

## <제시문 2>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그것을 풀려면 충분한 시간 동안 집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그와 대조적으로, 새로운 기하학 문제를 풀기란 매우 어렵다. 얼굴 인식은 병렬적인 시스템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뇌가 여러 계산을 동시에 해낸다는 뜻이다. 그러한 작업은 의식 차원에 들지 않는다. 반면 기하학을 이해하려면 의식적이고 고단한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시각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진화한 것이지 뛰어난 수학자가 되게끔 진화한 건 아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힘든 결정을 내릴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적 사고의 과정을 힘들게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인지능력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결정들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많은 문제들이 미결 상태로 남을 것이다.

### <제시문 3>

동물의 행동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어미가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목숨 걸고 보호하는 것이다. 도킨스(Dawkins)는 톰슨가젤(영양의 일종)을 예로 든다. 어미 톰슨가젤은 포식자가 접근하면 필사적으로 내뺄는 대신 아래위로 꺾충꺾충 뛰는 행동으로 포식자의 코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박력 만점의 ‘제자리 높이뛰기’ 행동은 포식자의 주의를 자신에게 끌리는 것을 감수하면서 새끼나 동료들에게 위험을 경고한다는 측면에서 새가 내는 경계음과 유사하다. 톰슨가젤의 행동은 자기희생 행동 또는 무모한 자살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에는 무리에게 위험을 알려 종족을 보존하려는 동기가 숨어있다. 톰슨가젤은 무수한 사례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꿀벌부터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동물의 왕국에서 수없이 발견되며, 인간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 <제시문 4>

경제생활에서 모든 주체는 합리적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합리적 선택은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비용을 인식하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으로 얻는 것이 클까, 잃는 것이 클까”를 치밀하게 따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회비용을 인식하지 않을 때보다 합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모든 선택에는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선택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철저히 분석, 평가, 비교해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 평가,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비용-편익(cost-benefit) 분석이라고 한다. 선택 대안이 한 가지라면 그 대안에 대해서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선택하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만일 선택 대안이 여러 가지라면 각 대안 별로 비용-편익 분석을 한 다음, 순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 <제시문 5>

베커(Becker)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사회 부적응자이거나 도덕적으로 이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곰곰이 따진 끝에 범죄가 최상의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렇다 할 돈벌이 재주가 없는 사람은 직장을 구하기보다 자동차를 훔치거나 길거리에서 할머니에게 돈을 빼앗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베커의 ‘합리적 선택’에 따르면 범죄는 또 다른 형태의 사업일 뿐이고, 벌금과 감옥행은 어쩌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일 뿐이다. 베커는 여기서 더 나아갔다. 몇 십 년 동안 발표한 여러 유명한 논문에서 합리적 선택에 관한 자신의 이론이 사람들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을 바꾸거나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뭐든 시작할 때, 베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터이므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고 긴 시간과 많은 돈을 양육에 쏟아 붓는가? 여러분은 사랑, 감정, 본능 등을 생각하겠지만, 베커의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부모가 미래를 위해 현명한 투자를 한 것이고, 결국은 자식들에게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재주에 재정적으로 투자해서 이득을 본다.” 그의 결론에 따르면 이 투자가 돈을 은행에 넣어 두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오는 한, “부모는 노년에 대비해서 간접적으로 자식들에게 투자한 것이다.”

### <제시문 6>

사람들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실망하면서도, 자신의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이성과 행동을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진다. ‘당연하지!’ 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토론할 때 자주 쓰는 말로, 자신이 설마 그 사실을 모르겠느냐는 의미와 모두가 그 사실을 놓치고 있을 거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쉽게 찾고, 또 그것을 즐기며 지적한다. 그러고는 한밤중에 혼자 있는 동안 자신이 더 어리석은 게 아닌지 불안해한다. 오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하다.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조차도 단지 소문과 권위와 편견과 정당화가 교묘하게 합쳐진 하나의 집합체일 수 있다. 문제는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익숙한 것들에서 노골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이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는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막연한 대상들이나 사건들에 책임을 전가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혀 관계없는 이유를 끌어다 대기도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온갖 미사여구와 사실이 아닌 통계수치를 들이댈 때, 우리는 쉽게 현혹되기도 한다.

---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1>~<제시문 6>은 '인간 행위의 특성'에 관한 상반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독해]

- <제시문 1> 인간 → 비합리적으로 행동 → 손실
- <제시문 2> 인간 - 제약된 인지 능력 → 비합리적 결정 → 문제 미해결
- <제시문 6> 인간 - 반성하지 않음 → 비합리적인 판단
- <제시문 3> 합리적 동기 →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합리적 행동
- <제시문 4> 비용-편익 분석 → 합리적 선택
- <제시문 5> 합리적 분석 → 계산적 선택

[논리평면] 분류 & [예시답안] 784자

문단	문장	기능	내용
1	1	화제	제시문들은 인간 행위가
	2	분류	합리성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립하고 있다.
	3	입장 A	먼저 합리적 인간론에 있어 제시문 <3>, <4>, <5>이 있고,
	4	입장 B	이에 반하는 비합리적 인간론에는 제시문 <1>, <2>, <6>가 있다.

문단	문장	기능	내용
2	1	주장	먼저 합리적 인간론은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 판단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2	핵심	사람들은 기회비용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해내고 있다.
	3	상술	<4>에 나오듯, 사람들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4	핵심	따라서 겉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행동들도 실제로는 합리적 동기로 인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5	상술	가령, <3>의 톰슨가젤은 적에게 자신을 노출시키지만 이는 동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6	핵심	심지어 비도덕적 행동조차 실제로는 합리적 판단을 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7	상술	<5>에서 말하듯 범죄 행위조차 실제로는 이해득실을 따져 가장 큰 이익을 추구한 결과라는 것이다.

문단	문장	기능	내용
3	1	주장	반면 비합리적 인간론은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2	핵심	우선 현실적 차원에서 이미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3	상술	가령, <1>에서처럼 사고에 대해서는 걱정하면서 건강에 대해서는 소홀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4	핵심	이러한 행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다.
	5	상술	<2>가 말하듯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인지적 제약으로 인해 합리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6	핵심	게다가 사람들은 비합리적 결과에 대한 반성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7	상술	<6>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실수에 대해 변명만 일삼고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 [대학 출제 의도]

[문제 1]은 제시문들의 내용을 파악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독해 및 분석능력을 활용하여 제시문들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그 논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하는 것이다.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인간행위의 특성을 ‘합리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합리성’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이다. 6개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및 수능문제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골랐으며, 3개의 제시문은 인간행위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합리성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3개의 제시문은 인간행위의 비합리성을 부각시키는 글들이다.

## [대학 문항 해설]

- 〈제시문 1〉 비합리성/ 경제학의 합리성 주장의 한계
- 〈제시문 2〉 비합리성/ 인간의 인지능력 제약에 따른 비합리성
- 〈제시문 3〉 합리성/ 길보기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타행동이 내포한 본질적 합리성
- 〈제시문 4〉 합리성/ 비용-편익분석 기반의 합리적 선택
- 〈제시문 5〉 합리성/ 모든 인간행동을 합리적 선택으로 보는 베커의 입장
- 〈제시문 6〉 비합리성/ 이성이 아닌 실수와 오류투성이로서의 인간

## [대학 채점 기준]

- ①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올바르게 분류하였는가?
  - ② 각 제시문이 키워드 중심으로 잘 요약되었는가?
  - ③ 두 입장에 속하는 제시문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잘 정리하였는가?
- A : 제시문들을 인간행위의 특징을 합리성으로 보는 〈제시문 3, 4, 5〉와 비합리성으로 보는 〈제시문 1, 2, 6〉으로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각각의 논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잘 요약하고 종합적으로 두 입장 간의 차이를 잘 정리하여 기술한 답안(제시문 간의 차이점까지 잘 부각시킨 답안 포함)
- B : 제시문들을 인간행위의 특징을 합리성으로 보는 〈제시문 3, 4, 5〉와 비합리성으로 보는 〈제시문 1, 2, 6〉으로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각각의 논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잘 요약하였으나 종합적으로 두 입장 간의 차이를 정리하는 데는 미진한 답안
- C : 제시문들을 인간행위의 특징을 합리성으로 보는 〈제시문 3, 4, 5〉와 비합리성으로 보는 〈제시문 1, 2, 6〉으로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각각의 논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잘 요약한 답안
- D : 제시문 각각의 논지는 어느 정도 요약하였으나, 두 입장 간의 분류를 제대로 못한 답안
- E : 제시문 분류에서 오류를 범하고 논지 서술이 제대로 안 된 답안

[대학 예시답안] 978자

제시문에 등장한 ‘인간 행위의 특성’에 관한 견해는 인간 행위를 합리적으로 보는 관점과 비합리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상반된다. 합리적으로 보는 관점은 <제시문 3, 4, 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시문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합리적 행동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나타난다. 무모한 자살행위로 보이는 톰슨가젤의 행위에는 새끼와 종족을 보존하려는 합리적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제시문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 활동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진행된다. 모든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계산되며 그 결과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심지어 <제시문 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그리고 부모들의 자식을 낳는 본능에 포함될 것 같은 행위조차 사려 깊은 분석을 수반하는 ‘투자’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행동도 그 이면에는 나름 합리적 사유가 있다.

반면에 <제시문 1, 2, 6>은 인간 행동이 그리 합리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1>에서 보듯이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활동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발견에 의하면 이러한 가정은 타당하지 않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투자자들조차도 최신 뉴스에 관심을 갖고 수익과 손실에 대해 비합리적 판단을 하며, 자신에 대한 과신 때문에 손실을 키우기도 한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 <제시문 2>는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는 의식적 사고 과정 즉 합리적 판단과 선택보다는 비의식적 사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제시문 6>에서 보듯이 비합리적 오류는 학벌과 상관없이 나타나며, 인간은 충동적이고 쉽게 현혹되어 흔히 역설적 상황에 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범하는 오류를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제시문 1>에서 보듯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인간 행동이 본원적으로 비합리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논쟁

“선호하는 입장을 택해 논술하시오.”

견해(주장)	화제 + 주장(관점 A)
논거(이유)	P (추상적 논거)
증거(사례)	제시문 출처 + p (구체적 사례)
적용(부연)	P' (개념적 정리)

예상반론(주장)	관점 B 긍정 or 관점 A 부정
논거(이유)	P (추상적 논거)
증거(사례)	제시문 출처 + p (구체적 사례)
재반박(주장)	'예상 반론' 부정 (관점 A 방어)
논거(이유)	P (추상적 논거)
증거(사례)	제시문 출처 + p (구체적 사례)
적용(부연)	P' (개념적 정리)
재주장	전체 주장 반복

[1문단] A 관점 정당화 1

[주장] (화제)에 대해서는 (관점 A)해야 한다.

(논거) 왜냐하면 \_\_\_이기 때문이다.

(증거) 이는 제시문 \_\_\_의 \_\_\_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적용) 이처럼 (화제)에 대해서도 \_\_\_는 것이다.

(2문단) A 관점 정당화 2

(논거) 또 다른 이유는 \_\_\_이다.

(증거) 제시문 \_\_\_에서 볼 수 있듯이 \_\_\_라는 것이다.

(적용) 이와 마찬가지로 (화제)에 대해서도 \_\_\_라고 할 수 있다.

(3문단) 예상반론 - 재반박

(예상반론) 물론, 혹자는 (관점 B)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유) \_\_\_이기 때문인데,

(증거) 이는 제시문 \_\_\_에도 나타나고 있다.

[재반박]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유) \_\_\_이기 때문이다.

(증거) 제시문 \_\_\_에도 나타나듯 \_\_\_인 것이다.

(적용) 이와 같이 (화제)에 있어서도 \_\_\_라는 것이다.

[재주장] 따라서 (화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관점 A)해야 한다.

## 성균관대 2018학년도 기출 1교시 3번

- ④ 한 국가가 비만을 포함하여 건강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예: 백설탕, 트랜스지방, 착색제, 향신료 함유 식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 정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견해 중 하나를 [문제 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30점)

---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한 국가가 비만을 포함하여 건강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예: 백설탕, 트랜스지방, 착색제, 향신료 함유 식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 정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견해 중 하나를 [문제 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30점)

[독해]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제시문 1〉 인간 → 비합리적으로 행동 → 손실

〈제시문 2〉 인간 - 제약된 인지 능력 → 비합리적 결정 → 문제 미해결

〈제시문 6〉 인간 - 반성하지 않음 → 비합리적인 판단

인간은 비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제시문 3〉 합리적 동기 →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합리적 행동

〈제시문 4〉 비용-편익 분석 → 합리적 선택

〈제시문 5〉 합리적 분석 → 계산적 선택

[논리평면] 논쟁

	내용
화제	정부의 불량 식품 규제 정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주장	정부의 규제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논거	〈제시문 6〉 왜냐하면 인간은 성찰하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는 비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례	〈제시문 1〉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스로를 과신하여 실수하게 된다.
예상 반론	〈제시문 3〉 물론, 겉으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도 실제로는 합리적 동기에 의한 선택일 수 있다.
재반박	〈제시문 2〉 하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예시답안] 773자

한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에 대한 규제를 내걸었다. 이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충실히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다. 인간은 성찰하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는 비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규범의 강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제시문 6〉에 나오듯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근거 없는 소문으로 만들어진 허술한 견해들에 동조할 수 있고, 이러한 실수들을 합리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하는 모습을 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제시문 1〉에서도 나타난다.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해에 더 민감해 하며 합리적으로 계

산하지 못하고, 이러한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비합리적으로만 보이는 인간의 행동에도 실제로는 합리적인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제시문 3>에서 어미 톰슨가젤이 천적에게 더 눈에 띄도록 높이뛰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에 의한 판단이라고 하듯이, 인간의 실수들 또한 합리적 동기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태생적으로 온전한 합리성을 갖출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제시문 2>에서 말하듯 인간은 시각적 능력으로는 뛰어난 병렬처리를 보이지만, 추상적 사고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합리적 동기를 품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능력이 부족해 여전히 비합리적 행동에 이르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적 차원에서 사람들의 실수를 막아주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규제는 타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이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정책 도입의 정당성에 관한 학생의 견해를 논술하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문제 1]에 등장한 인간 행위의 합리성에 관한 두 가지 상이한 입장 및 [문제 2]의 자료들과 적절히 연관 지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에서 상정한 정책(비만과 건강문제를 유발하는 식품에 높은 세금 부과)은 인간은 합리적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부당하고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인간 행위의 비합리성 관점에서 도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 [대학 문항해설]

수험생들은 해당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명확히 제시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❶[문제 2]의 자료들로부터 인간 행위의 합리성 또는 비합리성에 관한 논거를 도출하여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❶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고려했던 것처럼 제시문들을 토대로 논거와 증거를 삼아 자신의 논지를 전개시키면 된다. [문제 2]에 등장하는 자료들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학의 해설을 존중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이라고만 하면, [문제 1]에서 고려한 제시문들 외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된 [문제 2]의 자료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대학 채점기준]

- ① 찬성과 반대 견해 중 한 가지를 명확히 나타내었는가?
- ② 찬성 또는 반대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③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적절히 연결·통합하여 심화된 주장을 제시하였는가?

- A: 찬성 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고, 주장의 논거로 제시문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심화된 주장을 제시한 답안
- B: 찬성 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고, 주장의 논거로 제시문과 자료의 일부를 적절히 활용한 답안
- C: 찬성 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였으나, 주장의 논거로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 D: 찬성 또는 반대 견해는 분명히 제시하였으나, 자기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답안
- E: 찬성 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자기 주장의 논리적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답안

[대학 예시답안 - 찬성 답안] 748자

**[주장]**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는 건강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 서라도 소비를 줄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❶최근에는 선진국병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논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백설탕, 트랜스지방, 착색제 등처럼 건강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을 먹지 않거나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여러 사례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을 한다. **[증거]** 단적인 예로,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는 걱정하면서 자기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걱정하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여 손실을 키우기도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만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확증편향도 흔히 발생한다. **[논거]** 이처럼 사람들이 비합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습득된 특성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오류는 학벌과 상관없이 누구나 범하는 오류이다. **[재주장]** 따라서 국가는 마약을 금지 시키거나 안전벨트를 매도록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개인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의료비 지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❷물론,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양까지는 허용하되 그 이상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❶ 복합추론 중에서도 ‘견해’ 제시의 유형은 이런 식의 자유로운 전개가 나올 여지는 있다. 지금 이 문장은 제시문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외부 지식을 동원하여 주장에 대해 문제의 시급함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게 꼭 나와야 하냐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논제가 명시적으로 시킨 것도 아니고, 논지전개상 반드시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 그저 상식적인 차원에서 뒷받침이 나오고 있어서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보면 된다.
- ❷ 예상반론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사실상 불필요한 문장이다. 이 문제가 논하는 쟁점은 사람들을 합리적인 존재로 볼 것인지 여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장은 현재 사람들의 비합리성을 근거로 정부의 강제 규정을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예상반론은 사람들의 보편적 합리성을 근거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정책의 분배 차원의 부작용에 대해 논하고 있다. 주요 논점과 관련성이 낮은 논의다. 그러니 이에 대한 재반박 부분 또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상반론을 수용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타협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논거] 인간은 이성적 동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자신에게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 건강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에 있어서도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에게 있다. [주장]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여 **특정 음식 소비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증거] ① 일례로 몇 년 전에 금연을 강제하기 위하여 담배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흡연 인구는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검증되지 않은 담배 유사 물품의 소비만 증가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예상 반론] 최근 경제학자들에 의해 사람들의 **비합리적 투자 심리**에 대한 사례도 발표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진화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인간이 **충동적이고 쉽게 현혹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재반박] 하지만 ②<제시문 3>과 <제시문 5>에서 보듯이 인간의 비합리적 행동 이면에는 나름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이는 끊임없이 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주장] 따라서 정부는 세금과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식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고양시켜 유기농과 같은 건강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시켜 개인 스스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 ① 제시문에 제시되지 않은 외부 상식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역시 논제에서 요구되지 않은 사항이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견해 중심 복합추론의 자유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사항이라고 이해하도록 하자. 특히나 구체적 쟁점(소재)이 보거나 제시문이 아닌 그냥 논제에만 제시된다면, 학생은 상식에 기대서 쟁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상황이 될 때는 상식적 수준에서 외부 증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 ② 제시문들을 그냥 지칭만 하고, 내용을 소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 예시답안에서는 문제1번~3번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제시문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증거로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제시하는 작업은 채점자들이 평가해야 할 주요 대상이기도 한 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출처와 함께 제시문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자. 독립적인 논술문 자체만 갖고 완결적으로 이해되는 글이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글이다.



적용 추론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평가하시오.”

(가)	기준	대전제	보편 원리	F(x)	교과 개념
(나)	대상	소전제	관련 사실	X	문제 조건
정답	설명 평가	결론	적용 결론	Y	정답

사실추론	전제 P	결론 Q
기준 (가)	P (열심)	Q (성공)
대상 (나)	p (노력파)	q (합격)

가치추론	전제 P	결론 Q	가치
기준 (가)	P (자연)	Q (소중)	G/B
대상 (나)	p (꽃)	q (밟음)	g/b

## Type A: 기준-적용

(1문단) 기준 정리

[핵심] (화제)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상술] 제시문 \_\_\_에 나타나듯 \_\_\_라는 것이다.

[2문단] 적용 추론

[주장]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대상)은 \_\_\_이다.

(대상) 제시문 \_\_\_에 나타난 (대상)은 \_\_\_이다.

(해석) 이는 \_\_\_라고 할 수 있다.

## Type B: 대상-적용

(1문단) 대상 정리

[핵심] (대상)은 \_\_\_이다.

[상술] 제시문 \_\_\_가 말하듯 \_\_\_라는 것이다.

[2문단] 적용 추론

[주장] 이러한 (대상)은 \_\_\_이다.

(기준) 제시문 \_\_\_가 말하듯 \_\_\_이다. + 이는 \_\_\_라는 것이다.

(해석) 따라서 (대상)은 \_\_\_라고 볼 수 있다.

## 중앙대 2019학년도 인문사회, 경영경제 모의 2번

- ☞ 제시문 (마)의 주장을 제시문 (라)와 (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해 보고, 노인의 고용을 확대하자는 제시문 (바)의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식을 제시문 (사)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라)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고원 지대를 여행하던 주인공은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한다. 그는 한 양치기 노인을 만나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는다. 이 양치기의 이름은 엘지아 부피에. 그날 밤 주인공은 엘지아가 도토리를 세는 것을 보게 된다. 양치기 노인은 100개를 세었을 때 셈을 멈춘다. 엘지아는 나무가 부족하여 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토리를 골라내 황폐한 고원에 홀로 심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제1차 세계 대전 후 주인공이 황무지를 다시 찾아왔을 때, 처음 파종한 나무는 10년생의 키 큰 나무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나무가 자라 만들어진 작은 숲과 물이 흐르게 된 시내, 그리고 나무를 갉아먹는 양 대신 벌을 키우고 있는 엘지아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 뒤 해마다 노인을 찾아가는 주인공은 풍요로운 숲과 풍부한 수자원 속에서 평화로운 마을이 된 고원 지대의 변화를 보며 한 인간의 숭고한 정신과 마주치게 된다.

(마)

노인 인구의 증가로 사회 풍조도 많이 바뀌었다. 경로 우대 사상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세대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노인당’ 후보가 국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지방의회는 과반수를 장악했다. 설령 노인당 후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노인들을 위한 공약이 없으면 당선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反)노인’을 구호로 내건 ‘새벽 청년당’이 등장했다. 이들은 90세 이상 노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30대 이하 젊은층의 비례 대표 할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바)

고령 사회는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축복이다. 단, 준비하는 사회에 축복이 있다. ‘노인이 오래 일하면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편견이 있다. 절대 아니다. 1980년대 유럽은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 장년층의 조기 퇴직을 방관했다. 노인이 떠나면 청년이 채울 줄 알았다. 결과는 반대였다. 노인의 경험은 청년의 혈기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일자리만 줄어 경기 침체를 낳았다. 노년의 일자리가 줄어드니 청년의 일자리도 줄었다. 유럽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요즘 유럽에서는 ‘입사 시 나이를 묻지 마.’ 운동, ‘정년퇴직을 퇴장시키자.’ 운동이 한창이다. 유럽연합은 2000년, 고령자와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보건 산업 진흥원의 보고서를 보면 2010년 33조 원인 고령화 산업 규모가 2020년에는 1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시장 규모가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금융 산업이고, 그중 개인연금, 퇴직 연금 분야가 유망하다고 보았다. 또한, 건강 기능 식품 산업과 방문 요양 서비스, 건강 검진 서비스, 질병 상담 및 관리 서비스 등 요양 산업이 유망하다고 발표되었다. 이 외에도 의약품 분야와 의료용 기기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사)

“노년은 우리를 활동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했던가. 어떤 활동을 이르는 말인가? 그것은 아마도 젊음과 체력이 필요한 활동이 아닐까? 그렇다면 몸은 비록 허약하지만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노년의 활동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퀸투스 막시무스와 내 아들의 장인이자 자네 부친으로, 탁월한 인물이었던 루키우스 파울루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리고 파브리키우스와 쿠리우스와 코룬카니우스 같은 다른 노인들도 조언과 권위로 나라를 수호했는데, 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므로 노년에는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셈이네. 그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더러는 돛대에 오르고 더러는 배안의 통로를 돌아다니고 또 더러는 용골에 권 더러운 물을 퍼내는데, 키잡이는 고물에 가만히 앉아 키를 잡고 있다고 해서 항해하는 데 그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과도 같네. 젊은 선원들이 하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키잡이가 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네. 큰일은 체력이나 민첩성이나 신체의 기민성이 아니라, 계획과 명망과 판단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네. 그리고 이러한 자질들은 노년이 되면 대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네. 나는 병사로서, 연대장으로서, 장군으로서, 사령관으로서 온갖 전쟁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으니 자네들에게는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테지. 하지만 지금도 나는 어떤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원로원에 조언해 주고 있다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마)의 주장을 제시문 (라)와 (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해 보고, 노인의 고용을 확대하자는 제시문 (바)의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식을 제시문 (사)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독해]

(라), (바) 통합: 노령층과 청년층은 상호 협동적 관계 속에서 공존할 수 있다.

(라) 황폐한 고원에 묵묵히 도토리를 심는 실천을 통해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를 전달한다.

(바) {(노인 활용 → 청년 일자리 증가) + 고령화 산업 발달} → 고령 사회는 축복

(마) 고령화 사회 → 노인 권력 강화 → 노인층 Vs. 청년층 - 세대 갈등

(사) [노인 → 우수한 판단력, 계획력] → 더 중요한 일 (지휘자, 조연자 역할) 수행

[논리평면] 가치추론, 사실추론

	전제	결론	가치
통합	노인	청년층과 조화롭게 공존 가능	G
(라)	노인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	
(바)	노인 활용	청년 일자리 증가, 실버산업 발달	
(마)	노인	청년층과 경쟁 관계로 인식하고 갈등	b

	전제	결론
(사)	노인 - 우수한 판단력, 계획력 → 지휘자, 조연자의 역할 수행	사회적 효율성 높아짐
(바)	노인을 사회의 길잡이 역할로 활용하자는 운동	노인 활용 운동 성공

[예시답안] 560자

노령층과 청년층은 상호 협동적 관계 속에서 공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라)에 나오듯 노인은 황폐한 자연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하여 자연을 가꾸는 숭고한 가치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바)에 나오듯 노인을 활용해야 청년 일자리가 증가한다면서 노인 고용 확대 운동까지 실시하고 있고, 고령화 산업 발달이 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마)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마)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권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청년층과의 세대 갈등이 깊어진다고 하지만, 노인은 청년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조화로운 공존 속에서 청년층의 사회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바)에 나타난 노인 고용 확대 운동이 성공하려면 노인을 사회 길잡이 역할로 활용하자고 해야 한다. (사)에 따르면, 노인은 우수한 판단력과 계획력을 갖고 있어서 지휘자, 조연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고용을 확대할 때, 그들이 청년층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맡으면 사회적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대학 제시문 해설]

-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생활과 윤리』(미래엔, 2016)에 실린 장 지오노의 의 일부이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환경문제가 미래 세대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이해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한 노인의 행위가 미래 세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고독한 양치기인 엘지아의 나무를 심는 행위가 황폐한 고원을 풍성한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고원으로 변모시키는 결과를 통해서, 비록 한 개인의 사소한 노력이지만 이러한 노력은 미래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독서와 문법』(천재교육, 2016)에 실린 지문의 일부이다. 이 글은 30년 후인 2040년 미래 한국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쓴 기사문이다. 이 기사문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 풍조의 변화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될 것이라고 보도한다. 예를 들어,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새벽 청년당’은 노인을 대변하는 ‘노인당’의 정책 참여의 증가로 젊은이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이 제시문에서는 다가올 고령화 사회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것이라는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국어 II』(동아출판, 2014) 교과서에 실린 신윤동욱의 「고령 사회는 축복이다」와 고등학교『사회』(천재교육, 2014)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변화」에서 각각 발췌하여 문제 출제 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노동력 부족, 생산성 하락, 노인 부양 부담 증가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고령화 사회에서도 노인 고용에 따른 젊은 세대의 고용 증가와 실버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논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고전』(해냄에듀, 2014)에 실린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에서 발췌한 후 출제 의도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편집한 텍스트이다. 이 글은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반박하며 노년기가 되어야 갖출 수 있는 원숙함과 지혜, 통찰력, 판단력 등 노년의 의미를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에서는 노년기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노인과 젊은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학 채점기준]

###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라)의 사례와 제시문 (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제시문 (마)에 나타난 새벽 청년당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5~20점 부여

① 제시문 (라)와 (바)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평가: 제시문 (라)의 노인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후세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제시문 (바)에서는 노인 고용이 젊은 세대의 고용을 창출하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② 제시문 (라)와 (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했는지 평가: 제시문 (라)의 후세대를 위한 노인의 헌신과 제시문 (바)의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용 증가와 새로운 산업 창출은 노인과 젊은 세대의 조화로운 상호 공존과 연결된다.

③ 제시문 (라)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마)의 주장을 비판했는지를 평가: 제시문 (마)에서는 노인과 젊은 세대가 경쟁적이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시문 (라)와 제시문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과 젊은 세대는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비판받을 수 있다.

- 제시문 (라)와 (바)의 논지 중 하나만 파악했을 경우: 3~4점 부여
- 제시문 (라)와 (바)의 논지를 모두 정확히 파악했을 경우: 7~8점 부여
- 제시문 (라)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3~4점 부여
- 두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제시문 (마)의 주장을 비판하여 정확히 서술했을 경우: 7~8점 부여

2) 제시문 (사)에서 나타난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과 그 역할을 파악하고 제시문 (바)에서의 노인고용확대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식의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5~20점 부여

① 제시문 (사)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였는지 평가: 제시문 (사)의 노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하였고, 조망능력,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키잡이'와 조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② 제시문 (바)의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식을 제시문 (사)를 근거로 서술하였는지 평가: 제시문 (사)에서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키잡이와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제시문 (바)에서의 노인 고용 기회 확대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제시문 (사)에서 노인의 능력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5~10점 부여
- 제시문 (사)에서 노인의 능력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했으나, 이를 노인고용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식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지 못했을 경우: 11~15점 부여
- 제시문 (사)에서 노인의 능력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노인고용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식에 해당한다고 적절히 설명한 경우: 16~20점 부여

-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 1~25자	1점 감점
		±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제시문 (라)와 (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제시문 (마)의 주장을 비판했는지 평가(20점): 5~20점	제시문 (라)와 (바)의 논지 중 하나만 파악했을 경우	3~4점
		제시문 (라)와 (바)의 논지를 모두 정확히 파악했을 경우	7~8점
		제시문 (라)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3~4점
		두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제시문 (마)의 주장을 비판하여 정확히 서술했을 경우	7~8점
	②제시문 (사)에서 노인의 역할을 파악하여 제시문 (바) 주장의 근거로 설명했는지 평가(20점): 5~20점	제시문 (사)에서 노인의 능력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5~10점
		제시문 (사)에서 노인의 능력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했으나, 이를 노인고용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식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지 못했을 경우	11~15점
제시문 (사)에서 노인의 능력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노인고용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식에 해당한다고 적절히 설명한 경우		16~20점	

[대학 예시답안] 566자

제시문 (마)의 새벽 청년당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 청년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인과 젊은 세대가 경쟁적이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된다는 이 주장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후세대를 위해 노인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라)의 사례와 노인 고용이 젊은 세대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바)의 논지에 입각해 보면 두 세대가 조화롭게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판 받을 수 있다. 제시문 (바)는 노인의 일자리를 청년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운동이 성공하려면, 제시문 (사)에서 주장한 것처럼 노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경륜, 전문지식, 조망능력,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체력은 젊은이에게 뒤쳐질 수 있으나 사회에서 ‘키잡이’와 조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고령화 사회에도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문제 해결

“(가)에 나타난 문제를 (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다)를 바탕으로 논술하시오.”

문제 [핵심]	B (문제 현상 개념화)
문제 [상술]	b (문제 현상 구체화)

원인 분석	원인 P	문제 B
원인 주장	P (추상)	
기준 (나)	p (구체)	b
적용 해석	p (적용)	B

대안 제시	대안 P	해결 G
대안 주장	P (추상)	
기준 (다)	p (구체)	g(~b)
적용 해석	p (적용)	G(~B)
대안 사례	p' (사례)	g'(~b)

## (1문단) 문제 정리

[핵심] 지금 우리 사회는 B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술) 제시문 \_\_\_에 나오듯 b라는 것이다.

## (2문단) 원인 분석

[주장]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P이다.

(기준) 제시문 \_\_\_를 보면, p에 따라 b가 나타나고 있다.

(적용) 이와 같이 p로 인해서 B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3문단) 대안 제시

[주장] 이러한 문제는 P로 해결할 수 있다.

(기준) 제시문 \_\_\_에 나오듯, p가 있으면 g(~b)가 나타난다.

(적용) 이처럼 p를 통해 G(~B)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 예를 들어, p'를 일으키면 g'(~b)할 수 있을 것이다.

## 건국대 인문사회계1 2016학년도 기출 2번

- ☞ [가]와 [나]의 논지를 연계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801~1,000자)

[가]

회전문의 축은 중심에 있다. 축을 중심으로 통상 네 짝의 문이 계속 돌게 되어 있다. 마치 계속 열려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지만, 사실은 네 짝의 문이 계속 안과 밖을 차단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실질적으로는 열려 있는 순간이 없이 계속 닫혀 있는 것이다. 또한 회전문을 이용하는 사람은 회전문의 구조와 운동 메커니즘에 맞추어야 실수 없이 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다. 어린아이, 장애인, 또는 민첩성이 없는 노인은 쉽게 그것에 맞출 수가 없다. 맞이하는 사람의 방식과 틀에 들어오는 사람이 맞추도록 하는 열림은 진정한 열림이 아니다. 그것은 회전문의 축의 구조처럼 맞이하는 자가 모든 것의 중심에 군림하려 하고 타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여닫이문은 말 그대로 열고 닫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열어 놓을 수도 있고 닫아 놓을 수도 있다. 들어오는 사람이 원하면 반쯤 열고 중간에서 있다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여닫이문의 축이 맨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축이 주변에 비껴 있으므로 해서 문의 기능은 원활하고 다양하지만, 막상 문설주에 붙어 있는 '돌쩌귀'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 돌쩌귀가 제공하는 기축(機軸)성은 열림과 닫힘을 가능하게 하면서 표가 나지 않는다. 이는 그가 문을 지지하고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축'의 기능을 가질 뿐이지 통제적 기능을 지닌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돌쩌귀는 열고 닫을 때마다 다 자신에게 힘이 실리는 것을 고스란히 감내한다.

사회는 각 개인의 여닫이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은 자기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닫음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타자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위해 엽을 행할 때가 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닫힘과 완전하고 영원한 열림은 존재할 수 없다. 수없이 많은 열고 닫음이 있을 뿐이다.

- 김용석, 「열린 사회의 신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

## [나]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원을 찾아 수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물을 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일은 주로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담당한다. 따라서 이들이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물의 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이들은 주로 물동이를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지는 방식으로 물을 길어 오는데 이러한 방식은 목과 등에 큰 무리를 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큐 드럼(Q drum)’이다. 큐 드럼은 도넛 모양의 플라스틱 용기에 끈을 달아서 어린이도 쉽게 50리터의 물을 길어 올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큐 드럼을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5배가량 많은 물을 운반할 수 있다. (중략)

우리는 기술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에서 10억 명은 아직도 과학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으로 분류된다. 첨단 기술이 시공간을 넘나들며 새로운 시대와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적인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기술조차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신 휴대 전화, 전기 자동차와 같이 선진국 소비자나 개발도상국 부유층을 위한 첨단 기술이 아닌,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기술은 없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적정 기술이다.

적정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제협력단은 아프리카 농민들에게 못줄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 주고 1960~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쓰던 탈곡기를 보급해서 저개발지역 사람들의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해당 기술이 그 나라 어느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을 적정 기술이라고 부른다. (중략)

적정 기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현지인들이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렴한 비용은 현지인이 적정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적정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고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제품의 크기는 적당해야 하고 사용 방법은 간단한 것이 좋다. 또한 특정 분야의 지식이 없어도 현지인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기술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제품을 만들어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정 기술은 원칙적으로 중앙 집중형 에너지원이 아닌, 분산형이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어떤 지역과 시대에 적절한 기술이 다른 지역과 시대에서는 적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리적·문화적·사회적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적정 기술에는 요구된다.

- 김정태·홍성욱, 「인간 중심의 기술, 적정 기술」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

[라]

기차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서히 살레 풍의 역사 지붕이 움직였다. 기차를 따라 달리는 원주민들의 고함 소리가 가팔라졌다. 물건 값이 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무 조각상 얼굴들이 마지막으로 승객들의 구매 의향을 묻는 듯 차창 너머로 튀어 올랐다 사라졌다.

“일 실링 육 펜스에 가져가세요, 나리!”

흡사 날아오는 공을 잡듯 사람들의 손들이 바빠졌다. 한 남자가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일 실링 육 펜스를 꺼내 던졌다. 따라오던 한 늙은 원주민이 숨을 헐떡거리며 마른 발가락으로 모랫바닥을 세차게 차내면서 사자상을 던져 주었다.

흑인 아이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개들도 떠나는 기차를 배웅하듯 꼬리를 살살 흔들었다. 토담집의 한 여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떠나는 기차를 바라보았고 역장은 서서히 살레 지붕의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늙은 원주민은 갈빗대 사이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모래 속에서 불안한 균형을 잡은 채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무언가를 받는 자세로 떠받쳐진 손바닥에는 조각품의 값으로 받은 일 실링 육 펜스가 놓여 있었다.

이제는 어찌해 볼 도리도 없이 기차는 꼬리를 흔들거리며 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객실로 돌아왔다. 그는 의기양양해 있었다.

“자, 이걸 보시라.”

그가 사자상을 흔들며 말했다.

“일 실링 육 펜스에 샀어.”

“뭐라구요?”

그녀가 어이가 없는 듯 말했다.

“장난삼아 마지막으로 값을 흥정했지. 그랬더니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 그 노인이 기차를 따라오며 일 실링 육 펜스에 가져가라고 하더군.”

그가 만면에 희색을 띠며 말했다.

“자, 이거 당신 선물이야.”

여자는 조각상을 받아들었다. 딱 벌어진 입, 뾰족한 이빨, 검은 혀 그리고 섬세한 갈기! 여자는 마치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듯 초점을 잃은 두 눈으로 조각상을 바라보았다. 생각대로 일이 잘되어 가지 않을 때 아이들이 짓는 표정처럼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눈썹은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고 입 가장자리는 신경질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자는 손가락을 들어 올려 사자의 갈기를 어루만졌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자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역력했다.

“뭐가? 도대체 왜 그래?”

당황한 남편이 물었다.

“이걸 그렇게 사고 싶었으면…….”

흥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왜 처음부터 사지 않고 그렇게 뜸을 들였죠? 왜 기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샀냐 말이에요. 그것도 일 실링 욱 펜스에 말이죠.”

여자는 사자상을 남편에게 떠다밀었다.

“이거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 아니야? 무척 맘에 들어 했잖아.”

“물론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아주 훌륭한 조각품이라구요.”

여자는 마치 조각품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맹렬하게 말했다.

“당신이 이 조각품이 아주 맘에 드는데 너무 비싸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구.”

“이봐요.”

여자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격하게 말을 내뱉었다.

“당신…….”

여자는 사자상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버렸다.

남편은 망연자실 여자를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여자는 모퉁이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 채 창밖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갖가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교차하는 것 같았다. 일 실링 욱 펜스라! 나무 조각과 다리의 근육과 채찍 같은 꼬리를 사는 데 일 실링 욱 펜스라! 그렇게 늠름하게 벌려져 있는 입과 파도처럼 말려 있는 검은 혀에 그토록 정교한 목의 갈기까지 얻는 데 일 실링 욱 펜스라! 분노로 인한 열기가 여자의 다리를 타고 목까지 올라와 귀에 모래를 쓸어 내는 소리를 쏟아 부었다. 그 소리는 한 동안 계속되었다. 여자는 속이 메스꺼워짐을 느꼈다. 피로와 무기력함과 불현듯 찾아든 공허감이 여자의 사지로 퍼져나갔다. 여자의 육신에서 소중한 그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 네이딘 고디머, 「로디지아 발 기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가]와 [나]의 논지를 연계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801~1,000자)

### [논제분석]

#### □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연계하여,

제시문들의 논지를 연계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자주 등장하는 요구는 아니지만, 가끔씩 등장하고 있으니 대처법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연계는 곧 연결이다. 두 제시문은 모두 문제 상황 분석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 즉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와 (나)는 보편 명제를 정리하기 위한 핵심-상술 구조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가)와 (나)는 서로를 상술해주는 역할로 서로에게 연결되면 된다. 물론, 공통점을 중심으로 연결지점을 하나 만들어서 연계해도 될 것이다. 어떻게든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면 충족은 될 테니, 대전제를 정리하는 선 안에서만 자율적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자.

#### □ [라]의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

앞서 분석된 (가)와 (나)에서 문제 분석과 해결의 원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문제 해결의 원리로 풀면 되는데, 근본 원리는 사실 추론이나 가치 추론과 동일한 연역 추론이다. 문제를 분석하는 문단 한 번,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단 한 번 정도로 나눠서 작성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 [독해]

(가) 회전문은 열린 듯 보이지만 실상 닫혀 있다. 문의 축이 중심에 있어 사람을 통제하는 폐쇄적 문이다.

(나) 적정기술이란, 약소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서 당사자들의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편익을 누려야 한다.

(라) 상황: 제3세계의 현지인이 남편에게 사자상을 판매하려고 함

대응: 남편은 마지막까지 협상하여 혈값에 사자상을 구매함

[논리평면] 문제해결

문제	전제	결론
(가)	회전문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굳게 닫힌 사회 중심축의 획일적 구조에 타자가 맞춰야 함
(라)	남편(서구식 합리주의)	대등하게 협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방적 횡포 남편의 이익중심적 합리주의에 맞춰 불공정 거래가 이뤄짐

해결	전제	결론
(나)	(저렴하고, 쉬운) 적정 기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원동력 제공 (약소 국가 문제 해결)
(라)	온라인 쇼핑몰 센터: 상품 기획, 홍보, 판매 대행 장인: 상품 제작 및 공급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유롭고 원활하게 작품을 판매할 수 있음

[예시답안] 940자

제시문 (가)에 나타난 회전문은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닫혀 있다. 문의 기축이 중심에 위치해 있어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폐쇄적인 문이다. 이는 중심축이 정한 획일적 구조에 출입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시문 (라)에 나타난 문제 상황은 ‘남편’으로 나타난 ‘회전문’이 서구식 합리주의를 강제하는 횡포라고 분석된다. (라)에는 제3세계 국가를 여행하고 있는 부부의 여정이 그려져 있다. 남편은 아내가 갖고 싶던 사자상을 아내에게 선물했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 남편은 장인의 급박함을 이용해 매정하게 흥정하여 사자상을 헐값에 사들였고, 이러한 비정한 합리주의에 아내는 분노한다. 남편은 (가)에서 말한 회전문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공정한 거래인 듯 협상을 벌이지만, 실제로는 사정이 급박한 제3세계의 장인이 남편이 제안한 불평등 거래에 어쩔 수 없이 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횡포에 아내는 분노로써 아쉬움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원리는 제시문 (나)에 제시된 적정기술이다. 적정기술이란, 약소국가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기술로서, 실제 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렴하고, 쉬운 기술이다. 적정기술은 해당 지역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하는 희망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적정기술은 (라)에 나타난 회전문의 횡포를 해결할 수 있다. (라)의 상황에 해당하는 적정기술로서 장인들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사고파는 쇼핑 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다. 장인들이 각자 상품을 제작해서 쇼핑몰에 공급하면, 센터에서는 상품을 촬영하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사이트와 국제적인 유통망을 통해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인들은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그들의 횡포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될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본 문항에서는 서로 다른 두 글에서 상호 연계가 가능한 요소를 찾아서 통합한 뒤 그것을 구체적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주체적 분석을 진행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였다. [가]의 화두는 ‘열림’과 ‘닫힘’이고 [나]의 화두는 ‘적정 기술’인데, 두 글은 세상에 대한 ‘탈중심의 사고’와 함께 현세상이 안고 있는 사회적 격차와 갈등에 대한 ‘상생’의 해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제시문 [라]는 열핏 부부간의 성격적·심리적 갈등을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문제가 되는 것은 관광객과 늙은 원주민의 격차로 표현된 계층간·지역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탈중심의 사고’와 ‘공생’을 주요 화두로 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해법을 제시한 수험생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통합적인 사고와 문제의 이면을 살피는 통찰력, 창의적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 [대학 문제해설]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자아와 타자의 상생적인 만남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기반을 둔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담고 있다. [가]는 회전문과 여담이문이 갖는 특성을 구별하고 있다. 회전문이 열림과 닫힘의 교차적 상태를 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닫혀 있는 반면에 여담이문은 열림과 닫힘의 관계가 매우 유연하다. 뿐만 아니라 중심에 위치하지 않으면서 문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미덕을 지니고 있다. 회전문과 여담이문의 이러한 특징은 단순히 문의 특징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 맥락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특정 사회의 구조나 세계 구조를 대상으로 하여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결국 [가]의 글은 중심과 주변, 열림과 닫힘, 군림과 공존에 관한 사유 틀을 대비하는 것이다. [나]의 적정기술에 관한 지문은 두 문의 상징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해 준다. 최첨단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적정 기술이다. 적정 기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진정한 공생, 즉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상호적 열림의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지인들의 지리적·문화적·사회적 상황에 맞는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정한 열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적정기술은 타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고 도모하는 여담이문적 만남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좋은 예가 되는 것이다.

[라]의 원주민 노인과 여행 중인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흥정과 매매의 과정은 [가]와 [나]의 핵심적인 논지를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남편의 자세는 회전문적인 닫힌 자세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많은 공을 들여 제작한 조각상을 마지막 순간까지 흥정하여 싼 가격에 구매하는 자세는 원주민 노인에 대한 배려를 상실하고 있다. 타인의 노력과 사정을 고려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닫힌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을 판단의 중심에 놓고 크게는 현지인의 삶, 작게는 사자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여자가 그런 남편을 비난하는 것은 배려의 태도가 결여된 남편에 대한 실망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는 여담이문의 사고 구조를 바탕으로 사자상으로 형상화된 원주민의 삶과 그 예술적 표현의 맥락을 수용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분석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말고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여행객으로 상징화된 선진국과 원주민으로 상징화된 개발도상국간의 상호이해와 인정에 관한 논의로 발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회적 지원은 그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결핍된 것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

이고 그들 스스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이야 말로 타인을 이해하는 열림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나는 개발도상국 원주민과의 여담이문적 만남에 대한 남편의 이해와 인식의 제고이다. 다른 하나는 공정 무역 혹은 윤리적 소비의 예처럼 원주민이 자신의 생산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팔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공정무역 아래서도 제3세계의 삶이 선진국의 생산과 소비의 구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수험생이 나름의 경험과 사고에 기초하여 독창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전국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사회1 1번

☞ 인간 행동에 대한 [가] 또는 [나]의 관점을 적용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가]

최근 밝혀진 십 대의 뇌에 관한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몇몇 학자들은 이른바 ‘적응적 사춘기’ 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십 대는 설익은 존재가 아닌, 안전한 가정을 떠나 복잡한 바깥 세계로 나가는 데 필요한 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갖춘 매우 민감하고 적응성이 뛰어난 존재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십 대들이 그런 행동의 위험보다 모험에 따르는 보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춘기에는 뇌의 보상 중추를 촉진하고 학습을 돕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반응하는 뇌의 민감성이 절정에 이른다. 이 때문에 십 대들은 학습 속도가 빠르고, 성공과 패배에 따른 보상에 유달리 민감하다. 그리고 십 대의 뇌는 사회적 유대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호르몬인 옥시토신에도 민감하다. 그런데 도파민과 옥시토신에 관계하는 신경망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둘 중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른 하나도 덩달아 활성화된다. 사춘기에 이 두 가지가 모두 활성화되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사춘기의 또 다른 특성, 즉 십 대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린 사람보다는 또래들과 어울리기를 더 좋아하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또래와 함께하려는 이러한 열정은 새로운 것에 끌리는 십 대의 일반적 특성이 사회적 영역으로 표출된 것이다. 십 대들은 익숙한 가족들에 비해 서로에게 새로운 것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략)

사춘기는 이렇듯 모험과 흥분, 새로움, 또래와의 교류를 선호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양상은 현대 문화나 부족 문화에 상관없이 사실상 거의 모든 인간 문화에서 나타난다. 단, 문화가 사춘기에 나타나는 행동 양상들과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사춘기의 징후를 증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가 사춘기 자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사춘기가 문화의 산물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사춘기의 특이성은 수천 세대에 걸친 진화의 과정에서 발현된 것이다.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에 이 유전자들과 발달 과정은 큰 역할을 담당한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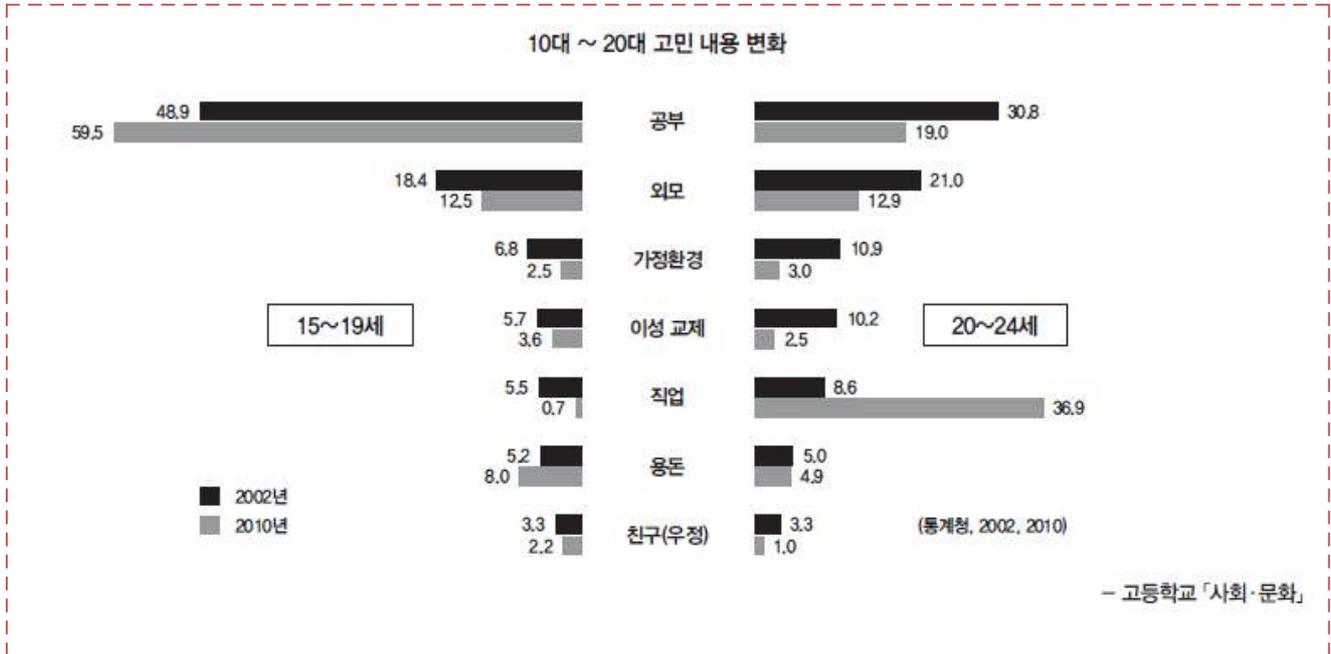
‘여성다운’ 여자의 본질적 특질로 불리는 수동성은 유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수동성을 생물학적 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제로 그것은 교육자들이나 사회가 그녀에게 강요하는 운명이다. 남자아이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는 것은 타인에 대한 그의 존재 방식 자체가 자기에 대해 스스로를 설정하도록 그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에 대한 자유로운 운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단련해 나간다. 다른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강한 의지와 독립심을 겨루면서 여자아이들을 경멸한다. 나무에 기어오르고, 친구들과 격투하며 거친 장난으로 대결하고, 자기 육체를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의 수단과 투쟁의 도구로 파악한다. 유희스포츠싸움도 전시련을 통하여 자기 힘의 균형 있는 쓰임새를 발견한다. 동시에 폭력에 대한 준엄한 인내의 가르침을 터득한다. 그는 구타를 견디고 고통에 굴하지 않으며, 어렸을 때의 눈물을 부정하는 법을 배운다. 그는 계획하고 창조하고 감행한다.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 존재하는 그 자신 역시 시험을 받는다. 자기의 남성다움에 의문을 던지며, 그 결과 어른과 친구에 비교하여 스스로에게 많은 의문을 품는 수가 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기의 객관적 형태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투기(投企)\* 안에서 자기를 확립하려는 그의 의지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이 없다는 점이다. 그가 자기의 존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오직 무엇인가를 행한다는(만드는) 동작을 통해서이다.

이와 반대로, 여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기의 자주적 존재와 ‘타자 존재’ 사이에 충돌이 있다. 그녀는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자신을 객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 결과 자율성이 부정된다. 그녀는 마치 살아 있는 인형처럼 다뤄지고 자유를 금지당한다. 이리하여 일종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세계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역시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주체로서의 자기를 확립할 용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격려를 받는다면,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와 같은 활력과 탐구심, 진취적인 기상과 대담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여자아이가 남성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투기(投企): 현재를 초월하여 미래로 자기를 내던지는 실존의 존재 방식.

-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

[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인간 행동에 대한 [가] 또는 [나]의 관점을 적용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독해]

(가) 청소년 ⇒ 생리적으로 적응·학습 능력 탁월 ⇒ 도전(사궤)에 대한 보상 고평가 ⇒ 도전(사궤) 행동 증가

(나) 성별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 ⇒ 사회 속에서 교육을 통해 통제적으로 설정됨

(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연령대별 고민의 비중이 달라지고, 인격적 교류보다는 당면 과업에 대한 고민이 큼

1)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별 비중이 달라짐

20대의 직업 고민은 2010년이 되면서 약 4배 상승, 10대의 공부 고민은 2010년이 되면서 10%p 상승

2) 이성 교제와 친구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음

[논리평면] 가치추론(종합) - 기준과 대상과의 내용적 관계를 중심으로 설정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가)	청소년: 생리적으로 적응력 탁월	도전(사궤) 행동 증가	G
대상	(다)	청소년	이성 교제와 친구에 대한 관심 적음	b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나)	자아 정체성	사회적 요구의 영향을 많이 받음	G
대상	(다)	청소년의 고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짐	g

[예시답안] 588자

인격 형성의 요인에 대해 생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가)에서 나타나듯 청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적응력이 뛰어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은 도전에 따른 보상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이는 또래 간 교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로 해석하기 힘든 현실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에 따르면 시대가 달라져도 변함없이 이성 교제나 친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과 청년이 나타난다. 이는 청소년의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교류 선호에 반하는 결과로서 (가)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다.

반면, 정체성 형성에는 사회적 요구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도 있다. (나)에는 여성에게 수동성을 강요하여 주체성을 기르지 못하게 하고, 남성에게 능동성을 강조하여 주체성을 기르게 하는 현실이 나타난다. 이는 시대가 원하는 인간상이 각 인격체에 교육의 이름으로 주입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다)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02년에서 2010년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10대는 공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20대는 직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이는 생존을 강조하는 사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 [대학 출제의도]

2020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소신껏 답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문제에 포함된 모든 제시문과 도표는 모두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인용하였다. 학교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는 가운데 논리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워온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춘기 특성과 청소년의 고민 등 수험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을 화제로 삼는 가운데 자기 생각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모의논술고사에서 우수학생 선발을 위하여 주관점을 둔 평가요소는 자료에 내재한 의미요소에 대한 깊고 정확한 판단 능력과 이질적인 정보의 비판적인 연계 통합을 통한 주체적 문제해결능력이다. 자료의 단순한 요약과 연결로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고, 가치 있는 정보를 잘 선별하는 가운데 그 이면적 연결고리를 찾아서 논리적 틀을 수립하는 심도 있는 사유 과정을 거쳐야만 훌륭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논술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했다.

[문제 1]은 인간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을 이해하고 그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도표를 분석하도록 했다. [가]는 인간 행동의 요인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대하여, [나]는 인간 행동이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됨을 강조한다. 둘 다 나름의 근거와 설득력을 지니는 주장이지만, 문제에서는 그 주장을 [다] 도표의 객관적 정보와 연결시킴으로써 수험생들로 하여금 비판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도표 [다]는 한국의 10대와 20대 청소년들이 ‘공부’와 ‘직업’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이는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함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생물학적인 관점으로는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고민의 항목과 수치가 크게 바뀐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10대에서 ‘공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20대에서 ‘직업’에 대한 고민이 대폭 증대된 현상은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판단을 정확히 내린 뒤 도표에 나타난 의미요소, 예컨대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회적 억압에 억눌려 자유로운 자기실현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잘 짚어낸다면 출제 의도에 부응한 답안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대학 문제해설]

[문제 1]은 인간 행동에 대한 [가] 또는 [나]의 관점을 적용하여 도표 [다]를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가]와 [나] 글의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그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도표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문제의 요구 사항이다.

[가]는 인간 행동의 요인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춘기는 모험과 흥분, 새로움을 추구하고 또래와의 교류를 선호하는 시기인데, 이는 뇌의 보상 중추를 촉진하고 학습을 돕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또래 간의 사회적 유대 관계에 만족감을 느끼게 해 주는 신경 호르몬인 옥시토신에 의해 발현된 것이라고 본다. 사춘기 아이들이 보이는 특성은 수천 세대에 걸친 진화의 과정에서 발현된 것으로서 문화적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나]는 인간 행동의 요인을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 여성과 남성이 겪는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은 생물학적인 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라는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성이 ‘남성다움’ 것은 자신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서 자유롭게 자기를 단련하였기 때문이며, 여성이 ‘여성다운’ 것은 자기의 자주적 존재와 ‘타자 존재’ 사이의 충돌 속에서 자율성이 부정되고 자유를 금지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행동 양식은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분석 대상으로 제시된 도표 [다]에는 10대~20대의 고민 변화를 조사한 결과가 담겨 있다. 사춘기에 해당하는 15세~19세와 대학생 시기인 20세~24세의 고민 내용이 함께 제시돼 있으며, 2002년과 2010년의 두 시기에 생겨난 차이가 반영돼 있다. 도표에 나타난 결과는 인간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관점과 사회 문화적으로 설명하는 관점 가운데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도표에 나타난 특징적인 의미요소를 잘 분석하는 것이 1번 문항 풀이의 관건이 된다.

도표 [다]에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먼저 10대, 20대 모두 ‘공부’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0대의 경우 8년 사이에 ‘공부’에 대한 고민이 더 증가해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항목을 이루고 있다. 20대의 경우 8년 사이에 ‘공부’의 비중이 다소 줄어든 대신 ‘직업’에 대한 고민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외모’가 또 하나의 중요한 고민 항목이지만 그 비중은 8년 사이에 비중이 많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 환경’이나 ‘이성 교제’, ‘친구’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편이며, 8년 사이에 비중이 악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표 [다]에 나타난 결과는 인간 행동의 요인을 생물학적 측면에서 찾는 [가]의 관점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가]에서 10대가 모험과 흥분, 또래 간의 사회적 유대 등을 추구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보인다고 한 것을 상기하면 도표에서 ‘공부’보다 ‘외모’, ‘이성 교제’, ‘친구’ 같은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은 의외일 수밖에 없다. ‘공부’에 대한 고민을 보상 증추 활성화와 뇌의 민감성에 따른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보다는 학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생물학적인 관점으로는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고민의 항목이 크게 바뀐 현상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10대에서 ‘공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20대에서 ‘직업’에 대한 고민이 대폭 증대된 현상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때 도표 [다]는 인간 행동을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설명하는 [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에서 제시한 요구는 [가] 또는 [나]의 관점을 적용해서 [다] 도표를 분석하라는 것이다. 논술고사 응시자는 [가]와 [나] 중 어느 관점이 합당한지를 논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 도표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에 나타난 젊은이들의 고민과 그 변화 양상은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십 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공부’에 대한 고민이 증대된 것은 대학 입시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큰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20대에서 8년의 시차를 두고 ‘직업’에 대한 고민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도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취업난과 청년 실업 문제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도표 [다]는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사회적 억압에 억눌리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자유로운 자기실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응시자들이 이러한 분석까지 잘 도출해서 서술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채점기준]

[문제 1]은 인간 행동에 대한 [가] 또는 [나]의 관점을 적용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문제 1] 답안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와 [나]에 담긴 '인간 행동'에 대한 관점 파악 및 [다] 도표의 정확한 분석	<p>① [가]의 인간 행동의 관점을 파악하였는가?</p> <p>[가]는 인간 행동의 요인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사춘기의 행동은 도파민과 옥시토신에 의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수천 세대에 걸친 진화의 과정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p>
	<p>② [나]의 인간 행동의 관점을 파악하였는가?</p> <p>[나]는 인간 행동의 요인을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으로 보이는 인간 행동의 양식은 사회적 여건과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남성이 '남성다움' 것과 여성이 '여성다움' 것은 모두 그런 기질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런 기질이 발현되도록 교육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p>
	<p>③ [다] 도표를 정확하게 분석하였는가?</p> <p>[다]는 10대와 20대의 고민 변화를 제시한 표이다. 두 집단 모두 공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나, 8년의 시차를 두고도 10대에서는 '공부'에 대한 고민이 더 늘어났고, 20대에서는 '직업'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늘어나 났다는 것이다.</p>
[가]와 [나]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수용 및 [다] 도표의 합리적 분석	<p>④ [가]와 [나]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다] 도표를 설득력 있게 분석하였는가?</p> <p>인간 행동의 양식을 설명하는 [가]와 [나]의 관점이 서로 대립한다. 지원자들은 대립되는 지점을 찾아야 하고, [다]에서 보인 10대~20대의 고민 변화를 분석하기에 어떠한 관점을 취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다. [가]와 [나]의 핵심 요지를 단순히 '사춘기'의 특성, '성'과 관련되는 특성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도표 [다]는 인간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생물학적인 여건에서 찾고자 했던 [가]의 주장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우며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인간 행동의 관점을 해석한 [나]의 관점을 수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p>
정합적인 논리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 건국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사회1 2번

- ☞ [가]에 제시된 ‘또래 간의 사회적 유대’와 [나]에서 말하는 ‘자기의 자유와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갈등을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가]

최근 밝혀진 십 대의 뇌에 관한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몇몇 학자들은 이른바 ‘적응적 사춘기’ 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십 대는 설익은 존재가 아닌, 안전한 가정을 떠나 복잡한 바깥 세계로 나가는 데 필요한 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갖춘 매우 민감하고 적응성이 뛰어난 존재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십 대들이 그런 행동의 위험보다 모험에 따르는 보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춘기에는 뇌의 보상 중추를 촉진하고 학습을 돕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반응하는 뇌의 민감성이 절정에 이른다. 이 때문에 십 대들은 학습 속도가 빠르고, 성공과 패배에 따른 보상에 유달리 민감하다. 그리고 십 대의 뇌는 사회적 유대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호르몬인 옥시토신에도 민감하다. 그런데 도파민과 옥시토신에 관계하는 신경망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둘 중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른 하나도 덩달아 활성화된다. 사춘기에 이 두 가지가 모두 활성화되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사춘기의 또 다른 특성, 즉 십 대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린 사람보다는 또래들과 어울리기를 더 좋아하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또래와 함께하려는 이러한 열정은 새로운 것에 끌리는 십 대의 일반적 특성이 사회적 영역으로 표출된 것이다. 십 대들은 익숙한 가족들에 비해 서로에게 새로운 것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략)

사춘기는 이렇듯 모험과 흥분, 새로움, 또래와의 교류를 선호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양상은 현대 문화나 부족 문화에 상관없이 사실상 거의 모든 인간 문화에서 나타난다. 단, 문화가 사춘기에 나타나는 행동 양상들과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사춘기의 징후를 증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가 사춘기 자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사춘기가 문화의 산물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사춘기의 특이성은 수천 세대에 걸친 진화의 과정에서 발현된 것이다.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에 이 유전자들과 발달 과정은 큰 역할을 담당한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

[나]

‘여성다운’ 여자의 본질적 특질로 불리는 수동성은 유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수동성을 생물학적 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제로 그것은 교육자들이나 사회가 그녀에게 강요하는 운명이다. 남자아이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는 것은 타인에 대한 그의 존재 방식 자체가 자기에 대해 스스로를 설정하도록 그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에 대한 자유로운 운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단련해 나간다. 다른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강한 의지와 독립심을 겨루면서 여자아이들을 경멸한다. 나무에 기어오르고, 친구들과 격투하며 거친 장난으로 대결하고, 자기 육체를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의 수단과 투쟁의 도구로 파악한다. 유희·스포츠·싸움·도전·시련을 통하여 자기 힘의 균형 있는 쓰임새를 발견한다. 동시에 폭력에 대한 준엄한 인내의 가르침을 터득한다. 그는 구타를 견디고 고통에 굴하지 않으며, 어렸을 때의 눈물을 부정하는 법을 배운다. 그는 계획하고 창조하고 감행한다.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 존재하는 그 자신 역시 시험을 받는다. 자기의 남성다움에 의문을 던지며, 그 결과 어른과 친구에 비교하여 스스로에게 많은 의문을 품는 수가 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기의 객관적 형태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투기(投企)\* 안에서 자기를 확립하려는 그의 의지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이 없다는 점이다. 그가 자기의 존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오직 무엇인가를 행한다는(만드는) 동작을 통해서이다.

이와 반대로, 여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기의 자주적 존재와 ‘타자 존재’ 사이에 충돌이 있다. 그녀는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자신을 객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 결과 자율성이 부정된다. 그녀는 마치 살아 있는 인형처럼 다뤄지고 자유를 금지당한다. 이리하여 일종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세계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역시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주체로서의 자기를 확립할 용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격려를 받는다면,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와 같은 활력과 탐구심, 진취적인 기상과 대담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여자아이가 남성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투기(投企): 현재를 초월하여 미래로 자기를 내던지는 실존의 존재 방식.

-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

[라]

제17회

태수가 건네주는 커다란 헤드폰을 받아서 머리에 쓰며 나는 버스 안을 흘끔 살펴본다. 무슨 음악 디제이(DJ)도 아니고 차 안에서 이런 걸 쓰고 있다니 어색하다. 태수는 곡을 못 찾은 모양이다. 혼자 중얼거린다. 어디 갔지? 지웠나?

그때 갑자기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샘물 방울처럼 또렷하고 생기에 찬 목소리가 내 귓속으로 빠르게 쏟아져 들어온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지

“잠깐만”

나는 태수의 무릎 위에서 앰피스리(MP3)를 가져다 내 손에 쥐는다.

이젠 그게 너무도 익숙하니 꽤 멋진 표정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편하지 않아

그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남자스러움 말야

난 자꾸 그럴수록 마냥 불쾌한 듯 찡그리다가 나중엔 그냥 웃지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나를 전율시킨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이건, 내 이야기잖아!

한순간 온몸이 굳었으며, 마치 누군가의 손이 나타나서 뻗뻗해진 내 몸을 낚아채 잡아끌기라도 한 듯이, 그대로 나는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무엇다워야 한다는 가르침에 난 또 놀라

우린 아마 이렇게 멍들어 가는지도 몰라

습관적으로 모든 일들에 익숙한 척 가슴을 펴지만

그 속에서 굶은 상처는 아주 천천히 우리들을 바보로 만들어

우리는 진짜보다 더 강한 척해야 하므로

다섯 살 때였던가, 내가 여자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한 적 있었다. 엄마는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를 사 와서 내게 입히고, 뭘 하든 기왕이면 예뻐야 한다며 머리핀도 꽂아 주었다. 나는 치맛자락을 날리며 들뜬 표정으로 놀이터로 뛰쳐나갔다. 놀이터를 한 바퀴 돌고 그네와 미끄럼틀을 한 번씩 탄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뿐이었다. 그

뒤로 다시 그 원피스를 입었던가? 그건 기억나지 않는다. 이웃 아줌마들에게 놀림은 당했던 것 같다. 고추가 떨어진다나 뭐라나. 하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이 너무나 상쾌하고 신기해서 마치 우주여행이라도 한 것 같았다.

나만 그럴까.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옷을 입어 보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흥내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닌가. 한 인간의 내면에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이 섞여서 들어 있다는 사실은 이상할 것 하나 없다고 언젠가 엄마도 말했듯이. (중략)

#### 제18회

한번은 반 친구가 집에 놀러 와 함께 게임을 했다. 초등학생 때이다. 친구는 좀 살벌하게 게임을 했다. 이를 악물고 눈에 불을 켜고 실 새 없이 욕설을 뱉어 가며. 나는 기세에 질려 버렸다. 정 그렇게 이겨야했다면야 뭐. 그 애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하며 게임에 져 주었고, 그날 밤 일기에 쓸 게 하도 없어 그 일을 썼다. 일기장 검사를 마친 담임 선생님이 무슨 속셈인지 수업 시간에 나를 지목해 일기장을 읽게 했다. '왜 그런지 그 애는 꼭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았다.'라는 대목을 읽으며 나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가까스로 참았다. 어떻게 애들 앞에서 일기장을 공개하라고 해? 엄마는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도 나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학교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탓도 있었던 듯하다. 어쨌든 일기장 사건 이후 한동안 내가 책상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뒤통수로 청소 도구나 불펜 같은 게 날아왔다.

내 친구들은 나에게 박력을 요구하고 친밀감의 표시라며 인사로 욕을 하고 그 모습을 보는 나도 어느새 머릿속에서 머쓱해지는 느낌만이 머물더라도

딱 봐서 약해 보이는 녀석들은 단숨에 물리치되

나보다 강한 녀석과는 나중에 적이 되지 않기 위해 한 수레 위에 올라타야만 해

다만 왜? 다만 왜?

육교 아래에서 돈을 뜯겼을 때는 정말 무서웠다. 태어나서 제일 많이 맞은 거 아닐까.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가까스로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이미 취한 엄마는 다친 데 없냐고 물은 다음 자기가 집에 돌아와도 해 줄 게 없으니 중학생이 배짱과 힘을 키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술자리의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주겠다고 농담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엄마가 사과를 하면 대부분 받아 주지만 그 다음 날엔 학교도 결석하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정확히 말해 엄마한테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 육교 아래로 잡혀갔을 때 내 주머니에는 이천 원밖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 정도의 돈을 뺏기 위해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붙잡아서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치사함, 그리고 그런 일이 예사로 벌어지는 세상이라니.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겨우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것뿐이었다. 정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만만한 데에 화풀이를 하는 나는 또 얼마나 비겁한가. 스스로 한심한 놈이라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그날 나는 벽을 주먹으로 쳤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다. 거울을 뒤집어 놓은 채.

한 곡의 노래를 듣는 짧은 순간 이 모든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손을 위로 드는 것, 아니면 감았던 눈을 뜨는 것  
가슴에 심장 소리를 여전히 간직하는 당신에게 말해.  
이제 당신 안의 소년을 위로해 줘.

노래가 끝났다.

나의 가슴은 터질 듯 빠르게 뛰었고 아랫배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나는 그제야 정류장을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고등학교 「문학」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가]에 제시된 '또래 간의 사회적 유대'와 [나]에서 말하는 '자기의 자유와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갈등을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독해]

- (가) 또래 간의 사회적 유대: 청소년들은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유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나) 자기의 자유와 가능성: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하고 실현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의지와 그 가능성
- (라)에 나타난 갈등: 남성에게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와 이에 불편함을 느끼는 주인공과의 갈등

[논리평면] 사실추론(종합)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가)	청소년들의 생리적(보편적) 특성	도전과 또래 간 유대를 선호함
대상	(라)	남자 아이들의 대부분	거친 방식과 사회적 적극성을 선호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나)	남성에 대하여	남성다움을 요구하는 사회
대상	(라)	남자 아이들	승부욕 강하고 거친 성향 보임
		주인공	거칠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내면 갈등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나)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체성을 발견·실현하려는 의지 존재
대상	(라)	주인공	'자신다움'을 찾아 실현하려는 투쟁 지속

[예시답안] 949자

사춘기 청소년들은 유전적으로 적응력이 뛰어나고, 이에 따라 본성적 차원에서 모험과 교류를 좋아한다는 견해가 있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생리적 차원에서 학습력이 뛰어난 청소년들은 위험한 도전에 따른 보상을 선호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듯 (라)에 나타난 남자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거칠고 사교적인 모습을 보인다. 주인공을 둘러싼 남자 아이들은 박력있는 모습을 추구하며 쉽게 욕설도 내뱉는다. 이는 도전과 교류를 좋아하는 남성 특유의 유전적 특성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라)의 주인공은 이러한 일반적 남성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어릴 때는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나간 경험에 상쾌함을 느끼기도 했고, 승부욕 넘치는 친구에게 승리를 양보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인공은 성별 정체성을 강요하는 사회의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나)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교육이라는

이름을 아래 남성에게는 능동성을, 여성에게는 수동성을 강요한다. 이에 따라 거칠지 못한 주인공에 대하여 사회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압박과 회유의 방식으로 남성성을 획득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라)의 주인공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성을 지켜나간다. 친구가 건네준 음악에서 듣게 된 가사에는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과 스스로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담겨져 있었고, 주인공 '나'는 여기에 감동과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모든 사람에 내재된 자기 주체성이 발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주체성이 있고, 자기 개성을 발견하고,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고 한다. 주인공이 보여준 인내는 자신의 개성을 지키려는 주체성을 실현한 의지라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주인공은 사회의 압박을 극복하고 '자기다움'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2020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소신껏 답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문제에 포함된 모든 제시문과 도표는 모두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인용하였다. 학교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는 가운데 논리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워온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춘기 특성과 청소년의 고민 등 수험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을 화제로 삼는 가운데 자기 생각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모의논술고사에서 우수학생 선발을 위하여 주안점을 둔 평가요소는 자료에 내재한 의미요소에 대한 깊고 정확한 판단 능력과 이질적인 정보의 비판적인 연계 통합을 통한 주체적 문제해결능력이다. 자료의 단순한 요약과 연결로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고, 가치 있는 정보를 잘 선별하는 가운데 그 이면적 연결고리를 찾아서 논리적 틀을 수립하는 심도 있는 사유 과정을 거쳐야만 훌륭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논술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했다.

[문제 2]는 지문 [가]와 [나]에 제시된 개념을 활용해서 소설 지문에 나타난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논하도록 한 것이다. [라]는 문학 교과서에 실린 은희경 작가의 <소년을 위로해 줘>에서 가져온 것으로, 사춘기 학생이 집단적 압력과 개인적 지향 사이에서 갈등하는 양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문제에서는 [가]와 [나]로부터 '또래 간의 사회적 유대' 및 '자기의 자유와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뽑아서 논의의 거점으로 제시함으로써 생물학적 관점이나 문화적 관점이나 하는 양자택일을 넘어서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롭고도 깊은 통찰을 수행하도록 했다. 집단적 획일성에 대한 개인적 자율성 발현은 [나]의 숨은 취지인 동시에 [라]의 기본 지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정확히 짚어내서 서술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했다. [라] 지문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집단적 유대'에 대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유대'에 대한 지향을 중요한 주제적 요소로 함유하고 있거니와, 이를 적실히 파악했는지를 우수 답안을 가리는 평가요소로 삼음으로써 논술고사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 [대학 문제해설]

지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린 은희경 작가의 '소년을 위로해 줘'라는 소설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문제 2]는 지문 [가]와 [나]에 제시된 개념을 활용해서 지문 [라]에 나타난 갈등을 분석하고 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추상적인 논설 지문과 구체적인 문학 지문을 상호 연계하는 통합적 사유능력과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해결 능력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지문 [가]와 [나]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하여 그 특성을 각기 생물학적 관점과 사회 문화적 관점에 의거하여 설명한 것으로, 인간의 행동특성을 설명하는 여러 개념어를 포함하고 있다. 문제에서는 그 중 ‘또래 간의 사회적 유대’ 및 ‘자기의 자유와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논의의 거점으로 제시해 주었다. 분석에 적용할 개념을 스스로 찾는 과업을 줄여준 대신 개념의 적절한 이해와 적용을 통한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문 [가]에 제시된 ‘또래 간의 사회적 유대’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와 유대를 선호하는 경향을 지향한다. [가]는 그러한 양상이 사춘기의 생물학적 발달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어떤 문화에서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나]에서는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으로 표현되는 행동 특성을 생물학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 가르침’이나 ‘사회적 강요’에 따른 문화적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로부터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제재가 따르는 상황이 사회적 억압이 되어서 정형화된 집단 문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와 [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행동 양상을 설명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만, 그 ‘집단적 성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서로 통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문 [나]의 관점이다. [나]는 인간 행동에 대해 사회적 맥락의 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의 자유’를 발현함으로써 저마다의 개성과 가능성을 펼쳐내는 세상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개인은 세상이 요구하는 획일화된 틀을 벗어나 자율적인 형태로 내면의 욕망과 이상을 펼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에서 지문 [나]로부터 ‘자기의 자유와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뽑아서 제시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나] 글의 이면적이고 궁극적인 취지에 접속해서 깊은 통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시문 [라]에서 문제가 되는 갈등은 ‘또래’로 표상되는 집단의 획일적 억압과 개인의 정체성에 따른 자율적 자기실현 사이의 부딪침으로 볼 수 있다. [가]에서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또래와 어울리려는 열정을 강하게 드러내다고 했는데, [라]에도 그 배경에는 ‘또래의 집단적 문화’가 깔려 있다. [나]는 성장기 소녀들에게 강요되는 사회적 억압을 논하고 있는데, [라]는 그런 억압이 소년들에게도 강하게 작용하면서 갈등과 좌절감을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는 자기의 개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집단적인 억압 속에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한 소년의 심리적, 존재적 변화 과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 속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갈등은 ‘남자다움’을 둘러싼 주인공 ‘나’와 주변 인물들 사이의 갈등으로 표현돼 있다. 주인공이 속한 사회는 정형화된 남성성, 곧 강인함을 남자아이에게 강요하는 사회였다. 하지만 주인공인 ‘나’는 이렇게 세상이 강요하는 인간형에 불편함과 이질감을 느낀다. 이는 [나]에서 말하는 ‘타자 존재’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 느끼는 이질감은 사회가 강요하는 행동 양식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를 거부하는 심리적 저항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주류 문화를 수용하고 내면화하여 거기에 길들여지기보다 그에 맞서서 자신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다움’을 주장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도 주체적 노력으로서, [나]에서 말하는 ‘자기의 자유’에 해당한다. 주인공 ‘나’는 사회에서 강요하는 정형화된 남성성에 대해 저항하고 거부하며 ‘자기의 자유’를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내면에 가둔 채 고민하고 있다가, 친구인 태수가 전해준 노래를 들으면서 ‘출구’를 찾아 치유를 경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라]에 인용된 노래의 가사는 세상의 집단적 획일성에 맞선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강조하고 있거니와, 주인공은 그로부터 뜨거운 공감과 함께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해방감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제시문 [라]에서는 집단

적이고 사회적인 유대가 아닌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주제적 의미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맥락을 제대로 짚어내서 서술한 경우 좋은 답안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보면, [라]에서 주인공 ‘나’가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인 태수와의, 그리고 노래 속 화자와의 유대와 공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해볼 수 있다. 이때 주인공이 형성하는 유대 관계는 수동적으로 주어지고 학습된 것이 아니라 저항 과정을 통해 찾아낸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유대라는 점에서 ‘남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따르는 여타 또래 집단의 유대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의 자유와 가능성’을 지향하는 능동적인 선택으로서, 갈등의 치유와 극복에 기여하는 ‘대안적인 유대’로서 성격을 지닌다. 그리하여 [라] 작품은 그것을 ‘당신 안의 소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력한 길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응시자가 이러한 지점까지 파악해서 적절히 서술한다면 [라]의 갈등 상황에 대한 깊고도 입체적인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 [대학 채점기준]

[문제 2]는 [가]에 제시된 ‘또래 간의 사회적 유대’와 [나]에서 말하는 ‘자기의 자유와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갈등을 논하라는 문제이다. [문제 2] 답안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와 [나]의 개념 이해	① [가]와 [나]에 제시된 ‘또래 간의 사회적 유대’, ‘자기의 자유와 가능성’의 개념을 이해하였는가? [가]에 제시된 ‘또래 간의 사회적 유대’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교류와 유대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지칭하며, [나]에 제시된 ‘자기의 자유와 가능성’은 세계를 발견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개념을 일컫는다.
[라]의 갈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② [라]에 나타난 ‘갈등’을 이해하였는가? [라]에서는 ‘남자다움’을 둘러싼 주인공 ‘나’와 주변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표현되어 있다. 한편 [라]의 주인공은 사회가 강요하는 인간형(정형화된 남성성을 지닌 인간)에 불편함과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과 이질감은 사회가 강요하는 행동 양식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를 거부하는 심리적 저항이기도 하다. 이처럼 [라]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정형적인 ‘남자다움’으로 인해 주인공이 주변 인물과 갈등을 겪기도 하며, 주인공 스스로는 내면적 갈등도 겪고 있다.
[가]와 [나]의 논지에 근거한 [라]의 분석	③ [가], [나]에 제시된 개념을 활용하여 ‘갈등’을 설명하였는가? ‘사회적 유대’, ‘또래와의 교류’, ‘사회적 강요’ 등은 주류 문화를 수용하고 내면화하여 거기에 길들여 지기를 바라는 데서 비롯된 갈등을 논하는 내용에서, ‘자기의 자유’, ‘자주적 존재’, ‘주체로서의 자기’ 등의 개념어는 그에 맞서서 자신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다움’을 주장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도 주체적인 노력을 논하는 데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④ [라]에 나타난 ‘갈등’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는가? [라]의 주인공 ‘나’는 노래 가사에 강하게 공감하는 가운데 자율성을 억압하는 상황이 가져온 내면적 갈등으로부터의 치유와 벗어남을 경험하고 있다. 즉, [라]에서는 ‘사회적 유대’가 아닌 ‘자기의 자유’라는 주제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한편, [라]에서 주인공 ‘나’가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인 태수와의, 그리고 노래 속 화자와의 유대와 공감을 통해

	<p>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주인공이 형성하는 유대 관계는 수동적으로 학습된 것이 아니라 저항 과정을 통해 찾아낸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유대라는 점에서 ‘남성다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따르는 여타 또래 집단의 사회적 유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의 자유’를 전제로 한 능동적인 선택으로서, 갈등의 치유와 극복에 기여하는 ‘대안적인 유대’로서 성격을 지닌다. 응시자가 이러한 지점까지 파악해서 적절히 서술했다면 [라]의 갈등 상황에 대한 깊고도 입체적인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p>
<p>정합적인 논리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p>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 경희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체능 1번

- ☞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 [가]

나는 개울가로 간다. 가물로 하여 너무나 빈약한 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 뼈처럼 앙상한 물줄기가 왜 소리를 치지 않나?

너무 더웁다. 나뭇잎들이 다 축 늘어져서 허덕허덕하도록 더웁다. 이렇게 더우니 시냇물인들 서늘한 소리를 내어보는 재간도 없으리라.

나는 그 물가에 앉는다. 앉아서, 자 - 무슨 제목으로 나는 사색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 그러나 물론 아무런 제목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각 말기로 하자. 그저 한량없이 넓은 초록색 벌판, 지평선, 아무리 변화하여 보았댔자 결국 치열한 곡예의 역(域)에서 벗어나지 않는 구름, 이런 것을 건너다본다.

지구 표면적의 백분의 구십구가 이 공포의 초록색이리라. 그렇다면, 지구야말로 너무나 단조 무미한 채색이다. 도회에는 초록이 드물다. 나는 처름 여기 표착(漂着)하였을 때, 이 신선한 초록빛에 놀랐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닷새가 못 되어서 이 일망무제(一望無際)의 초록색은 조물주의 몰취미와 신경의 조잡성으로 말미암은 무미건조한 지구의 여백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쩔 작정으로 저렇게 퍼러나? 하루 온종일 저 푸른빛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푸른 것에 백치와 같이 만족하면서 푸른 채로 있다.

이윽고 밤이 오면 또 거대한 구덩이처럼 빛을 잃어버리고 소리도 없이 잔다. 이 무슨 거대한 겸손이나.

이윽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失色)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루를 갈기갈기 찢는 것과 다름없는 추악한 색채로 변하는 것이다. 한겨울을 두고 이 황막(荒漠)하고 추악한 벌판을 바라보고 지내면서, 그래도 자살 민절(悶絶)하지 않는 농민들은 불쌍하기도 하려니와 거대한 천치다.

그들의 일생이 또한 이 벌판처럼 단조한 권태 일색으로 도포된 것이리라. 일할 때는 초록 벌판처럼 더워서 숨이 각각 막히게 싱거울 것이요, 일하지 않을 때에는 겨우 황원(荒原)처럼 거칠고 구지레하게 싱거울 것이다.

[나]

물건들이 시골의 앞마당에 자꾸 쌓이자 내 작업도 톱과 망치, 드라이버만으로 부족해 제대로 된 공구들이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했다. 드릴과 전기톱, 그라인더 등이 그것이다. 잘라 낸 송판과 대패질을 새로 한 각목들이 설계대로 조립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누더기 탁자가 탄생한다. 잠깐 푹푹거리면 의자로 생긴다. 널찍한 개집도 만들었다. 균형을 맞추느라 자꾸 덧대다 보니 내 작품들은 좀 무거운 게 흠이다. 그렇지만 내 조악한 목공작품들을 친구들은 아주 좋아한다. 이 영터리 무면허 목공에게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독서대도, 앉은뱅이 탁자도 주문받았다. 주문에 고무된 나는 주워 온 나무들로 뭐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행복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뿐인가, 딸애 키에 맞춰 화장대도 만들어 주었다. 딸애는 결혼할 때 갖고 가겠다고 기뻐했다. 그리고 보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마당에서 썰매도 만들어 주셨고, 병정놀이 때 쓸 멋진 나무칼도 깎아 주셨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내 책상 위의 작은 책꽂이 하나는 돌아가신 아버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사람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도시로 몰리고 손끝 하나 까딱 않고 뭐든 쉽게 사들이면서 타고난 손의 기능은 퇴화하기 시작했다.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일보다는 새것을 사는 게 더 멋진 삶이라고 광고는 쉴 새 없이 부추겼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쉽게 굴복했다. 유한한 자연 자원과 그것들이 사람한테 오기까지 걸린 시간에 모두들 무감각해져 버렸다. 이런 무신경과 난폭한 낭비는 정말 벌 받을 짓이 아닐 수 없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고작 태우거나 묻어 버리는데, 묻어도 능사가 아니지만 태우면 더욱이나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든다. 이른바, ‘불필요한 생산’이다. 이렇게 과감한 소비 생활은 외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문명이라는 이름의 야만과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어찌 생각하면, 모두들 허무주의자들 같기도 하다.

“지구라는 우주선에는 승객은 없다. 모두 승무원일 뿐이다.”라고 말한 이는 맥루한이다. 이 행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커녕, 시방 우리는 오만한 승객인 양 착각의 삶을 살고 있다. 물에 담가 둔 버드나무 토막을 보고 사람들이 “어쩌면 살겠네!”라고 한마디씩 건넌다. 나무는 아마 자신을 두고 한 소리라 알아듣지 않겠나 싶다. 살든 못 살든, 물이 좀 올랐다 싶으면 대문 옆에 심을 생각이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독해]

- (가)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록(자연)에 대하여 무심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나) 자연을 소통과 활용의 대상으로 여기고, 조화롭게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논리평면] 요약, 비교

공통점	자연	
차이점	개념적 인식	인간과의 관계
(가)	무력, 무지 - 안타까운 대상	별개, 독립적 관계
(나)	소통 가능한, 소중한 자원	조화·공존, 책임

[예시답안] 625자

제시문 (가)는 도회지의 삶에 익숙한 현대인이 자연에 대하여 권태로움을 느끼는 장면이 나타난다. 화자는 자연에 대해 사색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아무런 감상도 얻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자연을 어리석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한다. 이러한 부정적 감상에는 자연과 인간이 별개로 나뉘어진 독립적인 관계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자연은 인간에게 그저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시문 (나)에서는 소중한 자원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난다. 인간은 자연과 운명 공동체로서 조화롭게 공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이고, 자연과 더불어 소통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화자는 불필요한 생산을 벌이며 한정된 자연의 귀중함에 대해 망각한 인류 문명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와 (나)는 모두 자연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념적 인식에 있어선 차별점을 보이고 있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가)는 자연을 무력하고 무지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인간과 연결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있다. 반면 (나)는 자연을 귀중한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자연과 인간은 공존해야 할 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 [대학 출제의도]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육계열 모의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술고사에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환경과 녹색 성장’, ‘인간과 지구 생태계’ 및 『국어』, 『문학』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학의 기능과 현실 인식’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탈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과 가치문제’를 탐색해 보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여기에는 인류가 직면한 생태계적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논제 1〉에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다루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주의 윤리, 생명중심주의 윤리와 환경 문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적 자세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다양한 관점이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 [대학 문항해설]

본 논술고사는 응시생들이 고등학교 교과서 및 잘 알려진 교양서적에서 발췌한 다양한 양식의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하고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서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각 텍스트를 개별적이며 독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술고사는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통하여 여러 텍스트를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를 파악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수험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논술 답안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을 파악하고 그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것이다.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작품으로, 도시화된 삶에 익숙한 현대인이 바라보는 무의미하고 일상적인 자연환경의 권태로움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무관심하며,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않는다. 제시문 [나]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형상화하고 있다. 한정된 자연자원이 인간에게 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망각하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를 일삼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무신경한 인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논제 1〉은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자료에 대한 독해력과 비교·분석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대학 채점기준]

### (1) 점수 배정

- ① 만점 :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 ② 기본 점수 :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2) 채점 기준

1) <논제 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나]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면 10점 가점

③ 제시문 [가], [나] 논지의 차이가 잘 드러나게 서술하면 10점 가점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 채점 시 유의사항

(1) 제시문 [가]는 도시화된 삶에 익숙한 현대인이 바라보는 무의미하고 일상적인 자연환경의 권태로움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무관심하며,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않는다. 제시문 [나]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형상화하고 있다. 한정된 자연자원이 인간에게 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망각하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를 일삼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무신경한 인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가]와 [나]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는 자연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가]의 화자는 자연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객관적인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나]의 글쓴이는 자연이 지구라는 우주선에 인간과 함께 동승한 승객이라는 입장으로, 공존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묘사한다. 둘째는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가]는 물가에 앉아서 무엇을 사색해보려 해도 아무런 제목도 떠오르지 않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듯 자연과 소통이나 교감이 전혀 없는 단절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는 ‘불필요한 생산’과 같은 책임 없는 소비로 점차 훼손되어 가는 자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 공존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파악해서 요약하고 그 논지의 차이(출제자의 의도 파악)를 대비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높게 평가를 한다.

(3) 각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는데,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는가를 중요시한다.

[대학 예시답안] 671자

제시문 [가]와 [나]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보여준다. 제시문 [가]는 도시화된 삶에 익숙한 현대인이 바라보는 무의미하고 일상적인 자연환경의 권태로움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무관심하며,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않는다. 제시문 [나]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형상화하고 있다. 한정된 자연자원이 인간에게 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망각하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를 일삼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무신경한 인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가]와 [나]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는 자연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가]의 화자는 자연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객관적인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나]의 글쓴이는 자연이 지구라는 우주선에 인간과 함께 동승한 승객이라는 입장으로, 공존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묘사한다. 둘째는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가]는 물가에 앉아서 무엇을 사색해보려 해도 아무런 제목도 떠오르지 않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듯, 자연과 소통이나 교감이 전혀 없는 단절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는 ‘불필요한 생산’과 같은 책임 없는 소비로 점차 훼손되어 가는 자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 공존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경희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체능 2번

- ☞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 배점 60점]

### [다]

잠시 농업혁명을 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1만 년 전 밀은 수많은 잡초 중 하나일 뿐으로서 중동의 일부 지역에만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과 몇 천 년 지나지 않아 세계 모든 곳에서 자라게 되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의 기본적 기준에 따르면 밀은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식물이 되었다. 북미의 대초원 지역 같은 곳에는 1만 년 전 밀이 한 포기도 없었지만 지금은 수백 킬로미터를 걷고 또 걸어도 밀 이외의 다른 식물을 볼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밀이 경작되는 지역은 225만 제곱킬로미터쯤 되는데 이는 브리튼 섬(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포함)의 열 배에 이른다.

어떻게 이 잡초는 그저 그런 식물에서 출발해 어디서나 자라는 존재가 되었을까? 밀은 호모 사피엔스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작함으로써 그렇게 해낼 수 있었다. 약 1만 년 전까지 이 유인원은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상당히 편안하게 살고 있었으나, 이후 밀을 재배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2천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인간은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밀을 돌보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었다.

밀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밀은 바위와 자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밭을 고르느라 등골이 휘었다. 밀은 다른 식물과 공간, 물, 영양분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온종일 잡초를 뽑는 노동을 했다. 밀은 병이 들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해충과 마름병을 조심해야 했다. 밀은 자신을 즐겨 먹는 토끼와 메뚜기 떼에 대한 방어책이 없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이를 막아야 했다. 밀은 목이 말랐기 때문에, 인간들은 샘과 개울에서 물을 끌어다 댔다. 밀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밀이 자라는 땅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동물의 변을 모아야 했다.

사피엔스의 신체는 이런 과업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다. 사과나무에 기어오르고 가젤을 뛰어서 뒤쫓는 데 적응했지, 바위를 제거하고 물이 든 양동이를 운반하는 데 적합한 몸이 아니었다. 인간의 척추와 무릎, 목과 발바닥의 장심(발바닥의 오목한 부분)이 대가를 치렀다. 고대 유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으로 이행하면서 디스크 탈출증, 관절염, 탈장 등 수많은 병이 생겨났다. 새로운 농업노동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사람들은 밀밭 옆에 영구히 정착해야만 했다. 이로써 이들의 삶은 영구히 바뀌었다.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니다.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 ‘길들이다, 가축화되다’라는 뜻의 단어 ‘domesticate’는 ‘집’이라는 뜻의 라틴어 ‘domus’가 어원이다. 집에 사는 존재는 누구인가? 밀이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다.

[라]

사르키는 1815년에 사망하여 2002년에 매장되었다. 그녀의 유골에는 먼지가 쌓인 적이 없었다.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호텐토트의 비너스는 유럽의 과학, 예술, 문학, 철학, 대중문화에 등장해 인종적·성적 편견에 찬 ‘죽음의 무도(the macabre dance)’를 추도록 강요받았다. 유럽의 인종주의는 사르키를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로 만들었다. 훼손과 해부를 겪은 사르키의 유해는 사후 보복을 감행하는 유령이 되었다. 사르키의 유해를 통해, 서양 제국주의의 비인간적 측면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다.

해부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는 “신체를 훼손하면 진리가 나타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파리 자연사박물관에 갇힌 사르키의 해부된 신체는 유럽에서 가장 자주 분석된 표본이 되었다. 그사이 그녀의 존재를 둘러싼 술한 전기적 사실을 과학의 대상이란 사후의 짐 밑으로 파묻어버렸다.

200여 년간 사르키의 뼈대는 덜거덕거렸고 숨이 멈춘 뇌는 해부되었으며 생식기는 호기심어린 유럽 남성들의 손가락 세례를 받았다. 이들은 알코올에 절인 사르키의 신체기관이 아프리카 여성의 성이란 ‘어두운 대륙’의 비밀을 풀어줄 것이라 여겼다. 말없이 나약하게 누워 있는 사르키의 사체를 훼손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괴기스럽고 변태적인 이론을 만들고, 그 위에 인간집단 간에는 생물학적·인종적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덧씌웠다. 더불어 그들은 인간 중 ‘호모’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이 있으며, 인종 역시 뛰어난 인종과 열등한 인종으로 분류하고 차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펴게 된 동기는 자명했다. 권력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드 블랭빌(1816)과 퀴비에(1817)는 사르키의 유해에 과학적 인종주의라는 주형을 겹쳐놓았다. 과학자, 인종학자, 인류학자, 철학자, 심리학자가 그것을 계승했다. 과학적 인종주의와 우생학이 판치던 시기에 사르키의 해부된 시신은 인종은 다양하며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신념을 강화하는 궁극의 표본으로 이용되었다. 이 사이비 과학은 존재의 연쇄라는 진화 단계에서 유럽인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앉아 있고, 반대로 아프리카인은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호텐토트’와 ‘부시맨’이라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인종은 동물 종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사라진 고리와 같다고 보았다. 즉 퇴화하고 열등한 존재로 알려진 ‘호텐토트족’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를 배정받았던 것이다. 영국의 제국주의는 이 사이비 과학을 남아프리카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적극 활용했다. 그리고 과거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완벽하게 그 뒤를 이었다.

[마]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란 것을.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만 살면서도 저렇게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를 어떻게 가는 혈관으로 흘러 보내며 딱딱하고 거친 시멘트를 똥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쇠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 많은 벌레들을 씨까지 일시에 죽이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저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흙과 나무, 내와 강, 그 어디에 숨어서 흙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기를, 물이 살충제가 되고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빙하기, 그 세월의 두꺼운 얼음 속 어디에 수만 년 썩지 않을 금속의 씨를 감추어 가지고 있었을까.

로봇처럼, 정말로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쭉불쭉 자라는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 몰라. 보이지 않는 빙하기,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씨를 감추어 둔 채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한 까닭에 숨을 쉴 수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뜬 채 잠들어 있는지 몰라.

## [바]

토마스 베리는 ‘권리’를 법률가들이 통상 사용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2001년 4월 에얼리 회의에 참석한 그는『권리의 기원과 분화 그리고 역할』에서 권리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권리라는 개념을 인간의 의무, 책임 그리고 핵심 본성을 이해하고 실현할 인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이를 유추한다면, 다른 자연적 실체도 지구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실현할 권리자격이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지구는 주체들의 친교이고, 권리는 인간의 법학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기원하는 데서 기원하다는 베리의 명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지구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 또한 권리를 가진다고 승인하지 않으면서 인간은 인권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전체를 위한 권리가 존재함 없이 일부를 위한 권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공동체 성원들의 권리는 불가분적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공동체 내 인간 이외의 성원들의 법적 권리에 관한 논의는 법 시스템이 이 내재적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선택에 관한 것이 된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법 시스템 내에서 사용해온 권리 개념이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단지 법 시스템이 다른 성원들의 존재 현실을 반영하기에 충분히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구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흐를 수 있는 강의 권리, 유전적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존속할 종의 권리, 심지어 자신의 기후를 유지할 지구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근시안적 법 시스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 배점 60점]

[독해]

- (바) 지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 마땅히 동등한 자유·권리 갖는다.
- (다) 밀은 ⇒ 호모 사피엔스를 길들여 지배하는 식물이 되었다.
- (라) 사르키의 유해는 ⇒ 모욕적으로 훼손되어 ⇒ 권력 불평등을 강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 (마) 바퀴벌레는 ⇒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진화된 존재이다.

[논리평면] 가치추론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바)	지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동등한 자유와 권리	G
대상	(다)	밀	호모 사피엔스 지배	b
	(라)	사르키	훼손되어 권력 불평등을 위해 이용됨	b
	(마)	바퀴벌레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진화된 존재	g

[예시답안] 1,099자

지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마땅히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권리란, 제시문 (바)에 나오듯 자기의 자유를 관철시킬 권리를 말하는데, 인간을 포함하느 모든 생물은 물론, 바위나 강과 같은 모든 무생물도 동등한 자유를 갖는다. 만약 인간의 권리만을 배타적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공존 의식과 배려가 없는 것으로서 문제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파괴를 저질러 온 인간중심주의는 이제 전환의 필요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의 상황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에는 밀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인간이 밀에 길들여지고 종속되어 고통을 감내하며 밀 농사를 위해 동원되고, 밀을 이를 활용하여 지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식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는 일면 밀이라는 인간 외적 존재의 존재를 부각한다는 점에선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본질적 차원에서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 위에 배타적으로 군림한다는 사실을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밀에 의해 침해당하는 부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는 (라)의 상황 또한 부정적으로 평할 것이다. (라)에는 사르키의 시신이 모욕적으로 훼손되어 불평등한 위계를 위해 이용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사르키는 아프리카 여인으로서 생물학적 연구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연구 과정에서 시신은 해부되고 훼손되며 종국적으로는 인종의 위계를 구분짓고 정당화하는 일에 활용

되었다. 이는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조차 배타적 위계를 나누는 상황으로서 지구 공동체가 갖는 동등한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착각이자 오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바)는 (마)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릴 것이다. (마)에는 바퀴벌레의 강력한 생명력에 대한 경탄이 나타난다. 바퀴벌레 박멸을 위한 인간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퀴벌레는 끈질긴 생명력을 통해 끝까지 살아남고 있고, 이를 두고 (마)는 바퀴벌레를 진화된 생명이라며 경탄하고 있다. 이는 인간 외적 존재를 부각시키는 관점으로서 인간중심적으로 다른 존재를 폄하하지 않고, 타자의 자유를 인식하는 열린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대학 출제의도]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육계열 모의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술고사에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환경과 녹색 성장’, ‘인간과 지구 생태계’ 및 『국어』, 『문학』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학의 기능과 현실 인식’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탈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과 가치문제’를 탐색해보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여기에는 인류가 직면한 생태계적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논제 2〉는 생태계 전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넘어 새로운 탈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과 가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구는 우리 삶의 기반이다. 인간은 역사 이래로 자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제 지구의 수용력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인간중심주의 역사관, 서구중심적 인종차별주의, 무차별적인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윤리와 가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제 2]의 핵심 질문이다.

## [대학 문항해설]

본 논술고사는 응시생들이 고등학교 교과서 및 잘 알려진 교양서적에서 발췌한 다양한 양식의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하고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서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각 텍스트를 개별적이며 고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술고사는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통하여 여러 텍스트를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를 파악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수험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논술 답안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을 파악하고 그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것이다.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다]는 밀이 초기 농업혁명을 거치며 어떻게 인류사를 뒤바꾸었는지 주목한다. 경작과 재배 양식으로서의 전환을 인류 발전의 획기적 사건으로 파악한 것이 기존 역사관이라면, [다]는 밀 때문에 인류가 노예적 삶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라]는 약 200년 동안 유럽에서 생물학적 연구 대상이자 문화적 유희의 재료로 이용된

아프리카 여인 사르키의 참혹한 운명을 고발한다. 해부되고, 훼손되기를 거듭한 그녀의 시신은 제국주의가 자행한 야만적 인종주의와 이데올로기의 민낯을 증언한다. 제시문 [마]는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에 경악한다. 인류가 해충 박멸을 위해 싸운 긴 세월에 비춰 바퀴벌레의 적응력은 공상과학이나 비견될 공포의 대상이다. 바퀴벌레에 대한 이와 같은 두려움과 천착은, 해충을 포함해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존재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제시문 [바]는 ‘권리’의 개념이 인간너머, 지구 공동체 모든 성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라는 용어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면, 그러한 제한적 권리는 다른 생명체들을 법의 이름으로 제외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생태계 전체의 공존에 대한 배려 없이 일부 특정 존재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바]는 인간중심주의가 초래한 자연 파괴로부터 모든 생명체를 지키기 위해 권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피력한다.

〈논제 II〉는 제시문 [바]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서 제시한 상황을 평가하는 문제로,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태도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대학 채점기준]

### (1) 점수 배정

- ① 만점 :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 ② 기본 점수 :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 (2) 채점 기준

- 1) 〈논제 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바]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 서술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
  - ④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마]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
  - ⑤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

※ 채점 시 유의사항

- (1) 제시문 [바]는 ‘권리’의 개념이 인간너머, 지구 공동체 모든 성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라는 용어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면, 그러한 제한적 권리는 다른 생명체들을 법의 이름으로 제외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생태계 전체의 공존에 대한 배려 없이 일부 특정 존재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바]는 인간중심주의가 초래한 자연 파괴로부터 모든 생명체를 지키기 위해 권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피력한다.
- (2) 제시문 [다]는 밀이 초기 농업혁명을 거치며 어떻게 인류사를 뒤바꾸었는지 주목한다. 경작과 재배 양식으로의 전환을 인류 발전의 획기적 사건으로 파악한 것이 기존 역사관이라면, [다]는 밀 때문에 인류가 노예적 삶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한다. [다]의 주장은 언뜻 밀과 인간의 주객전도를 통해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하는 듯 보이지만, 밀이 결과적으로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생명체들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바]의 관점과 배치되고, 밀의 확산으로 인해 사라진 식물들과 동물들의 운명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 (3) 제시문 [라]는 약 200년 동안 유럽에서 생물학적 연구 대상이자 문화적 유희의 재료로 이용된 아프리카 여인 사르키의 참혹한 운명을 고발한다. 해부되고, 훼손되기를 거듭한 그녀의 시신은 제국주의가 자행한 야만적 인종주의와 이데올로기의 민낯을 증언한다. 모든 생명체가 동등하게 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인종주의는 비판되며, 나아가 서구적 인간중심주의의 극복을 위해서도 계속 반추해야 할 반면교사다.
- (4) 제시문 [마]는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에 경악한다. 인류가 해충 박멸을 위해 싸운 긴 세월에 비춰 바퀴벌레의 적응력은 공상과학에나 비견될 공포의 대상이다. 바퀴벌레에 대한 이와 같은 두려움과 천착은, 해충을 포함해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존재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바]와 맥락을 같이한다. 유해성이라는 기준으로 생명체를 구분하는 것은 생명을 인간 편의에 따라 도구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인간중심적 사고가 결국 지구의 파멸을 재촉할 수 있다고 암시함으로써 [바]의 논지에 부합한다.

[대학 예시답안] 1,054자

제시문 [바]는 ‘권리’의 개념이 인간 너머, 지구 공동체 모든 성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라는 용어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면, 그러한 제한적 권리는 다른 생명체들을 법의 이름으로 제외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생태계 전체의 공존에 대한 배려 없이 일부 특정 존재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바]는 인간중심주의가 초래한 자연 파괴로부터 모든 생명체를 지키기 위해 권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피력한다.

[다]는 밀이 초기 농업혁명을 거치며 어떻게 인류사를 뒤바꾸었는지 주목한다. 경작과 재배 양식으로의 전환을 인류 발전의 획기적 사건으로 파악한 것이 기존 역사관이라면, [다]는 밀 때문에 인류가 노예적 삶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한다. [다]의 주장은 언뜻 밀과 인간의 주객전도를 통해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하는 듯 보이지만, 밀이 결과적으로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생명체들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바]의 관점과 배치되고, 밀의 확산으로 인해 사라진 식물들과 동물들의 운명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라]는 약 200년 동안 유럽에서 생물학적 연구 대상이자 문화적 유희의 재료로 이용된 아프리카 여인 사르키의 참혹한 운명을 고발한다. 해부되고, 훼손되기를 거듭한 그녀의 시신은 제국주의가 자행한 야만적 인종주의와 이데

올로기의 민낯을 증언한다. 모든 생명체가 동등하게 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인종주의는 비판되며, 나아가 서구적 인간중심주의의 극복을 위해서도 계속 반추해야 할 반면교사다.

[마]는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에 경악한다. 인류가 해충 박멸을 위해 싸운 긴 세월에 비춰 바퀴벌레의 적응력은 공상과학이나 비견될 공포의 대상이다. 바퀴벌레에 대한 이와 같은 두려움과 천착은, 해충을 포함해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존재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바]와 맥락을 같이한다. 유해성이라는 기준으로 생명체를 구분하는 것은 생명을 인간 편의에 따라 도구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인간중심적 사고가 결국 지구의 파멸을 재촉할 수 있다고 암시함으로써 [바]의 논지에 부합한다.

## 광운대 2019학년도 기출 모전 1번

☞ (가)의 ㉠에서 아이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나)의 입장에서 논하고, (가)의 ㉡의 이유를 (다)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50점, 750±50자)

(가)

내가 라면을 처음 먹어 본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다. 하굣길에 읍내 아버지 사무실에 갔다가 사환으로 있던 동네 형을 만났다. (중략)

우리는 곧 황혼이 흐릿하게 아른거리는 들판에 들어섰고 추수가 끝난 뒤 쌓아 놓은 높다란 짚단 더미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놀랍게도 그 짚단 더미 안에는 그슬릴 대로 그슬리고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양은 냄비와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젓가락 한 쌍, 비밀 요원 같은 성냥이 숨겨져 있었다. 형은 내게 그 양은 냄비에 도랑물을 떠 오라고 시켰고 자신은 짚단을 끌어내려 불을 피웠다. 초겨울 찬바람이 손을 시리게 만드는 저녁 무렵, 나는 생애 최초로 라면을 먹었다. 그 맛은 기존의 질서에서 살짝 이탈한 위반의 맛이였다. 동시에 인스턴트했고 중독의 예감을 안겨 주는 맛이였다. (중략)

서울 번두리로 이사한 후 처음 찾은 독서실에서 배운 라면 끓이는 방법은 도시적이고 현대적이였다. 빈 분유 깡통에 물을 넣고 라면과 수프를 함께 넣은 다음 뚜껑을 덮는다. 비닐 뚜껑에는 미리 구멍을 두 개 뚫어 놓고 그 구멍에 전극이 연결된 젓가락을 꽂는다. 그러면 곧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깡통 안의 물이 끓어오른다. 물이 끓는 것과 동시에 젓가락을 빼고 자기 자리로 깡통을 들고 와서 몇 분 기다렸다가 먹으면 된다. 요즘으로 치면 컵라면과 비슷하지 싶다. 그 라면은 시골에서 먹던 것보다 짭고 더욱 인스턴트했고 냄새가 강했다. (중략)

훈련병이었던 나는 어느 날 훈련소 식당 주방장의 연애편지를 대필해 주고 나서 라면을 얻어먹게 되었다. 주방장은 빈 식용유 깡통을 가져오더니 바닥이 가려질 정도만 물을 붓고 취사용으로 쓰는 대포 같은 초대형 가스 버너에 깡통을 올려놓았다. 십 초도 되지 않아 물이 요란하게 끓기 시작했다. 주방장은 라면 봉지의 앞면, 곧 이음 선이 없는 부분을 밀어 라면을 깡통 안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수프를 뿌렸다. 그러곤 곧 버너의 불을 껐고 내게 기다란 조리용 젓가락을 건네주며 먹으라고 말했다. 그 맛 역시 잊을 수 없었다. 수천 명이 이용하는 취사도구를 계급도 없는 훈련병 혼자 독점한 기분이 주는 맛이 특별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라면의 맛을 잃어버렸다. 라면의 종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고 재료 역시 좋아졌지만 내가 찾는 그 맛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 동안 나는 초겨울 구하기도 힘든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들고 빈 들판에 나가 짚으로 라면을 끓여 먹어 보기도 했다. 또 어렵사리 분유 깡통을 구해 젓가락을 넣다가 합선 사고를 내기도 했고 납작한 양은 냄비를 찾아 시장을 헤맨 적도 있다. 여러 사람의 자문을 얻어 이것저것 실험도 해 보았다. 라면을 끓이는 냄비는 성냥불만 달아도 파르르 반응하도록 얇을수록 좋다, 수프는 미리 찬물에 풀고 그 물을 최대한 오래 끓인 뒤 면을 넣는데 뚜껑은 덮지 말고 면을 섞거나 뒤집지 않는다, 날씨는 추울수록 좋고 끓는 부분과 차가운 대기에 접촉하는 면이 공존해야 한다, 면을 넣은 뒤 최소한의 시간만 익히고 곧 먹어야 한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한겨울에 마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도 있다. 그렇지만 ㉡ 그때와 같은 맛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 성석제, '소년 시절의 맛'

(나)

일반적으로 문화는 인류가 창조해 낸 모든 정신 활동의 결과물을 말한다. 문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집단 및 사회의 독특함과 다원성 속에서 구현된다. 또한 문화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집단 활동의 결과다. 지금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는 당신의 생물학적 부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이 말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쓰는 도구,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당신이 선택하는 진로, 당신의 미의식이나 초자연에 대한 관념 등 모든 것이 1차적으로는 당신이 성장한 집단의 문화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화하는 것이다.

오늘날 지구촌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였다. 우리 사회도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낯선 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하며 살게 되었다. 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다. 문화 다양성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문화 간의 만남이 서로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문화 간 접촉을 자신의 문화적 자산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서로 간에 타문화를 차별하고 억압하여 문화 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의 낯선 행동에 대한 관용이 필수적이다. 관용은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이 나와 다를지라도 이를 존중하는 이성적 태도를 의미한다. 관용을 소극적인 의미에서 실천하는 것은 반대나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대상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관용은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즉 강자의 덕목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관용은 일반적, 도덕적 원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수차례의 종교 전쟁을 통하여 상대방의 종교나 종파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관용은 도덕적 덕목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근대를 거치면서 약자에게 관대함을 보여 주는 행위가 아니라, 나와 다르고 나아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일지라도 타자의 자연적 권리를 인정하는 윤리규범이 되었다.

(다)

예술 작품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복제가 가능하였다. 도제들은 예술적 수련을 위해 복제를 하였고, 예술의 대가들은 작품의 보급을 위해 복제를 하였으며, 제 3자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복제를 하였다. 그러나 기술적 복제는 불가능했다.

석판 인쇄의 등장과 함께 복제 기술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는 판화술로 이어졌고, 다시 사진술의 영상 복제 기술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복제기술은 1900년 이후 전래적인 예술 작품 전체를 복제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약간의 훈련만 받으면 누구나 대부분의 예술작품을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복제 기술을 지녔다 하더라도 한 가지 요소는 현재 복제할 수 없고 앞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서 갖는 유일무이한 현존성, 즉 일회적 현존성이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① (가)의 ㉠에서 아이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나)의 입장에서 논하고, (가)의 ㉡의 이유를 (다)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50점, 750±50자)

[독해]

(가) ㉠ 아이들이 주인공의 라면 조리법을 조롱했다.

(가) ㉡ 당시 먹었던 라면의 맛은 반복되지 않았다.

(나) 관용 - 일반적 도덕 원리 ⇒ 문화의 다양성 ⇒ 삶의 질 상승 - 갈등 감소

(다) 예술작품 ⇒ 일회적 현존성(그 시절, 그 공간만의 고유성)을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

[논리평면] 가치추론(서술은 사실추론으로),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나)	관용	문화 다양성 인정	G(갈등 감소)
대상	(가) 아이들	관용 정신이 없음	주인공의 라면 요리법을 조롱	b(갈등 발생)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다)	예술작품	일회적 현존성은 복제할 수 없음
대상	(가) ㉡	당시 먹었던 라면 맛	돌아오지 않음

[예시답안] 788자

관용은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 규범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제시문 (나)에 나타나듯 관용이라는 윤리적 기반이 있어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이뤄질 수 있고, 이러한 개방성이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시문 (가)의 ㉠에서 아이들의 행동에는 이러한 관용의 정신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아이들은 주인공이 행하는 독특한 라면 조리법을 조롱했다. 이는 아이들의 마음에 관용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아이들과 주인공은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제시문 (가)의 주인공은 ㉡에서 그 시절 먹었던 라면 맛을 다시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주인공은 당시의 조리법과 환경을 최대한 똑같이 재현해 보면서 당시의 라면 맛을 구현해 내고자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 라면 맛’이 갖는 일회적 현존성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 제시문 (나)를 보면 예술작품은 기술적으로는 복제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 당시, 그 공간에서 발생했던 고유한 속성까지 반복되진 않는다고 말한다. 기술적 진보로 인해 아무리 동일한 수준의 작품 복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특정 시공간에서만 발생했던 고유성은 반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인공이 먹었던 라면의 맛도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고유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같은 조건을 재현해 봐도 그 당시의 그 공간에서 느꼈던 배고픔의 정도, 마음의 상태 등까지 전부 똑같은 순 없었고, 그래서 당시 먹었던 ‘바로 그 맛’을 다시 느낄 순 없었던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 [문제 1]을 출제한 의도는 삶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주제 아래 서로 다른 형식과 영역의 지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사례에 맞는 생각을 문장으로 정리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임.
-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사회와 윤리 영역에서 배우는 지식과 연관 짓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 창의력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출제 의도임.

### [대학 채점기준]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비교] (20점)

- 각 문화는 나름의 가치를 지니므로 각각의 고유성과 상대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술해야 한다. (5점)
- 최근에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하면서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술해야 한다. (5점)
- 관용과 문화적 다양성 인정과의 관계와 관용의 의미 모두 혹은 둘 중 하나를 설명한다. (5점)
- (가)에서 아이들이 '나'를 놀린 것은 관용이 없는 행동이며 따라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기술해야 한다. (5점)
- 요리하는 방식이 문화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형식이라는 점을 기술하면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5점)
- 답안에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썼다면 제시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탓이므로 감점(-5점).
- 관용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의미를 모른 채 제시문 문장을 베껴 썼다는 의미이므로 감점(-5점).
- 문학 작품에 제시한 사례와 제시문 (나)의 이론적 논의를 연결한 문장이 없다면 감점(-5점).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의 비교] (20점)

- (가)의 '나'가 과거에 느꼈던 라면의 맛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것은 더 이상 복제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5점)
-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시간과 공간 속에 한 번만 존재하는 속성 즉 일회적 현존성은 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5점)

- 과거의 라면 조리방법 혹은 그 맛이 일회적 현존성을 지닌다는 점을 설명한다. (5점)
- 과거의 맛을 재현하는 것은 일회적 현존성을 복제하려는 시도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다. (5점)
- 답안에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썼다면 제시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탓이므로 감점(-5점).
- 일회적 현존성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의미를 모른 채 제시문 문장을 베껴 썼다는 의미이므로 감점(-5점).
- 문학 작품에 제시한 사례와 제시문 (나)의 이론적 논의를 연결한 문장이 없다면 감점(-5점)

[글의 구성의 완성도] (10점)

전체 구성의 적절성과 각 문장의 어법적 완성도를 평가한다.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

· Key Word : 문화, 관용, 복제, 일회적 현존성

[대학 예시답안] 783자

(나)의 입장에 따르면 각각의 문화는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 적응해 온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는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나의 기준에 낯선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는 그 문화가 지닌 고유성과 상대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최근에 우리사회가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변하면서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다른 문화를 접촉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관용은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이 나와 다를지라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보면 (가)에서 라면 요리법이 자신이 아는 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나'를 놀린 것은 관용이 없는 행동이다. 이 행동은 자신의 문화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차별적으로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가)의 '나'가 과거에 느꼈던 라면의 맛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이유를 (다) 관점에서 설명하면, 그 맛이 더 이상 복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시간과 공간 속에 한 번만 존재하는 속성 즉 일회적 현존성은 복제될 수 없다. 과거에 먹은 라면과 동일한 종류를 동일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나'가 그 라면을 먹던 나이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당시와 완벽하게 동일한 맥락을 재현할 수도 없다. 이러한 부분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속성으로 복제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과거의 그 라면 맛을 재현할 수 없었고 따라서 동일한 맛을 느낄 수도 없었다.

## 광운대 2019학년도 기출 모전 2번

④ (가)에서 핵심어를 찾아서 그 의미를 기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나)의 ㉠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고, (다)의 ㉡을 보존할 필요성을 논하시오. (50점, 750±50자)

(가)

베버는 현대 윤리에서 책임 윤리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도덕적 의무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도덕 판단을 하는 의무 윤리를 비판하면서 행위의 결과와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에 기초해서 도덕 판단을 하는 책임 윤리를 주장했다. 요나스도 인간 중심적인 전통 윤리를 비판하면서 생태 중심적 입장에서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 윤리를 주장하였다.

현대의 책임 윤리학자들이 책임을 도덕성의 본질 내지 특징으로 주장하는 배경에는 환경 및 생태, 생명, 정보 등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들과 현대의 과학 기술 문명이 얽혀 있다.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 베이컨의 철학 사상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지식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면 할수록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고, 자연에 대한 지배가 인간 운명을 개선한다는 신념에 따라 인간의 편익과 혜택을 위해 각종 개발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환경 및 자연은 물론, 생태계마저 파괴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인간의 자유와 생명의 존속마저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현대의 과학 기술 문명을 발전시킨 인간은 이러한 윤리 문제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책임의 의미는 전통 윤리에서 말하는, 이미 이루어진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과는 다르다. 요나스가 책임 윤리에서 말하는 책임의 특징은 인과적인 ‘과거 책임’을 넘어서는 당위적인 ‘미래 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미래 책임’이 미래에 저야 할 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래를 고려하는 현재의 책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미래 책임’이어야만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문제에 대처하여 자연과 미래 세대에 책임을 지는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생존이 지구와 그 미래를 돌보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구상에서 참된 인간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표현으로 책임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책임 윤리는 예상 가능한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행위자 자신이 엄격한 책임을 저야 하는 윤리로서 예방 윤리적 성격 및 특징을 띠고 있다. 이러한 책임 윤리는 인간관계에서 요구되었던 책임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윤리 문제에 책임 윤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개념 내지 그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나)

우리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살아간다. ㉠ 소비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개성을 표현하며 신분이나 부를 나타내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한 현대 사회의 소비 문화는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면 매일 쏟아져 나오는 최신형 휴대 전화, 컴퓨터 등이 증가하면서 전자 쓰레기도 급격하게 늘었다. 세계적으로 한 해 발생하는 전자 쓰레기의 양은 무려 5천만 톤에 이른다. 그 중 일부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각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은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제한하였고, 세계 각국들도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전자 쓰레기는 되팔 수 있는 부품이나 금속재료를 분리하고, 나머지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료들은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매립지나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은 중금속이나 유독 물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유독 물질이 포함된 공기가 비 또는 눈과 결합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 영향을 미쳐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근래 세계적 논의로 급부상한 주제는 플라스틱 제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제품이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지나칠 정도로 많은 양의 플라스틱 제품이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사실로부터 확인되고 있으며, 쉽게 썩지 않아서 자연 상태로 회복하는 데도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 플라스틱 제품 과소비는 결국 우리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생태계에 점점 더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다)

사람들은 자연을 이루는 토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누구나 토지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토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정도를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더 강력하게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보존 가치가 높은 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자주 충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 비무장지대(DMZ)를 남북 각 방향으로 2km씩 설정하고 있다. 비무장 지대는 지난 60여년 간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어, 현재 2,700여 종의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또한 용암대지, 주상절리 등 독특한 자연 경관과 문화 유적이 많아 관광 자원으로도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비무장 지대는 동서로 그 길이가 길어서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에 유리하고, 보존 상태 또한 자연에 가까워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통일 시대를 바라보면서 비무장 지대 보존 활용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일 자연 보전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자연 보고로 국제적 주목을 받는 비무장 지대를 효율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독일 또한 분단을 겪었으며, 통일을 맞이하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을 경험한 바 있어서 자신들의 축적된 지식과 제도를 전수해 줄 것을 다짐하였다. 독일 자연 보전청은 ‘한국의 비무장 지대는 세계적으로도 소중한 자연 유산이므로,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비무장 지대 보존과 활용 관련 사업을 돕겠다.’고 하였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가)에서 핵심어를 찾아서 그 의미를 기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나)의 ㉠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고, (다)의 ㉡을 보존할 필요성을 논하시오. (50점, 750±50자)

[독해]

(가) 생태중심적 입장(동물, 미래)에서 행위의 결과(영향)에 기초해서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

(나) ㉠ 현대적 소비: 대량 소비적 특성 강함 ⇒ 환경 오염 ⇒ 인간 위협

(다) ㉡ 비무장지대: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

[논리평면]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가)	생태중심적 책임 윤리 사상	예방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상	(나) ㉠	환경 파괴를 부르는 현대인의 대량 소비	책임윤리적 차원에서 절제 필요
	(다) ㉡		

[예시답안] 763자

현대 사회에 필요한 덕목은 책임 윤리이다. 책임 윤리란, 어떤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책임과 의무의 관점에서 행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도덕관이다. 특히 우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까지, 그리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고려해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하는데, 이러한 생태중심적 입장에서 미래의 불행을 예방해야 지구공동체의 불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에 나타난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태도 역시 책임 윤리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언젠가부터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무엇이든 대량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러한 과소비는 곧 대량 쓰레기 배출로 이어졌고, 감당 범위를 넘어선 쓰레기는 그대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됐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인간을 포함한 모두를 위협하는 수준의 파괴까지 전개되어 온 상황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인간은 물론, 자연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책임 윤리적 의식을 갖고 과소비를 절제해야 한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 과소비를 도덕적 책임 의식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미래의 재앙적 위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비무장지대는 절대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다)의 ㉡에는 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해서 거의 온전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비무장지대가 제시되어 있다. 이곳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현재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호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유지,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 이 문제는 현대 윤리에서 책임 윤리의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책임 윤리의 참뜻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첫 제시문에 나타난 책임 윤리의 핵심 개념인 ‘미래 책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대인이 소비와 관련하여 미래 책임에 기초하여 어떠한 윤리 의식이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제 예시된 사례를 토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비무장지대는 분단, 평화 그리고 생태보전 등의 관점에서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로 유지 및 보존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 수험자가 그 점의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 (가)에 따르면, 베버나 요나스는 현대 윤리에서 책임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책임 윤리는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 시대에 인간과 자연 생태계 또는 환경에 대한 공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책임 윤리는 인과적인 과거 책임을 넘어서는 당위적인 미래 책임을 강조한다. 그것은 현재 세대의 책임이고, 예방 윤리적 성격 및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책임 윤리에서 그 책임은 개념 내지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 (나)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대량 소비 사회다. 소비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하거나 개성 표현, 신분이나 부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 등을 지닌다. 인간의 대량 소비는 여러 목적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쓰레기 또한 만들어 내고 있다. 그 결과 인간의 생활 환경과 자연 생태계가 곳곳에서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류는 미래 책임에 기초하여 친환경적인 소비 형태와 윤리 의식을 지녀야 한다. 이것이 인간 또는 자연 생태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 (다)에 따르면, 토지의 보존과 개발에 대하여 사람마다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 비무장지대는 분단의 상징 구역으로서 다양한 생물 보존, 여러 문화 유산의 존재나 분단 및 평화의 상징 등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가 비무장지대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대하여 계획을 밝히고, 독일 자연 보전청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조치는 비무장지대를 오직 현재 세대의 입장에 머물지 않고, 미래 세대에 전승할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 책임을 토대로 하고 있다.

### [대학 채점기준]

\* 아래 ①~③의 각 항목당 최대 15점씩, ④항목 5점, 합계 50점

① (가)에서 중점적으로 기술된 책임 윤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면 최대 15점

- 책임 윤리의 개념, 인과적 책임과 미래 책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분석(5점)
-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관계성(5점)
- 책임 개념 내지 범위의 확장(5점)

· Key Words : 책임 윤리, 미래 책임, 생태학적 윤리 문제, 예방 윤리, 인간과 자연

② (나)를 분석하여 현대 소비의 양상을 기술하고, 현대 소비가 유발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류가 지녀야 할 미래 책임에 기초한 소비 태도와 윤리 의식을 적절하게 설명하였으면 최대 15점

- 대중 소비 사회의 현상과 과도한 쓰레기 유발(5점)

- 소비 결과로 인류 및 자연 생태계에 미친 영향(5점)
- 친환경적 소비 태도 및 윤리 의식의 제고 필요(미래 책임에 기초한 소비)(5점)
  - Key Words: 소비, 쓰레기, 환경 파괴, 생태계에 위협, 윤리 의식에 기초한 소비
- ③ (다)에 거론된 비무장지대가 일정한 구역의 토지로서 이에 대한 보존과 개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보존 필요성이 중요한 이유를 적절하게 논술하고 있으면 최대 15점
  - 토지의 보존과 개발의 갈등(5점)
  - 비무장지대(DMZ)의 공익적 가치(자연 및 문화 유산, 생물다양성 등)(5점)
  - 보존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구상(5점)
    - Key Words : 토지, 비무장지대, 공익적 가치, 생물 다양성, 자연 유산, 평화와 통일의 상징
- ④ 비문이 없고 맞춤법에 맞으며, 전체적으로 글의 구성 및 논지 전개 완성도가 높을 경우 최대 5점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대학 예시답안] 783자

(가)에 따르면, 현대 윤리에서 책임 윤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고도의 과학 및 기술 시대에 요구되는 윤리로서 인간의 자유와 생명의 존속을 함께 고려하는 책임이다. 이런 이유로 책임 윤리에서 책임은 인과적인 과거 책임을 넘어서는 당위적인 미래 책임을 뜻한다. 이것은 미래를 고려하는 현재의 책임이다. 우리는 지구와 그 미래를 돌보는 것이 인류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책임 윤리에서 책임은 그 개념 내지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나)에서 인간은 기본적인 생활, 개성 표현, 신분이나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 소비를 한다. 소비는 소비의 결과물로 인하여 인간 환경뿐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생태계에 다양한 해를 가하여 국가 또는 국제적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생태계는 현재 우리의 생존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비 행태와 윤리 의식은 친환경적이고도 전 지구적 관점에서 배려하여 미래 책임에 기초하여야 한다.

(다)의 비무장지대는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자연환경 그 자체로서 상당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내세워 개발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비무장 지대는 소중한 자연 유산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통일의 상징성을 전승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현재 세대의 개발 이익보다 미래 세대에게 전수할 자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존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공존을 선택하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미래 책임에 부합한다.

## 단국대 2020학년도 모의 1번

- ④ 1-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 ④ 1-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 [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뉜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나 사회 변동과 같이 사회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폭넓게 탐구하려는 반면, 미시적 관점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을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과 행위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탐구하려고 한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은 흔히 숲과 나무를 관찰하는 태도에 비유한다. 전체적인 숲의 규모나 산의 높이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거시적 관점이라면 그 숲에는 주로 어떤 나무가 자라며 그 생김새는 어떤지 숲 속을 자세히 관찰하려는 것이 미시적 관점이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거시적 관점에서는 한 사회의 전체 흐름과 구조, 사회 조직과 제도의 변화 추이 등에 관심을 둔다면, 미시적 관점에서는 그런 조직과 제도가 개인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과 그런 방식이 개인의 삶에 끼치는 구체적인 영향 등에 주목한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도 적용된다. 심리학에서 거시적 관점은 인간의 심리 현상을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미시적 관점의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주로 독립된 개체들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경제학에서도 거시 경제학은 국가 전체 단위에서 생산, 소비, 소득, 실업률, 물가 등의 문제에 접근한다면, 미시 경제학은 개별 주체로서의 경제인들, 즉 생산자와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적이고도 세부적인 경제 현상과 움직임을 분석한다. 거시적 관점이 어떤 대상 전체를 총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미시적 관점은 어떤 체제가 구체적으로 가동되는 세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만 볼 때 숲을 보지 못하며, 숲만 볼 때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은 서로 상대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거시적인 것이 실천되는 공간이 미시적인 것이라면, 미시적인 것의 종합과 축적이 거시적인 것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출처 : 강운선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출제진 추가 집필)

[나]

축제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행해진다.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을 기념하여 축제를 여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농작물의 수확이 끝난 시기에 마을 축제가 여겨져서 열렸다. 축제 기간에는 많은 놀이와 경연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스트레스를 풀고 생산 활동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된다. 그러나 축제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축제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게 된다. 실제로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에 거행되는 브라질 삼바 축제는 계급과 인종, 경제적 빈부 등의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브라질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많은 축제들이 현재의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의 스와질란드에서는 추수 감사 축제가 열린다. 그런데 이 축제는 현재 지배 체제의 신성함과 절대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체제에 대한 불만과 전복의 욕구를 의례의 형식을 통해 표출하게 하며, 급격한 체제 전복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수 감사 축제 외에도 많은 축제들이 지배 집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실시되고 있다. 지배 집단의 목적은 축제를 통해 피지배 계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들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있다.

이와 달리 축제는 권위적인 체제나 권력에 대한 도전의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축제의 공간에서는 평소에 억압되고 주변화되었던 목소리들이 해방된다. 일시적이지만 신분적 위계와 사회적 규범들은 조롱되고 희화화된다. 예를 들어 중세에 유행했던 ‘카니발’이라는 축제에서, 왕은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이 되기도 하며, 현자가 바보가 되고, 바보가 현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축제는 민중의 해방된 웃음으로 가득 찬다. 우리나라의 탈춤도 지배 계급인 양반 혹은 불교 승려에 대한 풍자를 통해 민중적 해학을 보여주기도 한다. 축제는 이렇게 유쾌한 “상대성”을 만들어내는 민주주의의 기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출처 : 신형민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출제진 추가 집필)

[다]

나를 당혹케 하는 질문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왜 내 만화에 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초기 전시 때에 그렇게 물어 오는 사람이 있었다. 장애는 내 개인의 경험이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삶에 평생 영향을 끼치는 어떤 상처를 마음속의 트라우마로 품고 살아가듯 나에게 있어 장애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다 똑같은 내용과 형태가 아니듯이 장애도 남들과 겹치지 않는 한 개인의 경험이다. 내 만화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얻을 만한 내용을 풀어낸 작품이니 장애는 내 만화의 중심 맥락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 만화가이니까 장애인의 아픔을 호소해야 한다는 시각은 타인들의 일방적인 생각일 따름이다. 내가 지닌 개인적인 상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내고자 매달릴 필요도 없고 굳이 손 내밀 일도 아니다. 그래서 처음 카툰을 그릴 때에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는 심정으로 의도적으로 내 모습을 작품에 넣지 않았다.

내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타인들이 사고를 강요하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곧잘 보여 주는 분위기나 질문에는 세상에 알려졌으면 나와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왜 여기에 가만히 있느냐는 고압적인 뜻이 때때로 느껴진다. 40년간 격리된 환경 속에서 살아온 나에게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 볼 용기도 내지 못하느냐는 질문은 쑥쑥한 심정을 안겨 준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얼 하며 살아왔든, 나는 한곳에서 지금껏 고정된 틀에 매여 살아왔다. 그런 틀에는 그 세월만큼의 과정과 원리가 존재한다. 그것을 한 번의 변화로 끊어 내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하고 잔인한 부탁 아닌지. 멀쩡한 사람 중에도 절로 들어가거나 수도사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왜 나는 은둔하면 안 되는가. 성철 스님처럼 면벽 수련의 대의를 품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자신만의 삶을 사는 은둔형 삶을 누리는 식의 선택도 일반인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장애인들이 세상에 나와 그 실정을 보여야만 사회의 관념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타인의 틀에 박힌 세계관에 꼭두각시처럼 부림을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인 것이다. 내 자신의 의지로 활동하고 싶고,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

\*이 글은 카툰리스트 지현곤의 수필임.

출처 : 박영목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1-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1-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독해]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관점, 사회 현상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고, 이들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나)

(다)

[1-1 논리평면] 요약 ⇒ 생략

[1-1 예시답안] 186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다. 먼저 거시적 관점은 사회를 전체적인 구조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관점이다. 이와 달리 미시적 관점은 구체적인 개별 구성원에 초점을 두고 사회를 분석하는 관점이다. 이들은 상반된 관점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1-2 논리평면]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가)	사회문화	다양한 <b>관점</b> 존재
대상	(나)	축제	기념을 위한 / 권력 공고화를 위한 / 권위에 도전하기 위한
	(다)	장애인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입장과 장애인 본인의 개인적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관점 존재

[1-2 예시답안] 436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다양하다. (나)에는 축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나타난다. 먼저 축제를 공동체에게 특별한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해진다는 관점이 있고, 축제가 지배 체제의 공고화를 위하여 행해진다는 관점도 있고, 반대로 축제가 지배 체제에 대항하는 도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관점도 있다.

이렇게 대상을 분석하는 관점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다)에는 장애인 만화가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 만화가라면 장애인의 아픔을 호소하는 만화를 그려야 한다거나 사회에 나와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장애인 만화가 본인은 만화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을 표현하고자 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존중받고자 한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대립되지만, 실상 장애인의 권리 실현이라는 근본적 목적 아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

## [대학 출제의도]

- 이 문제는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이 문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09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I [독서] 영역의 성취 기준 (4)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작문] 영역 성취 기준 (9)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적절한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며 고쳐 쓴다.’, 『국어』II [작문] 영역 성취 기준 (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은 능력은 사실적 독해를 기반으로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능력이 된다. 이 독해 능력을 기반으로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문화』 교과서의 성취 기준 (3) ‘문화와 사회’, “(다)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문화 및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의 학습 경험을 통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 제시문 [가]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관점’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한 글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관점’의 기본 개념을 인용하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출제진에서 추가 집필하였다.
-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오는 ‘축제’의 특징과 축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설명한 글로, 출제진에서 추가 집필하였다.
-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 ‘창의적 독해’ 능력 신장을 위해 활용한 ‘당신의 틀로 누군가를 가두지 마라’라는 읽기 자료이다.

## [대학 채점기준]

### 1)번 문항

- 문항 해설 1(5점)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관점’이다. 이것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
- 문항 해설 2(5점) : 주제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제시문에 근거하여 1)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 대한 정의와 2)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적용되는 방식을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2)번 문항

- 문항 해설 1(10점) : [가]의 주제어 ‘관점’을 중심으로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나]는 축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축제는 특별한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기 위한 공동체의 행사로서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속이 강화된다. 2) 축제는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통해 지배 집단은 자신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축제는 권위적인 권력이나 체제에 대한 도전의 역할을 한다. [가]의 주제어인 ‘관점’을 중심으로 위 세 가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10점) : [가]의 주제어 ‘관점’을 중심으로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다]는 장애인 만화가인 화자의 입장에서 세상이 자신을 대하는 다음의 두 가지 입장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1) 장애인 만화가가 장애인의 아픔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하여, 화자는 장애는 자신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상처이지 사람들의 보편적 관심사가 아니므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2) 개인적인 공간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에 나와 활발히 활동하라는 입장에 대하여, 화자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화자는 타자의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생활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한다. [가]의 주제어인 ‘관점’을 중심으로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대학 예시답안 (1-1)] 191자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관점’이다. [가]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개념을 정의한다. 거시적 관점은 대상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미시적 관점은 부분 혹은 개체의 각도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관점들은 심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대학 예시답안 (1-2)] 406자

[가]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축제를 다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첫째, 축제는 공동체의 특별한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행해진다. 둘째, 축제는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진다. 셋째, 축제는 권위적인 체제에 대한 도전의 기능을 갖는다. [다]는 화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들의 관점을 논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하여, 화자는 자신의 장애보다 더 보편적인 공감을 얻어내는 작품을 쓰고 싶다는 관점을 밝힌다. 화자에게 세상에 나와 더 활발하게 활동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화자는 개인으로서 은둔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주체적 권리가 있으며, 이런 권리는 타인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는 관점을 밝힌다.

## 단국대 2020학년도 모의 2번

- ☞ [가]와 [나]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가]와 [나] 각각의 입장에서 [다]에 대해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 [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즉 초유기체(꿀벌과 개미처럼 여러 개체가 모여서 하나의 큰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곤충을 사회성 곤충이라고 하며, 사회성 곤충을 이루는 집단은 완전한 하나의 생물체처럼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데, 이를 초유기체라 한다.)로 여기는 관점이 있다. 사회가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특성을 가진다면 사회의 발달 과정 역시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해 왔듯이 사회도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되어 갈 테고, 쥐가 고양이의 먹이가 되고 정어리가 갈매기의 먹이가 되듯이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고,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늘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출처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출제진 재구성)

오늘날의 디즈니 제국을 세운 월트 디즈니(Walt Disney, 1901~1966)와 맥도날드 황제 레이 크록(Ray Kroc, 1902~1984)은 모두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야전의무대에서 함께 복무한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업을 할 때에도 내내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둘 다 고등학교 중퇴자이며 후에 자신들의 회사에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직원 교육기관을 세웠다는 것도 똑같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주력했고, 나중에 사업 차원을 넘어서 미국 문화, 아니 전 세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똑같다. 또 디즈니랜드에선 맥도날드를 팔았으니 사업에서까지 돈독한 우정을 유지한 셈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세상과 경쟁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도 똑같았다. 디즈니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잊지 마시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것이 자연법칙입니다. 어떤 빌어먹을 이상주의적인 계획이 등장한다고 해도 이 법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1972년 크록은 패스트푸드 사업에 대해 고차원적인 해석을 늘어놓는 기사를 이렇게 비웃은 적이 있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동족살육의 게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죽여야 하는 이 일은 산업이라기보다는 약육강식의 미국적 해석이라 불러야 할 겁니다." 심지어 크록은 경쟁자들에 대해 이런 말까지 했다. "만약 그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난 그 입에 호스라도 집어넣을 것이다."

.....중략.....

디즈니와 크록의 경쟁관은 두 기업의 관리법까지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공통된 핵심은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통제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사회학 교수 조지 리처(George Ritzer)는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점의 원리가 미국 사회와 그 밖의 세계의 더욱 더 많은 부분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맥도날드화라고 불렀는데, 맥도날드화는 디즈니화라는 말로 교체 가능하다.

출처 : 강준만,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3 (출제진 재구성)

[나]

유성 생식(有性生殖)을 하는 생물은 암수 유전자를 섞어야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는다. 이 자손은 각자 환경에 기대어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주변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커진다. 초기에는 이 변이로 인한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변이가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그 생물종의 특징으로 자리잡게 된다.

다윈은 이러한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 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자연 선택의 타당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윈은 “변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신의 의지 같은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생물은 우열이 없다.”라고 썼다.

……중략……

갈라파고스 군도에는 모두 13종의 핀치가 서식하는데, 이들은 크기나 습성 등은 비슷하지만 부리의 모양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들 핀치는 저마다 독특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은 그들이 주로 먹는 먹이와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나무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핀치는 단단한 나무껍질 속에 부리를 밀어 넣고 벌레를 찍어 올리기에 유리한 긴 주삿바늘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고, 견과류나 씨앗을 주식으로 삼는 핀치는 단단한 껍질을 부술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한 지렛대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13종의 핀치는 모두 부리의 모양이 달랐고, 그 부리들만큼이나 그의 먹잇감도 달랐다.

다윈은 다양한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13종의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였으나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핀치들이 하나의 우수한 종으로 통합되는 쪽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종으로 쪼개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먹잇감 역시 구하기 쉽고 찾기 쉬운 한 종류로 모아지지 않고, 다양하게 세분화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만약 13종의 핀치가 모두 한 가지 먹잇감에만 집착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먹잇감이 부족해져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의 수는 훨씬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3종의 핀치는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곤충, 큰 곤충, 날아다니는 곤충, 나무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곤충, 딱딱한 씨앗과 부드러운 열매 등 종마다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해, 같은 먹이 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하지 않아도 되었고, 결과적으로 제한된 서식지 안에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진화에 있어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다.

출처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다]

1997년 개봉한 영화 ‘가타카(GATTACA)’의 제목은 DNA의 염기 서열인 A, T, G, C의 철자로 만들어졌다. 이 영화가 그리는 미래 사회에는 유전자가 인간의 직업과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 조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 가상의 미래 사회는, 열성 인자가 제거된 인공 수정을 통해 우성 인자만을 지니고 태어난 ‘엘리트 아이’들이 지배 계층을 이루고, 자연 수정을 통해 배합된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나는 ‘신의 아이’들은 이 지배 계층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철저한 계급 사회다. 영화는 이

‘신의 아이들’ 계급과 ‘엘리트 아이들’ 계급의 각각의 운명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주인공 빈센트 프리먼은 자연적인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태어난 신의 아이다. 빈센트의 유전자 분석 결과는 그의 심장 질환 조기 발병과 범죄자로의 성장과 31세 경의 사망을 예측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빈센트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을 갖는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그는 우주 비행사가 되는 그 어떤 시험이나 면접도 통과하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고 집을 나선다.

청소부 생활을 전전하다가 우주 탐사팀을 보내는 회사인 ‘가타카’에 청소부로 입사한 빈센트는 자신의 유전자에 의해 예견된 미래에 반기를 들고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영화의 스토리이다.

도덕과 윤리, 인간의 존엄성 위에 우월한 유전자를 배치한, 가타카의 미래 사회가 벌써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7일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신생아를 낳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혀 엄청난 논란을 낳고 있다. 중국 선전시 남부과학기술대의 허젠쿠이(賀建奎) 박사는 바로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유전자를 조작한 체외 수정 배아를 제3의 산모에게 착상시키고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도왔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는 생명공학이 금기로 여기던 경계 한쪽을 뛰어넘어선 전무후무한 사건에 해당된다. 게다가 이 연구 결과가 정식 논문 출간 혹은 발표나 검증 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 가위 관련 학회의 강의 중에 흘러나온 소식을 기사가 기사화한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을 야기했다.

어느 특정 유전자의 염기 서열에 돌연변이가 생겨 해당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 기능이 크게 바뀌면 유전 질환으로 이어진다. 수 천 개의 염기 서열에서 단 하나의 염기 돌연변이로도 심각한 유전 질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단 하나의 염기 돌연변이인 ‘점 돌연변이’\*의 염기를 정상으로 바꾸도록 교정할 수 있고, 이를 수정란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교정한다면, 유전 질환을 지닌 사람을 애초에 교정할 수 있게 된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자 가위로 염기 서열을 변형하고 원하는 염기로 바꾸는 기법이다. 유전자 가위 기술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유전자 가위 염기 편집은 미래의 안전하고 유용한 유전자 치료술로 발전할 수 있을까? 여러 논란 중, 이번 중국 과학자의 이 사건은 과연 인간 수정란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권리로 다른 사람의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지, 유전 질환뿐만 아니라 정상인 수정란에 잘못 적용되어 일명 ‘디자이너 베이비’의 대량 배출 가능성은 없는지에 관한 뜨거운 논의를 부추기게 됐다.

.....중략.....

인간의 유전자를 앞에 두고 어떤 유전자가 정상이고 어떤 유전자가 비정상인가? 어떤 사람이 정상이고 어떤 사람이 비정상인가? 다수라고 해서 더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의 상류 계층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부과해 주는 유전자라고 한다면 과연 더 우월한 유전자인가?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수정란 단계의 개체에 유전자 편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로 가능한 것인가?

날이 갈수록 유전체 검사 비용은 점점 더 저렴해지고 일반인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와 있다. 이제는 누구나 본인의 유전체 검사를 쉽게 의뢰하고 분석 결과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됐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는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가 많은 이들의 건강 정보, 질병 관리, 심지어 일상 영위의 결정들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영화 가타카가 과장되게 그렸던 미래의 어느 날이 이제는 더 이상 과장된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시대의 초입에 우리 모두가 있다.

\* 점 돌연변이 : DNA에 염기 하나가 바뀌어서 발생하는 돌연변이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2018.12.14.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가]와 [나]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가]와 [나] 각각의 입장에서 [다]에 대해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독해]

- (가) 사회라는 초유기체 안에서 인간은 언제나 불평등한 지배-피지배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 (나) 모든 생물은 본질적으로 동등하며, 다양성은 생태계 진화를 위한 자연의 적응 방식이다.
- (다) 자연적인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수정하는 유전자 변형 기술의 발전

[논리평면] 비교,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추구하는 가치	자연법칙	가치
기준	(가)	우월성 추구	지배-피지배 - 자연법칙	G
대상	(다)	유전자 조작	생존과 번성에 유리	g
기준	(나)	다양성 추구	평등성 - 자연법칙	G
대상	(다)	유전자 조작	본질적 평등성 부정	b

[예시답안] 657자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생존 법칙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생물의 적응에 있어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 대한 주장과 이 주장이 근거한 자연법칙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가)는 우월성 추구가 권장된다고 말한다. 인간이나 그 외 자연적 생물이나 힘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수직적 관계를 설정한 자연법칙에 따른 것인데, 자연의 운행 원리가 지배-피지배 관계에 기반해 있어서 자신이 강해지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나)는 다양성 추구가 권장된다고 말한다. 모든 생물은 자연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경쟁을 줄이기 위해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응 방식에는 자연적 진화는 우연의 산물이며, 따라서 모든 생명 간에는 우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개체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다)의 유전자 변형 기술은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된다. (가)의 관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데, 유전자 조작 기술로 인해 얻게 된 우월성이 종의 생존과 번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나)의 관점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데, 유전자 조작 행위가 전제된 생물 간의 우열 관계에 대한 관점이 자연적 평등성을 무시한 잘못된 관점이기 때문이다.

## [대학 출제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09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I 교과와 [독서] 영역 성취 기준 (4)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작문] 영역 성취 기준 (8)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국어』II 교과와 [독서] 영역 성취 기준 (6) ‘다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는다.’, [작문] 영역 성취 기준 (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을 맺고 있다. [가]에 제시한 두 자료의 중심 내용과 [나]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에 대해 논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제시문 [가]는 두 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자료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 창의적 독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유기체로서의 사회를 ‘약육강식’의 논리로 설명하고자 한 글이다. 뒤의 자료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보조 자료에서 선별한 것으로, 경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찾아낼 수 있는 글이다.
- 제시문 [나]는 [가]와 연관된 글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창의적 독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글이다. 생물체의 자연에 대한 적응 방식이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다윈의 견해가 들어있다.
- 제시문 [다]는 신문 자료에서 선별한 것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09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의 내용 체계 ‘생명·성·가족 윤리’ 영역의 주제인 ‘생명과학과 윤리’에서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는 유형의 글 가운데 하나이다. [다]에 제시한 문제 상황은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대학 채점기준]

문항 해설 1(10점) : [가]와 [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비교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와 [나]의 입장을 비교·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문항 해설 2(20점) :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에 대해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와 [나] 각각의 입장에서 [다]를 논술한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가]와 [나]의 두 입장에서 논술하였으면 11~20점

[가]와 [나] 중 하나의 입장에서 논술하였으면 1~10점

[가]와 [나] 어느 입장에서든 논술하지 못하였으면 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대학 예시답안] 612자

제시문 [가]와 [나]는 사회와 자연의 진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가]는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에 따라 약한 동물은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고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는 것이다. [나]는 생물체는 우열이 없으며, 자연에서 살아남는 것은 강한 자가 아니라 자연환경에 따른 적합한 선택을 한 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종의 보존에 중요한 것은 우월성이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이다.

유전자 조작은 자연적인 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고 원하는 조합으로 바꾸는 것이다. [가]는 유전자 조작에 찬성하고 [나]는 반대할 것이다. [가]는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강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것이 자연법칙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성 인자를 선택하여 우월한 인간을 만드는 것은 자연법칙에 부합하며 종의 보존에도 유리하다. [나]는 모든 생물체는 우열이 없고, 진화에는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자연에서 살아남는 것은 강한 자가 아니고 적합한 선택을 한 자들이다. 따라서 인위적 조작에 의한 우월성의 선택은 옳지 않으며 다양성의 증가가 더 중요하다.

## 단국대 2020학년도 모의 3번

☞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 [가]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 현상 속에서 규칙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이 같은 노력을 과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콩트(Comte, A.)이다. 그는 자연 과학의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 도입해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규칙적인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콩트의 노력은 사회 과학을 철학과 구분되는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만들었다.

사회 과학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으로 점차 분화되었다. 정치학은 권력의 형성과 행사, 공공 정책의 결정 과정 등을 연구하며, 경제학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및 소비 과정을 연구한다. 사회학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은 보다 전문화된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학은 도시 사회학, 농촌 사회학, 범죄 사회학, 노인 사회학 등으로 분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학문의 탐구 결과를 가지고는 사회·문화 현상 자체를 서로 다른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복합적인 사회·문화 현상을 단편적이고 일면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간학문적 접근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간학문적 접근에서는 복합적인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탐구 방법을 종합한 총체적 연구를 중시한다.

출처 : 신형민 외, 『사회·문화』 (출제진 재구성)

### [나]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일곱 달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준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즐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십 분은  
간밤 아기에게 젓 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 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집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명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출처 : 조정래 외, 『고등학교 문학』

“경희도 이리로 나오기로 했는데 어쩐 일일까?”

희숙이 하품을 하며 시계를 보았다.

“경희?”

“왜, 경희 몰라? 얼굴이 예쁘고 송곳니가 하나 덧니고, 너처럼 부끄럼을 유별나게 타던 애 말야. 웃을 땀 덧니가 부끄러워 손으로 가리는 버릇이 있었지. 총각 선생이 뭘 물으면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엉뚱한 대답을 해서 별별 소문을 다 뿌리던 애 말야.”

“걔 여전하단다. 여전히 젊고 예쁘고 부끄럼 잘 타고, 시집을 잘 가서 고생을 몰라서 그런지 무슨 애가 고대로야.”

나는 느닷없이 경희에게 강렬한 적개심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 보는 격하고 싱싱한 느낌이었다. 빨리 보고 싶었다. 경희를, 부끄럼 타는 경희를 보고 싶었다. 나는 마치 경희가 이 세상의 부끄럼 타는 마지막 인간이라도 되는 듯이, 지금이 바로 그 사라져 가는 표정을 봐 둘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듯이 초조했다.

“왜 이렇게 안 올까? 집으로 전화 연락 좀 안 될까?”

전화를 걸고 돌아온 영미가 약간 아니꼬운 듯이 입을 비죽대며

“저희 집으로 다들 오란다. 뭐 귀한 손님이 오셔서 못 나왔단다. 귀한 손님이라야 뻔하지. 와이로 가져온 손

“넘일 거야. 가자, 가서 점심이나 얻어먹자. 개 속셈 뻔하지 뭐. 아마 저 잘사는 거 자랑시키려고 그러는 걸거야.”  
누구라면 알 만한 고위층에 속하는 남편을 가졌다는 경희는 그 나름으로 선망과 질투의 대상인 성실했다.

출처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다]

◆ 2018년 세계 경제 포럼(WEF) 세계 성(性) 격차 지수 (149개국 대상)

국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니카라과	르완다	뉴질랜드	필리핀	아일랜드
순위	1	2	3	4	5	6	7	8	9
점수	0.86	0.84	0.82	0.81	0.80	0.80	0.80	0.80	0.80

국가	나미비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순위	10	12	14	15	51	103	108	110	115
점수	0.79	0.78	0.77	0.72	0.67	0.67	0.67	0.66	0.66

출처 : Global Gender Gap Report 2018, WEF

세계 여러 나라의 성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성 격차 지수라는 것이 있다. 성 격차 지수는 세계 경제 포럼(WEF)이 발표하는 것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한, 경제 참여와 기회, 삶의 방식 등의 부문에서 남녀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한 것이다. 이 점수는 완전 평등 상태가 1, 완전 불평등한 상태가 0점으로 표시된다.

출처 : 구정화 외, 『사회·문화』 (출제진 재구성)

[라]

◆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3개국 대상)

국가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한국
순위	47	78	39	30	165	62	16	121
여성 국회의원 비율	30.9	23.5	32.0	35.7	10.2	26.9	39.7	17.1

자료 : 국제의회연맹보고서, 2019년

출처 : 『중앙일보』, 2019. 3. 7.

◆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 (남성 노동자의 임금을 100%로 할 때)

연도	2009	2010	2011	2012
임금 수준(%)	62.3	61.6	62.1	61.3

자료 :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2012년

출처 : 이진석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 직원 1000명 이상 기업 직급별 남성 비율

직급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남성 비율(%)	66.8	79.2	88.6	93.1	95.8	95.3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여성관리자패널조사』

◆ 남성과 여성의 고용 비율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성의 고용 비율(%)	70.7	71.6	70.1	70.5	70.8	70.8	71.4	71.1
여성의 고용 비율(%)	47.0	48.4	47.8	48.1	48.4	48.8	49.5	49.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8등신의 날씬한 여성, 눈이 크고 코가 오뎅한 여성 캐릭터, 분홍색 옷을 입은 얌전한 여자아이와 파란색 옷을 입고 씩씩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남자아이... 미디어는 차별을 답습하고, 강화하고, 확산한다. 주로 특정 성별에 대한 역할과 고정관념을 그대로 재현하면서다.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은 지난해 펴낸 ‘2018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는 영웅적 면모를 보여주는 주인공 캐릭터는 대부분 남성이 담당하고 있다. 여성 캐릭터는 주로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보다 사소한 사건에 투입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짚은 바 있다.

출처 : 『한겨레』, 2019. 3. 21.

◆ 4년제 대학 여성 졸업생의 키에 따른 취업률 비교

키	157.0cm 이하	166.8cm 이상
졸업 당시 취업률(%)	36.1	65.3
졸업 당시 양질의 일자리 취업률(%)	4.2	20.0

\*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란 300인 이상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정규직을 나타낸다.

출처 : 『서울신문』, 2018. 1. 8.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독해]

- (가) 개별적인 사회과학만으로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간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 (나) 첫 번째 작품: 가정의 유지를 위해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  
두 번째 작품: 가부장적 사회가 정한 ‘여성스러움’을 가진 여성이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풍요를 누리는 모습
- (다)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세계적 차원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 (라) 여성은 국회의원 비율도 낮고, 임금 및 고용 기회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으며, 문화적 차별까지 받고 있다.

[논리평면] 문제해결

기능	제시문	내용
문제 현상	통합	심각한 여성 차별적 사회 현실의 대한민국
	(나)	가정의 유지를 위해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 ‘여성스러움’을 가진 여성이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풍요를 누리는 모습
	(다)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세계적 차원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라)	여성은 국회의원 비율도 낮고, 임금 및 고용 기회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으며, 문화적 차별까지 받고 있다.
원인 분석	(가)	사회 종합적 차원에서 다양한 원인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간학문적 접근 필요
대안 제시	통합	사회 다방면의 종합적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예시답안] 671자

우리나라는 현재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 사회를 갖고 있다. 제시문 (나)에 나타나듯, 가정의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여성이 사회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의미의 ‘여성스러움’에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시문 (가)에서 말하듯 사회 현상이 갖는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양학 학문 간의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압박은 단순히 문화적 차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성 차별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제시문 (다)에 있다. (다)를 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세계적 차원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데, 이는 여성이 갖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삶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제시문 (라)에 나타나듯 한국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낮고, 남성에 비해 임금 수준도 낮고, 임원 비율도

작으며, 고용률 자체도 작다. 또한 미디어는 여성의 가부장적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있고, 기업들도 이에 맞춰 여성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 다방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여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더 많이 선출하고, 기업에 성평등적 기업 문화를 권고하며, 시민들 역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거둬야 할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09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문화』 교과 ‘사회·문화 현상 탐구’ 영역의 성취 기준 (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적 태도와 연구자의 윤리를 이해한다.’를 기반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I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독서와 문법』 교과와 성취 기준 (25) ‘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독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를 통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가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제시문의 주요 내용 및 성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과 탐구 방법을 제시한 교과서의 바탕글로, 사회·문화 현상 탐구에서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탐구 방법을 종합한 총체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제시문 [나]는 고정희의 ‘우리 동네 구자명 씨’와 박완서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작품이다. 두 작품에서는 [가]에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 제시문 [다]에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대상으로 삼은 ‘성 불평등’ 문제를 수치로 나타낸 ‘세계 성 격차 지수’를 제시하였다.
- 제시문 [라]에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및 신문 매체 등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성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 [대학 채점기준]

문항 해설 1(20점) :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나]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다]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문항 해설 2(20점) : [나]와 [다]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나]와 [다]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가]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대학 예시답안] 612자

[가]는 사회 과학에서의 간학문적 접근을 설명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와 여성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즉 가정에서 여성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가사를 책임지는 등 남성과는 차별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는다. 이는 [다]가 설명하는 성 불평등을 초래한다. 즉 2018년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는 149개국 중 115위를 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에 비해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라]는 [다]의 사례를 제시한다. 즉 국회의원의 경우 여성이 매우 적고, 회사 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고, 승진 기회가 적고, 여성의 경제 활동이 남성보다 적고, 미디어에서는 왜곡된 여성상을 표현하고, 여성은 외모가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사회질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양성 평등을 이루려면, 정치적 측면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직장 내 성차별 금지는 물론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경제 활동을 유도하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대중 매체의 성차별 개선은 물론 개인 각자가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갖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 동국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 1번

- ☞ [가]에는 “인간과 고등 동물이 보이는 정신 능력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이지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등장한다. [나]와 [다]에는 그 주장을 지지하거나 공박하는 논거가 나타나 있다. [나] 입장을 통해 위 주장을 옹호하면서 [다]를 비판하든가 또는 [다] 입장을 통해 위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를 비판해 보시오. <12~14줄 (360~420자)> [30점]

### <유의 사항>

- 전술한 두 노선 중 수험생이 지지하는 하나를 택하여 논변하십시오.

### [가]

인간과 고등 동물이 보이는 정신 능력의 차이는, 그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정도의 문제이지 결코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높은 정신 능력은 다른 지적 능력이 크게 발달하면서 부수적으로 생긴 결과에 불과할 수도 있다. (찰스 다윈, <인간의 유래>)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 [나]

인간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등한시하고 동물이 아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을 과소평가한다. 사람들에게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선택을 내리며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똑같은 감정적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감정 표현을 숨기거나 비밀로 하지 않는다. 동물들의 감정 세계는 매우 공개적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느끼는 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우리가 동물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알 길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이 주장은 더 이상 과학적 자료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인간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

예를 들어, 포유류는 감정 처리에 중요한 뇌 구조가 인간과 동일하다. 흥미롭게도 동물원이나 서식지 침범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동물들을 치료할 때 사람에게 적용하는 많은 심리 치료 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동일한 신경 구조 때문이다. 제임스 블라호스는 2008년『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글에서 학대, 공격성, 분리 불안, 우울증 그리고 강박 장애 같은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람에게 처방하는 약물이 동물에게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동물이 본질적으로 살과 피를 가졌지만 인간의 감정이나 기억, 의식과 같은 측면은 하나도 없는 마치 자동 장치 같은 존재라는 엄격히 기계론적인 데카르트적 관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 동물이 사람에게 발병하는 것과 섬뜩할 정도로 비슷한 정신 질환을 겪는 것이며 똑같은 약물에 반응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다]

내가 그것들을 더욱 자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항상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나의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나의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 전자의 입장은 수많은 다양한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으로서 동물적 피조물로서의 나 자신의 중요성을 완전히 없애 버린다. 즉 나는 (우주의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지구에서 생겨나서 아주 잠시 동안 생명을 부여받았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가야만 하며 또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후자의 입장은 지성을 소유한 나 자신의 가치를 나의 인격성을 통하여 무한히 높인다. 나의 인격성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은 모든 동물과도, 심지어 감각계 전체와도 전혀 무관한 세계를 제시해 준다. (애링턴 <서양윤리학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가]에는 “인간과 고등 동물이 보이는 정신 능력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이지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등장한다. [나]와 [다]에는 그 주장을 지지하거나 공박하는 논거가 나타나 있다. [나] 입장을 통해 위 주장을 옹호하면서 [다]를 비판하든가 또는 [다] 입장을 통해 위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를 비판해 보시오. <12~14줄 (360~420자)> [30점]

[독해]

- (가) 동물들 → 동류의 정신 능력
- (나) 동물들 → 동일한 신경구조 → 동일한 감정 체계
- (다) 인간 → 독보적 정신 세계 - 도덕 법칙 → 우월한 가치

[논리평면] 가치추론 [(다)의 관점에서 (가)와 (나)를 비판하는 경우]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다)	인간	독보적 정신력 → 우월한 가치	G
대상	(가)	동물들	동류의 정신 능력	b
	(나)	동물들	신경 구조와 감정 체계로 동일성 강조	b

[예시답안] 420자

인간은 다른 그 어떤 동물도 갖지 못한 독보적 정신력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고귀한 도덕적 법칙을 품고 있다. 다른 동물과 인간을 본질적 차원에서 동일시하는 관점은 인간이 갖는 배타적 중요성을 간과한 착각에 불과하다. 이러한 착각을 보여주는 관점은 제시문 (가)와 (나)이다. 먼저 (가)는 동물들이 모두 동일한 종류의 정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종류는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동물도 도덕 법칙의 고귀함을 품을 수 있다는 착각에 불과하다. 또한 (나)는 동물들이 인간과 동일한 신경구조를 갖고 있고, 인간이 갖는 감정 체계를 동물도 똑같이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물과 인간의 동일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경구조와 감정 체계가 동일하다고 해서 동물이 인간이 가진 고귀한 이성적 체계를 지녔다고 말할 순 없다.

## [대학 출제의도]

본 문항은, 논란이 많은 중요한 주장에 대하여 여러 관련 정보를 활용해서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더불어, 그 옹호나 반박 과정에서 해당 명제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 [대학 문항해설]

### 1) 제시문 분석

[가] : ‘인간과 인간 이외의 고등 동물이 보이는 정신 능력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쟁점이 소개된다.

[나] : 위 쟁점에 대하여 인간과 고등 동물의 정신 능력의 차이가 ‘정도’의 문제라는 입장이 몇몇 사례와 근거에 기반하여 옹호된다.

[다] : 해당 쟁점에 대하여 인간과 고등 동물의 정신 능력의 차이가 ‘종류’의 문제라는 입장이 몇몇 근거에 기반하여 개진된다.

### 2) 문항 해설

본 문항의 배경을 이루는 과학적·철학적 쟁점은 ‘인간과 인간 이외의 고등 동물이 보이는 정신 능력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그에 대하여 제시문 [가]는 인간과 여타 고등 동물의 정신 능력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이지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는 찰스 다윈의 견해이다.)

위 문제에 대하여 제시문 [가]의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과 그 주장을 공박하는 입장이 나뉜다. 그래서 제시문 [나](진화생물학자 마크 베코프의 입장)는 현대 동물학 관점에서 인간과 고등 동물의 정신 능력의 차이가 ‘정도’의 문제라는 관점을 옹호한다. 반면에 제시문 [다](철학자 칸트의 입장)는 철학적 윤리학의 관점에서 인간과 고등 동물의 정신 능력의 차이가 ‘종류’의 문제라는 관점을 옹호한다. 그 둘은 각각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한다.

다윈의 원래 주장은 과학계에서도 철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중이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해답이 아직 없다. 따라서 베코프의 입장과 칸트의 입장 중 어느 것이 궁극적으로 참인지 결정할 수 없다.

이 문항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인간과 고등 동물의 정신 능력의 차이가 ‘정도’의 문제라는 입장을 택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종류’의 문제라는 입장을 택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수험생 자신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관점 하나를 택한 후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논리적으로-즉 ‘설득력 있는 이유나 근거를 통해’-비판하는 일이다. 그러한 근거들은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으로부터 차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판 과정에서 수험생들은, 다윈의 명제를 구성하는 결정적인 그러나 의외로 상당히 모호한 개념-즉 ‘정도’와 ‘종류’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만들도록 시도해야 한다.

[대학 채점기준]

- (1) 글이 다루는 쟁점이나 현안 문제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즉, 제시문 [가]의 중심 이슈(즉, ‘인간과 여타 고등 동물의 정신 능력의 차이가 ’ 정도 ‘의 문제인지 아니면 ’ 종류 ‘의 문제인지 성찰하는 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두 입장 중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고 있는가?
- (2) 자신이 택한 입장을 잘 설명하면서, 반대 입장에 대하여 근거가 강하고 설득력이 높은 비판을 제시하는가?
- (3) 반대 입장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제시문 [가]의 명제를 구성하는 결정적인 개념-즉 ‘정도’와 ‘종류’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해명하는가?

상	S	위 요건 (1), (2), (3)을 충족하면서 글의 명확성과 설득력이 높은 경우. (요건 (1), (2), (3)을 충족하면서 매우 창의적인 내용을 서술한 경우도 포함됨.)
	A	위 요건 (1), (2), (3)을 충족했지만 글의 명확성과 설득력이 다소 낮은 경우.
중	B	위 요건 (1), (2), (3)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전체 글이 분명하고 정합적으로 서술된 경우.
	C	위 요건 (1), (2), (3) 중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전체 글이 불분명한 경우.
	D	위 요건 (1), (2), (3)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임의대로 서술한 경우.
하	E	물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답안을 작성한 경우.
	F	백지 답안, 분량 미달(절반 이하) 등.

[대학 예시답안1] - [나]의 입장에서 [다]를 비판하는 논변 (415자)

일부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동물이 실제로 사고를 하거나 감정을 갖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입장은 인간 우월주의의 한 형태일 뿐이다.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갖는다. 감정의 소유와 경험에 관련하여 인간과 몇몇 포유류 동물의 뇌 구조와 신경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이 판명되었다. 제임스 블라호스는 “학대, 공격성, 분리 불안, 우울증 그리고 강박 장애 같은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람에게 처방하는 약물이 동물에게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파했다. 이 사실들은 인간과 고등 동물 사이의 정신 능력이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는 점을 지지한다. 그러한 정신 능력의 차이는, 각기 다른 고유한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본성의 상이한 수준, 레벨, 또는 복잡성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일부 동물에서 보이는 도덕적 행위 역시 정도의 문제이지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도덕을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는 반면에 동물은 낮은 수준으로 실현할 뿐이다. ‘인간만이 소유한 고유한 도덕성’이라는 이념은 과장된 것이다.

[대학 예시답안2] - [다]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하는 논변 (417자)

일단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인간과 여타 고등 동물의 정신 능력의 차이가 정도의 문제이지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입장은 결국 정신 현상을 물질 현상으로 환원하려는 시도이다. 인간이 가진 정신성과 동물이 가진 정신성이 다소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존재한다. 고통이나 기쁨과 같은 원초적인 느낌이나 감정 영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감정이 정신의 전부는 아니다. 인간의 정신은 과학적 지성, 윤리적 이성, 그리고 종교적 영성을 포함한다. 그것은 자연의 세계를 넘어서고 초월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몇몇 고등 동물이 정신을 가졌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정신이 과학적 탐구를 수행하거나 윤리적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거나 순수한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인간과 고등 동물 사이의 정신 능력에는 본질적인 '종류 차이' 내지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일은 또 다른 형태의 아집이나 오류이다. 인간이 가진 정신 능력은 고유한 것이다. 그것은 생물학적·기계적 능력으로 성급하게 설명하거나 환원하려해서는 안 된다.

## 동국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 2번

- ④ [가]~[다]를 참조하여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중산층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기술하고, [나]의 누진소득세 제도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구조를 [라]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12~14줄 (360~420자)> [30점]

### [가]

정부가 중산층 육성에 골몰하는 이유는 건실한 중산층의 존재가 사회적 안정에 기초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구매력을 가진 대표적 소비층으로서, 중산층의 안정된 생활은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나라의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산층이란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산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경제학자는 소득을 중심으로 중산층을 분류한다. 예컨대 중위 소득의 50%~150%에 속하는 층을 중산층으로 규정지어, 50% 미만의 층을 빈곤층, 150% 이상의 층을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때로는 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직업, 교육수준, 재산, 주택, 그리고 귀속의식까지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기도 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 [나]

재화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되더라도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제력 격차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정부는 지나친 빈부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실업률을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누진 소득세를 부과하고,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 보장제도를 시행한다.

-『고등학교 경제』

[다]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가구주는 52.8%였다. 이것은 1988년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년 전에 비해 2.1% 포인트가 줄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중산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반면 '나는 하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42.4%에서 2011년에는 45.3%로 늘었다. 중산층과 하층의 비중 차이는 7.5% 포인트에 불과했다. 1988년에 24% 포인트 차이였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라]

사회계층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구분하는데, 계층 구성원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층구조가 나타난다. 우선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는 상류층의 비율이 가장 낮고 하류층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중간층이 그 중간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는 상류층의 인구 비율과 하류층의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류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형태이다. 모래시계형 계층구조는 중류층의 비율이 가장 낮고, 중류층보다는 높지만 상류층에 비하여 하류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태이다. 그리고 타원형 계층구조는 중류층의 비율에 비해 상류층과 하류층의 비율이 매우 낮고, 최상류층과 최하류층이 거의 없는 형태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가]~[다]를 참조하여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중산층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기술하고, [나]의 누진소득세 제도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구조를 [라]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12~14줄 (360~420자)> [30점]

[독해]

- (가) 중산층 → 중위소득의 50%~150% 범위 안에 분포되어 있는 계층
- (나) 누진 소득세 →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인다.
- (다) 중산층 의식 감소(52.8%), 하층 의식 증가(45.3%)
- (라) 타원형 계층구조 → 최상류층과 최하류층은 거의 없고, 중류층이 많음

[논리평면] 종합추론(가치, 사실)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가)	중산층	중위소득의 50%~150% 계층	G
대상	(다)	중산층 변화 확정 X	중산층 의식 감소, 하층 의식 증가	b
	(나)	중산층 증가	누진 소득세로 하층과 상층의 중심부 이동	g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나)	누진 소득세	하층과 상층이 중산층으로 이동
대상	(라)		타원형 - 극상층과 극하층은 거의 없고, 중층 증가

[예시답안] 416자

중산층은 제시문 (나)에 나오듯 중위소득의 50%~150% 범위에 있는 계층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인한 중산층 변화는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에 따르면 해당 2년 동안 조사된 중산층 의식은 52.8%로 2.1%p 줄어들었고, 하층 의식은 45.3%로 2.9%p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의식 조사일 뿐이지 중산층 개념의 핵심인 소득 분배가 아니기 때문에 계층 변화에 대해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시문 (나)에 나타난 누진 소득세로 인해 중산층은 늘어날 것이다. 누진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라)에 나타난 타원형 구조, 즉 극상층과 극하층이 거의 없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본 문항은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특성을 사회과학적 조사에 의해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 숨은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여 제시한 문항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력, 현상을 적절히 분석하는 분석력, 그리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 [대학 문항해설]

### 1) 제시문 분석

#### (1) 제시문 [가]

- 정부는 중산층의 육성을 위해 노력
- 중산층은 구매력을 가진 대표적 소비층으로서, 중산층의 안정된 생활은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나라의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될 것.
- 중산층의 분류: 일반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
- 경제학자들의 중산층 규정:
  - 중위 소득의 50%~150%에 속하는 층을 중산층으로 규정지어, 50% 미만의 층을 빈곤층, 150% 이상의 층을 상류층으로 분류

#### (2) 제시문 [나]

- 불평등한 소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
- 실업률 감소를 위한 정책
- 누진 소득세 제도 형성 및 적용: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
-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시행

#### (3) 제시문 [다]

- 2011년 사회조사 결과
  - 질문: ‘나는 중산층이다’ - 52.8% : 2년 전에 비해 2.1% 감소
  - ‘나는 하층이다’ - 45.3% : 2년 전에 비해 2.9% 증가

#### (4) 제시문 [라]

- 사회계층: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구분
- 사회계층구조
  - 피라미드형 계층구조: 상류층 < 중류층 < 하류층
  -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 상류층 ~ 하류층 < 중류층

- 모래시계형 계층구조: 중류층의 비율이 가장 낮고, 중류층보다는 높지만 상류층에 비하여 하류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태
- 타원형 계층구조: 중산층의 비율에 비해 상류층과 하류층의 비율이 매우 낮고, 최상류층과 최하류층이 거의 없는 형태

## 2) 문항 해설

부문 1: [가]~[다]를 참조하여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중산층엔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기술.

- 중산층을 분류하는 기준은 소득이 일반적이다.
- [다]에 나타난 사회조사 결과는 개인 스스로가 느끼는 소속감에 관한 결과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의 어려움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중산층엔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불충분하다.

부문 2: [나]의 누진소득세 제도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구조를 [라]에서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누진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 하류층은 낮은 세금을 기반으로 중산층으로 이동하기 쉽다. 또한 상류층은 높은 세금의 부과로 중류층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된다.
- 중류층의 관점에서 보면 하류층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상류층으로 이동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가 된다.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하여도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따라서 누진소득세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면, 중산층에 비해 상류층과 하류층의 비율이 매우 낮고, 최상류층과 최하류층이 거의 없는 타원형 계층구조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대학 채점기준]

본 문항은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특성을 사회과학적 조사에 의해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 숨은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여 제시한 문항이기에 학생들의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력, 현상을 적절히 분석하는 분석력, 그리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 모범답안 참조
상	S	
	A	(가)와 (나)를 작성했으나 전반적으로 글이 명확하지는 못한 경우.
중	B	(가)는 적절히 작성했으나, (나)는 불확실한 답안 등이 포함된 경우.
	C	(가)는 적절히 작성했으나, (나)는 거의 기술하지 못한 경우.
	D	(가)는 작성했으나 미진하고, (나)는 거의 기술하지 못한 경우.
하	E	질문요도를 이해하지 못해 전혀 무관한 답안을 작성한 경우.
	F	부정행위자, 미답안제출자, 중도퇴실자

(가)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중산층에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 중산층을 분류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이다.
- 사회조사 결과는 개인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계층의 소속감에 관한 답변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참고자료이지, 중산층의 유의적 변화를 판단하는 자료로는 불충분하다.

(나) 누진소득세의 효과로는 중산층에 비해 상류층과 하류층의 비율이 매우 낮고, 최상류층과 최하류층이 거의 없는 타원형 계층구조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 하류층은 낮은 세금을 기반으로 중산층으로 이동하기 쉽고,
- 상류층은 세금 부담이 가중하여 중류층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된다.
- 중류층은 하류층으로 떨어지지 않는 않지만, 소득이 증가하여도 높아지는 세금으로 상류층으로 이동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학 예시답안] 400자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중산층에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산층을 분류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인데, 사회조사는 개인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계층의 소속감에 관한 답변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참고자료이지, 중산층의 유의적 변화를 판단하는 자료로는 불충분하다. 누진소득세의 효과로는 중산층에 비해 상류층과 하류층의 비율이 매우 낮고, 최상류층과 최하류층이 거의 없는 타원형 계층구조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하류층은 낮은 세금을 기반으로 중산층으로 이동하기 쉽고, 상류층은 세금 부담이 가중하여 중류층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된다. 중류층은 하류층으로 떨어지지 않는 않지만, 소득이 증가하여도 높아지는 세금으로 상류층으로 이동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 동국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 3번

- ④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의 윤직원과 [라]의 화자 '나'가 보여주는 성격과 심리를 분석하고 두 인물이 지닌 세계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20~22줄 (600~660자)> [40점]

### [가]

작품 수용은 작품 자체의 세세한 결을 치밀하게 따져 읽는 섬세한 읽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섬세한 읽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섬세한 읽기를 통해 작품과 관련된 맥락을 발견하고 그 맥락에서 작품을 이해·감상 평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맥락은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 등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과 문학작품이 이루는 관계를 말한다.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면 등장인물의 삶과 의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작가의 창작 동기를 짐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작가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작품에 담기 위해 특정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선택하여 작품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문학』

### [나]

경찰법 처벌 규칙 -조선총독부, '관보'(1925.3.25.)

제1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일정한 주소나 생업이 없이 이곳저곳 배회하는 자.

20.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문서, 도서, 시가를 게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 자.

50. 돌 던지기 같은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시키는 자, 또는 길거리에서 공기총류나 활을 갖고 놀거나 시키는 자.

사이토 마코토,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1920)

1. 친일 인물을 골라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2. 각종 종교 단체도 중앙 집권화해서 그 최고 지도자에 친일파를 앉히고 고문을 붙여 어용화한다.

3. 친일적인 민간 유지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고,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4.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 대해 일본과 조선의 자본가 간의 연계를 추진한다.

-『고등학교 한국사』

[다]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싯적 윤 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고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고요. 그런데…….(중략)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중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패가 백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중략)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어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게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댕다 경찰서에 잡혀? 으응……? 오-사육시혈 놈이, 그 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즈비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 패에 들어?”(중략)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짖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년 다 지내가고 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어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디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평평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어, 으응?”(『태평천하』)

-『고등학교 문학』

[라]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소소한 언사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비등케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 구해야겠다는 자각을 주는 긴요한 동인이 될 뿐이다. (중략)

“실상은 쉬운 일이에요. 나두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쿠리(苦力) 말쑤요. 노동자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듯 웃어 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몸이 팔려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제, 나는 다시 한 번 그 자의 상관대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만세전』),

-『고등학교 문학』-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의 윤직원과 [라]의 화자 '나'가 보여주는 성격과 심리를 분석하고 두 인물이 지닌 세계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20~22줄 (600~660자)> [40점]

[독해]

- (가) 섬세한 읽기(내재적 독해) + 사회문화적 읽기(외재적 독해) → 등장인물의 삶과 의식 이해
- (나) P: 일제 강점기 → Q1: 일제의 지배에 대항하는 '불온한 자' → 구속(처벌)  
→ Q2: 당대의 지배 계급 → 친일파로 매수
- (다) 윤직원 영감: 일제 시대에 부를 축적한 인물 → 체제를 옹호하는 의식을 가짐
- (라) '나': 막노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하층민 → 자신들을 탄압하는 일제에 강한 반발 의식을 가짐

[논리평면] 사실추론(종합)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종합	일제 시대가 어떠한 맥락으로 작동했는가	그 사람의 현실 인식이 달라진다
	(가)	사회문화적 맥락	등장인물의 삶 이해
	(나)	일제 강점기와 대립한 시민	반발심을 갖고 사회 이해
		일제의 보호를 받은 친일파	체제 옹호적 의식으로 사회 이해
대상	(다)	윤직원 영감: 일제 시대에 부를 축적함	체제 옹호적 의식으로 사회 인식
	(라)	'나': 막노동과 관련된 일로 살아감	반박적 의식을 갖고 시대를 인식

[예시답안] 640자

일제 시대는 당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맥락으로 작용했느냐에 따라 차별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가)에 나오듯 우리는 작품의 등장인물의 삶과 의식을 이해할 때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그 인물의 내면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 시대가 각 등장인물에게 어떤 사회문화적 영향을 줬는지 보고, 이에 따라 심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나)에 나오듯 일제 강점기는 일제를 부정하던 시민들에게는 처벌로서 대응했고, 당대 조선에서 지배적 계층에게는 매수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두 그룹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다른 의식을 품었을 것이다.

그 중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그리는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은 (라)의 '나'에게서 볼 수 있다. '나'는 막노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소시민이고, 이에 따라 자신들을 탄압하는 일제와 친일파에게 강한 반감을 보인다. 이는 자신들을 탄압했던 환경에 따라 반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기존 세력이 친일파로 변모한 경우는 (다)의 윤직원 영감에게서 볼 수 있다. 윤직원 영감은 일제 시대에서 부를 축적한 인물로서 과거 구한말의 혼란기보다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조선의 기존 기득권 세력이 일제에 적응하며 현실을 긍정적으로 포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출제의도]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통해서 문학작품을 읽고 그 작품의 내용과 인물의 성격을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문학작품에 대한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문을 통해 작품 수용의 방법에 대한 지침을 주고 그에 따라 작품을 해석하도록 유도하여 논리적인 사고력을 평가한다.

[대학 문항해설]

제시문 [가], [다], [라]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가]는 문학의 수용 방법 중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읽기에 관한 내용이다. [다]와 [라]는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한 근대문학 작품으로 제시문 [나]에 인용된 식민지 시기 일제의 통치방법에 관련된 조항들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추론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다]와 [라]에 인용된 작품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읽기 능력을 측정한다.

[대학 채점기준]

[가] 제시문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한 읽기를 수행하고 있는가?

[나]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의 [다]와 [라]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내용임을 파악하고 있는가?

[다]와 [라]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이 지닌 차이를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시켜 해석할 수 있는가?

상	S	주어진 채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A	주어진 채점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인물의 성격과 배경의 관계 설명, 맥락의 설명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중	B	사회·문화적 맥락은 파악하고 있으나 인물의 성격과 배경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경우.
	C	사회·문화적 맥락만 파악하고 그것을 인물의 성격 분석에 적용하지 못한 경우.
	D	사회·문화적 맥락의 파악이 부족하고 인물 분석이 잘 안된 경우.
하	E	제시문과 문제의 출제의도를 연관시키지 못하는 경우.
	F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대학 예시답안] 658자

맥락에는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 있다. 이 중 사회·문화적 맥락은 문학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과 문학작품의 상관성을 통해 작품을 읽는 방법이다. [다]와 [라]는 모두 식민지 시대의 작품으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다]의 윤 직원 영감은 일제의 무단통치 시기와 문화정책 시기를 살아온 인물로서 구한말의 혼란기보다 일제의 통치가 자신의 개인적 성공과 부의 축재에 더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태평천하'인 '지금'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는 종학이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만세전의 화자 '나'는 민족적인 차별을 통해서 식민지 통치의 문제점을 서서히 자각해 가는 인물이다. 이 두 인물의 세계관이 서로 대비되는 이유는 윤 직원 영감이 '자신한테 불리한 세상'과 '유리한 세상'이라는 개인적 입장에서 식민지 상황을 바라보는 반면 만세전의 화자 '나'는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포함한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와 같은 일제의 통치 정책은 소설 속에서 윤 직원과 같은 친일적 민간 유지를 양성해 가는 한편, 동시에 '나'와 같이 민족적 차별을 통해 서서히 '민족의식'을 깨달아 가면서 식민 정책의 문제점을 깨닫는 인물의 심리를 통해서 그 허상이 폭로되기도 한다.

## 서강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사회

☞ [가]의 주요 주장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를 [나]~[다]를 활용하여 기술하고, 그 주장의 실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라]~[마]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바]~[사]를 참고하여 서술하십시오. (800~1,000자)

[가]

정치권력은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에 따라 형성되고, 동의와 합의는 문자와 문서로 형식화된 법으로 규정된다. 정치는 권력의 내용이고, 법은 권력의 형식이다. 즉 정치가 인간의 권력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면, 법은 권력적 상호 작용의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법에 근거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가 요청된다.

김왕근 외, <고등학교 법과 정치>

[나]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고, 다툼을 해결해 주는 재판관도 없으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다.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는 자연 상태는 불안정하다. 국가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예방하고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은 상호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의 보호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로크, <통치론>

[다]

플라톤이 정의를 명령과 복종의 관계 위에 세운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상호성의 관계를 통해서 연합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상호성이란 비슷한 것끼리의 교환, 가치가 동등한 것끼리의 교환을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분적 정의를 다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 동등한 가치의 교환이라고 보는 상호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례를 고려한 상호성을 주장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동등하다면 그들의 몫이 같아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다면 산술적 평등만으로는 고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사자의 기여도를 비교하여 분배를 해야 공정하다고 합니다.

김영란, <열린 법 이야기>

[라]

하세가와 데루는 일본의 야마나시에서 태어난 일본인이었으나, 일본의 중국 침략에 반대하며 반침략 운동을 전개하였다.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중국인 유학생 류런을 만나 결혼하였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국민 정부에서 활동하였다. 중국 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일본의 중국 침략에 반대하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였다. 유창한 일본어로 계속되는 반일 방송은 전쟁이 장기화되어 가면서 일본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당시 도쿄의 신문에서는 그녀를 ‘달콤한 목소리의 매국노’라고 비난하였고, 하세가와의 가족은 목숨을 위협하는 편지를 받기도 하였다.

안병우 외,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마]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이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바]

일자	주요 내용
제6차 개헌 (1969. 10. 21)	· 대통령 3선 허용
제7차 개헌 (1972. 12. 27)	· 대통령 임기 6년 · 대통령 긴급조치권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 · 헌법위원회 설치
제8차 개헌 (1980. 10. 27)	·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출 · 대통령 임기 7년
제9차 개헌 (1987. 10. 29)	· 대통령 직선제 · 대통령 임기 5년 · 헌법재판소 부활

[사]

호주제도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여성 차별적 제도라는 비판 끝에 결국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우선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함으로써 평등한 가족관계를 해쳤다. 특히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었다. 또한 호주승계 순위를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정해 놓아 아들 선호를 조장하였다. 부가(父家) 입적과 부성(父性) 강제 계승을 통한 가족제도 유지는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한 부모 가족, 재혼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들었다. 가족법에 있어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의 결과 1977년1990년2002년에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 이르러 마침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가]의 주요 주장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를 [나]~[다]를 활용하여 기술하고, 그 주장의 실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라]~[마]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는 [바]~[사]를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800~1,000자)

[독해]

- (가) 법치주의: 법 → 모든 권력: Good(정의)
- (나) 계약(법) → 국가 형성 → 자유와 평등 신장
- (다) 기여도 → 분배 Good(정의) - 법의 토대
- (라) 하세가와 데루와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전쟁에 반대했지만, 국가로부터 위협을 당한다.
- (마) 모든 사람은 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바) 민주화 운동 → 헌법 개정 - 악법 폐지 및 대안적 규정 설립
- (사) 가족법 개정운동 → 호주제(악습) 폐지

[논리평면] 통합적 요약(종합), 문제해결(종합)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주장	(가)		법치주의(법 → 권력)
전제	(나)	계약(법)을 통해 국가 형성	
전제	(다)	공정한 계약(기여도 → 분배): 정의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문제		국가 권력	개인의 자유를 억압
증거	(마)		인간은 본질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가짐
증거	(라)	(개인의 양심이 국익과 배치되면) 국가는	개인과 그 가족을 위협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대안		시민의 적극적 참여	국가 권력을 조정
증거	(사)	가족법 개정운동	호주제 폐지
증거	(바)	민주화 운동	민주적 선거 쟁취

[예시답안] 949자

국가의 권력은 법으로부터 나온다. 이를 법치주의의 원리라고 한다. 이는 (가)에 나오듯 국민의 합의를 법이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이 규정에 따라 권력을 사용해 정치를 수행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먼저 국가 형성이 국민의 계약으로부터 온다는 원칙에 입각한다. (나)에 제시되는 것처럼 국민이 자신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계약을 통해 국가를 설립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은 객관적 인정을 받는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다. (다)는 공정성의 개념으로 기여도에 따른 분배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공정한 원칙에 근거해 올바른 계약, 즉 법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법에 근거한 권력을 행사하는 법치주의의 국가는 공정한 정치를 행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에 따른 권력 행사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민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갖는 존엄한 존재이다. (마)가 주장하듯 국제적 규약으로서 모든 사람은 신념의 자유를 갖는다고 선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신념이 국익에 반하는 경우, (라)에서와 같은 탄압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세가와 데루와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에 나서지만, 국가는 그와 그의 가족을 다방면에서 위협했다. 국가가 국민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먼저 악법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사)에 나오듯 여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던 호주제는 이후의 가정법 개정운동에 의해 폐지되었다. 시민의 적극적 행동이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의한 규범이 있다면, 그것이 헌법이라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바)에 나타나듯, 우리나라는 이미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적 선거를 통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역사가 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저해하는 권력의 횡포를 시민의 행동으로 저지한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 근대 국가와 권력의 존립 기반으로서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법치주의의 의미와 전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 법치주의 실행에서 당면하는 근원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어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교과서를 포함한 복수의 텍스트로부터 주요 주장을 파악하고 그 근거를 관련 자료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대학 문항해설]

본 문항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에서 학습하는 법치주의의 의미와 근거, 실행상 한계와 해결방안을 통합적 제시문을 통해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을 평가 목표로 삼고 있다. 로크의 <통치론>에서는 법치의 형식적 요소인 구성원간의 합의와 동의에 따른 사회계약설을 제시하고 있고,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에서는 법치의 내용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법의 목적 = 정의의 개념이 플라톤을 거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변화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나온 하세가와 데루의 사례는 국가권력이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법을 사용할

경우 시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법이 제한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6차~9차 개헌의 주요 내용을 다룬 표와 호주제 폐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치주의의 실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 문제를 시대와 사회적 조건, 시민의 합의 등을 통해 법을 끊임없이 개정해 나가며 해결하려는 시도를 도출할 수 있다.

### [대학 채점기준]

- 제시문을 바탕으로 [가]의 주요 주장을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는가?
- [나]와 [다] 제시문에 나타난 법치주의의 형식적, 내용적 전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시하였는가?
- [라]와 [마]에 나타난 법치주의 실행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시하였는가?
- [바]와 [사] 제시문을 바탕으로 법치주의 실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1000자 이내 서술하였는가?

### [대학 예시답안] 961자

[가]에서는 국가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합법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모든 권력은 법에 근거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지지라는 형식적 측면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내용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나]에서 보이듯,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법이 필요하고, 이는 인간의 상호 계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법치의 형식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다]에서는 플라톤을 거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정의는 당시 분배의 규칙이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하고 법의 시행이 이러한 정의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정치권력이 개인 간 합의된 계약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치주의로 실행된다고 해도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이나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 먼저 하세가와의 경우 제국주의 일본이 행사하는 권력이 법을 준수하더라도 도덕적이지 않다고 보고 국가보다 개인으로서 '시민' 됨을 선택하여 행동한 경우이다. 또한 개인의 종교나 신념 문제와 같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할 때 개인은 그 권력에 대항하여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권력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의 자발적 동의가 전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권력행사를 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개진, 법률의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에서도 보이듯 정치권력의 행사에 유리하도록 법을 바꾸고 그에 따른 법치를 주장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헌법을 개정해 나갔다. 호주제의 문제점과 존속에 대한 찬반 논란은 시민의 연대와 시민운동으로 점진적 개정과 폐지에 이르렀다. 이처럼 법을 고정적, 절대적으로 보기보다 시대적 조건과 상황에 비추어 변경하고 조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

## 서강대 2020학년도 모의 경제경영

- ☞ 무상급식 논쟁에 참여한 제시문 [마]의 참가자들 의견을 찬성과 반대로 분류하고, 이들의 의견을 [가]~[라]의 제시문과 연결지어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논증하시오. (800~1,000자)

[가]

효율성은 '최소의 대가로 최대의 효과를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을 말한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의도한 효과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상태 혹은 동일한 비용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창출하는 상태라 할 것이다.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경제 목표 중 하나이다.

반면, 공정성은 옳음과 그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사회 정의에 비추어 판단되는 규범적 기준에 해당한다. '공정한 분배'란 바로 공정성 관점에서의 정의로운 분배를 일컫는다. 공정한 분배를 달성한다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효율성의 문제와 달리, 공정성의 문제는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존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재구성

[나]

공정한 분배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이다. 이는 벤담(J. Bentham)의 유명한 경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말에 집약되어 나타난다. 공리주의에서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이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영향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의 '쾌락' 또는 '행복'이 본래적 가치이자 선(virtue)이다. 따라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여야 한다.

그런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오는 분배상태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등한 분배에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빌 게이츠에게서 100만 달러를 가져다 형편이 어려운 100명에게 1만 달러씩 나누어 준다면, 게이츠의 후생은 하락하겠지만, 돈은 받은 100명의 총 후생은 그보다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이 불균등한 분배의 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때도 있다. 소득세율의 인상은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의 경제적 이익이 줄고 재분배할 양도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공리주의자들은 소득세 인상을 오히려 반대할 것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재구성

[다]

이와는 달리, 철학자 롤즈(J. Rawls)는 어떤 분배의 상태가 바람직한지를 논의하면서, 한 사회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의 생활수준을 가능한 한 가장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편이 '최소'인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 시킨다고 하여 최소극대화(maximin)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롤즈의 이같은 주장은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원초적 상태란 자신이 사회에서 차지할 위치가 어디가 될지를 모르는 가상의 상태를 의미한다. 자신이 부자가 될지 또는 가난한 자가 될지를 모르는 원초적 상태 하에서는 사람들이 분배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롤즈는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결과에 대해 일종의 보험을 제공해 주는 최소극대화 원칙을 사람들이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롤즈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현대적 사회복지제도의 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마이클 샌델, 신현주, 『10대를 위한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재구성

[라]

앞선 두 가치판단 하에서는 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의 소득이란 당연히 재분배될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최초 소득분배가 결정되는 과정의 정당성이나 소득재분배 시 사용되는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철학자 노직(R. Nozick)은 자유 시장주의적 정의관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다른 사람을 이용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노직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분배는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하는 상태를 뜻한다.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다. 분배의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분배는 공정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노직은 유형화된 정의론을 거부하고,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유로운 사람이 자선의 행위로 타인을 돕는 것은 바람직할지라도, 그런 일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강제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부유한 납세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라고 강제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과서 재구성

마이클 샌델, 신현주, 『10대를 위한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재구성

[마]

다음의 보기는 ‘무상급식’ 즉, 학교에서의 급식을 전교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의 일부이다.

<논쟁 요지>

김씨: 부모의 가난으로 인해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을 통해 결식아동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결식아동에 대한 보호는 사회의 우선적 책무이기도 하다.

이씨: 자녀 양육은 사회가 아닌 부모의 책임이 아닌가?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도입에 따른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박씨: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학부모의 부담은 줄겠지만 그만큼 일반 국민들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납세자들의 심리적 저항과 사회적 갈등 조장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후생 차원에서의 손해가 크다.

최씨: 국민들의 납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급식비 수급에 따른 선생님들의 행정 부담이 줄고 결식아동의 건강도 증진되는 등 긍정적인 혜택이 더 크다. 국민 후생의 측면에서 손해보다는 이득이 큰 정책이다.

정씨: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급식에 대한 학부모 및 학교 당국의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급식에 대해 동일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학생들 식단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것이다.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무상급식 논쟁에 참여한 제시문 [마]의 참가자들 의견을 찬성과 반대로 분류하고, 이들의 의견을 [가]~[라]의 제시문과 연결지어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논증하시오. (800~1,000자)

[독해]

### 반대

정씨: 무상급식은 정책 실행의 실효성이 낮은 정책이다.

(가) 의도한 효과를 제대로 창출하기 힘든 정책은 효율성이 낮은 정책으로서 합리적이지 않다.

박씨: 무상급식은 국민 전체 차원의 사회적 후생을 낙후되게 한다.

(나) 공리주의: 재분배 정책으로 인해 국민적 의욕 상실이 발생하면 사회 전체적인 손해가 된다.

이씨: 아동의 급식 문제는 사회가 아닌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라): 절차가 공정했다면, 분배의 결과는 정당하다. 사회가 결과를 재분배할 권리는 없다.

### 찬성

최씨: 무상급식은 교사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나) 공리주의: 재분배 정책으로 인해 하층민의 복지가 효과적으로 상승하면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된다.

김씨: 무상급식을 통해 결식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다): 사회적 약자들의 후생을 크게 증진시켜 주는 정책은 바람직하다.

[논리평면] 분류(종합) & [예시답안] 824자

문단	기능	내용
1	화제	현재의 대한민국은 전교생에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다.
	분류	제시문 (마)에 나타나듯 각 사람들은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찬반론을 펼치고 있는데,
	입장 A	먼저 무상급식 찬성론을 주장하는 김씨와 최씨가 있고,
	입장 B	다음으로 반대론을 주장하는 박씨, 정씨, 이씨가 있다.

문단	기능	내용
2	주장	먼저 찬성론에서는 무상급식이 합리적, 도덕적 차원 모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한다.
	핵심	최씨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교사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건강도 증진시키는 합리적 결과를 가져온다.
	상술	이는 제시문 (나)의 공리주의에서도 나타나는데, 재분배 정책의 결과로 사회 전체 복지가 상승하면 이익이라는 것이다.
	핵심	또한 김씨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결식아동을 보호하는 도덕적 책임을 실천하는 정책이다.
	상술	제시문 (다)에서도 말하듯이 사회적 약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은 그 손익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윤리적 의무라는 것이다.

문단	기능	내용
3	주장	반면 반대론에서도 동일한 차원들에서의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	박씨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에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상술	이는 제시문 (나)의 공리주의에서도 나타나듯 재분배 정책으로 국민적 의욕 상실이 발생한다면 결국 재분배 대상인 재화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어 손해가 크다는 것이다.
	핵심	마찬가지 차원에서 정씨는 무상급식이 갖는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상술	제시문 (가)에서도 나타나듯 의도한 효과가 제대로 창출되지 못하는 정책은 비합리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핵심	그리고 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이씨는 아동 급식의 문제는 사회가 아닌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
	상술	제시문 (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차가 공정했다면 결과가 정당하므로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 본 문항은 고등학교 <사회>, <생활과 윤리>, <경제>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공평성), 그리고 공정한 분배에 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이를 현실 세계의 실제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출제되었다.
- 본 문항은 다섯 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제시문은 효율성과 공정성을 설명한 뒤 공정한 분배에 있어 가치판단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다음 세 제시문은 공정한 분배에 관한 세 가지 주요한 가치관을 상세히 설명한다. 마지막 제시문은 무상급식, 즉 학교에서의 급식을 전교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제도의 찬반 논쟁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수험생은 세 제시문에 등장하는 분배적 정의관을 정확히 숙지한 뒤, 무상급식 논쟁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주장에 대해 그 본질을 정확히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과 문장력을 발휘해야 한다.

## [대학 문항해설]

본 문항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경제> 교과와 <생활과 윤리> 교과에 등장하는 효율성, 공정성, 공리주의, 롤즈의 정의론, 자유 지상주의 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실제 사회 현안인 무상급식 논쟁을 파헤쳐 본다. 학생들이 논쟁상의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시문 [마]를 두어, 구체적인 논쟁의 예를 제시한다. 문제에서는 이 논쟁의 예시에 대해 제시문 [가]~[라]의 가치 개념을 직접적으로 연결 짓도록 요구하며, 이를 토대를 무상급식에 관한 찬반 주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길 권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에 등장하는 ‘효율성’ 개념을 설명한 뒤, 이와 함께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 할 수 있는 ‘공정성’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효율성의 문제와 달리, 공정성의 문제는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제시문 [나]~[라]에서 공정성에 관한 주요한 가치판단을 소개한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사회> 및 『10대를 위한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등에 등장하는 공리주의, 롤즈의 정의론, 자유 지상주의적 정의관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마]는 무상급식 논쟁 상의 여러 가능한 주장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한다.

지문으로부터 유추 가능한 무상급식에 관한 찬성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무상급식 제도는 사회의 가장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2)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납세 의무를 진 일반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테지만, 학교 행정상의 이점, 결식아동의 건강 증진, 학부모의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이 증가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무상급식에 관한 주요한 반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무상급식은 마땅히 각 학생의 부모 책임인 급식비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정당한 소유는 침해받는다. (2) 무상급식의 도입이 조세 저항과 사회적 갈등 등을 불러일으켜 사회 전체의 후생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3)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교의 급식 감독 소홀에 따른 식단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 [대학 채점기준]

제시문 [마]에 등장하는 논쟁 참가자 주장 각각에 대해 [가]~[라]에 등장하는 개념을 정확히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하며,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제시문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술의 채점 시 주요한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제시문 [마]에 등장하는 주장들을 찬성(김씨, 최씨)과 반대 입장(이씨, 박씨, 정씨)으로 정확히 구분 짓고 있나?
2. 김씨의 찬성 주장이 제시문 [다]에 소개된 롤즈의 정의론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나?
3. 최씨의 찬성 주장이 제시문 [나]에 소개된 공리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나?
4. 이씨의 반대 주장이 제시문 [라]에 소개된 자유 지상주의적 정의관과 궤를 같이 함을 확인하였나?
5. 박씨의 반대 주장이 제시문 [나]에 소개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나?
6. 정씨의 반대 주장이 제시문 [가]에 소개된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나?

또한, 이상의 연관성을 확인하면서, 김씨와 최씨의 찬성 입장을 한 단락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씨, 박씨, 정씨의 주장을 또 다른 한 단락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의사항>

본 문항의 정답의 서술에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시문 [나]의 공리주의의 경우, 박씨와 최씨 모두 자기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즉, 공리주의적 관점은 특정 사안이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는가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둘째, 정씨의 반대 주장은 ‘공정한 분배’ 개념 혹은 공정성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 동일한 비용 대비 식단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은 공정성이 아닌 효율성 측면에서의 주장이다. 논쟁에 참여한 다른 이들의 주장과 맥락이 다른 주장임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예시답안] 983자

제시문 [마]에는 무상급식에 관한 다섯 명의 주장이 담겨 있는데, 이 중 김씨, 최씨가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을, 이씨, 박씨, 정씨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찬성 의견을 낸 김씨는 결식아동에 대한 보호가 사회의 우선적 책무임을 강조한다. 이는 제시문 [다]에 소개된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과 궤를 같이 한다. 한 사회의 가장 못 사는 사람의 후생수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원칙이다. 이에 사회적 약자인 결식아동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무상급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씨는 무상급식의 도입이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늘리지만, 학교의 행정 부담 감소 및 결식아동의 건강 증진 등을 고려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보다는 이득이 큰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무상급식의 도입이 사회의 총 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주장으로, 제시문 [나]에 소개된 공리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와 최씨의 찬성 입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사회 전반의 후생 증진에 기반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씨는 마땅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를 일반 국민에게 과세의 형태로 전가시키는 행위의 부당함을 제기한다. 이는 제시문 [라]에 소개된 자유 지상주의적 정의관과 궤를 같이 한다. 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정당한 소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씨는 무상급식의 도입이 납세자들의 심리적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후생 차원에서 실익이 크지 않음을 주장한다. 이는 최씨의 주장과 같이, 제시문 [나]에 소개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정씨는 무상급식의 시행으로 동일 비용 대비 학생 식단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고 함으로서 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제시문 [가]에 소개된 경제적 효율성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씨, 박씨, 정씨의 반대 입장은 자유 지상주의, 사회 전반의 후생 감소, 경제적 효율성 하락에 기반하고 있다.

## 서울여대 2020학년도 모의 1번

- ④ 1-1) 제시문 (가)를 간략히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 나타난 주인의 생각이 갖는 논리적 타당성을 논술하시오.
- ④ 1-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공통점과 제시문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닭의 착각’이 가지는 의미를 논술하시오.

(가)

진짜 인간은 실존의 인간이다. 여기서 실존의 인간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한 맥락에 따른 ‘본질에 앞서서 인간’을 말한다. 본질은 이미 확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숙명적인 성질을 말한다. 가령 책상이나 책, 자동차, 축구공 등은 이미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속성들을 갖는다. 그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이러한 속성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상으로 축구를 하거나 축구공 위에 책을 펼쳐 놓거나 하지 않는다. 책상은 책상의 본질이 있고, 축구공은 축구공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상이나 축구공의 경우에는 본질, 즉 움직일 수 없는 성질이 먼저 주어졌다. 가령 책상을 만드는 목수는 ‘책 펴서 공부하는 도구’라는 본질을 먼저 생각하고 책상을 만들고, 축구공을 만드는 기술자는 ‘바로 차서 상대의 골문에 넣는 것으로 승패를 가리는 게임의 도구’라는 본질을 우선 생각하고 축구공을 만든다. 그러므로 책상이나 축구공은 다짜고짜 먼저 만들어진 다음, 즉 존재가 먼저 생긴 다음에 그 생긴 모양이나 성질에 맞춰서 목적과 용도, 즉 본질을 찾아낸 것이 아니다. 목수나 기술자의 머리 안에 있는 목적, 성질, 착안 등의 본질에 맞춰서 그러한 도구들, 즉 존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르트르는 이처럼 본질이 먼저 있고 존재가 그것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을 ‘즉자 존재(卽自存在)’라고 불렀다. 컴퓨터, 휴대 전화, 적외선 감지 장치, 인터넷, 프로그램, 인공 지능, 이런 것들은 모두 즉자 존재다. <중략> 제작자의 머리 안에 먼저 착상된 숙명적인 본질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에게는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으니 선택할 수 없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이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있다. 본질보다 앞서서 이 존재는 목수나 기술자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자신을 선택하고 만들어 가는 존재다. 이 자유의 존재를 사르트르는 ‘대자 존재(對自存在)’라고 불렀다. 물론 이런 방식은 오직 인간만 가능하다. 인간은 축구공이나 책상처럼 숙명적으로 결정된 본질이 없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자유롭게 만들어 간다.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은 그다음의 문제다. 이러한 대자 존재를 더 익숙한 표현으로 ‘주체성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나)

닭의 착각

암탉이 있었다. 평범하게 모이를 찾아 먹으며 때가 되면 알을 낳는 닭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암탉은 건너편 오동나무에 척 내려와 앉는 너무도 멋진 황새를 보았다. 암탉은 황새가 너무도 부러웠다. 암탉은 황새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리 아름다울 수가 있지요?” “아름답다니 별말을 다 듣는구나. 나는 그냥 나다울 뿐이야.” 암탉은 끈질기게 물었다. “모이는 무얼 먹지요? 그리고 운동은 무얼 하지요?” “모이는 그냥 물고기나 우렁이를 잡아 먹고, 운동이라야 날기밖에 안 하는데 뭘.”

암탉은 그날부터 황새처럼 되기 위해 물고기가 아니면 먹지 않았다. 그리고 날기 운동에 모든 시간을 다 썼다. 그러자 암탉은 황새처럼 우아해지기는커녕 뼈뺀 마르기만 하고 알도 낳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다. 어느 날 주인은 암탉을 붙들어 목을 비틀면서 말했다. “빌어먹을 것 같으니라고, 계란은 낳지 않고 주제에 날려고나 하는 널 튀김이나 해 먹어야겠다.”

\* 위 이야기는 우화로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임.

(다)

난,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 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간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 가치이자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이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존중받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인간성을 부정하는 행위나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노예제 등은 금지된다. 또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근거하여 생명권이나 일반적 인격권이 인정된다.

아울러 우리 헌법 제10조 후단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 1-1) 제시문 (가)를 간략히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 나타난 주인의 생각이 갖는 논리적 타당성을 논술하시오.
- ✎ 1-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공통점과 제시문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닭의 착각'이 가지는 의미를 논술하시오.

[논제]

✎ (가)를 간략히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제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 제시문 (가)를 요약하는 것도 독립적으로 완결적으로 수행하는 게 좋다. 보통은 기준 제시문을 핵심-상술로 요약할 때는 핵심에 대전제 역할을 담당하는 명제를 배치하고, 뒤이어 상술로서 구체적인 맥락을 보충한다. 하지만 여기서 (가)를 요약하라는 요구가 특별히 있으니, 대전제 내용을 확실히 포함시키면서 제시문 전체를 자연스럽게 축약하는 것이 더 좋다.

✎ 논리적 타당성을 논술하시오

논리적 타당성을 논하게 되면, 결국의 대답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타당하지 않다'가 된다. 이는 결국 가치 판단의 한 종류이므로 '논리적 타당성을 논술하라'는 요구사항은 가치추론으로 인지하고 풀어나가면 된다. 물론, 사실추론과 가치추론을 엄밀히 구분할 필요는 없다. 추론의 내용적 결론을 중심으로 더 적합한 도구를 가져오는 생각으로 유형을 고르면 된다.

✎ (나)와 (다)의 공통점과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복수의 제시문이 기준 제시문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이들을 각각 적용하라는 말이 없으므로 우리는 '통합'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제시문들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통합 논지로 묶어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잘 소화만 해낸다면 내용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안 되는 걸 억지로 통합해선 안 된다.

[독해]

- (가) 대자 존재: 자신의 본질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존재  
 즉자 존재: 실존에 앞서 존재의 본질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존재
- (나) 주인의 생각: 계란은 낳지 않고 날려고나 하는 닭은 부도덕하고 쓸모도 없다.  
 닭의 착각: 황새의 일거수일투족으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 황새처럼 될 수 있다.
- (다) 현실의 벽이 높아도 자신이 가진 꿈(목적)을 끝내 이뤄 나가리라는 다짐
- (라) 인간은 목적적 존재로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1-1 논리평면] 요약,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가)	즉자 존재	주어진 본질에 따라야 하는 존재	G(정상)
대상	(나)	닭	계란이나 낳고, 날 생각 말아야 한다	g

[1-1 예시답안] 496자

모든 것은 존재의 성격에 따라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로 나뉘게 된다. 이는 제시문 (가)의 사르트르가 창안한 구분으로서 어떠한 존재가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대자 존재가 되고, 자신의 존재에 앞서 고정된 본질이 있는 존재를 즉자 존재라고 한다. 인간은 본질에 앞선 존재로서 자신의 구체적인 삶으로써 주체적으로 자기 존재의 목적을 정하게 된다. 반면, 장인이 만든 물건과 같은 존재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해당 존재는 그 목적에 충실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제시문 (나)에 나타난 주인의 생각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주인은 자신이 키우는 닭이 계란도 낳지 않고, 황새처럼 날려고만 하자 이를 부도덕하고, 쓸모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닭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이를 불량한 것으로 여기는 있는 것이다. 이는 닭을 즉자 존재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논리적으로 추론한 것으로서 타당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1-2 논리평면]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통합	자기 삶의 목적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Good
	(나)	닭과 거위는	자신만의 목표가 있고,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고자 한다.	
	(다)			
	(라)	인간은 목적적 존재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대상	(나)	황새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황새의 모든 것을 따라한다	g

[1-2 예시답안] 630자

제시문 (나), (다), (라)는 자기 존재 갖는 목적성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권리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먼저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닭과 거위는 모두 자신만의 목표를 이뤄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의 닭은 황새와 다른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새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다)의 거위는 세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아 오를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 추구에 대해서 제시문 (라)는 자기 권리를 추구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라)는 헌법 조항을 통해 모든 인간이 갖는 행복추구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확장해 보면, (나)와 (다)에서 나타

난 동물들도 자기 목적을 추구할 응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나)에 나타난 ‘닭의 착각’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정당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닭은 비록 황새처럼 아름다워지겠다는 이를 수 없는 꿈을 추구하다가 끝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닭이 보여준 노력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자기 목적성을 지닐 수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 [대학 출제의도]

두 가지 존재의 특성과 자아 정체성 실현

- 문제 (1)에서는 텍스트를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그것을 다른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적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 문제 (2)에서는 개인의 꿈과 행복 추구의 상관성에 대해 추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나타난 생각을 비판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대학 문항해설]

문항	해설
[문항 1]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1]의 (1)은 제시문 (가)에서 두 가지 존재를 구분하고 그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중 제시문 (나)에 나타난 주인의 생각이 갖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 적용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임.</li> <li>• 제시문 (가)에서는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를 구분할 수 있고, ‘즉자 존재’의 특성에 주목하여 제시문 (나)의 주인의 생각, 즉 모든 존재는 타고난 역할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의 논리적 타당성을 기술하여야 함.</li> </ul>
[문항 1]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1]의 (2)는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와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제시문 (라)의 내용을 참조하여 제시문 (나)의 ‘닭의 착각’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문항임.</li> <li>•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비교하여 닭과 거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공통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해석의 근거로 활용해야 함.</li> <li>• 제시문 (라)의 행복추구권이 인간의 존엄성 실현의 주요한 수단임을 파악하여 근거로 활용해야 함.</li> </ul>

[대학 예시답안(1-1)] 507자

제시문 (가)에서는 사르트르의 구분에 따라 존재를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자 존재’는 이미 확정된 본질이 있고 그것에 따라 만들어지는 존재이다. 반면, ‘대자 존재’는 숙명적으로 결정된 본질이 없어 자신의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체성을 지닌 존재이다.

제시문 (나)에서 주인은 닭은 평범하게 모이를 찾아 먹으며 때가 되면 알을 낳는 존재라 생각한다. 이러한 주인의 생각은 즉자 존재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주인이 닭의 본질을 계란을 낳아 주는 역할로만 한정하는 것은 첫째, 제시문 (가)에서 즉자 존재의 본질은 이미 확정되어 움직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닭이 뼈뺀 말라 알도 낳지 못하게 되자 목을 비트는 것은 제시문 (가)에서 즉자 존재는 그 본질에 따라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셋째, 암탉에 대해 ‘주제에 날려고나’라며 비난한 것은 제시문 (가)에서 즉자 존재는 자기 의지대로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학 예시답안(1-2)] 658자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공통점은 먼저 닭과 거위에게서 찾을 수 있다. 닭과 거위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또 닭과 거위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닭과 거위를 둘러싼 주변의 시선에도 공통점이 있다. 주변인들은 닭과 거위가 꿈을 갖는 것을 비웃고, 삶이란 이미 정해진 것이라 말하며 그들의 꿈을 포기시키려 한다.

또한 제시문 (라)에서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권리는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아우르는 것으로 누구든지 이와 같은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제시문 (다)와의 공통점에 주목하면 ‘닭의 착각’은 거위의 경우와 같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을 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닭은 그 꿈을 비웃고, 삶은 정해진 것이라 하는 주변인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제시문 (라)의 내용을 참고하면 ‘닭의 착각’은 자신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행복을 추구하려 한 것이기도 하다. 암탉은 황새처럼 우아해지고 싶다는 소망을 선택함으로써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정신적 만족까지 아우르게 되었다 하겠다.

## 서울여대 2020학년도 모의 2번

- ④ 2-1) 제시문 (가)의 밑줄 친 ㉠을 제시문 (나)의 (1)~(3)을 활용하여 설명하십시오.
- ④ 2-2) 제시문 (다)의 밑줄 친 ㉡의 이유를 제시문 (라), [그림 1], [그림 2]를 참고하여 논술하십시오.

(가)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정보를 다루는 기술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 이에 따라 사회 현상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량화해 체계적으로 제시한 통계는 매우 유용한 정보 원천이 되고 있다. 통계는 자료의 효과적인 수집과 분석에 도움이 되는 수단인 동시에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과거나 다른 나라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된다.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통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한다. 특히 의사 결정과 관련된 논쟁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로써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는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해 사회 현상에 관한 일반화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에 기초해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통계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사회 현상에 관한 정보와 사실을 왜곡하여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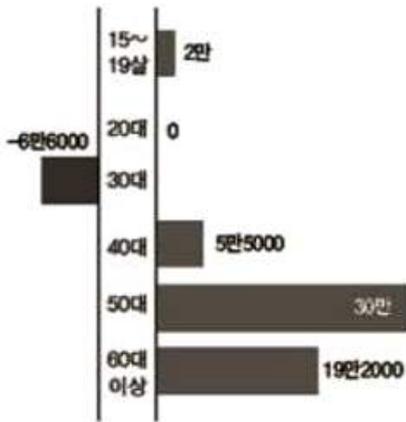
- (1)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기 위해 미국의 잡지사인 “리터러리 다이제스트(The Literary Digest)”는 공화당의 랜든 후보와 민주당의 루스벨트 후보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잡지의 구독자들을 중심으로 1,000만 명에게 우편엽서를 통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등록 명부를 사용하여 구독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하였다.
- (2) 어떤 사람이 미국 주요 도시의 범죄 발생 건수와 경찰관 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변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 수가 많을수록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난다.”라고 주장하였다.
- (3) 군인들이 행군을 하다가 강을 만나자 지휘관이 참모에게 물었다. “강의 평균 깊이가 얼마나 되나?” “예, 지도에 의하면 수심이 평균 1.5m라고 합니다.” “음, 우리 병사들의 평균 키가 165cm는 넘으니 걸어서 행군해도 되겠군. 진격하라!”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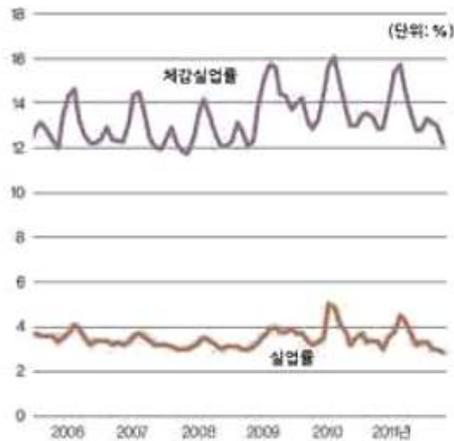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010년 같은 달보다 50만 1,000명이 늘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하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0.3%포인트 낮아졌다. 이 통계를 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용 대박이 났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의 발언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라)

청년 실업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20대 가운데 취업이 안 돼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졸업 뒤에도 고시나 공무원시험, 취직시험을 몇 해씩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 실업자다. 청년 실업은 단순히 청년층만의 고충이 아니라, 국가의 잠재 성장력을 저하할 만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과 관련된 통계치를 보다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생과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하려는 준비생, 이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 기업 등 취업 현장의 일선에 있는 이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수십 차례 응시 원서를 내고도 면접 한 번 보지 못했다는 이들의 하소연은 이제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그림 1] 2011년 10월 연령별 취업자 증감 현황  
(전체 50만 1,000명)



[그림 2]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추이

-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중 직장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
- \* 체감 실업률 : 통계상의 실업자에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응답자와 취업준비자, 그리고 36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추가 취업희망자를 더한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
- \*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 2-1) 제시문 (가)의 밑줄 친 ㉠을 제시문 (나)의 (1)~(3)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 ☞ 2-2) 제시문 (다)의 밑줄 친 ㉠의 이유를 제시문 (라), [그림 1], [그림 2]를 참고하여 논술하시오.

[독해]

- (가)의 ㉠ 통계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 (나) (1) 특정 잡지 구독자 및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예측 조사를 실시함  
 (2) 경찰관 수와 범죄 건수 사이에 나타난 상관관계를 근거로 잘못된 인과관계를 주장함  
 (3) 평균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적용함
- (다)의 ㉠ 통계청의 조사 결과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발표되자, 여론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 (라) 실질적 실업자는 통계상의 실업자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 그래서 해당 인원도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많다.
- [그림1] 50대와 60대의 취업이 많이 증가하면, 30대 취업자 수가 오히려 줄어도 전체 실업률은 낮게 나타난다.
- [그림2]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자는 4% 수준으로 낮지만, 실질적 실업을 뜻하는 체감실업률은 그의 3~4배이다.

[2-1 논리평면] 사실추론 - 생략

[2-1 예시답안] 513자

통계의 한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현실적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을 하게 된다. 먼저 (나)의 (1)에는 특정 잡지 구독자와 자동차 소유자들을 표본집단으로 삼아 대통령 선거 예측을 위한 조사가 나타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국가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표본집단 역시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는데, (1)에서 선별한 표본은 사회의 특정한 집단만을 대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1)의 조사는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2)는 경찰관 수와 범죄발생 건수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경찰관 수가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인지한 오류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3)에는 강의 평균 수심이 군인들의 평균 키보다 작다는 이유로 강을 건너 행군하라는 사령관의 지시가 나타나 있다. 하지만 행군을 진행하면 작은 키의 병사들은 수심이 깊은 부분에서 익사하게 될 것이다. 이는 평균 개념을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2 논리평면] 사실추론 - 생략

[2-2 예시답안] 582자

기획재정부장관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하락 자료를 보고 고용 상황이 매우 호전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에게 큰 질타를 받게 되는데,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실업률 개념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실업률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제시문 (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업률에는 취업 준비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발표된 실업률은 대략 4% 부근에서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실업률을 담아낸 체감실업률은 실업률의 3~4배를 웃돌고 있다. 이 간극으로 인해 장관과 여론 사이의 의견 차가 생긴 것이다. 또한 [그림 1]을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의 고용은 평균적으로 20만 명 이상 늘었는데, 같은 기준에서 3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6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하지만 50대 이상의 고용 확대가 30대의 실업을 4배 이상 웃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실업률은 개선된 것처럼 나타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년 실업이 전혀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률 상황은 개선된 것이다. 이 또한 국민과 정부의 입장 차를 확대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출제의도]

통계 오류와 통계 자료 활용 시 유의할 내용

- 문제 (1)에서는 사회현상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통계자료의 한계를 이해하고 오류를 해석하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 문제 (2)에서는 텍스트와 그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회 현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타당한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평가한다.

[대학 문항해설]

문항	해설
[문항 2]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2]의 (1)은 제시문 (가)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제시문 (나)를 통해 다양한 통계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문항임.</li> <li>• 제시문 (나)의 (1)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 제시문 (나)의 (2)는 인과 관계를 포함해 해석하고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해석한 문제, 제시문 (나)의 (3)은 평균값을 사용한 문제가 있음.</li> </ul>
[문항 2]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2]의 (2)는 제시문 (다)에서 장관의 발언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이유를 제시문 (라), [그림 1], [그림 2] 등의 텍스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기술하는 문항임.</li> <li>• 제시문 (라), [그림 1]에서 청년층 취업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것을 제시문 (라), [그림2]에서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차이 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함.</li> </ul>

[대학 예시답안(2-1)] 523자

제시문 (가)의 ㉠이 말하는 통계의 한계를 정리하면 첫째, 제시문 (나)의 (1)은 일부 표본 대상자만을 추출하여 표본이 대표성을 갖지 못하였다. 즉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기 위해 특정 잡지 구독자를 중심으로 한 것, 전화나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은 설문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 등에서 미국 국민들 중 일부만을 포함하였다. 둘째, 제시문 (나)의 (2)는 상관관계와 인과 관계를 혼동한 것이다. 즉 범죄 발생 건수와 경찰관 수라는 두 변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경찰관 수가 많을수록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난다.’라는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고, 오히려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날수록 경찰관 수가 늘어난다.’라고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말할 수 있다. 셋째, 제시문 (나)의 (3)은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평균 수심보다 키가 큰 병사라도 더 깊은 수심에서는 물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3)과 같은 경우에는 강의 평균 수심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강의 가장 깊은 수심을 고려해야 한다.

[대학 예시답안(2-2)] 583자

제시문 (다)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용 대박이 났다.”라는 발언이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잠재 성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시문 (라)에 의하면 청년 실업은 국가의 잠재 성장력을 저하시킬 만큼 중대한 문제이고, [그림 1]에서 50, 60대 취업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20, 30대 취업자 수가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용대박이 났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둘째,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제시문 (라)에 의하면 20대 가운데 졸업 뒤에 취업을 몇 해씩 준비하는 청년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자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 직장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발표한 실업률은 낮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 지금의 상황에서 체감 실업률은 [그림 2]에서와 같이 높게 나타나고,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은 신뢰할 수 없는 발언이 되었다.

## 성균관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 1번

☞ <제시문 1>~<제시문 4>는 <보기> 속의 정책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 <보기>

친애하는 ○○○ 씨께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입학이 거절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귀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입학이 허가된 사람들보다 귀하의 자격이 미달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귀하의 자질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만난 것은 귀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귀하 대신 입학이 허가된 사람들도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입학으로 이어진 자질을 칭송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보다 큰 사회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뿐입니다. 귀하께서 이 소식을 들으면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망스럽다고 해서 귀하의 타고난 도덕적 가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다 귀하가 요즘의 사회가 특별하게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수자들을 우대해온 정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대학교 입학처

### <제시문 1>

성공적인 삶에 필요한 조건들 중 하나는 훌륭한 '롤 모델' (role model)을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롤 모델을 통해 배우며, 탁월한 사람이 되려는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빼어난 롤 모델들을 '영웅'이라 부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하는 나는 특히 소수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자극을 받는다. 나의 영웅들 중 한 사람은 나와 같은 소수 인종에 속하는 초등학교 교사 드브와 선생님이다. 초등학교 교사를 영웅시 하는 나의 태도가 비상식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드브와 선생님은 남다른 노력과 인내를 통해 빈곤과 차별의 벽을 뚫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에게 특별한 영감을 준다. 물론 같은 인종이나 성에 속하는 롤 모델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모방하고 싶은 훌륭한 롤 모델을 갖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긴 하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인간성은 덕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서 성공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소수자 집단에 속할수록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롤 모델에게서 더욱 강렬한 자극과 영감을 받는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제시문 2>

탁월함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경쟁하고 있는 개인들을 올바르게 대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기도 하다. 인종통합의 가장 성공적인 행위로 거론되곤 하는 예로서, 1940년대 말 브루클린 다저스 팀이 재키 로빈슨 선수를 영입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사례가 바로 탁월한 기량에 따라 선수를 영입한 경우다. 만일 로빈슨이 평범한 선수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거나 2할 타율에 그쳤다면 경멸을 당했을 것이며, 원래 속했던 마이너리그로 되돌려 보내졌을 것이다. 내가 앞에서 말했듯, 능력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능력에 따라 포지션을 정해야 할 꽤 명백한 이유들이 있다. 현재 사회의 관행을 두고 볼 때, 능력은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최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직을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능력이 뛰어난 과학자가 가장 어려운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되어야 하며 가장 뛰어난 군인이 장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목해보라! 아무도 흑인 선수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야구 연맹에서 기량이 많이 떨어지는 백인 선수들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이유로 쿼타를 할당하거나 백인 인구에 비례하여 선수를 기용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제시문 3>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불평등한 대우는 지원자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공정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이나 소수자의 지위가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차이’에 속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에 동일한 자격을 갖춘 남성과 여성이 지원했을 때 여성 지원자의 우대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플로레스에 따르면, 성(性)은 그 직업의 속성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구를 뽑을 것인지 결정할 때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직업에 필요한 기준과 후보 선발에 필요한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비즈니스의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정당화한다. 기업은 상업만이 전부인 사회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사회 체계의 일부로서 사회 전체의 복지와 통합에 대한 의무도 진다. 따라서 플로레스는 기업이 동일한 자격을 갖춘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 한 가지 선택 기준으로서 사회정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때 사회정의는 집단들 사이에서 희소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여성이나 소수집단에 속한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옳은 일일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입장은 일차적으로 보상적 정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본질에 관한 주의 깊은 검토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시문 4>

배상은 해를 가한 사람과 피해를 당한 사람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A가 x와 관련하여 B에게 해를 가하면, B는 x와 관련하여 A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A가 B의 차를 훔쳐서 파손하게 되면, A는 그 훔친 차에 대해 B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의 아들은 B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게다가 A가 죽거나 실종되면, B는 자신의 잃어버린 차에 대해 사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가 없다. 과거에 저질러진 어떤 잘못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유감스럽지만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그런 부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자라면서 농구선수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나의 부모가 나에게 비싼 성장 호르몬을 구입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불행히도 이웃 사람이 그것을 훔쳐 키가 작은 마이클에게 주어 복용하게 함으로써 마이클이 40센티미터나 더 자라 누구나 부러워하는 1미터 97센티미터의 키를 갖게 되었다. 마이클 조던은 이와 같은 행운이 없었더라면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마이클은 누군가의 부정의한 행위로 인해 농구계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 이런 과거를 근거로 조던이 프로 농구선수로서 번 수백만 달러 중 일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내가 복용했어야 할 성장 호르몬을 훔친 이웃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조던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 만일 조던이 친절하게도 시카고 볼스 팀 경기의 무료관람 표를 준다면 매우 고마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그는 나에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빛도 지지 않았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1>~<제시문 4>는 <보기> 속의 정책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독해]

<제시문 1> 소수자 ‘롤 모델’ ⇒ 소수자에게 건설적 자극

<제시문 3> 소수자의 열악한 조건을 고려한 소수자 우대(불평등 대우) ⇒ 공정하고 정의로움

<제시문 2> 능력(탁월성)에 따른 평가(대우) ⇒ 바람직 & 효율적 - 시민의 인정

<제시문 4> 피해에 대한 배상 ⇒ 당사자 간 개별적 처리해야 함 - 사회적 차원에서 처리하면 부당

[논리평면] 분류 & [예시답안] 727자

문단	문장	기능	내용
1	1	화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향하기도 한다. <보기>에 나오듯 실력이 높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분류	이러한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견해는 찬성과 반대로 명확히 나뉘고 있는데,
	3	입장 A	먼저 본 정책을 찬성하는 쪽으로 제시문 <1>과 <3>이 있고,
	4	입장 B	본 정책을 반대하는 쪽으로 제시문 <2>와 <4>가 있다.
2	1	주장	먼저 찬성 측에서는 소수자를 우대하는 것이 효과성과 바람직성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2	핵심	먼저 소수자 우대를 통해 소수자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3	상술	<제시문 1>에서 나오듯 소수자 ‘영웅’이 생기면 소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4	핵심	또한 소수자를 우대하는 것은 도덕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5	상술	<제시문 3>에서 말하듯 소수자가 갖고 있는 열악한 조건을 고려하면, 그들에게 유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올바르다는 것이다.
3	1	주장	반면 반대 측에서도 합리적, 도덕적 차원 모두에서 논거를 펼치고 있다.
	2	핵심	먼저 능력에 따른 평가를 해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3	상술	<제시문 2>에 나오듯, 실력에 따른 대우가 이뤄져야 우리 사회는 바르다고 인정하고 있다.
	4	핵심	또한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도 소수자 우대에 대한 반대가 나타나기도 한다.
	5	상술	<제시문 4>가 언급하듯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해당사자 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당사자를 넘어선 사회적 차원에서 처리할 윤리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대학 모의 논술 개요]

2020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분류 요약형, 평가형, 논술형 등 기존의 문제 유형들을 그대로 따랐으며,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이 연관성과 차이를 동시에 지니도록 하였다.

2020학년도 모의논술은 2019학년도 논술시험에서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출제하였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소수자 우대 정책’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문화의 다양성’ 단원의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사회계층과 불평등’ 단원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현황과 개선 방안’, ‘사회 정의와 불평등’ 단원의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부분 등에서 다루지는 것으로, 고등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1]의 <보기>와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잘 맞는 학자들의 저술에서 발췌하였으므로 충분한 가독성을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 2]와 [문제 3]에 사용된 <자료>와 논제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을 넘어 서지 않는 것들로서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여성고용할당제’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사회적 지표들을 이번 모의논술 문제에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 [대학 평가 항목과 문항별 배점]

전통적으로 우리학교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이러한 방향성은,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 평가항목

- ①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50%
- ② 논리적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20%
- ③ 표현력 및 어법: 15%
- ④ 창의성: 15%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의 항목 ②, ③, 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 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채점등급별 점수

##### [문제 1]

① A 등급: 30점	② B 등급: 24점	③ C 등급: 18점
④ D 등급: 12점	⑤ E 등급: 6점	⑥ F 등급: 0점

## [대학 채점지침]

[문제 1]은 <보기> 사례를 통해 논점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 각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보기>와 제시문이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주제로 묶인다는 것을 이해하고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특히 제시문들이 <보기>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한 후 분류, 요약 수행해야 한다. 제시문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국어영역 수능 문제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보기>는 대학 입학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에게 대학 측이 보내는 통지문이다. 이 통지문에 따르면 불합격의 이유는 입학 자격 미달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 대학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 즉 소수자의 우대 기준을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의거해 본다면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소수자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는 각 제시문들이 소수자 우대 정책의 취지나 내용, 효과 내용 등에 대한 나름의 주장과 근거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2>, <제시문 4>는 소수자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제시문 1>, <제시문 3>은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시문 1>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훌륭한 롤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롤 모델이 특히 같은 부류의 사람들일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제시문 1>은 같은 부류의 롤 모델이 소수자들의 자기개발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소수자 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3>은 사회정의 실현 측면에서 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역설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배타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과 복지에 대한 의무를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구성원을 선발함에 있어 여성과 같은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수자 배려는 사회적 자원의 공정 분배와 직결되는 것이며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3>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2>는 개인의 노력과 경쟁을 통한 성취를 강조한다. 탁월한 능력과 노력으로 인종장벽을 극복한 야구 선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사회적 성취는 능력과 노력에 달린 것이다. 이 맥락에서 소수자라 해서 특별한 배려나 우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기에 <제시문 2>는 공정 경쟁과 노력에 따른 보상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제시문 4>는 배상 책임의 주체와 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수자 우대가 필요한 것인지를 논한다. 특정 개인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가해자가 아닌 사회에 요구할 도덕적인 권리는 없다. 즉 누군가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사회가 구제해 주기를 요구하지 말고 개인적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은 가해자가 아닌 사회가 소수자들이 받은 차별이나 불이익을 해결하는 것이기에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제시문 4>는 배상 책임과 주체의 측면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사이의 논점 차이까지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대학 채점등급]

- A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그 핵심 논지의 차이까지 두루 고려하여 잘 기술한 답안
- B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각 제시문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 C :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나, 각 입장의 핵심 논지에 대한 요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답안
- D :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 성균관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 2번

☞ 아래 <자료 1>과 <자료 2>는 '여성고용할당제'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국가 A와 시행하지 않은 국가 B의 경제·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여성고용할당제 외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1]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시오. (40점)

###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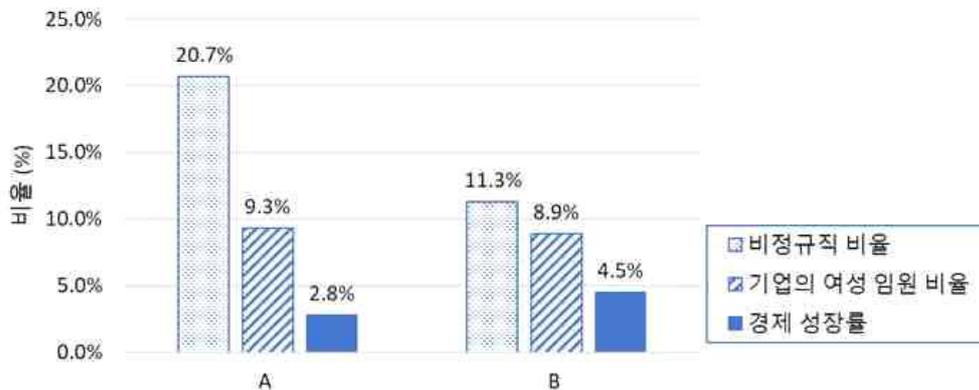
#### <표 1>

성별 간 갈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질문 : 우리 사회에 성별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는가? )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보통이다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13.3%	22.9%	27.5%	25.4%	10.9%
B	6.2%	15.3%	23.7%	36.5%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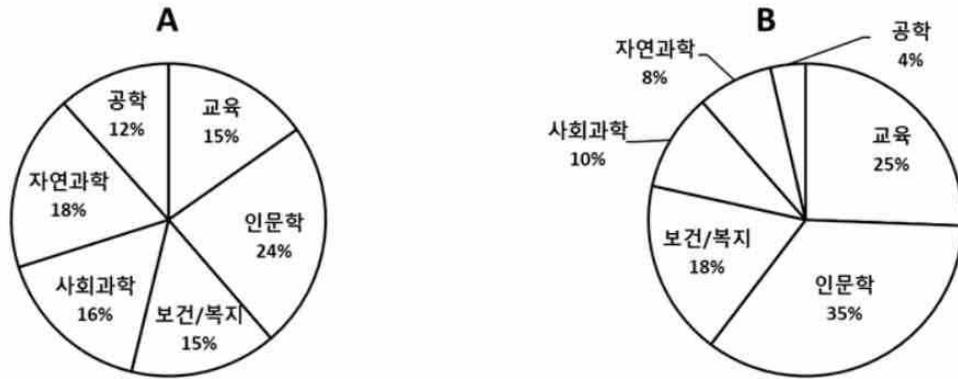
#### <표 2>



<자료 2>

<표 1>

여성의 대학 전공별 비율



<표 2>

	A		B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경제활동참가율 (%)	75.5	67.0	76.6	55.6
무급 근로시간 (분/1일)	141.0	227.0	145.0	275.0
평균임금수준 (미 달러/시간)	23.7	16.9	24.1	12.8

\* 무급 근로는 가족, 친지 등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종사하는 근로, 노동을 의미함.

\*\*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이 가능한 전체 인구 중에서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아래 <자료 1>과 <자료 2>는 '여성고용할당제'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국가 A와 시행하지 않은 국가 B의 경제·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여성고용할당제 외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1]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시오. (40점)

[독해]

<자료 1> 여성고용할당제 오랫동안 시행 ⇒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됨

<표 1> A사회: 성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 B사회: 성별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

<표 2> A사회: 비정규직 비중 높고 경제 성장률도 낮음, B사회: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 및 경제 성장률

<자료 2> 여성고용할당제 오랫동안 시행 ⇒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개선됨

<표 1> A사회: 여성의 대학 전공별 비율이 모든 전공에 고르게 분포, B사회: 여성의 전공이 인문·교육에 편중

<표 2>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A사회>B사회, 여성 무급근로시간: A사회<B사회, 여성 평균임금: A사회>B사회

<제시문 1> 소수자 '롤 모델' ⇒ 소수자에게 건설적 자극

<제시문 3> 소수자의 열악한 조건을 고려한 소수자 우대(불평등 대우) ⇒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시문 2> 능력(탁월성)에 따른 평가(대우) ⇒ 바람직 & 효율적 - 시민의 인정

<제시문 4> 피해에 대한 배상 ⇒ 당사자 간 개별적 처리해야 함 - 사회적 차원에서 처리하면 부당

[논리평면]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2>	능력에 따른 평가	바람직 & 효율적	G
대상	자료 1	여성고용할당제 시행	양극화 심화, 경제 둔화	b
	<표1>	B사회보다 A사회가 성별 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		
	<표2>	A사회보다 B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 및 경제 성장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1>	소수자 배려 정책	소수자에게 건설적 자극	G
대상	자료 2	여성고용할당제 시행	사회 불평등 구조 개선	g
	<표1>	A사회: 모든 전공에 고르게 분포, B사회: 인문·교육에 편중		
	<표2>	경제활동 참가율: A사회>B사회, 무급근로시간: A사회<B사회, 평균임금: A사회>B사회		

[예시답안] 965자

소수자 배려 정책에 대한 찬반론 중 반대 측에서는 능력에 따른 평가를 해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며, 사회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2>에서도 나타나듯이 탁월성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게 해야 시민에게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공동체도 효과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실질성은 <자료 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1>은 여성고용할당제의 오랜 시행으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고 말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여성고용할당제가 시행된 A사회가 그렇지 않은 B사회보다 성별 갈등을 더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는 차별적 상태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만 더 커진 것이다. 또한 <표 2>를 보면, A사회는 B사회보다 여성 임원 비율이 근소하게 높지만, 비정규직 비율을 약 2배 높고, 경제 성장률 또한 2배 가까이 낮은 상황이다. 탁월성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 사회경제적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반대로 소수자 배려 정책에 대한 찬성 측에서는 소수자 배려가 소수자를 건설적으로 자극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1>에서 나타나듯 소수자 '롤 모델'이 생성되면, 이를 통해 소수자들의 건강한 의지발현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이를 지지하는 현상은 <자료 2>이다. <자료 2>는 여성고용할당제의 시행으로 인해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었다고 말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A사회 여성이 모든 전공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에 반해 B사회 여성은 인문, 교육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취업의 유불리를 고려해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 2>에 나오듯 A사회가 B사회보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고, 무급근로시간도 적으며, 평균임금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모의 논술 개요]

2020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분류 요약형, 평가형, 논술형 등 기존의 문제 유형들을 그대로 따랐으며,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이 유관성과 차이를 동시에 지니도록 하였다.

2020학년도 모의논술은 2019학년도 논술시험에서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출제하였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소수자 우대 정책'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문화의 다양성' 단원의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사회계층과 불평등' 단원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현황과 개선 방안', '사회 정의와 불평등' 단원의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부분 등에서 다루지는 것으로, 고등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1]의 <보기>와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잘 맞는 학자들의 저술에서 발췌하였으므로 충분한 가독성을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 2]와 [문제 3]에 사용된 <자료>와 논제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을 넘어 서지 않는 것들로써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여성고용할당제'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사회적 지표들을 이번 모의논술 문제에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 [대학 평가 항목과 문항별 배점]

전통적으로 우리학교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이러한 방향성은,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 평가항목

- ①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50%
- ② 논리적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20%
- ③ 표현력 및 어법: 15%
- ④ 창의성: 15%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의 항목 ②, ③, 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 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채점등급별 점수

[문제 2]

① A 등급: 40점	② B 등급: 32점	③ C 등급: 24점
④ D 등급: 16점	⑤ E 등급: 8점	⑥ F 등급: 0점

### [대학 채점지침]

[문제 2]는 소수자 우대 정책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여성고용할당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나라와 시행하지 않은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회 경제적 지표를 해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 1]의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두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 1〉은 여성고용할당제를 시행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성별 간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차이가 난다는 것과 두 국가의 고용형태, 여성 기업임원 비율, 경제 성장률 등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고용할당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A국은 그렇지 않은 B국에 비해 국민들이 성별 간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A국 국민의 36% 이상이 성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별 갈등이 A국의 중요한 사회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A국은 B국에 비해 전반적인 경제 지표도 좋지 않다.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에서는 미세하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인 비정규직의 비율이 두 배 정도 높고 경제성장률은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두 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료 1〉은 여성고용할당제라는 소수자 우대 정책이 A국의 사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고용할당제를 장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한편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제 1]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

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한편 <자료 2>는 두 국가 여성의 대학 전공별 비율과 경제 활동 관련 지표를 보여준다. A국의 여성들은 B국 여성들에 비해 대학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공을 고루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B국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교육과 인문학을 전공한 것에 반해 A국 여성들은 공학이나 과학 영역의 전공자들도 많다. 이는 A국 여성들의 경우 여성고용할당제의 효과로 어떤 전공을 공부하던 취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주로 전공하는 영역까지 활발하게 진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B국 여성들은 여성고용할당제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남성들과 경쟁하기 수월한 영역의 전공에 집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 4>에 따르면 A국과 B국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여성들의 참가율은 10% 이상 A국이 높다. 또한 B국 여성들은 A국 여성에 비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높으며 평균 임금 수준도 낮은 편이다. 이는 A국 여성들에 비해 B국 여성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자료 2>는 여성고용할당제를 시행한 A국이 B국에 비해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성고용할당제를 통하여 여성의 취업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여성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B국에 비해 좋은 조건 하에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기 때문이다. 이는 [문제 1]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답안 작성을 위해서는 각 자료의 핵심 내용을 여성고용할당제 효과와 연관 지어 구체적으로 해석한 다음 이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정당화해야 한다. 특히 정당화 과정에서 자료의 내용이 특정 입장을 정당화한다는 설명을 단순히 제시하지 말고 각 입장에 속해 있는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수자 우대 정책 찬성 입장을 정당화할 때는 기업의 인재 채용에 있어 여성과 같은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 공정 분배에 기초한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제시문 3>의 논지가 A국 여성들의 경제 활동 지표로 입증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수자 우대 정책 반대 입장을 정당화할 때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제시문 2>의 논지가 B국의 경제 지표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 채점등급]

- A :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되 정당화 과정에서 제시문 논지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답안.
- B :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해석했으나 이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단순히 옹호한 수준의 답안.
- C :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정당화한 답안.
- D :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해석했으나 [문제 1]의 두 입장을 제대로 정당화하지 못한 답안.
- E : 자료 해석도 부정확하고 [문제 1]의 두 입장을 정당화하지 못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 성균관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 3번

- ④ 국가 C는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방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해당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인 자) 채용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자 한다. 이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견해를 [문제 1]의 두 입장을 활용하여 각각 논술하시오. (30점)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b>논제는 치밀하게 분석, 독해는 납득되면 통과, 구성은 두괄식으로, 표현은 오류만 없게!</b>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 ☞ 국가 C는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방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해당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인 자) 채용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자 한다. 이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견해를 [문제 1]의 두 입장을 활용하여 각각 논술하시오. (30점)

[독해]

〈제시문 1〉 소수자 ‘롤 모델’ ⇒ 소수자에게 건설적 자극

〈제시문 3〉 소수자의 열악한 조건을 고려한 소수자 우대(불평등 대우) ⇒ 공정하고 정의로움

〈제시문 2〉 능력(탁월성)에 따른 평가(대우) ⇒ 바람직 & 효율적 - 시민의 인정

〈제시문 4〉 피해에 대한 배상 ⇒ 당사자 간 개별적 처리해야 함 - 사회적 차원에서 처리하면 부당

[논리평면]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1〉	소수자 롤모델	소수자 발전 촉진	G
대상	지역인재 정책	지역인재 선발률 증가	지역인재 발전 촉진	g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3〉	소수자 배려	사회 정의 부합	G
대상	지역인재 정책	지역인재 선발률 증가	사회 공정성 증가	g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2〉	능력에 따른 평가	바람직 & 효율적	G
대상	지역인재 정책	지역인재 우선적 선발	불공정, 비효율	b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4〉	사회적 차원에서 피해 배상	부당	B
대상	지역인재 정책	지역인재 우선적 선발	부정의	b

[예시답안] 956자

지역인재 채용 비율 의무화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창안되었다.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수도권 출신 인재의 선발 비율이 높은 현실 속에서 지역인재가 배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인재의 우선적 선발이 같은 지역인재들에게 건설적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1>은 소수자 '롤 모델'은 같은 소수자들의 발전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이처럼 지역인재들도 동료들의 선발에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더 나아가서 지역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두 번째 이유는 지역인재를 배려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3>에서 볼 수 있듯이 소수자의 열악한 조건을 고려한 우대 정책에 대해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처럼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통해 공정 사회를 한 발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가발전 일반에도 건설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들은 능력에 따라 평가해야 효과적이고 공정한 채용이라고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제시문 2>에서도 말하듯 탁월성에 따른 대우가 있어야 시민들에게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인사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인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한 채용이 아니며, 일반 지원자들보다 능력이 부족한 자들도 선발될 수 있어 국가 균형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반대를 외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역인재가 겪는 불편에 대한 사회의 책임성 여부이다. <제시문 4>에 따르면, 피해에 대한 배상은 당사자 간에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역인재가 받는 피해를 탁월한 지원자들의 희생으로 보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의함은 장기적 차원에서 지역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대학 모의 논술 개요]

2020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분류 요약형, 평가형, 논술형 등 기존의 문제 유형들을 그대로 따랐으며,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이 유관성과 차이를 동시에 지니도록 하였다.

2020학년도 모의논술은 2019학년도 논술시험에서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출제하였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소수자 우대 정책'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문화의 다양성' 단원의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사회계층과 불평등' 단원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현황과 개선 방안', '사회 정의와 불평등' 단원의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부분 등에서 다루지는 것으로, 고등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1]의 <보기>와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잘 맞는 학자들의 저술에서 발췌하였으므로 충분한 가독성을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 2]와 [문제 3]에 사용된 <자료>와 논제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들로써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여성고용할당제'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사회적 지표들을 이번 모의논술 문제에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대학 평가 항목과 문항별 배점]

전통적으로 우리학교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이러한 방향성은,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평가항목

- ①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50%
- ② 논리적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20%
- ③ 표현력 및 어법: 15%
- ④ 창의성: 15%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의 항목 ②, ③, 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 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채점등급별 점수

[문제 3]

① A 등급: 30점	② B 등급: 24점	③ C 등급: 18점
④ D 등급: 12점	⑤ E 등급: 6점	⑥ F 등급: 0점

[대학 채점지침]

[문제 3]에서는 소수자 우대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핵심 내용과 목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을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논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목표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지방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지방 대학 출신자 30% 이상 채용을 의무로 규정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한다. 이는 C국이 현재 인재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출신 인재 중심 채용이 심화되어 지방 출신 인재의 입지가 좁아지는 문제점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지방 대학 출신자들은 소수자가 되어 취업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인재를 국가 곳곳에서 고루 선발, 활용하여 지방자치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에 C국 정부는 지방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늘려 문제를 극복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히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넘어 소수자 우대를 통해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논제에서 소개한 정책의 주요 내용과 목표를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 [문제 1]의 두 입장 모두를 활용하여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수자 우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근거로 채용 정책을 지지하고,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근거로 채용 정책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는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채용 정책에 대한 찬반과 단순히 연결시키지 말고 우대 정책에 대한 각 제시문의 중심 논지를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채용 정책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분석한 다음 채용 정책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입장에 근거한 채용 정책에 대한 찬반 견해는 다음과 같이 논술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 채점등급]

- A :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목표와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문제 1]의 두 입장 및 제시문 주요 논지를 고루 활용하여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논술한 답안.
- B :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목표와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논술했으나, 제시문 내용을 활용한 구체적 논지 전개를 하지 못한 답안.
- C :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목표와 핵심 내용은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였으나 [문제 1]의 두 입장을 활용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선명하게 논술한 답안.
- D :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목표와 핵심 내용은 정확하게 정리하였으나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제대로 논술하지 못한 답안.
- E :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목표와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제대로 논술하지 못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에 찬성하는 견해] 832자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지방 인재 활용을 통한 일자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소수자 우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본의 아니게 소수자가 된 지방 대학 출신 인재를 단순히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정책인 것이다.

<제시문 1>에서는 같은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롤 모델이 될 때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지방 대학 출신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채용될 때 그 지방 대학 출신자들의 의욕과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요망되는 정책적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시문 3>은 기업이 사회 통합과 구성원의 복지 증진 의무, 즉, 사회정의에 대한 의무를 진다는 점을 강조하는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시행 주체인 지방 공공기관은 이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지방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지역 인재를 채용한다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사회정의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통해 국토의 곳곳에서 인재를 고루 발굴, 활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지역 인재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기회 제공과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점 모두에서 정당한 정책이다.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에 반대하는 견해] 840자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정책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달성이 힘들다는 점에서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 소수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공공기관 인재 채용에 있어 특정인들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기초한 공정 경쟁이 중요하다는 <제시문 2>의 논지에 위반된다. 공정경쟁의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지방 대학 출신자를 소수자로 분류하고 의무채용 하는 것은 취업을 위해 노력한 다른 인재를 역차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노력과 능력에 기초한 선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방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힘들 것이다. 이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균형 있는 국가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달성이 힘들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 대학 출신 인재들이 소수자라 해도 이들을 구제하거나 우대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제시문 4>가 강조한 책임과 보상의 원리에 따르면 지방 대학 출신 인재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겪는다 해서 이것을 사회의 책임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 대학 출신 인재들은 개인적 노력을 통해 상대적 불리함을 이겨내야 한다.

결국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지방 대학 출신자를 소수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해 있으며,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지방 대학 출신 인재를 의무채용 하는 우대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지역 인재들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대안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지역 인재를 위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세종대 2019학년도 기출 1번

☞ 제시문 (가)에 나오는 ㉠“유용한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200점,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가)

문학은 씹먹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학은 권력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며 부를 축적하게 하는 수단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씹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씹먹지 못하는 것을 씹먹고 있다. 서유럽의 한 위대한 지성이 탄식했듯이 우리는 문학을 함으로써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물론 출세하지도, 큰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러나 문학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대체로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유용한 것이 결핍되었을 때의 그 답답함을 생각하기 바란다. 그러나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알게 된다. 문학은 그 부정적 힘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 한 편의 아름다운 시는 그것을 향유하는 자에게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 편의 침통한 시는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소위 ‘감동’이라는 말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심리적 반응이다.

감동이나 혼의 울림은 한 인간이 대상을 자기의 온몸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문학을 통해, 문학으로부터 얻은 감동을 통해,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일 수도 있다고 느끼게 된다.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지 않으므로, 그 원초적 느낌의 단계는 감각적 쾌락을 동반한다. (……)

무서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듣는다. 이처럼 문학은 억압 없는 쾌락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면서 문학을 읽는 자에게 반성을 강요하여, 인간을 억압하는 것에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한다. ‘인간은 이런 수모와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것을 안 당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느끼게 한다. ‘인간은 이래야 행복하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

문학은 동시에 불가능에 대항하는 싸움이다. 삶 자체의 조건에 쫓기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꿈꿀 수 있다. 인간만이 몽상 속에 잠길 수 있다. 몽상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몽상은 실재하는 삶이 얼마나 억압된 삶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문학은 그런 몽상의 소산이다.

문학은 실현될 수 없는 인간의 꿈과 현실과의 거리를 드러낸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꿈이 있을 때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거리를 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반성할 수 있다. 꿈이 없을 때, 인간은 자신에

대해 거리를 가질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 갇혀 버려 욕망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문학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학은 배고픈 거지를 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학은 그 배고픈 거지가 있다는 것을 추문으로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억누르는 억압의 정체를 뚜렷하게 보여 준다. 그것은 인간의 자기기만을 날카롭게 고발한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가)에 나오는 ㉠“유용한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200점,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독해]

(가)의 ㉠ ‘유용한 것’의 의미: 부와 권력과 같은 물질적 가치를 높여주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  
 제시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학의 ‘유용성’: 문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감동과 쾌락을 준다.

[논리평면] 가치추론(종합)

	전제	결론	평가
	문학	유용함: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감동과 쾌락을 선사하기 때문	G
㉡	문학	무용함: 물질적 가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	b

[예시답안] 496자

제시문 (가)는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용한 것'이란, 부와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즉, 문학을 통해서도 금전적 이득을 구할 수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유용한 것은 그 부재 시에 갈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문학의 무용성은 사람을 문학에 얽매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문학은 결코 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학이 비록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문학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사람들은 문학을 통해 인간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높이고, 세상의 이치와 소통하며 감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문학의 기능성은 비물질적 차원에서 인간의 근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의 필자는 문학의 근본적 유용성을 간과하는 편협한 견해를 보인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2019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논술은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 성취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범교과적인 문항을 출제하였다.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된 독서 및 글쓰기 능력, 논리적·분석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력, 비판 능력 등을 토대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문항 1〉은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유용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가)의 주장을 비판하는 문제이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제시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해 능력이 필요하며, 제시문의 주장을 하나의 논증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대학 문항해설]

〈문항 1〉은 제2012-14호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국어 I (31014)]에 따른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며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화법과 작문 (310317)]에 따른 ‘내용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파악하는 능력’과 [독서와 문법 (310419)]에 따른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항 1〉은 제시문 (가)에서 말하고 있는 ㉠“유용한 것”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고, 유용성에 대한 이런 제한적 의미 이해를 토대로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가)의 필자의 주장을 비판하도록 과제를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가)의 ㉠“유용한 것”의 의미가 ‘권력과 부를 얻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가)의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유용한 것의 의미를 위와 같이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할 것을 요구한다.

[대학 채점기준]

문항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1번 소문항	이해력	70	200
	분석 및 논증적 사고력	70	
	표현력	30	
	정서법	30	
	분량 미 준수	-10 ~ -30	

[대학 예시답안] 454자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유용한 것”이란 ‘권력이나 부를 얻는 수단’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학은 권력이나 부를 얻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제시문 (가)는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유용하지 않으므로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시문 (가)는 유용성을 지나치게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문학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확인하거나 감각적 쾌락을 통해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도 역시 제시문 (가)에서 말하듯이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문학을 읽음으로써 느끼는 쾌락과 감동을 통해 우리는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인식하게 되며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된다. 그런 점에서 문학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다른 억압이 된다.

## 세종대 2019학년도 기출 2번

☞ 제시문 (다)에 등장하는 시골 귀족의 행동을 사례로 들어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예술의 기능을 비판하고,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소설로서 제시문 (다)가 갖는 문학적 가치를 설명하시오. (400 점, 1,100~1,2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가)

문학은 씹먹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학은 권력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며 부를 축적하게 하는 수단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씹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씹먹지 못하는 것을 씹먹고 있다. 서유럽의 한 위대한 지성이 탄식했듯이 우리는 문학을 함으로써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물론 출세하지도, 큰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러나 문학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대체로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유용한 것이 결핍되었을 때의 그 답답함을 생각하기 바란다. 그러나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알게 된다. 문학은 그 부정적 힘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 한 편의 아름다운 시는 그것을 향유하는 자에게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 편의 침통한 시는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소위 ‘감동’이라는 말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심리적 반응이다.

감동이나 혼의 울림은 한 인간이 대상을 자기의 온몸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문학을 통해, 문학으로부터 얻은 감동을 통해,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일 수도 있다고 느끼게 된다.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지 않으므로, 그 원초적 느낌의 단계는 감각적 쾌락을 동반한다. (……)

무서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듣는다. 이처럼 문학은 억압 없는 쾌락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면서 문학을 읽는 자에게 반성을 강요하여, 인간을 억압하는 것에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한다. ‘인간은 이런 수모와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것을 안 당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느끼게 한다. ‘인간은 이래야 행복하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

문학은 동시에 불가능에 대항하는 싸움이다. 삶 자체의 조건에 쫓기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꿈꿀 수 있다. 인간만이 몽상 속에 잠길 수 있다. 몽상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몽상은 실재하는 삶이 얼마나 억압된 삶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문학은 그런 몽상의 소산이다.

문학은 실현될 수 없는 인간의 꿈과 현실과의 거리를 드러낸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꿈이 있을 때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거리를 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반성할 수 있다. 꿈이 없을 때, 인간은 자신에

대해 거리를 가질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 갇혀 버려 욕망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문학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학은 배고픈 거지를 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학은 그 배고픈 거지가 있다는 것을 추문으로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억누르는 억압의 정체를 뚜렷하게 보여 준다. 그것은 인간의 자기기만을 날카롭게 고발한다.

(나)

플라톤이 예술을 전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다. 그 또한 예술이 그가 의미하는 미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미의 이데아의 관조는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철학자에게 더 어울리는 일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예술의 으뜸가는 기능은 오히려 유용성, 그중에서도 도덕적 내지 교육적 유용성에 있었다. 즉 예술은 그가 의미하는 과거 지향적인 이상 국가를 형성하는 데 유용한 인물을 만드는 수단이어야만 했다. 용감한 병사가 위기에 직면해서, 혹은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힘이 될 수 있는 음악만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목적에 달성하지 못했거나 부상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나, 그밖에 고난을 견디어 내며 운명의 타격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악”이거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경우, 신에게 원하는 바가 실현되도록 빌거나 타인을 설득할 때, 혹은 타인의 청원이나 충고나 가르침을 받고 이성과 지혜에 따라 행동하고 오만해지지 않으며, 절도와 진실성을 가지고 기꺼이 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악”만이 그의 계급주의적 이상 국가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다)

그 시골 귀족은 한가할 때마다(사실은 1년 내내 한가했지만) 기사 소설에 빠져든 나머지 나중에는 사냥도, 심지어 재산 관리조차 제쳐 두었다. 기사 소설에 대한 호기심과 광기가 지나치다 못해 급기야는 광활한 논밭을 팔기에 이르렀다. 덕분에 집 안 가득 기사 소설을 빼곡히 들여놓을 수 있었다. 물론 시골 귀족은 그 책들 중 펠리시아노 데 실바가 쓴 책들만큼 훌륭한 건 없다고 생각했다. 명쾌한 문체와 논리가 아주 빼어났기 때문이었다. 특히 사랑의 속삭임과 연애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할 때는 그런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곤 했다. “나의 이성을 만든 이성을 상실한 이성에 나의 이성은 힘을 잃고, 그대의 아름다움을 한탄하니 이 또한 이성이노라.” 또는 “별들과 함께 신의 가호로 당신의 신성함으로부터 우리를 강하게 해 주고 당신의 위대함을 보여 주는 공적으로 인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높은 하늘을.”이라는 부분을 읽을 때도 그랬다.

이러한 이유로 그 가엾은 시골 귀족은 판단력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로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부활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들을 이해하고 의미를 되새기느라 밤을 지새곤 했다. 그는 돈벨리아니스가 상처를 입었거나 남에게 상처 입혔던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제아무리 훌륭한 명의들이 달려든다 하더라도 그의 얼굴이나 온몸에 생긴 흉터와 상처가 사라질 날이 올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앞으로는 모험은 계속되리라는 암시를 남기며 끝낸 “그리스의 벨리아니스 이야기”의 작가를 칭찬하기도

했고, 더러는 펜을 잡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원저자의 약속대로 이야기의 결말을 손수 써 내려가려고도 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더 중요한 생각들이 그를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일을 실행에 옮겨 이루어 내고야 말았을 것이다. (……)

사실상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미치광이도 생각지 않았던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편력 기사가 되어 무기를 들고 말 등에 올라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 속 편력 기사의 모험들을 직접 실천에 옮겨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길이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가련한 양반은 자기의 무훈에 힘입어 적어도 트라피소나 왕국이 이미 자기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듯 즐거운 상상을 하다 보니 그 속에서 별난 욕심도 생겨났고,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걸 실천에 옮기겠다고 서두르기 시작했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다)에 등장하는 시골 귀족의 행동을 사례로 들어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예술의 기능을 비판하고,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소설로서 제시문 (다)가 갖는 문학적 가치를 설명하시오. (400 점, 1,100~1,2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독해]

- (가) 문학은 우리가 이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조리에 저항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 (나) 예술은 특정한 가치관을 주입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다)에 등장하는 시골 귀족의 행동: 기사 소설을 읽고 비이성적인 사상에 빠져 자기 삶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

[논리평면] 가치추론, 사실추론

	전제	결론	평가
(다)	예술(소설)	맹목적인 광기 주입	B
	기사 소설	비현실적 목표 추진하는 시골 귀족	
(나)	예술	특정 가치관 주입	b

	전제	결론
(나)	문학	이상적인 사회, 삶 추구할 수 있도록 함
(가)	기사 소설	자신만의 가치관을 용기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예시답안] 1120자

예술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광기를 심어 넣을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이다. 이는 제시문 (다)에 나타난 시골 귀족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골 귀족은 기사 소설에 비이성적으로 집착한 결과, 자기 관리도 하지 못하고, 재산까지 탕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자신만의 공상을 품고 집을 떠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나)가 말하는 예술의 기능은 비판받을 수 있다. (나)는 예술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예술이 그 자체로서 지니는 미적 차원보다는 이상적인 국가관이나 인간관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술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즉, (나)는 특정한 가치관을 습득하는 기능으로서의 예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술이 갖는 이러한 가치관 주입적인 기능이 갖는 위험성에 있다. 예술이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독자에게 전하려고 한다면, 이를 습득한 독자는 (다)에 등장하는 시골 귀족처럼 이상한 행보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학과 같은 예술이 갖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제시문 (가)에 나타나듯, 문학예술은 사회의 부조리를 명쾌하게 인식하게 하여 이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상적인 삶을 지향하도록 독자를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

이다. 비록 문학예술이 금전적, 권력적 가치를 얻게 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한 인간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설로서 제시문 (다)는 자신만의 정의를 추구해 나아가는 한 인간의 정신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다)에 나타난 시골 귀족은 비록 그 행태가 이해하기 힘들고, 사상 또한 수용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자기 자신이 믿는 이상적 삶을 강직하게 추진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는 탓에 아무도 그를 지지해 주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이러한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굳건한 신념과 용기로 자신의 삶을 관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한 편의 소설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쩌면 부와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다.

## [대학 출제의도]

〈문항 2〉는 문학과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묻는 문제이다. 〈문항 2〉는 제시문 (나)의 플라톤의 예술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시문 (다)에 등장하는 시골 귀족의 사례를 들어 플라톤의 예술관을 비판하고, 제시문 (가)에서 주장하는 문학관을 들어 소설로서 (다)가 갖는 가치를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과 서로 다른 유형의 제시문들을 주어진 문제와 관련지어 재구성하고 그 안에서 비판의 논거를 찾아낼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장 구성력 및 표현력 등이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능력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면 충분히 갖추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대학교 수시논술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고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 [대학 문항해설]

〈문항 2〉는 제2012-14호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310419)]에 따른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 능력’과 [국어 II (31027)]에 따른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는 능력’, 그리고 [국어 I (31017)]에 따른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작문의 과정과 관습에 대한 이해’와 [화법과 작문 (310320)]에 따른 ‘논제의 쟁점을 분석하여 논증을 구성하는 능력’, 그리고 [화법과 작문 (310321)]에 따른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항 2〉는 제시문 (나)에서 언급한 예술의 기능을 이해하고 제시문 (다)에 등장하는 시골 귀족의 행동을 사례로 들어 이러한 예술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다)와 같은 문학의 가치를 제시문 (가)에서 논거를 찾아 설명하도록 과제를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제시문 (나)의 플라톤의 예술론에서 주장하는 예술의 기능이 ‘유용성’, 특히 ‘도덕적 내지 교육적 유용성’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의 시골 귀족의 사례를 검토하여 예술의 도구화를 주장하는 예술관이 자칫하면 시골 귀족의 사례에서처럼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비판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와 같은 문학의 가치는 (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독자에게 쾌락을 주면서 인간에

대한 총체적 파악에 이르게 하고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것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하는 데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옹호할 것을 요구한다.

[대학 채점기준]

문항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2번 대문항	이해력 1	70	400
	비판적 사고력 1	70	
	이해력 2	70	
	비판적 사고력 2	70	
	표현력	80	
	정서법	40	
	분량 미 준수	-20 ~ -80	

[대학 예시답안] 1,139자

문학과 예술은 인간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억압된 삶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사상이나 가치를 주입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술의 도구화는 예술의 본질을 왜곡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오해와 광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제시문 (나)의 플라톤은 예술의 으뜸가는 기능이 미의 관조가 아닌 유용성, 그 중에서도 도덕적 내지 교육적 유용성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는 예술이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은 감동을 통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서 사회 구성원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곤 했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예술을 도구화 하는 것은 이성과 지혜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대신, 오히려 편협하고 경직된 사고를 하며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양성하게 된다. 제시문 (다)에 등장하는 시골 귀족의 사례는 예술의 도구화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기사 소설에 심취한 시골 귀족은 판단력과 이성을 잃고, 소설 속 편력 기사가 되어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제시문 (가)는 문학이 그것을 읽는 자에게 쾌락을 주면서 인간에 대한 총체적 파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그 꿈으로 인해 인간은 자신을 억압하는 것의 정체를 인식하고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한다. 소설로서 제시문 (다)는 소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소설 속 기사도의 길을 좇아 나서려는 시골 귀족의 이야기를 통해 비록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거나 유용해 보이지 않는 몽상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임을 일깨워 준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은 자신의 꿈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기만적인 삶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문학과 예술을 통해 쾌락과 감동을 느끼고 다양한 인간의 삶과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때로는 세상의 변화를 꿈꾸기도 한다. 인간과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문학과 예술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숙명여대 2020학년도 모의 1번

- ✎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파악하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 가능성을 논하시오.  
(1000±100자, 45점)

<가>

정보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일반적으로 인격 훼손으로 여겨지는가? 그것은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동시에 개인의 자율의 조건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가장 표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의지에 반해 우리를 엿듣고 관찰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관찰당하고 청취당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우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도 반하지 않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다.

정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것은 내가 내 정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동시에 나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에 관한 우리의 기대와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또는 알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회적 관계에서 항상 우리 자신에 관한 타인의 지식을 전제하고, 이 전제로부터 특정한 행위를 기대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의 행위를 올바로 기대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수치심이나 당혹감과 관련된 문화적인 경험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연출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적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다.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를 관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수치심이나 분노를 느낀다. 왜냐하면 다른 관찰자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의 특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를 관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나>

인터넷이 1990년대에 거대한 사회 현상이 된 이후부터 사람들은 인터넷이 자신들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걱정해 왔다. 가끔 심각한 스캔들도 터져 나와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자 통신을 감시한 사실에 대한 작년의 폭로는 그저 최근에 발생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부분의 경우 이어지는 논쟁은 누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수집하고 저장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스캔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건강, 재정, 사회관계, 정치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에 누가 접근해 왔는지를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중의 이런 걱정은 기술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은 지금도 사방천지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정부기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통신판매회사, 금융기관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조직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런 조직들 외에 다른 많은 조직들도 ‘수동적인’ 수집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얻고 있다.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할 때도 데이터를 어떠한 조직에 제공한다. 예를 들면, 그저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 할 때 GPS 연동이 되는 휴대전화도 같이 이동하며, 이 때 위치에 관한 데이터가 통신회사에 제공된다. 사람이 살면서 일종의 부산물인 ‘데이터 배기가스’를 전혀 내뿜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된 장소가 어디인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해당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데 더 강력한 프로세서와 서버는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의 취향과 행동에 관한 새로운 통찰과 추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이 ‘빅 데이터’ 시대의 현실이다.

<다>

투명성은 자신의 데이터를 알 권리다. 투명성은 어떤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내가 얻는 결과에 기여하는지 등을 알 권리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한쪽 면만 보이는 반사 유리의 어두운 저편에서 기업이 당신을 관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업과 당신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수집된 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볼 수 있는 창구가 당신에게 제공되는가? 원하는 데이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개인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가? 예로부터 기관과 개인 사이에는 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심각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기관의 데이터 수집 능력이 개인보다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신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투명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체성 또한 필요하다. 주체성은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권리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데이터 기업의 기본 설정을 쉽게 찾아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는가? 데이터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제한된, 주로 기업에 유리한 옵션 중에서 선택하도록 유도되거나 강제되지는 않는가? 변수를 이것저것 변경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가? 주체성은 데이터 기업이 분석해낸 선호와 패턴에 기반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다. 여기에는 데이터 기업에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도 포함된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파악하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 가능성을 논하시오.  
(1000±100자, 45점)

[독해]

- (가) 개인정보 침해 - 통제권 강탈 → 자율성 침해 : Bad(비윤리)
- (나) 개인정보 공개 - 막을 수 없음 → ‘빅 데이터’ 시대 - 유용함 : Good(실용적 이익)
- (다) 투명성(개인정보 알 권리) + 주체성(개인정보 이용 권리) → 정보 비대칭 문제(자율성 침해) 해결

[논리평면] 가치추론, 대안제시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가)	개인정보 침해	자율성 침해	Bad(비윤리)
대상	(나)	빅 데이터 시대	막을 수 없고, 유용함	bad(부도덕)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다)	투명성 + 주체성	자율성 침해 문제 해결
대상	(나)	투명성 + 주체성	개인정보 침해 중단 → 자율성 회복

[예시답안] 959자

우리는 현재 빅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 제시문 (나)에 나타나듯, 현대인들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가 무수히 많아서 개인정보의 공유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그리고 각 개인은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용한 정보를 다시 기업에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고, 개인의 생활적 편의를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유용성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은 빅 데이터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빅 데이터 시대에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시문 (가)가 설명하듯, 개인정보 침해는 자율성 침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이다. 개인정보가 새어나간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탈당한다는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도 분노와 수치심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 강탈이 궁극적으로 개인이 가진 자유 행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빅 데이터 시대는 이러한 재앙적 피해가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 유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실용성 높은 시대이지만, 그보다 더 큰 손실인 자유의 박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보의 투명성과 개인의 주체성이 요구된다. 제시문 (다)에 의하면 정보의 투명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제대로 알 권리를 말한다. 어떤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

고, 어떠한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의 주체인 개인 스스로도 주체성을 발휘하여 개인정보의 공개 및 제공 여부와 방법, 용도 등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구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가 정립되어야만 빅 데이터 시대가 주는 유용성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개인의 자율성도 지키는 진정한 축복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 현대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논술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출제하였음.
- 제시문 <가>를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 뒤, 제시문 <나>의 문제 상황에 적용해보도록 하였으며, 그 대안을 <다>의 주체성과 투명성에 대한 권리를 활용하여 논술해보도록 했음.

## [대학 문항해설]

###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이진우, 『프라이버시의 철학』, 돌베개, 2009, 208~210쪽. (원문 수정)

-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관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행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는 우리가 삶을 자율적으로 살 수 없게 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게 된다.

제시문 <나> 크레이그 먼디, 김진희 외 옮김, 『4차산업혁명의 충격-과학기술 혁명이 몰고 올 기회와 위협』, 흐름출판, 2016, 257~258쪽.

-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저장되고 있다. 누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것인가를 걱정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사방천지에서 부지불식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수집되고 있기에 그것이 어디에 저장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또한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취향과 행동도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제시문 <다>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홍지영 옮김,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 사계절, 2017, 22~24쪽. (원문 수정)

- 개인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주체성이 필요하다. 개인과 기관 간에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에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기업이 모은 자신의 정보를 통해 선택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 논제의 구성

※ 논제 :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파악하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 가능성을 논하시오. (1000±100자)

본 논술문항의 주제는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이다. 논제는 제시문 <가>의 관점을 파악하고, <나>의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제시문 <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빅데이터 시대가 야기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색해 보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화,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유와 같은 주제를 충분히 이해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인문계열 문항 1에서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가>의 관점을 통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시오.

둘째, <다>를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논하시오.

이 논제의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고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① <가>의 주제를 파악하고 필자의 관점이 무엇인지 요약한다.
- ② <나>의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③ <가>의 관점에서 <나>를 연결하여 빅데이터 시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정리한다.
- ④ <다>의 핵심 요지를 파악한다.
- ⑤ <다>가 ③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논한다.

[대학 채점기준]

■ 답안의 구성 요소

- ① 답안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② 답안의 구성체계가 논리적인가?
- ③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 답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논제가 요구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가>의 관점 파악]

- 지문에서 다룬 주제를 파악하고 필자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 ① 제시문 <가>의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정리한다.
  -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는 개인의 인격과 자율성 및 자유를 침해한다.
- 예시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정보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침해, 통제권 상실, 자율권, 자유 박탈

[제시문 <나>의 문제 상황 파악]

- 두 지문을 연결하여 이해하고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의 논리성을 평가.
- ② <나>의 빅데이터 시대가 개인의 사생활에 끼치는 문제가 무엇인지 고찰한다.
  -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가 어떻게 수집, 저장, 활용하는지 알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막기 어렵다.
- ③ <가>의 관점에서 <나>를 해석하여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파악한다.
  - 데이터 수집이 불가피한 빅데이터 시대에서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개인의 통제권과 자유가 박탈 될 수 있다.
- 예시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인터넷, 사생활, 개인정보, 데이터 배기가스, 빅데이터

[제시문 <다>의 해결가능성 제시]

- 앞의 두 지문과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설득력 평가.
- ④ <다>의 요지를 파악한다.
  - 자신의 데이터를 알 권리인 투명성과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주체성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 ⑤ <다>가 ③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논한다.
  - 빅데이터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주체성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개인의 정보통제권과 자유를 지켜야 한다.
- 예시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투명성, 정보비대칭, 주체성, 데이터기업, 권리, 선택

■ 채점 기준(9등급 평가 기준)

아래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의 9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①,②,③,④,⑤를 모두 충족하고, 체계적인 논증력과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1등급
①,②,③,④,⑤를 모두 충족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였으나 문장 서술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경우	2등급
①,②,③,④,⑤를 모두 서술하였지만 논리적 구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	3등급
①,②,③,④,⑤를 모두 서술하였으나 어법 오류가 보이는 경우	4등급
①,②,③을 기술하였으나, ④,⑤의 연결이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않은 경우	5등급
①,②,③,④,⑤를 충족하였으나 환문하지 않고 제시문 표현을 그대로 반복한 경우	6등급
①,②,③,④,⑤ 중에서 한 두 개만 충족하여 답안의 충실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	7등급

①,②,③,④,⑤의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답안 완성도에 결함이 많은 경우	8등급
문항의 요구사항과 무관하거나 아래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9등급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대학 예시답안] 1,058자

내가 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나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타인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자율성은 인터넷과 빅데이터 시대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개인 정보를 공적, 사적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를 재구성하여, 각 개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한다. 이것은 안보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지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 때 개인은 타인이 자신에 대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개인의 자율성의 조건이 파괴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때로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선택권을 확장시켜주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보 제공자는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여 어떻게 활용하는지 가능한 한 정확하고 상세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사용될 것인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과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통한 각종 편익의 증대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었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타인과의 자유로운 교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개인의 자율성 조건이 파괴될 것이다. 정보에 대한 주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정책을 정비하고, 정보 수집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보에 대한 주체성과 투명성이 잘 보장된다면, 각 개인은 자유를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채점위원 총평]

<인문계열> 1번 문항의 출제 방향은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가 왜 문제인지 빅데이터 시대와 연결지어 생각해보고, 이를 투명성과 주체성의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술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1번 문항 답안은 내용 편차가 거의 없을 만큼 무난하게 작성되었다.

1등급으로 선정된 답안들을 보면,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였고 발문의 순서대로 체계를 잡아 단락별 내용 구성이 명쾌하였다.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고 관점과 키워드를 찾아내어, 질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세 개의 제시문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답안을 기술하였다. 자신의 언어로 환문하여 새롭게 표현하였으며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가독력을 높여주었다.

반면 낮은 등급을 받은 답안의 경우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중언부언 내용이 반복되었거나 단락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문장도 길고 매끄럽지 않았다. 내용이 논리로 연결되지 않고 ‘접속사’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각 문장들을 이어가거나, ‘나는’을 주어로 빈번하게 사용한 경우 낮은 등급을 주었다. 오프라인 논술의 경우, 정서법에 따라 깔끔하게 작성된 답안지는 채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답안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 [대학 우수답안] 1,115자

제시문 <가>는 정보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인격 훼손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관찰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가>는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 상실은 우리의 삶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반면 제시문 <나>는 개인 정보의 수집과 저장은 끊임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걱정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걱정이며 오히려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시대가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제시문 <가>는 <나>에 제시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개인 정보의 침해라고 본다.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관들은 관찰자가 된다. 이 관찰자들에 의해 개인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적 공간을 잃게 되며 ‘다르게’ 행동할 자유를 잃게 된다.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자유의 박탈과 의미가 상통한다. 게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사적 공간을 침해한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은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개인 정보 수집과 저장이 불가피하며 오히려 이를 이용한 ‘빅데이터’ 시대를 긍정하는 <나>의 태도를 <가>는 문제 삼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 정보 침해 문제는 제시문 <다>에 제시된 ‘투명성’과 ‘주체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투명성’이란 자신의 데이터를 알권리이며 ‘주체성’이란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권리를 뜻한다. ‘투명성’이 보장될 때 우리는 개인과 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주고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투명하고 분명하게 밝힐 때 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체성’이 보장될 때 나의 정보가 데이터 기업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으며 개인이 선호하는 선택을 지향할 수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과 기관 사이의 ‘투명성’과 ‘주체성’이 보장된다면 개인 정보 수집과 저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숙명여대 2020학년도 모의 2번

✎ <가>의 매미와 <나>의 서술자가 지닌 가치관의 공통점을 서술하고, 이를 통해 <다>의 독립생활자의 삶의 태도를 평가하시오. (1000±100자, 55점)

<가>

북극 바다에 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鯨)이라 하였다. 곤의 길이는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봉(鵬)이라 하는데, 봉의 등도 길이가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봉이 떨치고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도 같았다. 이 새는 태풍이 바다 위에 불면 비로소 남극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남극 바다란 바로 천지인 것이다. 『제해(齊諧)』에 적혀 있기를 “봉이 남극 바다로 나아갈 적에는 물을 쳐서 삼천 리나 튀게 하고, 빙빙 돌며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나 올라가며, 육 개월을 날아가서야 쉬게 된다.”고 하였다.

아지랑이나 먼지는 생물의 숨결에도 날린다. 하늘이 파란 것은 멀어서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역시 이와 같을 따름일 것이다. 또한 물의 깊이가 깊지 않다면 큰 배를 띄울 만한 힘이 없을 것이다. 한 잔의 물을 웅덩이에 부어 놓으면 곧 지푸라기가 그곳에서 배가 되어 뜨지만, 잔을 놓으면 땅에 붙어 버릴 것이다. 물은 얕은데 배가 크기 때문이다. 바람의 쌓임이 두껍지 않다면 거기에 큰 날개를 띄울 힘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만 리나 올라가면 바람이 그만큼 아래에 있게 되어 그렇게 된 다음에야 이제 바람을 탈 수 있게 된다. 푸른 하늘을 등짐으로써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된 다음에야 이제 남쪽으로 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매미가 그것을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였다.

“우리는 펼쩍 날아 느릅나무 가지에 올라가 머문다. 때로는 거기에도 이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수도 있다. 무엇 때문에 구만 리나 높이 올라 남극까지 가는가?”

가까운 교외에 갔던 사람은 세 끼니의 밥을 먹고 돌아온다 해도 배는 그대로 부를 것이다. 백리 길을 가려는 사람은 전날 밤에 양식을 짊어 준비한다. 천리 길을 가려는 사람은 석 달 동안 양식을 모아 준비한다. 이 별례는 무언가를 아는 것이다.

<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하나의 점이다. 저 점,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 집,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당신이 들어본 적 있는 사람들, 존재하며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인간들은 저 위에 있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굳게 믿고 있는 수천 종의 종교들, 이데올로기, 경제이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미천한 농민,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 엄마와 아빠들, 꿈 많은 아이들, 발명가와 개척자, 도덕을 가르친 선생님들, 부패한 정치가들, 슈퍼스타, 위대한 지도자, 성자와 죄인들, 그 모두가 저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점 위에 살았던 것이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하다. 인류 역사 속의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 죽었던 사람들이 흘린 피의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라. 저 작은 점의 한쪽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점의 다른 쪽에 있는, 걸모습이 거의 분간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을 생각해 보라. 얼마나 잦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는지 생각해 보라.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는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일 뿐이다.

<다>

한 사회를 설명하는 신조어의 생명은 짧지만, 파급력은 강하다. 나는 근래 한국 사회를 수놓는 신조어 중 ‘소확행(小確幸)’에 관심이 많다. 우리, 작은 것에서 행복을 보자! 그렇게 소확행은 시작된다. 친구와 몇 번 놀러 갔던 제주도는 소확행을 지속할 터가 되곤 한다. 동네에, 자신의 마음이 평안한 조그만 규모의 서점을 열고, 서점을 겸하는 작은 카페를 차린다. 이쁜만인가? 애초에 소확행을 언급했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같은 일상, 그 맛을 떠올려 보자. 식빵을 잘게 뜯어 먹을 때의 소소한 기쁨처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 감사하기. 포털사이트에 소확행을 쳐서 나오는 흔적을 검색하면, 소박함이 끼친 감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적은 기록으로 넘쳐난다.

그런데 소확행에 깃든 삶의 ‘작은’ 가치와 그 소중함을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챙겨볼 필요도 있다. 내가 ‘작은’이라는 말에만 굳이 작은따옴표를 친 까닭은 우리네 생활에서 ‘작지만 그래서 소중한’으로 시작하는 가치관의 설파에 담긴 그늘을 언급하고 싶어서다.

지난해 한창 활동하면서, 미래를 타개해 보려는 20대 사진작가들과 대화할 자리가 생겼다. 생각을 주고받던 중 한 작가의 쏘아붙이는 말투가 인상 깊었다. “아니, 비평가들은 뭐만 하면 내 작품 보고 소품 같다고 그래요. 내 작품 당신 말처럼 그렇게 자질구레하지 않아요, 내 작품 속에는 대작들과 겨루어서 이기려는 나의 야심이 들어 있다구요.” 귀가하면서 그 사진작가의 지적이 맴돌았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진작가를 포함한 오늘날 ‘독립생활자’로 불리는 이들이 자신을 소박한 행복의 전도사로 쉬이 지칭하려는 언론과 여론의 분위기에 휩싸여 허덕이기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자. 독립생활자라고 해서 모두 소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정도의 삶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모토에 충실한 현대인의 유형이라고 여겨야 할까? 아니 이렇게 물어 보자. 그들은 정말 야심을 버렸는가? 언론매체는 왜 독립생활자를 ‘야심 없음’이라는 프레임에 가둘까? 독립생활자에게도 야심이 있지 않을까? 이들의 야심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정녕 해왔는가?

몇 달 전 필자는 독립생활자들의 삶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좌담회에서 독립생활자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해온 J씨의 예민한 생각이 필자의 마음을 형클어 놓았다. 나는 야심을 덜어내고 적정한 수준의 경제적 이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담론이 하나 둘 나오는 것 같으며, 이 담론이 주시하는 대상이 바로 패널리 모신 분들을 총칭하는 독립생활자인 것 같다고 말을 건넸더니 J씨는 바로 이견을 제시했다. 그는 독립생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왜 야심을 배제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의 비판을 들으면서 필자는 왜 자신의 작품을 무턱대고 소품으로 치부하느냐고 하던 사진작가의 말이 떠올랐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

독해  
정리

---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가>의 매미와 <나>의 서술자가 지닌 가치관의 공통점을 서술하고, 이를 통해 <다>의 독립생활자의 삶의 태도를 평가하시오. (1000±100자, 55점)

[독해]

- (가) 자기 사정에 맞는 목표와 성취가 있고, 그것들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다. - 우열이 없다.
- (나) 모든 것은 절대적 관점에서 보면 모두 평등한 것이다. 어느 것 하나 더 우월한 것이 없다.
- (다) 작은 것에 대한 만족을 중시하면서도 그 안에 갇히는 것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사상

[논리평면]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공통점		작거나 큰 것의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G
	증거	(가)	자기 사정에 맞는 목표 성취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다	G
	증거	(나)	작은 지구 위의 모두는	모두 평등할 뿐, 우열이 없다	G
대상	(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을 추구하는 젊은이들	g
			야심이 있음을	강하게 호소하는 젊은이들	b

[예시답안] 1,006자

우리의 제한된 관점에서 인식되는 ‘작은 것’, ‘큰 것’에는 본질적 우열 구분이 존재할 수 없다. 먼저 제시문 (가)에서 말하듯 큰 새인 ‘붕’은 남극에 가기 위해 높이 날아오를 뿐이고, 매미는 나무 위로 오르기 위해 낮게 날아오를 뿐이다. 각자 자기 나름의 사정에 맞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뤘을 때의 만족이 있는 것이지, 큰 목표라고 위대하고, 작은 목표라고 초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제시문 (나)에서도 드러난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 그저 작은 무대일 뿐, 그 안에서 살아간 무수한 역사는 모두 하나의 ‘점’일 뿐이다. 어떠한 조건을 갖고 살아갔는지 그 작은 차이에서 본질적 우열 구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스스로 위대하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을 지라도, 혹은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우울한 이가 있을 지라도 모두 그들만의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젊은이들은 일면 바람직하면서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그들은 소위 ‘소확행’이라 불리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 ‘거대한’ 목표, ‘위대한’ 도전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 삶의 조건들 안에서 일상적 행복을 구가할 수 있다고 믿고, 그 행복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안분지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물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나름의 만족을 존중하는 태도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젊은이들은 ‘소확행’의 틀 안에 자신들을 가두려는 언론의 시선에 달갑지 않다는 태도를 보인다.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어디까지나 소품으로 취급하는 시선이 틀렸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야심이 없는 사람

들로 묘사하는 언론의 시선에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큰 것과 작은 것, 즉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의 구분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이며, 결국 ‘소확행’을 추구한 것은 우월한 것을 이룰 수 없음에서 나오는 나름의 방어적 인식이었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는 젊은이들의 사상을 바람직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최근 가치관의 변동 과정에서 주목 받은 ‘소확행의 확산’이라는 문화 현상을 서로 다른 기원을 갖는 다양한 가치관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임.
- 세부적으로, 전통적인 도가의 가치관과 현대 천문학의 성과를 반영한 공존의 가치관, 그리고 현재 대중문화에서 각광받는 가치관 사이에는 뜻밖에도 공통점이 발견된다. 동시에 그것들 사이에는 차이도 존재한다. 이러한 세부를 구별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문화 사안에 대해 체계적인 논증과 풍부한 의미를 갖는 표현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임.

### [대학 문항해설]

####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는 거대한 새 ‘붕’과 미물인 ‘매미’의 삶의 자세를 대비하여, 크고 작음에 우열이 있지 않으므로 제 규모에 맞춰 살아가려는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태양계의 끝에서 보면 거대한 지구도 희미한 점으로 겨우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별을 짓거나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태도를 문제삼고 있다.

제시문 <다>는 최근 문화 트렌드인 ‘소확행’의 의미를 설명한 다음, ‘작지만 그래서 소중한’이라는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독립생활자의 소품과 일상에도 그들의 야심이 반영되어 있다는 진단이 그 보기이다.

#### ■ 논제의 구성

이 문항은 다음과 같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가>의 ‘매미’와 <나>의 서술자의 가치관의 공통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첫 번째 질문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다>에 제시된 독립생활자의 삶의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 [대학 채점기준]

#### ■ 답안의 기본 요소

-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제시문 <가>를 ‘매미’ 위주로 읽고 그 가치관을 파악하기.

- <가>의 전체 논지는 거대한 새 ‘붕’과 미물인 ‘매미’의 삶의 자세를 대비하여 크고 작음의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제 규모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옹호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미’ 위주로 읽고 그 가치관을 제시해야 한다. 매미는 남의 기준을 좇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작은 규모의 삶과 큰 규모의 삶에 우열이 없으며 그것을 분별하여 인식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② 제시문 <나>의 서술자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 <나>의 서술자는 태양계의 끝에서 보면 거대한 지구도 희미한 점으로 겨우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별을 짓거나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작은 점 위에 살고 있을 뿐이며 그렇기에 우리들의 차이라는 것은 작은 점의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동하는 정도의 것일 뿐이다.

③ 제시문 <가>의 매미와 <나>의 서술자의 가치관의 공통점 찾기.

- <가>의 매미와 <나>의 서술자는 모두 크고 작음의 기준이 무의미하다는 인식 관점에서 서 있고, 이에 따라 작고 큰 것을 분별해서 큰 것을 더 우선시할 필요가 없고, 더 우월한 삶을 지향하거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④ 앞서 검토한 ③의 논지를 바탕으로 <다>의 삶의 태도를 평가하기.

- 앞서 제시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다>의 독립생활자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 둘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유사한 점은 <가>의 매미와 <나> 서술자와 <다>의 독립생활자 모두 ‘소확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작가는 소품을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고, J씨도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감내하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큰 일을 우선시하지 않고 작은 일을 통해서도 확실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그것은 독립생활자들은 이러한 작은 규모의 생활을 하면서도 동시에 야심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작가는 자신들의 작품 속에는 대작들과 겨루고 싶은 야심이 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J씨 또한 자신들에게 야심이 없다는 타인의 시선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하고 있다. 이러한 야심은 <가>와 <나>에서 보았던 가치관과는 다른 것이라 하겠다. 야심은 ‘큰 것과 작은 것의 분별’에서 시작되어 더 큰 것을 선호하는 심리이기에, 작은 것과 큰 것의 구분이 의미 없음을 말하고 있는 <가>, <나>와는 변별되는 것이다.

■ 채점 기준(9등급 평가 기준)

아래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의 9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①,②,③,④를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안 서술이 체계적이며 완성도가 높은 경우	1등급
--	-----

①,②,③,④를 모두 기술하였으나, 문장 서술과 표현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경우 (예: 어색한 표현, 매끄럽지 못한 문장, 문법적 오류, 충분히 환문하지 않고 제시문을 단순히 베껴 쓴 경우 등)	2등급
①,②,③,④를 대체로 기술하였으나, 논리와 체계가 다소 부족하고, 문장 서술과 표현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③,④의 서술은 적절했으나, ④의 평가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4등급
③,④의 서술은 적절했으나, ③에 이르는 요약과 논리 전개가 다소 부족한 경우	5등급
③,④ 중에서 한 개만 충족하여 답안을 쓴 경우	6등급
③,④를 대부분 충족시키지 못했고 답안 완성도에 결함이 있는 경우	7등급
논제의 요구 사항과 무관하거나 어법의 오류가 많고 글자 수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8등급
아래 <유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9등급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대학 예시답안] 1,090자

<가>의 매미는 남의 삶을 좇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봉새가 높게 날아 멀리 간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가치관은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이나 천리 길을 가는 사람이나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식량을 준비하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작은 규모의 삶과 큰 규모의 삶에 우열이 없으며 그것을 분별하여 인식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의 서술자는 우리가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긴다거나, 누구는 더 대단하고 누구는 그보다 못하다고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먼 관점에서 보면 그 차이는 미미한 것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작은 점 위에 살고 있을 뿐이며 그렇기에 우리들의 차이라는 것은 작은 점의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동하는 정도의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의 매미와 <나>의 서술자는 공통점이 있다. 즉, 우리 삶에서 작고 큰 것을 분별해서 큰 것을 더 우선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다>의 독립생활자의 삶은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유사한 점은 그들이 '소확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작가는 소품을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고, J씨도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감내하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이는 큰 일을 우선시하지 않고 작은 일을 통해서도 확실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그것은 그들이 이러한 작은 규모의 생활을 하면서도 동시에 야심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작가는 자신들의 작품 속에는 대작들과 겨루고 싶은 야심이 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J씨 또한 자신들에게 야심이 없다는 타인의 시선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하고 있다. 이러한 야심은 <가>와 <나>에서 보았던 가치관과는 다른 것이라 하겠다. 야심은 '큰 것과 작은 것의 분별'에서 시작되어 더 큰 것을 선호하는 심리이기에, 작은 것과 큰 것의 구분이 의미 없음을 말하고 있는 <가>, <나>와는 변별되는 것이다.

[대학 채점위원 총평]

이번 모의논술 2번은 <가>의 매미와 <나>의 서술자의 공통 가치관을 찾는 문제, 그리고 그 가치관에서 볼 때 <다>의 ‘독립생활자’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제였다.

우리는 매미의 생각과 행동에서 보이는 몇 요소들을 통해 그가 ‘안분지족’하는 존재, <나>의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 그가 ‘우리는 거대한 존재가 아니라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가치관을 포착하기를 바랐다. 그렇기에 이 둘의 공통점은 “자신보다 큰 것에 대한 집착(야심)을 버리는 것”으로 기술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이 점을 포착한 학생이 많았다는 점이 좋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가치관에서 볼 때 ‘독립생활자’의 평가는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내용에서 거듭 강조된 ‘야심’은 “보다 큰 것에 대한 지향을 경계”하는 <가>와 <나>의 공통점에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역시 절반 정도의 학생이 잘 풀어내고 있었다.

총평의 지면을 빌어서 세 가지 정도의, 논술 일반에 대한 조언을 하고 싶다. 논술을 할 때는 첫째, 지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지 말고 재구성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할 것, 둘째, 단락을 비슷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기술할 것, 셋째, 정확한 어휘로 표현할 것이 그것이다. 논술은 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을 뽑기 위한 시험이다. 그대로 반복한다는 것은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해 편법을 쓰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락을 나누지 않는 것은 생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글쓰기의 기초가 잘못 잡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정확한 어휘가 구사되어 있는 것은 독서의 깊이가 얕고 표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점을 유념해서 본 논술을 준비하길 바란다.

[대학 우수답안] 921자

<가>의 매미와 <나>의 서술자는 공통적으로 작은 존재들의 삶에서 야망을 배제하고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가>의 매미는 자신보다 커다란 봉의 이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작은 것’으로 대표되는 매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높이 날아오르고 멀리 이동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조차 갖지 않으면서 매미 자신의 ‘작은 삶’에 안분지족하며 살아간다. <나>의 서술자는 우리를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라고 칭하면서 글을 전개해 나간다. 우주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작디작은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미와 마찬가지로 야망은 버리고 점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이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다>의 독립생활자들의 삶의 가치관은 상반된다. 독립생활자들은 여론에서 ‘소박한 행복의 전도사’라고 불린다. 이는 그들이 ‘작은 가치’에서도 큰 행복을 느낌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언제까지나 작은 것만을 바라보고 거기서 느끼는 행복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향한 야심, 야망도 품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그들의 삶까지도 ‘작다’라고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의 매미와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독립생활자들의 이러한 삶은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질없는 삶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다>의 독립생활자들의 삶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매미와 <나>의 삶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독립생활자들은 야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작은 존재들에서 느끼는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미와 <나>의 관점에서 <다>의 독립생활자들의 삶은 이루지도 못할 헛된 욕망을 품고 사는 ‘작은 존재’들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될 수 있다.

## 숭실대 2019학년도 인문사회 기출 1번

- ☞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예술 감상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Banksy의 실험적 행위가 예술 감상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000±100자, 60점)

<보기>



- ① Banksy는 가짜 수염과 모자로 위장을 하고 유명 미술관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몰래 붙이고 나오는 실험적 행위를 했다.
- ② 많은 관람객은 Banksy의 그림을 명화로 오해했으며, 직원들마저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
- ③ Banksy가 그린 그림의 제목은「당신은 아름다운 눈을 가졌군요」이다.

[가]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 미술에는 언제나 발견해야 될 새로운 것들이 있다. 위대한 미술 작품들은 우리가 그 작품을 대할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처럼 다함이 없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미술은 그 자체로 불가사의한 법칙과 모험을 가지고 있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자극적인 세계인 것이다. 미술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누구도 미술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작품들은 잘 감상하기 위해서 상투적인 미사여구나 진부한 표현 같은 것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면서, 작품 속의 모든 암시를 포착하고 숨겨진 조화에 감응\*하려는 참신한 마음가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미술에 관해서 그릇된 생각을 조장하는 설익은 지식을 갖는 것보다는 미술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훨씬 좋다.

비평가들이 썼던 단어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이한 문맥 속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참신한 눈으로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속에서 새로운 발견의 향해를 감행하는 것은, 그 그림에 대해 재치 있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지만 더욱 값진 일이다. 우리가 그런 여행에서 무엇을 얻어 가지고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 감응(感應) :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

[나]

그림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그린 걸까? 왜 저 색을 사용하였을까? 저 색과 사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작품을 마주한 우리는 작품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작품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특정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다면 미술 작품은 어려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명화’나 난해한 실험적 작품을 대하기 전에 그 작품에 대한 사전 공부를 한다. 어느 시대에 그려졌으며, 작가는 누구이며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등을 알아본다. 이와 같이 작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작품을 대하면, 그 작품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되거나 잘 이해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작품에 따라 이러한 사전 학습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사전에 학습한 지식들이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작품 감상에서 사전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활동이다. 인간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색채나 모양을 인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감각→지각→인지’라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처럼 눈으로 본다는 것은 복합적인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전 지식 못지않게 감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사전 지식에 맞추어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감상의 의미를 기존 지식의 확인 정도로 제한하는 것과 같다.

[다]

전통적으로 사회학자들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혹은 직업을 가지고 계급을 구분해 왔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계급적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생활양식, 소비 패턴과 같은 문화적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여러 사회 집단들이 자신들의 지위 상승을 위해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구하였다. 여기서 ‘자본’이 특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 도움이 되는 자원을 의미한다.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은 부(富)와 같은 물질적 자원을 가리키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인적 관계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계급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살거나 자기들만의 인맥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인맥이 사회적 자본이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 외에 지식, 취향, 개인적 스타일과 같은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도 지위 상승의 유용한 자원이 된다. 예를 들어, 일부 엘리트층은 발레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취향을 개발함으로써 자기들만의 취향의 동질성을 형성하고, 발레와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 집단과 스스로를 구별 짓는다. 이러한 문화적 자본은 ‘아비투스(habitus)’에 의해 형성된다. ‘아비투스’란 상이한 조건의 개인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하는 기본적인 생활양식이다. 유사한 조건에 있는 개인들은 비슷한 생활양식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집단별로 독특한 문화적 자본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르디외는 기존에 ‘경제’ 중심으로 논의되던 계급의 문제에 ‘문화’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유사한 조건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아비투스’를 공유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른 계층과는 다른 독특한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한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예술 감상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벅크시의 실험적 행위가 예술 감상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000±100자, 60점)

[독해]

(가) 참신한 관점 - 기존의 진부한 관점이 아닌 ⇒ 작품의 정확한 의미 파악

(나) 사전 학습 후 감상 ⇒ 친근감과 이해도 상승  
감각적 감상 ⇒ 기존의 이해를 벗어난(참신한) 이해

(다) 경제·문화·사회 자본 ⇒ 계급 결정  
문화적으로 학습된 관점 ⇒ 작품 이해 및 수용

<보기> 벅크시의 실험적 행위: 자신의 작품을 유명 미술관에 몰래 전시함 ⇒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함

[논리평면] 비교, 종합추론

공통점	예술감상	
차이점	방법	목적
(가)	주체적	작품 의미 정확하게 파악
(나)	사전 학습 후 감상	친근감 이해도 상승
	감각적 감상	참신한 이해
(다)	이론적 감상 - 문화 자본 습득 후 감상	계급적 구분

		전제	결론
기준	(다)	문화 자본 습득	배타적인 위계 구분: Bad
대상	(보기)	유명 미술관의 전시를 무비판적 습득	배타적 위계 구분을 위한 것: bad

		전제	결론
기준	(가)	주체적 감상	정확한 예술 이해
	(나)	(이에 더해) 사전 학습 후 감상	친근감, 이해도 상승
대상	(보기)	자신의 눈과 사전 학습을 통한 비판적 감상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예술 감상

[예시답안] 1097자

제시문들은 예술 감상에 관련된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 그 감상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제시문 (가)에 나타난 예술 감상법은 주체적 감상이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진부한 관점들로 작품의 의미를 한정짓는 게 아니라, 작품의 있는 그대로를 인지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바로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자기 눈으로 볼 때 작품이 가진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각적 감상법에 대해서는 제시문 (나)도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더 해 사전 학습을 통한 감상법 또한 중시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이론, 배경 등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법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나)는 작품에 대한 친근감을 키운다거나 더 깊이 있게 작품을 이해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예술 감상법은 문화 자본이라는 이론적 토대를 수용하는 방법이다. 계급에 따라 전수되는 문화적 자본을 흡수하여 이를 통해 예술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상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계급적 위계 구분이다. 상류 계층으로의 도약을 위해, 혹은 계급적 위계를 배타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 문화 자본의 전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의 입장에서 보면 <보기>에 나타난뱅크시의 실험적 행위는 대중의 잘못된 작품 감상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뱅크시는 유명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전시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작품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무비판적으로 유명 미술관이라는 권위가 전하는 질서를 습득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높은 계층을 획득 및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올바른 감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사람들에게겐 (나)와 (다)가 전하는 감상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자신의 눈으로 작품을 보고, 이에 더해 이론을 공부하여 작품에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1. [문제 1]은 제시문의 관계를 파악한 후, 실험예술가 뱅크시의 행동이 예술 감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던지는 문제 의식과 실험의 함의를 제시문의 내용과 연결하여 서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2.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에 실린 글로, 작품 감상에 관한 저자의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감상의 목적이 '새로운 발견'이라 보고 그릇된 생각을 조장하는 설익은 지식을 갖는 것보다는 참신한 눈으로 보고 느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 [나] 또한 작품을 보는 눈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가]와 유사한 감상 태도를 옹호하지만, [가]와 달리 '사전 지식'이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감상자의 참신한 눈을 감상의 핵심으로 본다는 [가]와 [나]의 입장은 유명 미술관에 걸려 있으면 무조건 예술로 보는 태도를 비판하는 뱅크시의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3. <보기>의뱅크시의 실험적 행위는 관람객과 미술관 직원들마저 그의 작품을 오해했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와 [나]에서 다루고 있는 예술 감상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런데 예술 감상에는 ‘어떻게 하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점 외에 ‘예술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예술이라 부르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인식 또한 포함된다. 뱅크시의 실험은 이 두 측면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문을 던지고 예술 감상의 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4. 제시문 [다]는 위와 같은 뱅크시의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다]는 부르디외의 이론을 소개한 것으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가져온 글이다. 부르디외는 예술을 문화적 자본의 하나로 보고, 일부 계층에게 예술 감상은 지위 상승의 수단이자 자기들만의 동일성소속감을 형성하는 방법이라 본다. 예술 감상을 통해 자신도 고급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계층에 속해 있다는 의식은 다른 집단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구별 짓는 역할을 한다. 예술 감상의 목적이 지위 상승, 구별 짓기에 있고 감상이 소속감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부르디외의 지적은 많은 관람객들이 뱅크시의 그림을 명화로 오해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5. <보기>의뱅크시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유명 미술관에 몰래 붙이고 나오는 실험적 행위를 한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로 공인(公認)되지 않은 그림이라는 점, ‘유명’ 박물관을 실험 장소로 택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몰래 그림을 걸었다는 점, 관람객은 뱅크시의 그림을 명화로 오해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뱅크시의 그림이 유명 미술관에 전시될 정도로 잘 그린 그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많은 관람객이 뱅크시의 그림을 명화로 오해한 가장 큰 이유가 그 그림이 유명 미술관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뱅크시는 자신의 실험을 통해 ‘예술과 비예술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술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라는 문제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대학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에 실린 글로, 예술 감상의 방법에 관해 저자의 독특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저자는 그림을 감상할 때 비평가들이 사용한 단어나 개념을 감상에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비판하며 참신한 눈으로 그림을 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림에 관한 설익은 지식에 의지하기보다 참신한 마음으로 그림을 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미술 문화 교과서에서 예술 감상의 방법을 소개한 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글에서도 제시문 [가]와 마찬가지로 예술 감상의 목적을 발견으로 보지만 이를 위해 그림에 관한 사전 지식이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제시문 [가]와 차이를 보인다. 사전 지식과 더불어 그림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활동을 감상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수록된 글로, 부르디외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일부 계층이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명화를 감상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독특한 취향을 개발함으로써 동일성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동일성소속감 형성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계층을 여타의 계층과 구별 짓는 것이 예술 감상의 주요한 목적이라는 점을 제시문 [다]는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겉보기에 [가], [나]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예술 감상의 목적과 동기 면에서 [가], [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보기〉는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뽑은 사진과 그림으로뱅크시의 실험적 행위를 소개하고 있다.뱅크시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유명 미술관에 몰래 붙이고 나오는데, 관람객은 물론 직원들마저 그 그림이 ‘명화’로 인정받은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보기〉의뱅크시의 실험적 행위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예술 감상의 목적과 예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

⇒ 미술관에 걸려 있으면 무조건 예술이라고 보는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제시문 [다]를 활용)

⇒ 집단에 대한 소속감동질성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감상(예술 감상은 수단에 불과)의 문제점(제시문 [다]를 활용)

② ‘예술 감상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

⇒ 자신의 눈보다 설익은 지식에 의지하는 예술 감상법에 대한 문제제기(제시문 [가]를 활용)

⇒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태도의 중요성(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

[대학 채점기준]

구분	평가 기준	평가 내용
제시문의 차이에 대한 논술	평가 기준 1	제시문 [가], [나]와 제시문 [다]의 차이 파악 여부(감상의 목적, 태도의 차이)
	평가 기준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차이 파악 여부(사전 지식 필요 여부)
시사하는 바에 대한 논술	평가 기준 3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보기〉의 예술 감상의 목적에 대한 문제제기를 파악했는가의 여부
	평가 기준 4	제시문 [가], [나]를 활용하여 〈보기〉의 예술 감상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파악했는가의 여부

① 제시문의 차이를 파악하고 차이를 정확하게 서술했는가(감상의 목적과 태도, 사전 지식 필요 여부 ⇒ 평가기준 1, 2)

② 뱅크시의 실험적 행위의 의미를 [다]를 활용하여 서술했는가(감상의 목적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여부 ⇒ 평가기준 3)

③ 뱅크시의 실험적 행위의 의미를 [가] 또는 [나]를 활용하여 서술했는가(감상에서 ‘참신한 눈’의 중요성 ⇒ 평가기준 4)

등급	평가 내용
1	전체적으로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고 문장표현, 논리구조에 문제가 없는 경우(부분적으로 누락, 오류,
2	비문 등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2등급)
3	대체적으로 ①을 충족하고 ②, ③을 모두 서술했지만 문장표현, 논리구조가 다소 미흡한 경우(부분적으로

4	누락, 오류, 비문 등 미흡한 정도에 따라 3, 4등급 분류)
5	①을 어느 정도 충족하지만 ②, ③의 제시문 활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6	①을 다소 충족하지만 ②, ③의 논술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부분적으로 누락, 오류, 비문 등 부족한 정도에 따라 6, 7등급 분류)
7	
8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답안지 작성 규정 위반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9등급)
9	

[대학 예시답안] 1,034자

제시문은 예술 감상에 관한 글로 감상의 목적과 태도, 사전 지식에 대한 태도 면에서 상이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예술 감상의 목적과 관련하여 [가]와 [나]는 감상의 목적을 새로운 발견이라고 본다. 새로운 발견을 위해서 [가]와 [나]는 모두 참신한 눈으로 보고 느끼는 방법을 강조한다. 하지만 사전 지식에 대한 태도를 놓고 보면 [가]는 사전 지식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반해, [나]는 사전 지식이 감상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한편 [다]는 부르디외의 이론을 소개하며 예술 감상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와 [나]는 예술을 미적 대상으로 보지만, [다]는 예술을 지위 상승의 도구로 본다. 특정 계층이 가진 예술에 대한 취향 이면에는 소속감동질성 형성이라는 목적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감상은 자신이 속한 계층을 여타의 계층과 구별 짓기 위한 수단 의미를 띤다. 사전 지식의 측면에서도 [다]는 사전 지식을 특정 계층이 공유한 문화적 자본의 일부로 보는 면에서 [가], [나]와 차이가 있다.

위의 내용에 입각할 때뱅크시의 행위는 우선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면에서 시사적이다. <보기>에 따르면 많은 관람객들은뱅크시의 그림을 명화로 오해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유명 미술관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참신한 눈을 강조하는 [가]와 [나]를 참고해 볼 때,뱅크시의 실험은 유명 미술관에 있으면 무조건 예술로 보는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체적인 눈으로 예술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뱅크시의 행위는 예술 감상의 진정한 목적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한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의 관점에서 볼 때 유명 미술관에 걸려 있으니 명화라 보는 태도는 작품 자체보다 구분 짓기를 더 중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감상의 목적을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두는 태도이다.뱅크시는 자신의 실험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적 체험이 사전 지식의 적용이나 소속감 확인의 수단으로 축소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예술 감상 방법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숭실대 2019학년도 인문사회 기출 2번

☞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기>의 기부행위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800±80자, 40점)

### <보기>

2008년 일선에서 은퇴한 후 빌 게이츠에 대한 수식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인물’로 바뀌었다. 빌 게이츠는 탁월한 선천적 재능을 바탕으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1천억 달러에 이르는 부를 축적한 빌 게이츠는 “세 자녀에게 1천만 달러씩 주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겠다.”라고 밝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빌 게이츠와 부인 멜린다 게이츠의 이름을 따 설립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워런 버핏이 재산 대부분을 기부한 단체로도 유명하다. 빌 게이츠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인물인 워런 버핏은 직접 자선 재단을 만들지는 않았다. 이미 자신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을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한 바 있고, 2011년 하반기에만 4,000만 달러 이상의 주식을 여덟 곳의 자선 단체에 기부하였다.

### [가]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역할들은 보기 드문 재능이나 일정 기간의 수련을 요구한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의사, 핵물리학자, 판사 또는 군사전략가가 될 수는 없다. 한 사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들에 재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유인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런데 재능이나 혹은 장기간의 훈련을 요구하는 역할들은 상당한 정도의 희생,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들은 사회가 경제적 부, 권력, 위세 또는 이들에게 적절하게 부여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에게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미화원보다 국회의원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회는 국회의원에게 보다 높은 지위와 보상을 제공하며, 목수보다 사회과학자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회는 사회과학자들에게 보다 높은 지위와 보상을 주기 때문이다. 사회적 보상의 이러한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를 위해서 기능적이다. 왜냐하면, 희소한 재능을 요구하는 역할들은 가장 능력 있는 개인들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계층은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나]

사회 제도나 정책 또는 관행은 각 개인의 가치관이나 욕구 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잘못된 의식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취업에서 학력이나 출신 학교를 중요시하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실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학력주의나, 소위 ‘일류대’ 진학에 열을 올리게 하는 학벌주의를 조장한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학력주의나 학벌주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의식 구조이다.

사회 제도나 정책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잘못 운영되면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사회 제도나 정책이 올바르게 운영되면 사회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만, 그것에 결함이 있으면 오히려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자살, 학교 폭력, 서민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배려심을 길러주는 인성 교육보다는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교육 정책이나 입시 제도에 어느 정도 그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 맞벌이 부부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 체계의 미흡 등이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어떤 사회는 장애인 시설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 장애인들이 독립성을 느끼며 살 수 있게 한다. 반면에 또 다른 사회는 제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뜻있는 일부 사람의 선의와 자비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우리는 후자를 ‘모욕 사회’라 부를 수 있다. 특히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후자에 해당하는 사회라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사회적 모욕은 대부분 필요한 제도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탄생한다. 평등한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에서 비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해 만들면서도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한 칸만 만드는 일도 사실은 제도의 결핍에 해당한다.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교육 대상자들은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후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을 느낄 때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미비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어야 비로소 ‘모욕 사회’에서 진일보한 ‘품위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

[라]

생산에 기여한 것에 비례하여 각자의 분배 몫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기여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근면과 창의력으로 사회의 생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많이 받고, 기여가 적은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도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 라고 하였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벼지이와 개미가 똑같은 몫을 분배받는 것은 부당하다. 만일 생산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 옳다고 하면 무위도식도 정당하다는 잘못된 결론이 도출된다.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권리와 책임 하에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와 가족의 생계는 국가나 친척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이 행동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독립심과 자립심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된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기>의 기부행위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800±80자, 40점)

[독해]

<보기> 세계적인 자산가들이 거액을 기부하여 사회적 재분배를 실천했다.

[기능론] (가) 중요한 역할 - 희생적 수련 필요 ⇒ 높은 보상 - 불평등 배분 : G(기능적)

[기능론] (라) (독립적 개인의) 생산 기여도 ⇒ (개별적 차원의) 불평등 배분 : G(정의 원칙, 사회 발전)

[갈등론] (나) 잘못된 사회 제도 ⇒ 잘못된 의식 구조를 만듦 : B(발전 저해)

[갈등론] (다) 부족한 제도 + 일부 선량한 선의 ⇒ 사회적 모욕 : B(모욕 사회)

[논리평면] 분류, 가치추론

		전제	결론	가치
기준	기능론	기능적 제도 + 개인적 책임	공정한 배분	G
	(가)	중요한 역할 - 수련 필요	높은 보상	G(기능적)
	(라)	개인의 독립적 생산 기여도	불평등 배분	G(정의, 발전)
대상	<보기>	부자들의 기부를 통한 일시적 재분배	불평등 배분 원칙 X	기능성 저해
			정상적 배분 실현 X	발전 저해

		전제	결론	가치
기준	갈등론	잘못된 사회 제도	불공정 배분	B
	(나)	잘못된 제도	잘못된 의식 구조	B(발전 저해)
	(다)	부족한 제도 + 일부 선의	사회적 모욕	B(모욕 사회)
대상	<보기>	부자들의 기부를 통한 일시적 재분배	사회적 박탈감	발전 저해
			사회적 모욕	모욕 사회

[예시답안] 821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먼저 불평등을 긍정하는 기능론으로 제시문 (가), (라)가 있고, 불평등을 부정하는 갈등론으로 제시문 (나), (다)가 있다.

먼저 기능론은 사회적 불평등을 통해 사회가 기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한다. (가)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중요

한 역할은 그 중요도 만큼 희생적 수련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라)에 나타나듯 사회적 생산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고, 사회 발전에도 유리하다.

반면 갈등론은 잘못된 사회 제도로 인해 불공정한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나)에 따르면 사회의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학벌주의와 같은 부적절한 의식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는 곧 사회 발전 저해로 이어진다고 한다. 또한 (다)는 이렇게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개인이 선의를 보인다고 해도 그 수혜 대상자에게 사회적 모욕을 줄 뿐이라고 한다.

기능론 입장에서 <보기>의 기부행위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한계를 유발한다고 비판할 것이다. 물론, <보기>에 나타나듯 세계적 자산가들이 거액을 기부하는 모습은 개인적으로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로 인해 공정 분배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개인의 자발적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갈등론 입장에서도 위의 기부 행위는 한계를 갖는다. 일부의 선의가 나타난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부는 오히려 수혜 대상자를 모욕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기부가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사회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의 잘못된 의식이 생길 수도 있다.

## [대학 출제의도]

- [문제 2]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관한 생각을 묻는 문제이다.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두 상반된 견해를 비교하고, 기부 행위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부는 분명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행위이지만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에는 부족한 방법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그 한계를 제시문을 토대로 논술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제시문은 사회적 불평등을 설명하는 두 대조적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 [가]와 [라]는 사회적 불평등이 능력에 따른 분배의 필연적 결과물이라는 기능론적 시각을, 제시문 [나]와 [다]는 사회적 불평등이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에 주목하는 갈등론적 시각을 대변한다. 제시문을 기능론과 갈등론의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고 비교하는 것은 논술시험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문제 유형이다. 제시문도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본다.
- 문제 해결의 요점은 1) 각 입장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명확하게 지적하며 두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가, 2) 기부 행위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이해하고 불평등 해소 방법으로서의 기부 행위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 지적해낼 수 있는가에 있다. 이 두 부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는가가 평가의 요점이고 등급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 기부 행위는 우리의 통념상 훌륭한 윤리적 행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이 한계는 사회 제도나 정책이 잘못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시문 [나]에서 근거를 찾아 서술할 수 있다.
- 제시문 [다] 역시 기부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기부는 우월한 입장에서 시혜(施惠)

를 베푸는 것으로 이해될 경우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 모욕감이나 상처가 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제도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는 개인적 기부 행위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게 하는 문제도 지닌다. 이러한 제시문 [다]의 문제의식을 잘 활용하면 불평등의 해결에 기부가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

6. 한편 제시문 [가]와 [라]를 활용하여 기부 행위의 한계를 지적할 수도 있다. 제시문 [가]는 재능을 발휘하여 기여를 많이 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라 말한다. 그런데 기부를 통해 기여도가 낮은 사람에게 가는 보상이 많아질 경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유인책의 가치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기부 행위를 통한 불평등의 개선은 자신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식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있다.
7. 제시문 [라]도 제시문 [가]와 유사하게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인 분배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 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제시문 [라]는 독립심과 자립심이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기부에 의존할 경우 발전의 심리적 토대인 독립심과 자립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것은 경제 발전을 더디게 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대학 문항 해설]

〈보기〉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실린 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글은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자신이 축적한 부의 상당 부분을 기부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기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존경할 만한 행위이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의 개선 방법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기부를 생각해 보면, 기부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측면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개인의 기부행위로 극복하려는 방법이 지닌 한계를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 서술할 수 있는가가 문제 해결의 요점이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실린 글로, 사회 계층은 배분의 필연적 결과라는 기능론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희소한 재능을 요구하는 역할들은 가장 능력 있는 개인들에 의해 수행되고 이들에게 더 높은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에 기능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배분의 차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만큼 사회적 불평등의 개선에 사회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관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뽑은 글로, 사회 제도나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잘못된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 제도는 잘못된 의식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데 정책이 잘못 운영될 경우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시문 [나]는 제도나 구조적 측면이 사회 변화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수록된 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모욕 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거나 미비한 상태에서 개인의 선의와 자비에 의해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비라는 용어가 암시하듯 [다]는 불평등의 개선이 상층부에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뤄질 때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모욕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시문 [다]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바라보고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일부로, 기여도의 원칙을 통해 기능론적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기

여도의 원칙에 따르면 생산에 기여한 것에 비례하여 각자의 몫이 분배되는 것이 정의의 개념에 부합한다. 또한 모든 문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불평등 해결의 주체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학 채점기준]

구분	평가 기준	평가 내용
제시문의 입장에 대한 비교	평가 기준 1	제시문을 [가], [라] / [나], [다]로 나누었는가 여부(기능론/갈등론)
	평가 기준 2	제시문 [가], [라] / [나], [다]의 차이를 핵심어를 사용하여 대조했는가 여부(단순한 설명인가, 대립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차이점을 대조했는가 여부)
기부행위의 한계 논술	평가 기준 3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기부의 한계를 지적했는가 여부(제도의 미비 혹은 결여 지적 여부)
	평가 기준 4	제시문 [가]와 [라]를 활용하여 기부의 한계를 지적했는가 여부(독립심, 자립심이란 핵심어를 활용했는지 여부)

- ① 제시문을 [가], [라] / [나], [다]로 나누었는가 여부(기능론/갈등론 ⇒ 평가기준 1)
- ② 제시문 [가], [라] / [나], [다]의 차이를 핵심어를 사용하여 대조했는가 여부(단순한 설명인가, 대립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차이점을 대조했는가 여부 ⇒ 평가기준 2)
- ③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기부의 한계를 지적했는가 여부(제도의 미비 혹은 결여 지적 여부 ⇒ 평가기준 3)
- ④ 제시문 [가]와 [라]를 활용하여 기부의 한계를 지적했는가 여부(독립심, 자립심이란 핵심어를 활용했는지 여부 ⇒ 평가기준 4)

등급	평가 내용
1	전체적으로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문장표현, 논리구조에 문제가 없는 경우(부분적으로 누락, 오류, 비문 등 미흡한 점이 있거나, 특히 ④가 미흡을 경우 2등급)
2	
3	대체적으로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부분적으로 누락, 오류, 비문 등 미흡한 정도에 따라 3, 4등급 분류)
4	
5	①, ③을 어느 정도 충족하지만 ②의 대조가 미흡하고 ④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6	①을 다소 충족하지만 ②의 대조와 ③의 서술이 미흡하고 ④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부분적으로 누락, 오류, 비문 등 부족한 정도에 따라 6, 7등급 분류)
7	
8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답안지 작성 규정 위반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9등급)
9	

[대학 예시답안] 852자

제시문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낸다. [가]와 [라]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하지만, [나]와 [다]는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가]는 불평등이 사회에 기능적이라고 본다. 경제적 부와 권력은 개인적 노력의 자연스런 결과물이고 보상 과정에서 생긴 불평등은 필연적 결과라 간주한다. [라] 또한 사회적 불평등이 정당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기여의 정도에 따른 분배는 정의의 개념에 부합하고 불평등의 해소는 개인에 의해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반면 [나]와 [다]는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제도가 의식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전제 하에 제도의 미흡이나 잘못된 운영이 불평등의 원인이라 설명한다. [다]는 일부의 선의로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약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 보고 제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품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나], [다]에 입각할 때 <보기>의 기부는 불평등의 제도적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 기부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제도의 미비나 부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개인의 선의에 해법은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기부는 분명 ‘품위 있는’ 행위이지만 ‘품위 사회’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가], [라]의 관점에서도 기부행위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가]에 기초할 때 기여도가 낮은 사람에게 가는 보상이 많아질 경우 유인책의 가치가 저하될 수 있다. [라]의 관점에서 볼 때 불평등의 해소를 기부에 의존할 경우 독립심과 자립심의 가치가 훼손되고 이것은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됨으로써 결국 불평등의 심화를 낳을 수 있다.

## 아주대 2020학년도 모의 1번

- ④ 1-1) 제시문 (가)와 (나)는 개인의 삶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가)와 (나)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제시문 (다)의 '사냥터지기'와 '정원사'의 태도를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 ④ 1-2) 제시문 (다)의 '사냥꾼'의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가)

현대인들은 자신의 사생활이 일련의 율가미에 걸려 있다는 느낌을 자주 갖는다. 율가미에 걸렸다는 이런 느낌의 근저에는 전체 사회구조 자체의 비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한 사회가 산업화되면 농부는 노동자가 되고 봉건 영주는 완전히 파산하든가 아니면 기업가로 변한다. 자본투자율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산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보험 회사 외무사원이 로켓 발사 대원이 되기도 하며 상점 점원이 레이더 대원이 되기도 한다, 또 아내는 독수공방하고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된다. 따라서 한 개인의 삶과 한 사회의 역사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역사적 변동과 제도적 모순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누리는 안락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큰 흥망성쇠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양식과 세계사 행로 간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별로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자신의 미래와 장차 자신이 주체적으로 참여할지도 모를 역사 형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다. 그들은 인간과 사회, 개인의 일생과 역사, 그리고 자아와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데 긴요한 정신적 자질이 부족하다. 그들은 개인적 문제를 그 이면에 항상 존재하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

- C. 라이트 밀즈, 『사회학적 상상력』 재구성 -

(나)

시(詩) 한 편에 삼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삼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험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덥혀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삼백 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뒷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 함민복, 「긍정적인 밥」 -

(다)

사냥터지기의 주요 임무는 관리하도록 맡겨진 땅에 인간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다. 이른바 땅의 '자연적 균형', 즉 신이나 자연의 무한한 지혜의 체현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의 임무는 자연의 균형이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밀렵꾼의 덫을 찾아내 제거하고 불법 사냥꾼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냥터지기의 일은, 만사는 어설피게 손을 댈 바에야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전근대 시대에 그들은, 비록 신의 설계에 담긴 지혜와 조화, 질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세계는 삼라만상이 적재적소에 놓여있는 신성한 존재의 사슬이므로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원사는 그렇지 않다. 그는 자기가 끊임없이 보살피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질서가 없을 거라고 가정한다. 정원사는 자기가 가꾸는 정원에 어떤 종류의 식물이 자라야 하고 어떤 식물이 자라면 안 되는지 더 잘 안다. 그는 우선 머리에 바람직한 배치도를 마련한 다음에 정원을 그 이미지에 맞춘다. 그는 적합한 종류의 식물들은 성장하도록 하고, 그 외의 식물들, 즉 '잡초'라고 개명된 것들은 뿌리를 뽑아버림으로써 대지를 자신이 생각해놓은 디자인으로 재구성한다. 정원은 언제나 정원사가 머릿속에서 그려낸 청사진 속의 이상적으로 조화로운 이미지에서 그 원형을 드러낸다.

사냥꾼은, 위의 두 유형과는 달리 전체적인 '균형'에는 신경을 덜 쓴다. 사냥꾼이 추진하는 유일한 일은 자루를 최대한 채워 줄 만큼 큰 사냥감을 포획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냥이 끝난 다음에도 숲에 사냥감이 어슬렁거리도록 그것을 다시 채워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분별없이 사냥감을 마구 잡은 탓에 숲에서 사냥감이 고갈되면, 사냥감이 남아있는 또 다른 숲으로 옮겨갈 수 있다. 막연한 먼 미래에 사냥감이 남아있는 숲이 완전히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그렇게 급한 문제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자기가 걱정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 지그문트 바우만, 『모두스 비벤디』 재구성 -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① 1-1) 제시문 (가)와 (나)는 개인의 삶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문 (다)의 '사냥터지기'와 '정원사'의 태도를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 ① 1-2) 제시문 (다)의 '사냥꾼'의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독해]

- (가) 사회의 역사(삶)과 개인의 일생(삶)은 유기적으로 엮여 있으며, 개인은 사회의 변화를 통제해야 한다.
- (나) 자기 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한다.
- (다) 사냥터지기: 세계의 질서를 존중·수용하고, 수호해야 한다.  
정원사: 자신의 생각으로 만든 질서를 구현해 나아가야 한다.  
사냥꾼: 세계의 균형에 무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신경 쓴다.

[1-1 논리평면]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공통점	자신과 세계는	유기적 연동된 관계
	(다) A (사냥터지기)	세계의 질서를	존중하고 수용하려 함
	(다) B (정원사)	자신의 질서를	세계에 관철시키려 함
대상	(가) a	자신의 삶과 역사는	엮여 있으며, 세계를 변화시켜야 함
	(나) b	자기 시에 대한 경제적 질서	를 이해하고 수용하려 함

[1-1 예시답안] 442자

제시문 (다)에 나타난 사냥터지기와 정원사는 모두 세계의 균형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세계에 대해 상반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사냥터지기는 세계의 질서를 온전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지키려고 한다. 반면 정원사는 자신이 고안한 나름의 질서를 세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제시문 (가)와 (나)에도 나타나 있다. 먼저 (가)와 (나) 모두 한 개인의 삶이 세계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가)은 자신의 삶을 통해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개인의 기획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려 했던 정원사의 태도에 해당한다. 반면 (나)는 자신이 지은 시에 대한 경제적 질서에 의문을 품다가, 결국 그 이치를 이해하고 수용한다. 이는 세계의 질서를 인정하고, 수호하려는 사냥터지기의 태도와 유사하다.

[1-2 논리평면] 문제해결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세계의 균형을 신경 쓰지 않음	세계의 균형이 무너져 공멸	B
대상	(다) 사냥꾼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함	모든 사냥터가 황폐화됨	b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나)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인식
대상	(다) 사냥꾼	전체 자연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	전체 사냥터의 공멸을 방지

[1-2 예시답안] 470자

제시문 (다)에 나타난 사냥꾼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지금의 사냥터에서 사냥감이 다 떨어지면, 다른 사냥터로 이동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전체 자연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움직인다. 세계의 균형을 무시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필연적으로 세계 전체를 병들게 하고, 결국 사냥꾼과 함께 모든 사냥터는 공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에 나타나는 시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 약하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곧이어 세계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성찰하면서 결국 건설적 인식을 얻게 된다. 이처럼 사냥꾼도 자신의 이득만을 위한 생각에서 벗어나 전체 자연 속에서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면 결국 사냥터들의 공멸을 막고, 다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조화로운 자연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채점기준]

1. 채점 시 유의 사항

- 채점 항목은 크게 글의 내용면(40점)과 표현면(10점)으로 나뉜.
- 감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감점함.

2. 세부 지침

① 내용면 ----- [문제 1-1, 1-2] 각 20점, 총40점

[문제 1-1]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의 ‘사냥터지기’와 ‘정원사’의 태도를 적용하여 설명한 경우 ----- 20점

① (가)와 (나)의 공통점 설명 (10점)

- (가)와 (나) 모두 개인의 삶을 사회와의 관련(전체와의 관계, 전체적인 균형 등) 속에서 파악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5점
- 그 공통점이 사냥터지기와 정원사의 공통점과 유사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5점

② (가)의 (나)의 차이점 설명 (10점)

- (가)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나)는 개인의 자기 성찰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차이점을 지적하면 5점
- 이런 면에서 (가)는 정원사의 태도와 유사하고 (나)는 사냥터지기의 태도와 유사함을 지적하면 5점

[문제 1-2] (다)의 ‘사냥꾼’의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 20점

① (다)의 ‘사냥꾼’의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10점

-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숲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을 지적하면 5점
- 미래의 결과를 신경 쓰지 않고 현재의 이익에만 몰두함을 지적하면 5점

② (나)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10점

- (나)에서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의 처지와 비교하여 성찰하는 것과 전체 사회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연결하여 지적하면 5점
- (나)에 나타난 이러한 태도가 그 사회의 지속과 미래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5점

② 표현면 ----- [문제 1-1, 1-2] 각 5점(상: 5, 중: 3, 하: 0) 총10점

- ① 어휘력: 적절한 어휘 사용
- ② 문장력: 문법적인 문장 구사

③ 단락구성력: 문장과 문장 간의 긴밀한 연관성

※ 감점 사항

① [문제 1-1, 1-2] 각각 분량 5점 감점

- 300자 미만인 경우
- 500자 초과인 경우

②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대학 예시답안(1-1)] 377자

(가)는 개인의 삶을 그가 속한 사회의 역사와 연결시켜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나)는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생각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가)와 (나)는 개인의 삶을 사회와의 관계에서 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사냥터지기와 정원사가 공통적으로 전체적인 ‘균형’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가)는 개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반면 (나)는 문제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자기 성찰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는 정원을 자신이 그린 이미지대로 재구성하는 정원사의 태도에 가깝고, (나)는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사냥터지기의 태도에 가깝다.

[대학 예시답안(1-2)] 453자

(다)의 사냥꾼은 자신의 자루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냥감이 없어지면 다른 숲으로 옮겨가며 사냥을 계속한다. 그는 먼 미래에 사냥감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것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파괴와 정복만을 일삼는 이기적인 태도로서, 미래의 삶을 신경 쓰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에는 그 사회의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을 전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박하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와 비교하며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을 반성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조화와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태도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아주대 2020학년도 모의 2번

- ④ 2-1) (가)에서 제시된 정치와 경제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에서 정치와 경제의 본질적인 차이가 정치거래와 시장거래에서의 ① 규범적 원리와 ② 행위자들의 행태에 어떤 차이를 유발하는가를 요약하여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 ④ 2-2) (가)에서 제시된 정치와 경제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논의를 근거로 (나)의 다운스의 결론을 비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가)

정치와 경제는 상당한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다. 정치와 경제는 모두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거래활동이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듯이, 유권자들은 표를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를 구분 짓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경제는 개별적 의사결정인 반면, 정치는 집합적 의사결정이다. 시장거래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의 구매행위는 개별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 정치거래에서 소비자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의 구매행위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얻기 위해 표를 공동으로 지불해야 하며, 가장 많은 표를 제시할 수 있는 다수집단이 원하는 정책을 얻게 된다. 집합적 의사결정은 원치 않는 의사결정 결과를 준수해야 하는 소수집단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정치에서는 원하는 정책을 얻는데 실패한 유권자들이 원치 않는 정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순응비용”이 초래된다.

시장거래에서는 효율성의 원리가 규범적인 정당성을 확보한다. 반면 정치거래에서는 소수의 경제적 유력집단이 과도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여 다수의 일반 유권자에게 순응비용을 부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한다.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지불할 수 있지만, 정치에서는 경제적 유력집단이 많은 표를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살 수 없다. 정치에서는 소수의 고소득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구입할 경우,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다수의 일반 유권자들이 순응비용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정치에서는 효율성의 원리보다 평등의 원리가 규범적인 정당성을 확보한다.

시민들은 또한 자신에게 부과될 순응비용 때문에 투표와 같은 단순한 소비활동만 하기보다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하려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정책이 초래하는 순응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급진적인 유권자들은 온건한 유권자들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인적, 재정적 정치자원을 제공하고, 후보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후보들은 자신의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 급진적인 유권자들이 제공하는 정치자원을 사용한다. 정치자원은 후보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후보들은 급진적인 유권자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나)

경제학자 호텔링(Hotelling)은 가능한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두 판매상이 도로의 어떤 곳에 가게를 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호텔링은 두 가게의 상품의 질은 동일하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집과 더 가까운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는 가정을 하였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할 경우, 호텔링은 두 판매상은 소비자들의 중간에 위치한 곳에 가게를 열어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정치학자 다운스(Downs)는 경쟁하는 두 정당이 일차원적 정책공간에서 경쟁할 경우, 어떤 정책입장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호텔링과 마찬가지로, 다운스 역시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입장과 더 가까운 입장을 제시하는 후보에 투표한다는 가정을 하였다. 다운스는 유권자들이 이처럼 투표할 경우, 두 후보는 가능한 많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정책공간에서 중앙에 위치한 투표자 입장을 채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 2-1) (가)에서 제시된 정치와 경제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에서 정치와 경제의 본질적인 차이가 정치거래와 시장거래에서의 ① 규범적 원리와 ② 행위자들의 행태에 어떤 차이를 유발하는가를 요약하여 설명하십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 ☞ 2-2) (가)에서 제시된 정치와 경제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논의를 근거로 (나)의 다운스의 결론을 비판하십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독해]

- (가) 1) 정치와 경제의 본질적 차이: 의사결정의 단위가 다름 - 경제) 개인적, 정치) 집합적  
 2) 규범적 원리의 차이: 경제) 효율성, 정치) 평등  
 3) 행위자들 행태의 차이: 경제) 소극적(개인적) 대응, 정치) 적극적(집단적) 대응  
 (나) 경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유권자는 소비자처럼 자신의 선호에 가장 가까운 후보(상품)을 선택한다. 그래서 후보들은 중도적인 의견을 택해 가장 많은 유권자를 모으려고 한다.

[2-1 논리평면] 조건부 요약 - 논리평면 생략

[2-1 예시답안] 조건부 요약 - 대학 예시답안 참조

[2-2 논리평면]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가)	정치에는 순응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자한다	따라서 후보들은 극단적 유권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다	G(현실)
대상	(나)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호에 가장 가까운 유권자를 선택	이에 맞춰 후보자는 중도적인 입장을 택해 유권자를 모은다	b(착각)

[2-2 예시답안] 425자

제시문 (나)의 다운스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소비자들처럼 자신의 선호와 가장 가까운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을 모으기 위해 중도적인 견해를 자신의 입장으로 채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경제와 정치를 동일시한 착각에 불과하다. (나)에 따르면 정치적 선택에는 경제적 선택과 달리 집단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이에 따라 다수의 견해에 소수집단들이 따라야만 하므로 ‘순응비용’을 치르게 된다. 이에 유권자들은 경제적 소비자들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선호를 후보자에게 설득하게 된다. 이에 후보자

는 중도적 견해를 택하기보다는 열성 높은 당원들의 견해를 더 반영하여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운스의 견해에는 이러한 정치 세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적 상황과 동일하게 가정한 오류가 있다.

[대학 채점기준]

1. 채점 시 유의 사항

- 채점 항목은 크게 글의 내용면(40점)과 표현면(10점)으로 나뉜.
- 감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감점함.

2. 세부지침

① 내용면 ----- [문제 2-1, 2-2] 각 20점, 총40점

[문제 2-1] 경제와는 달리 정치가 집합적 의사결정이고 집합적 의사결정은 순응비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순응비용이 정치와 경제에서 서로 다른 행위자의 행태와 규범적 원리를 초래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 -----20점

- ① 정치와 경제에서 규범적 원리가 다른 이유를 순응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 경제에서는 효율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반면, 정치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적 평등에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소수의 경제적 유력집단이 부과하는 순응비용 회피) 설명 (10점)
- ② 정치와 경제에서 행위자 행태가 다른 이유를 순응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 시장거래에서의 소비자과 달리 정치거래에서 유권자는 순응비용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자의 역할을 담당 (10점)

[문제 2-2] 다운스는 유권자를 소비자로 본 반면 (가)에서는 유권자들을 적극적인 투자자로 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념적으로 급진적인 유권자들이 더 많은 정치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후보들은 이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고 따라서 중도적인 입장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 -----20점

- ① 호텔링 모형에서와 같이 다운스는 유권자를 소비자로 가정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유권자들은 적극적인 투자자 역할을 한다는 (가)의 주장을 통해 다운스의 가정을 비판 (10점)
- ② 급진적인 유권자들이 온건한 유권자들보다 정치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후보들은 이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 (10점)

② 표현면 ----- [문제 2-1, 2-2] 각 5점(상: 5, 중: 3, 하: 0)

- 어휘력: 적절한 어휘 사용
- 문장력: 문법적인 문장 구사

- 단락구성력: 문장과 문장 간의 긴밀한 연관성

※ 감점 사항

① [문제 2-1, 2-2] 각각 분량 5점 감점

- 300자 미만인 경우
- 700자 초과인 경우

②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대학 예시답안(2-1)] 418자

경제는 개별적 의사결정인 반면, 정치의 집합적 의사결정이다. 집합적 의사결정은 원하는 의사결정 결과를 얻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순응비용을 초래한다. 순응비용은 정치거래와 시장거래에서의 규범적 원리에 차이를 유발한다. 시장거래에서는 효율성의 원리가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반면 정치거래에서는 소수의 경제적 유력집단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구입해서 다수의 일반 유권자에게 순응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평등의 원리가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뿐만 아니라, 시장거래에서의 소비자들과 달리 정치거래에서 유권자들은 순응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소비자 역할을 뛰어넘어 적극적인 투자자의 역할을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인적, 재정적 정치자원을 제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얻으려고 한다.

[대학 예시답안(2-2)] 412자

다운스의 모형에서 유권자들은 소극적인 소비자의 역할만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입장과 가까운 입장을 제시하는 후보에 투표할 뿐, 후보들의 입장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에 의하면 정치의 집합적 의사결정이므로 순응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소극적인 소비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자의 역할을 하려 한다. 특히 이념적으로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온건한 유권자들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정치자원을 제공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정치자원은 후보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후보들은 급진적인 유권자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따라서 후보들은 다운스가 예측한 바와 같이 중도적인 유권자의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

## 이화여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1 1번

- ☞ 1-1) 제시문 [가]의 '나[吾]'와 제시문 [나]의 '아(我)'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 1-2) 제시문 [가]와 [나]의 저자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윤 직원 영감'을 각각 평가하시오. [20점]

### [가]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吾]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의 꽃나무·과실나무 등 여러 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 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聖賢)의 경전(經典)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를 굶주리게 하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모두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런즉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바 나[吾]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들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를 지닌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吾] 같은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吾]를 잃은 자이다. 어렸을 때,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들어 간 것이 10년이였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서 나아가 검은 사모(烏帽)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12년을 하였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墳墓)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吾]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인류 사회의 아(我, 나)와 비아(非我, 나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투쟁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확대 발전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다. 세계사와 조선사는 각각 세계 인류와 조선 민족이 그렇게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아’라고 하고 무엇을 ‘비아’라고 하는가? 깊이 파고 들어갈 것 없이 얇게 말하자면,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위치에 선 자를 ‘아’라고 하고, 그 외에는 ‘비아’라고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고 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를 ‘비아’라고 한다. 반대로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는 자기 나라를 ‘아’라고 하고, 조선을 ‘비아’라고 한다. 무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고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고 하며, 지주나 자본가는 무산 계급을 ‘비아’라고 한다. ‘아’와 ‘비아’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들을 가리켜 ‘아’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비아’라고 한다.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몹시 번거롭고 바쁠수록 ‘비아’에 대하여 ‘아’도 더욱 맹렬하게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운다. 그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은 그치는 때가 없고 역사의 미래도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중략)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두루 살펴보면 바뀌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다. ‘비아’를 정복하여 ‘아’를 세상에 드러내어 밝히면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 미래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고, 반대의 경우에는 패망자가 되어 과거 역사의 묵은 발자취만 남기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공통된 본성이다. 그러나 앞으로 닥쳐올 일을 미리 생각하고 기다리는 데도 항상 기대와 달리 패배자가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선천적 실질부터 말하면 ‘아’가 생기지 않고서야 어찌 조선 민족과 맞서는 묘족, 한족 같은 ‘비아’가 있겠는가? 이는 선천적인 것에 속한다. 그러나 후천적 형식으로 살펴보면 ‘비아’가 있고 나서야 ‘아’가 있게 된다. 묘족이나 한족 같은 ‘비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세우고 삼경(三京)을 만들거나 오군(五軍)을 두었겠는가? ‘비아’가 없었다면 조선, 즉 ‘아’의 작용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후천적인 것에 속한다. 우리는 정신의 확립으로 선천적인 것을 지켜야 하며, 환경에 순응함으로써 후천적인 것을 유지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면 패망을 면하기 어렵다. 이제 조선 민족을 ‘아’의 단위로 잡고 조선사를 서술하려고 한다.

[다]

“.....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오죽이나 .....”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末世)년 다 지내가고오..... 자 -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으응? .....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하는 것이여, 태평천하! .....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평평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 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여, 으응? ”

땅 - 방바닥을 치면서 별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팔팔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 선 가권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거나 앓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 찹찹 깎아 죽일 놈! ..... 그놈을 내가 핀지히여서, 백 년 지녔을 살리라구 헐 걸! 백 년 지녔 살리라구 헐 테여..... 오냐, 그 놈을 삼천 석 거리는 직분[分財]히여 줄라구 히였더니, 오 - 냐, 그놈 삼천 석 거리를 툭툭 팔아서 경찰서오다가, 사회주의 허는 놈 잡아 가두는 경찰서오다가 주어 버릴 걸! 으응, 죽일 놈! ”

마지막의 으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 이 태평천하에! 이 태평천하에.....”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 1-1) 제시문 [가]의 '나[吾]'와 제시문 [나]의 '아(我)'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 1-2) 제시문 [가]와 [나]의 저자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윤 직원 영감'을 각각 평가하시오. [20점]

[독해]

- (가) 다른 무엇과도 다른 존재인 '나' 를 스스로의 취약성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 (나) 상대와 투쟁하고 승리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근본 원리이다.
- (다) 윤직원 영감: 일제 강점기 속에서 큰 재산을 이뤄 풍족하게 살면서 독립 세력에 반감을 품고 있다.

[1-1 논리평면] 비교

공통점	자기자신에 대한 논의	자신을 지켜야 한다
차이점	자신의 속성	자신의 발전 방식
(가)	절대적 차원 (다른 무엇과도 구분되는 '나')	유혹에 취약한 자아를 수호해야 발전
(나)	상대적 차원 (나의 내집단, 상대의 외집단)	비아와의 투쟁에서 승리해야 발전

[1-1 예시답안] 634자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나',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은 지켜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개념은 제시문마다 다르며, 이러한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자신의 개념에 대하여 (가)는 절대적 차원의 자기 개념을 제시한다. '나'는 나 이외의 세상 만물과 구분되는 것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일정한 '나'가 평생 지속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의 '아'는 '비아'와의 대비성 속에 존재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아'란, 자신의 입장에서는 내집단이자, 상대 입장에서는 외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에 해당하는 '자기'는 모두 수호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의 발전 방식에 대하여 (가)는 자기 수호를 제시한다. '나'는 본래 유혹에 취약하며 변덕이 있는 존재로서 잘 지켜내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굳게 지켜 평생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곧 좋은 삶을 유지하는 것과 다름없다. 반면, (나)의 '아'는 '비아'와 투쟁하여 승리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본다. 우리 역사 전체가 자신과 상대 간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 속에서 승리한 '아'들이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1-2 논리평면]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환란을 면할 수 없다	G
대상	(다)	일제 강점기를 찬양함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 살 수 없음	b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나)	상대방의 외집단인 ‘아’를 지켜야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	G
대상	(다)	조선인이 일제 치하를 찬양함	투쟁의 역사에서 패배자가 될 것	b

[1-2 예시답안] 563자

제시문 (다)에 나타난 윤직원 영감은 일제 강점기에 살면서 일본의 편에 선 인물이다. 일제 치하에서 일군 재산으로 풍요를 누리며, 반일 운동을 하는 가족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윤직원 영감에 대하여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먼저 (가)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 때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유혹에 취약한 자기 마음을 지켜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직원 영감은 물질적 풍요에 취해 자기 민족을 탄압하는 적군의 편에 서게 됐다. 이로써 가족과도 사상적으로 등지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그가 이야기하는 ‘태평천하’에서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나)는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비아’로 인식되는 ‘아’를 구분하여 비아에 맞서 아를 지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직원 영감은 일제 입장에서 ‘비아’로 분류되는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적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이로써 윤직원 영감은 투쟁의 역사에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이 문항은 역사 속 우리 선조들의 글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을 읽어내고, 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나’와 ‘세계’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에 따라 개인이 대면한 갈등을 해결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읽어낼 수 있는지 평가한다. 아울러 문항 1에서 도출된 각 저자의 관점을 적용하여 한국 현대 소설 속의 한 인물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각 저자의 관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또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

[대학 예시답안(1-1)] 600자

제시문 [가]와 [나]의 ‘나[吾]’와 ‘아(我)’는 모두 ‘세계 만물과 나[吾]’ 또는 ‘비아와 아(我)’ 등 양자 구도 속에서 인식되었다. 또한 두 글의 저자 모두 나[吾]와 아(我)를 지켜야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시문 [가]의

저자는 나[吾]를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로 이해하고 굳게 지켜야 할 대상으로 파악한다. 제시문 [나]의 저자는 선천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아(我)는 모두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지 않으면 패망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제시문 [가]의 나[吾]는 천하의 만물과 대비되는 고정적인 나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또 천하의 만물은 달아나지 않아 지킬 것이 없으나 나[吾]는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이므로 굳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갈등의 해결을 나[吾]에게서 찾아 나[吾]를 지키는 스스로의 깨달음과 성찰을 드러내었다. 반면, 제시문 [나]의 아(我)는 비아와 대비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또 미래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我)가 비아를 정복하여 아(我)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我)의 비아에 대한 투쟁의 자세를 촉구하여 인류 역사의 전개 원리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아(我)를 제시하였다.

### [대학 예시답안(1-1) 분석]

제시문 [가]의 '나[吾]'와 제시문 [나]의 '아(我)'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공통점으로, 각 저자는 양자 구도 속에서 나[吾]와 아(我)를 인식하였고, 또 이를 지켜야 할 대상으로 파악한 것을 서술하였다. 차이점으로, 전자는 고정적인 개념이고 후자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전자는 갈등의 해결을 나[吾]에게서 찾아 나[吾]를 지키는 스스로의 깨달음과 성찰을 드러내었고, 후자는 아(我)의 비아에 대한 투쟁의 자세를 촉구하여 인류 역사의 전개 원리를 설명하는 측면에서 아(我)를 인식한 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 [대학 예시답안(1-2)] 435자

[가]의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윤 직원 영감의 말과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윤 직원 영감이 자기 집안을 지키는 행위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재산과 집안의 안위를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에 따른 행위로서, 결국 자기를 지키지 못한 행위이다. 즉, 개인의 깨달음과 성찰의 측면에서 윤 직원 영감을 자기를 잃은 자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나]의 저자의 관점으로 보면, 윤 직원 영감이 당시 현실을 '좋은 세상' 또는 '태평천하'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와 '비아'에 대해 잘못 인식한 결과이다. 그리하여 윤 직원 영감이 재산을 지키고 집안의 안위를 지키는 '아'를 드러내는 행위는 '비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래 역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즉,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고려하여 윤 직원 영감은 승리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대학 예시답안(1-2) 분석]

제시문 [다]의 윤 직원 영감에 대해, [가]의 저자의 관점에서 욕망을 쫓아 스스로를 잃어버린 윤 직원 영감의 행동을 평가하였다. 또, [나]의 저자의 관점에서 아와 비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결과 윤 직원 영감의 아를 드러내는 행위는 미래 역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전자는 개인의 깨달음과 성찰의 측면에서, 후자는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고려해서 윤 직원 영감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였다.

## 이화여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1 2번

- ☞ 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제시문 [마]의 '퓨전'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분석하고,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마]의 '퓨전'에 대해 평가하십시오. [30점]

[라]

열림과 닫힘의 문제는 '나'라는 개체들이 '우리'를 이루어가는 방식의 문제이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개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또한 '만남'의 문제이다. '우리'의 문제는 개체들 간의 만남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그러한 개체는 개인일 수도 있고, 일정한 사회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을 포함하여 - 데모크리토스는 "인간은 소유주다."라고 했다. - 소유주들 사이의 만남은 '열림'과 '닫힘'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문제이자, 동시에 타자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문제이다. 각각의 소유주들의 '열림'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좀 더 큰 '열린' 소유주이며, 이는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상은 이러한 만남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은 열림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략)

열린사회와 닫힌사회는 각 개인의 '여는 행위'와 '닫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어쩌면 열린사회란 너무 추상적인 표현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타자를 향해 개방성을 지닌 개체들이 '우리'를 이루었을 때에 열린사회는 그 결과로 온다. 바꾸어 말하면, '나'가 '너'를 거쳐서 '우리'를 인식하고자 할 때에 '나-우리'의 이항 대립 구조는 극복될 수 있다. 즉 나와 우리의 연결 고리는 '너'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너'에 대한 의식이 없이 '나'에서 '우리'로 즉각적 인식의 전이가 이루어졌을 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본다. 또한 '우리' 속에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는 것도 나와 우리를 동일화함과 동시에 '너'에 대한 의식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추상적이지만, '너'는 실체적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추상적 열린사회가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을 지닌, 그러나 열 줄 아는 개체들로 구성된 다원화 사회이다.

[마]

퓨전(fusion)은 이미 우리에게 낯선 말이 아니다. ‘융해, 융합, 합병’을 뜻하는 이 단어의 ‘원조’는 록과 재즈를 결합한 1960년대의 퓨전 재즈다. 그러나 퓨전의 적용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된장 소스를 바른 프랑스식 닭구이’ 같은 국적 불명의 요리가 퓨전이라는 간판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 지금은 드라마, 영화, 건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퓨전이 ‘서로 다른 것을 섞어 새로운 문화 코드를 만들어 냈’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중략)

지금 퓨전 바람은 역사 속의 문화 융합과는 사뭇 다르다. 과거에는 ‘굴화위지(橘化爲枳)’, 즉 남쪽의 귤을 북쪽에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식의 변화와 통합이 주를 이루었다. 북도 중심의 서양식 아파트가 한국에서 거실 중심의 구조로 바뀐 것은 마당을 중심으로 방이 빙 둘러서는 한옥 형태에 적응한 결과다. 한국의 갈비가 바비큐 문화에 적응하여 엘에이 갈비로 거듭나고, 서양의 약기가 일본에 들어가 ‘트로트’라는 독특한 장르가 만들어진 것도 ‘굴이 탕자가 되는 식’의 융합 사례들이다. 생활의 필요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합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의 퓨전은 의도적인 융합 과정이다. 된장 소스는 부대찌개처럼 어쩔 수 없는 적응 과정에서 튀어나온 산물이 아니다. 현대 퓨전 문화의 특징은 ‘재미’를 추구하는 데 있다. 블록 장난감을 조립하는 아이처럼 서양과 동양, 전통과 과거, 장르와 장르를 섞어 색다르고 묘한 그 무엇을 만들어 내려 한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제시문 [마]의 '퓨전'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분석하고,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마]의 '퓨전'에 대해 평가하십시오. [30점]

[독해]

(라)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정체성도 개방적으로 수용하면 열린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마) 퓨전은 새로운 조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색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인위적 융합 과정이다.

[논리평면] 가치추론(종합)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라)	자기 정체성 유지 + 상대 정체성 수용	열린 사회	G
대상	(마)	부자연스런 인위적 혼합	색다른 재미만 있음	b

[예시답안] 398자

열린 사회를 위한 조건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의 정체성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이다. 제시문 (라)에 나타나듯 개방성을 지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폐쇄적인 집단만 형성될 뿐, 진정한 열린 사회로 나아갈 순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지나간 '퓨전'은 올바른 융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제시문 (마)에 따르면 퓨전은 자연적 수요에 따른 대응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인위적 조합으로 생성된 어설픈 결과물이다. 단지 색다른 묘미를 위해 의도적으로 섞었으니 그 어떤 구성물의 정체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의 정체성은 물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조차 지키지 못한 만남이고, 이 만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물 또한 우리 역사의 발전적 흐름에 발맞추지 못했다.

## [대학 출제의도]

이 문항은 한 편의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과, 특정한 관점으로 다른 현상이나 사유를 평가하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제하였다. 제시문 [라]는 인간 사회가 점차 ‘단원사회’에서 ‘열린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열린사회’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살핀 글이다. 특히 이질적인 타자를 바로 ‘우리’로 동일화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너’라는 대상을 ‘나’와 동등한 소우주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너’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다양성과 개방성이 바람직한 ‘우리’에 꼭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우리’의 이분법적 인식 대신 ‘나-너-우리’로 이루어지는 삼원적 인식이 수반될 때 바람직한 ‘열린사회’ 또는 ‘우리’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여, 타자와의 만남이나 다른 문화를 대할 때 필요한 우리의 자세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제시문 [마]는 ‘퓨전’이 가지는 긍정적 기능과 창조성에 주목하여 의도적인 문화 간 융합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여러 예를 통해 ‘퓨전’의 특성, 유사한 흐름들, 그리고 퓨전의 효과에 대해 다양하게 살피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시문 [마]의 내용은 두 문화가 섞여서 탄생하는 ‘우리’에만 주목할 뿐, 원래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새로운 탄생 가운데 원 문화들이 위축되거나 소멸되는 않는지, 그리고 둘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

이 문항의 출제 의도와 같이, 한 편의 글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인식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하나의 관점으로 다른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경험을 축적해 간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대학 예시답안] 1,074자

제시문 [마]의 ‘퓨전’ 현상은 한 문화에 다른 문화를 의도적으로 융합하는 현상이다. 역사 속의 문화 융합은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나 자연스럽게 적응을 한 결과 나타나는 변화인 데 반해,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퓨전 현상은 ‘재미’와 ‘색다름’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의도적으로 상이한 문화들을 섞는 것이다.

제시문 [라]에서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만나는 경우 상대 문화의 고유함과 가치를 실제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열림’의 태도를 취해야 바람직한 ‘우리’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너’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로 곧바로 ‘너’와 함께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즉 타자에 대해 ‘나-우리’의 이항 대립 구조의 인식에 그쳐서는 타자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열린사회’에 이르기 어렵다. 큰 흐름에서 볼 때 역사는 열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그 열림은 추상적 열린사회가 아니라 개별 문화의 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른 문화에 개방적 자세를 취하는 문화들로 이루어진 다원화 사회의 열림이어야 한다.

제시문 [마]는 각 문화의 고유성과 가치보다는 여러 문화가 섞여서 나타나는 ‘재미’나 ‘새로움’을 중시하는 태도이다.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시문 [마]는 ‘나-너-우리’로 이어지는 삼원적 인식보다는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연계 되는 새 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옛 것(섞임 이전)-새 것(섞임 이후)’의 이항 대립적 구조에 바탕을 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퓨전’은 분명히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각 문화의 개별성을 존중하면 서로 조화로운 새로움을 피하는 ‘나-너-우리’의 삼원적 인식에 이

르지 못하고 섞임 이후의 새로움에만 치중하는 ‘우리’ 중심의 시각에 치중하다 보면 ‘너’의 고유성과 가치를 가볍게 여기게 될 수 있다. 나아가 퓨전이 지나치게 횡행하면, 개별 문화들이 위축되거나 소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별 문화의 특성을 존중하고 살리는 가운데 연계 되는 새로움이야말로 열린 만남으로 연계 되는 다양성의 새로움의 요체가 될 것이다.

### [대학 예시답안 분석]

이 답안은 문항에서 요구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적절한 답을 제시하였다. 우선 이 답안은 제시문 [라]와 [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각 글의 요지를 파악하여 제시한다. 이어 문항에서 요구한 대로 제시문 [라]에서 보인 ‘너’에 대한 ‘인식’이나 ‘이항 대립 구조’라는 말에 착안하여 [마]의 ‘퓨전’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있다.

이어 제시문 [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 즉 자신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타자를 향해 개방성을 지닌 개체들이 ‘우리’를 이루었을 때에 열린사회는 그 결과로 온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문 [마]의 ‘퓨전’은 개별 문화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는 개방성이 부족하고, ‘나’에서 바로 ‘우리’ 즉 새로운 퓨전으로 이행하는 이항 대립 구조의 인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평가하고 있다.

## 이화여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1 3번

☞ 제시문 [바]의 'reader'와 제시문 [사]의 B국 사람들이 타 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십시오. [30점]

[바]

Have you heard about a living library? Actually, a living library is not a building, but any space where people can meet. The books you borrow in a living library are not made of paper and ink, but flesh and blood: yes, they are real human beings. The concept of a living library was created in Europe, where people of many different races and nations live together in communities. This often causes strong feelings of prejudice against immigrants or racial minority groups. A youth NGO, called Stop the Violence, thought that getting to know people face-to-face would help to break down stereotypes and encourage understanding. In 2000, they began a living library in Denmark. People became books and were "lent out" to readers for 30 minutes.

The books of a living library come from all backgrounds and walks of life, but they all have one thing in common: for different reasons, they are often subjected to stereotyping or prejudice. Sometimes they are politicians, homeless people, feminists, or unknown entertainers. All the books are volunteers who wish to speak openly about their own life experiences. They usually wear T-shirts printed with messages such as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Readers are anyone with curiosity, questions, and a real interest in learning about other people's lives. Through conversations with the "books," readers came to realize their own prejudices and misunderstandings. In fact, none of us are completely free from prejudice: we all have preconceived ideas about others. By attending a living library, readers can learn who those unfamiliar people really are.

[사]

B국의 국수들은 C국의 국수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을 뿐만 아니라 국수들의 오목하게 파인 구멍에 메밀 반죽을 넣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압력을 가해 면을 뽑는 방식도 똑같았다. 차이점이 있다면 C국의 국수들은 끓는 솥 위에 올려놓고 면을 뽑는 데 반해 B국의 국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B국의 메밀국수는 C국의 메밀국수처럼 즉시 열에 응고되지 않아서 줄줄 나오지 않고 딱딱 잘렸다. 나는 C국의 메밀국수와 모양과 맛은 다르지만 면을 가공하는 방법이 똑같은 B국의 메밀국수를 한 그릇 비우고 국수를 대접해 준 여인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그녀들에게 보여 줄 물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물건은 바로 C국의 할아버지가 만든 국수들이었다. 나는 C국의 국수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 것 같으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인들은 단박에 국수들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이 국수들을 이용해 국수를 만들어 보라고 권하자 그들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면발을 뽑아냈다.

그녀들에게 이 국수들이 어디에서 온 것 같으냐고 묻자 옆 마을의 국수들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다 내가 C국의 것이라고 말하자 매우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국수가 잘 뽑힌다며 국수들에 대해 칭찬 일색이던 여인들이 국수들에 대해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국수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기 전에는 국수들에 대해 아무 불평도 없던 사람들이 C국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자 혀를 잡기 시작했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바]의 'reader'와 제시문 [사]의 B국 사람들이 타 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시오. [30점]

[독해]

(바) 살아있는 도서관의 독자들은 타 문화 사람들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 그들과 직접 만나 대화한다.

(사) 타 국가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억지로 흠을 잡기 시작하는 B국 사람들

[논리평면] 비교

공통점	타 문화를 대하는 태도	-
차이점	선입견 조절 노력	타문화 이해 방식
(바)	높음 - 선입견 탈피 노력	능동적 - 대화를 통한 주체적 이해
(사)	낮음 - 폐쇄적	수동적 - 외부 정보로 단정

[예시답안] 667자

제시문 (바)와 (사)에 나타난 '독자'와 'B국 사람들'은 모두 타 문화에 대한 나름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타 문화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선입견에 대한 대응 방식과 이에 따라 귀결되는 타문화 이해 방식 도은 대비되고 있다.

먼저 제시문 (바)에 나타난 '독자'들은 타 문화를 접하면서 생기는 선입견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책을 겉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겉모습만으로 단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자들은 타문화에 대한 능동적인 이해 방식을 보여준다.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주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 제시문 (사)에 나타난 B국 사람들은 선입견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국에서 사용하는 국수틀과 거의 동일한 국수틀을 사용해 보고 좋은 도구라며 칭찬을 했지만, 타국의 제품이라는 것을 듣자마자 흠을 잡기 시작했다. 자국의 물건만 좋다는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폐쇄적 태도로 인해 이들이 타 문화를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사용해 본 경험으로 판단된 좋은 점들은 거두고, 타국의 제품이라는 정보에만 의존해 단편적인 단정만 내리고 있는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이 문항은 타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라는 유사한 주제 하에, 서로 대조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두 글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어 지문에서 드러나는 비유적 화법을 파악하여, 이를 전혀 다른 상황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한글 지문에도 적절히 적용하며 두 글을 수평적으로 대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두 글에 사용된 서로 다른 화법의 구조를 파악하는 논리적 사고와 그 안에서 하나의 주제가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읽어낼 수 있는 이해력이 요구되는 문항이다.

### [제시문 (바) 해석]

살아있는 도서관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도서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종이와 잉크가 아니라 살과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제 인간입니다. 살아있는 도서관의 개념은 여러 인종과 국가의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종종 이민자 또는 소수 민족에 대한 강한 편견을 유발합니다. Stop the Violence라는 청소년 NGO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이해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에 그들은 덴마크에서 살아있는 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책이 되어서 30분 동안 독자들에게 빌려졌습니다.

살아있는 도서관의 책은 모든 배경과 삶의 산물에서 나왔지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 종종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정치인, 노숙자, 페미니스트 또는 알려지지 않은 연예인입니다. 모든 책은 자신의 인생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자하는 자원 봉사자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와 같은 메시지가 인쇄된 티셔츠를 착용합니다. 독자들은 호기심, 질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학습에 진정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책"과의 대화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편견과 오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도서관에 참석함으로써 독자들은 실제로 낯선 사람들이 누구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 [대학 예시답안] 1,020자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는 모두 공통적으로 타 문화 또는 타자를 대하는 태도를 그리고 있으며, 특히 타 문화를 직접 접촉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두 글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직접 접촉에 의한 문화 이해의 양상은 상이하다.

먼저 제시문 [바]는 타 문화의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 소통함으로써 편견을 극복하는 유럽의 'living library'라는 기관을 소개한다. 이곳에서 '책(book)'은 타 문화 출신의 실제 사람들이며 '독자'(reader)는 이 책을 만나고 함께 소통함으로써 자신들이 갖고 있던 오해나 편견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들은 이 책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겉모습 너머의 인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등장하는 책 읽기는 전통적인 책을 통한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닌 알고자 하는 대상 자체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쌍방향적 소통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독자들은 타자를 이해하는데 있어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그들을 직접

경험하며 주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반면, 제시문 [사]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외부 정보에 의해 얼마나 쉽게 좌우되는지를 보여준다. B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화자가 제시한 국수들을 사용해 보며 자신들의 것과 모습과 성능이 비슷하기에 이웃 마을의 국수들이라 생각하고 호감을 보인다. 하지만 국수들이 타국, 즉 C국에서 왔다고 하자 금방 부정적인 태도로 바뀐다. 이 글에서 B국 사람들은 제시문 [바]의 독자, 그리고 국수들은 책에 비견될 수 있다. 그러나 앞글의 예와는 달리, B국 사람들은 이 국수들을 판단하는데 자신들의 사용 경험뿐만 아니라 그 겉모습 또한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 판단조차도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를 듣고 쉽게 바꾸어 버린다. 그들이 이 국수들을 이해하는 방식은 마치 전통적인 책읽기에서 단편적이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책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과 비슷하다. 즉 그들이 타 문화를 대하는 태도는 제시문 [바]의 독자보다 수동적이고 폐쇄적이라 할 수 있다.

### [대학 예시답안 분석]

본 문항에서는 제시문 [바]의 ‘살아있는 도서관’에 나타나는 책읽기라는 비유법을 적절히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 [사]의 국수들에 대한 이야기에 응용할 수 있어야 완성도 높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예시 답안에서는 우선 두 글이 모두 타 문화 또는 타자를 대하는 태도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지만, 두 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태도가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 제시문 [바]의 내용에서 ‘책’이 이해되어야 하는 대상, 즉 타 문화 사람이며, 서로 다른 문화 간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것, 즉 이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해석하고 있다. 두 글의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 여기에서 등장하는 책읽기의 비유를 제시문 [사]의 상황에 적용하여, 이번에는 또 다른 책이라 할 수 있는 국수들을 대하는 B국 사람들의 태도가 앞글에서의 독자들의 태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명료하게 대조한다. 특히 ‘살아있는 도서관’에서의 독서방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독서의 일방향적인 지식전달과 달리 쌍방향적이라는 점, 반면에 국수들에 대한 이해의 방법은 오히려 직접 경험보다는 온전히 외부의 정보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보다 일방향적이라는 점까지도 통찰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 민하대 2020학년도 모의 1번, 2번

✎ [A~D와 유사한 규모의] 어떤 기업이 (마)에 언급된 것과 같은 경제위기에 대비하면서 수출상품과 수출국 선정에 대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려고 한다. 이 기업이 A~D 중 어느 기업을 모델로 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술하시오.

✎ [문항 1] A~D 중 전략 수립의 모델로 가장 적절한 기업을 선택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1,000±100자, 60점)

### 〈조건〉

1. 선택한 모델의 특징과 선택의 이유를 제시문 (마)를 활용하여 제시할 것.
2. 제시문 (가)~(라) 가운데 두 개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선택의 합리성을 정당화할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문항 2]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재반박하시오. (500±50자, 40점)

### 〈조건〉

1. 반론의 논거는 제시문 (가)~(라)를 활용하여 제시할 것.
2. 재반박에서는 제시문 이외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옹호할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언어나 문화를 인정하고 적극 수용하려는 이론이나 정책을 말한다. 여기서 문화의 단위는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생활양식, 정체성 등으로 다양하다. 캐나다나 미국처럼 주로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함으로써 문화 간의 갈등이나 충돌을 완화하고자 채택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세계화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이민자들이 증가하게 되자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문화 포용정책이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다.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존중이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낸 곳은 실리콘 벨리(Silicon Valley)다. 실리콘 벨리의 고급 인력들 상당수는 이민자들이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시리아에서 온 이민자의 아들이고,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은 구소련에서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온 이민자이다. 또한 야후의 공동 설립자 제리 양(Jerry Yang)은 대만 출신의 이민자이며, 오라클(Oracle)의 공동 설립자 밥 마이너(Bob Miner)도 이란 출신의 이민자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공존하는 환경은 개인의 인지적 유연성을 기르고, 이질적인 것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운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이질적인 경험과 다양한 생각이 뒤섞인 환경에서 나오기 쉽다.

(나)

생물종은 각각 자연의 특정한 영역에 깃들여 산다. 수생생물 중에도 짙물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민물에서 사는 것들이 있고,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심해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도 있다. 생명체의 신체 구조와 기능은 그것의 환경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환경과 생명체는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각 종의 생명체가 지닌 본성은 이처럼 그것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그것의 본성과 동떨어진 조건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번성하기 어렵고 생존마저 위협받는다. 환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개별 생명체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체들로 구성된 다양한 규모의 집단에도 똑같이 성립한다.

인간이라는 특별한 존재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일이든 공동체를 경영하는 일이든 주어진 환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성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반면, 환경의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낭비를 초래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것의 번영을 결정하는 관건은 그것이 처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스스로의 행동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공간적, 시간적, 물질적 조건, 나아가 문화적 조건을 포함하는 환경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런 노력 없이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의 행동을 시도하다가 앞서 언급한 낭비 끝에 도태의 길을 걷게 된다. 스스로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잘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것에 충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는 그 집단이 혈연집단이든, 이익집단이든, 혹은 국가 같은 대규모의 공동체든 똑같이 성립하는 불변의 진리다.

(다)

‘챔피언(champion)’은 운동 종목에서 선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술면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단체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단어에 붙는 수식어에 따라 그 느낌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데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 그 예이다. 우리말로 하면 ‘감춰진 챔피언’ 또는 ‘숨은 챔피언’ 정도의 뜻이 된다.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이 자신의 저서 <히든 챔피언>(1996)에서 소개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점유율이나 매출액 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은 비록 규모는 작아도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세계 최강자 자리에 오른 회사들이다.

식기세척기를 생산하는 빈터할트 가스트로놈(Winterhalter Gastronom)은 병원, 학교, 일반 기업 같은 대규모 시장에서 과감히 철수하고 오직 호텔과 레스토랑에만 집중하여 해당 시장에서 세계1위의 기업이 되었다. 플렉시(Flexi)는 반려동물용 가죽 목줄 한 가지 품목만을 생산하여 이 부문에서 세계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250년 넘게 연필을 생산해온 파버 카스텔(Faber Castell)은 한눈을 팔지 않는 ‘한 우물 경영’으로 두 세기 반 동안 본사를 이전하지 않았고 금융위기에 도 숙련공들을 잃지 않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히든 챔피언은 세계시장에서 자신들만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세분화된 영역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을 취한다. 내부적으로 연구개발(R&D)과 같이 자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일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경쟁력 확보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업무는 과감히 아웃소싱한다. 고객관리에서도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VIP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밀접한 관계를 구축한다.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만, 이 한 가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가 히든 챔피언의 모토다.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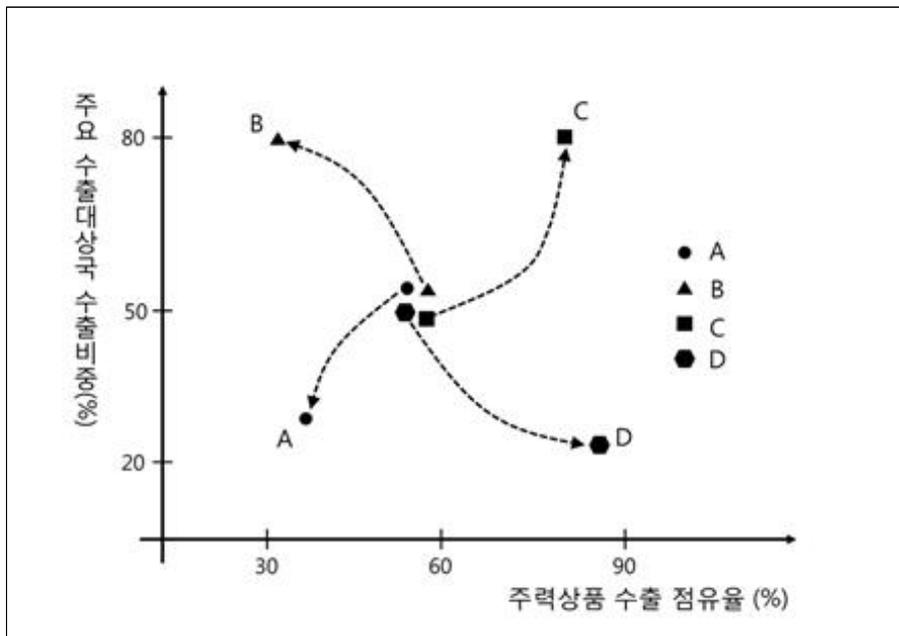
기존의 과학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변칙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변칙현상이 누적되면 기존의 이론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변칙현상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쉽지만, 사실 변칙현상은 과학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현 상황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변칙현상 없이는 혁신도 일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과학의 역사는 이런 변칙현상을 기존 이론의 관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술한 예를 보여준다. 원소들의 분광 스펙트럼에는 원소마다 고유한 규칙성을 지닌 색 띠들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면 20세기에 들어서야 확립된 양자역학이 필요하고, 이 현상이 알려진 1880년대의 고전물리학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고전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칙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분광 스펙트럼의 이러한 특성은 1910년대를 거치며 등장한 양자역학으로 설명되었고, 그 때에서야 사람들은 그것이 고전물리학에 혁신을 요구하는 변칙현상이었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런 사례는 기존 이론의 관점에서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달리 말하자면, 기존의 관점과 다른 이질적인 관점에 설 때 비로소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선의 이론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의 이론에 모든 역량을 쏟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오히려, 아직 미성숙한 이론들일지라도 서로를 자극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할 여러 이론들이 공존하면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그것이 전체의 진보를 촉진하는 길이다. 이것은 비단 과학자들에게만 유효한 결론이 아니다. 어떤 공동체든 그 안에 다양한 견해와 방법론, 다양한 방향의 활동성을 적극적으로 용인할수록 전진의 동력이 왕성해지는 반면, 획일성은 상호 자극을 통한 전진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면서 전체의 빈곤을 초래하기 쉽다.

(마)

다음의 자료는 수출에 주력하는 A, B, C, D 네 기업에 대한 정보이다. <자료 1>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3년간 각 기업이 추구한 제품 및 수출국 다양화 전략을 나타낸다. 이 자료에서 수출대상국이란 각 국가의 수출대상국 중 수출액 상위 5개 국가를 의미하며, 주력상품이란 수출상품 중 수출액 기준 상위 5개 제품을 의미한다. <자료 2>는 세계경제위기 전후 각 3년간 A, B, C, D 네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다. 이 두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른 모든 사항은 네 기업이 모두 동일하다. 또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이하 수치는 무시한다.

<자료 1> 세계경제위기 직전 3년 간 제품 및 수출국 다양화 지표



<자료 2> A, B, C, D 네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단위: %)

기업명	세계경제위기 직전 3년	세계경제위기 직후 3년
A	2.9	2.3
B	3.4	-0.8
C	2.8	2.4
D	1.2	-0.9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A~D 중 전략 수립의 모델로 가장 적절한 기업을 선택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1,000±100자, 60점)

✎ [문항 1] A~D 중 전략 수립의 모델로 가장 적절한 기업을 선택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1,000±100자, 60점)

〈조건〉

1. 선택한 모델의 특징과 선택의 이유를 제시문 (마)를 활용하여 제시할 것.
2. 제시문 (가)~(라) 가운데 두 개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선택의 합리성을 정당화할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독해]

(가) 다양성 존중 ⇒ [지적 능력 상승 ⇒ 혁신(발전)]

(라) 다양한 관점 공존 ⇒ 현 체제의 문제점(변치현상) 발견 ⇒ 혁신

(나)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응 ⇒ 성공과 안전

(다) 가장 잘 하는 일에 집중 ⇒ 최강자(히든 챔피언)

(마) 제시문 (마)의 <자료 1>을 보면 A, B, C, D 기업은 세계경제위기 발생 3년 전에 수출대상국 수출비중이 약 50%, 주력상품 수출 점유율이 60% 정도로 비슷한 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기 3년 전, 이들 기업의 주요 수출국 선정과 주력상품의 전략은 달라졌다. 이들 기업의 수출국 선정과 주력상품의 전략 변화 양상을 다각화와 집중화 기준으로 보면, A기업은 다각화-다각화, B기업은 집중-다각화, C기업은 집중-집중, D기업은 다각화-집중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학 예시답안 中)

[논리평면] 견해 & 예시답안 1088자

문단	기능	제시문	내용
1	화제	(마)	<p>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 &lt;자료1&gt;의 각 기업들은 모두 주요수출대상국 수출비중과 주력 상품 수출 점유율이 대략 50% 정도인 선에서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 위기 3년 전부터 각 기업들은 다각화 전략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A는 모든 부분에서 다양화 전략을 취했고, C는 이와 반대로 모든 부분에서 집중화 전략을 택했다. B와 C는 각각 다각화와 집중화 전략을 한 분야씩 적용했다.</p> <p>그리고 세계경제위기 3년 후, A와 C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B와 D는 매출액 증가율이 감소세로 꺾인 것에 반해, A와 C는 여전히 매출액 증가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A는 경제위기 직전에 C보다 매출액 증가율이 0.1%p 높았고, 반대로 C는 경제위기 직후에 A보다 매출액이 0.1%p 높았다.</p>
2	주장	(마)	이러한 기업들 중 전략 수립 모델로서 가장 적절한 기업은 C라고 할 수 있다.
	논거		왜냐하면 자신이 처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적응해야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	(나)	제시문 (나)에 나타나듯 자연 속에 안착한 생물종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알맞은 본성을 갖고 있다. 본성과 환경이 조화롭게 맞았기 때문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적용		이처럼 기업이 경제 생태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특성을 잘 맞는 환경에서 발휘해야 한다. 잘 맞는 자리를 찾아 집중하지 못하면 성공은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논거		집중화 전략을 택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잘 하는 일에 집중할 때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	(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용어가 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애플,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기업들이다. 이들은 모든 면들에서 우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일에만 집중하여 세계적인 강자가 될 수 있었다.
	적용		이와 같이 기업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하고, 자기 특기와 조화로운 환경에서 머물 때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집중화가 기업의 안정적인 존속 또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이 문항은 제시된 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여 논제를 파악하고, 제시된 글 자료의 요지를 파악한 후 특정 기준을 고려하여 분류·비교하며,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을 구성할 시 데이터의 분석과 글 자료의 해석뿐만 아니라 관련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의 응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논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활동이다. 따라서 이 문항은 데이터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시된 글의 핵심을 파악하여 특정 기준을 가지고 분류·비교하는 능력,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여 현실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논제는 세계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합리적 경영전략 선택에 관한 것이었다. 데이터 자료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몇 가지 조건이 달라질 경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제시되었다. 글 자료는 선택의 합리성을 정당화하거나 반박하도록 다문화주의, 창의성과 혁신, 선택과 집중,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과 관련된 지문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이 글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 합리성을 정당화하거나 반론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등 수험생에게 익숙한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 [대학 문항해설]

이 문항은 데이터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시된 글의 핵심을 파악하여 특정 기준을 가지고 분류·비교한 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논제는 세계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합리적 경영전략 선택에 관한 것이었다. 데이터 자료는 몇 가지 조건이 달라질 경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조직되었고, 글 자료는 선택의 합리성을 정당화하거나 반박하도록 구성되었다. 제시문에 활용된 주요 관련 개념과 지식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을 취하였으며, 제시된 글 자료와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가)는 세계화 이후 확대되고 있는 다문화주의가 여러 문화 간의 우열이나 지배를 지양하고 서로간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수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논술한다. 나아가 다문화주의는 갈등이나 충돌을 완화하는데 이바지할 뿐 아니라 관용과 존중에 기반을 둔 포용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의 발달과 혁신에도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을 미국의 실리콘 밸리의 사례를 들어 논술한다. 실리콘 밸리에 대한 설명은 기업의 경영전략을 묻는 본 논제에서 다양화를 지지하는 입장의 사례로 쓰일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민자들이라는 인적 구성 환경이 개인의 인지적 유연성을 키우고,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고력을 증진시킨다는 점이 본 논제에서 다양화, 혹은 다각화를 지지해줄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일이든 공동체를 경영하는 일이든 주어진 환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성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논술한다. 반면, 환경의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속가능하게 번영하기 위해서는 처한 환경을 파악한 후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잘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행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기 싶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제시문은 집중화를 지지해줄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에 대한 글이다. 빈터할터 가스트로놈(Winterhalter Gastronom)과 파버 카스텔(Faber Castell)을 히든챔피언 기업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들 기업이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세계 최강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들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자신들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세분화된 영역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 연구개발(R&D)과 같이 자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일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경쟁력 확보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전략, 고객관리에서도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VIP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전략 등 집중화 전략을 통해 성공했다고 제시한다. 그래서 본 제시문은 집중화를 지지해줄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기존의 과학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칙현상’이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혁신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며 과학 진보의 원천이 된다는 글이다. 관련된 사례로 1880년대의 고전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변칙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20세기의 양자역학이 확립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최선의 이론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의 이론에 모든 역량을 쏟는 것, 즉 획일적 집중화는 상호 자극을 통한 전진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미성숙한 이론들일지라도 여러 이론들이 공존하면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혁신을 촉진하고 진보를 추동한다고 서술하기 때문에 본 제시문은 다양화, 혹은 다각화를 지지해줄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주어진 자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몇 가지 조건이 달라질 경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집중과 분산이라는 개념을 주어진 자료에 대입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료 1>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2>에서 제시된 증가율의 개념을 <자료 1>과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대학 채점기준] 1번

평가항목	내용(안)	배점
제시문 (마)의 <자료 1>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자료 1&gt; 해석(5점)</li> <li>▷ 수평축의 값이 증가할수록 주력상품 수출 점유율이 커지기 때문에 특정 상품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함.</li> <li>▷ 수직축의 값이 증가할수록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출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을 특정 국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함.</li> <li>● A, B, C, D 기업 전략 해석(10점)</li> <li>▷ 경제위기 발생 전 A기업은 주력상품과 수출대상국을 다각화하는 전략 선택함.(5점)</li> <li>▷ 경제위기 발생 전 C기업은 주력상품과 수출대상국을 집중하는 전략 선택함.(5점)</li> <li>※ B와 D기업 선택전략에 대한 설명 여부 추가 점수 없음.</li> </ul>	15점

<p>전략 선택과 제시문 (마)의 &lt;자료 2&gt;를 활용한 논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혹은 C선택 공통 근거(5점)</li> <li>▷ &lt;자료 2&gt;를 보면 세계경제위기 발생 이후 B와 D는 매출액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A와 C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됨.</li> <li>• &lt;자료 2&gt; 해석을 기반한 A 혹은 C선택의 논리성(10점)</li> </ul> <table border="1" data-bbox="359 459 1252 873"> <thead> <tr> <th>A(다각화 전략) 선택의 논리성</th> <th>C(집중 전략) 선택의 논리성</th> </tr> </thead> <tbody> <tr> <td>답안 예시: C에 비하여 A는 세계경제위기 발생 이후에 매출액 증가율이 0.1% 낮지만, 그 전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0.1% 높았다. 만약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세계경제위기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세계경제위기 상황이 아닌 시기의 매출액 증가율이 C에 비하여 높으므로 A전략이 더 바람직하다.</td> <td>답안 예시: C기업의 경우 A기업에 비해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매출액 증가율이 0.1%p 낮았지만, 경제위기 전후의 종합적인 성과와 경제위기 전후의 성장률 변화는 높았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C기업은 A기업보다 연평균 매출액이 오히려 0.1%p 높았다.</td> </tr> </tbody> </table>	A(다각화 전략) 선택의 논리성	C(집중 전략) 선택의 논리성	답안 예시: C에 비하여 A는 세계경제위기 발생 이후에 매출액 증가율이 0.1% 낮지만, 그 전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0.1% 높았다. 만약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세계경제위기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세계경제위기 상황이 아닌 시기의 매출액 증가율이 C에 비하여 높으므로 A전략이 더 바람직하다.	답안 예시: C기업의 경우 A기업에 비해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매출액 증가율이 0.1%p 낮았지만, 경제위기 전후의 종합적인 성과와 경제위기 전후의 성장률 변화는 높았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C기업은 A기업보다 연평균 매출액이 오히려 0.1%p 높았다.	<p>15점</p>		
A(다각화 전략) 선택의 논리성	C(집중 전략) 선택의 논리성							
답안 예시: C에 비하여 A는 세계경제위기 발생 이후에 매출액 증가율이 0.1% 낮지만, 그 전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0.1% 높았다. 만약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세계경제위기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세계경제위기 상황이 아닌 시기의 매출액 증가율이 C에 비하여 높으므로 A전략이 더 바람직하다.	답안 예시: C기업의 경우 A기업에 비해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매출액 증가율이 0.1%p 낮았지만, 경제위기 전후의 종합적인 성과와 경제위기 전후의 성장률 변화는 높았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C기업은 A기업보다 연평균 매출액이 오히려 0.1%p 높았다.							
<p>제시문 (가)~(라)를 활용한 선택의 정당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 (가)~(라) 해석을 기반한 A 혹은 C선택의 논리성(20점)</li> </ul> <table border="1" data-bbox="359 985 1252 1243"> <thead> <tr> <th>A(다각화 전략) 선택 정당화</th> <th>C(집중 전략) 선택 정당화</th> </tr> </thead> <tbody> <tr> <td>(가)의 논거: 다양성-창의성-혁신에 유리</td> <td>(나)의 논거: 환경에 가장 부합한 곳에 총력 기울여야 번영</td> </tr> <tr> <td>(라)의 논거: 변칙현상-다양한 관점-과학 진보</td> <td>(다)의 논거: 특정 부문 집중 전략과 VIP 고객 특별 관리 통한 세계 최강 기업으로 성장</td> </tr> </tbody> </table>	A(다각화 전략) 선택 정당화	C(집중 전략) 선택 정당화	(가)의 논거: 다양성-창의성-혁신에 유리	(나)의 논거: 환경에 가장 부합한 곳에 총력 기울여야 번영	(라)의 논거: 변칙현상-다양한 관점-과학 진보	(다)의 논거: 특정 부문 집중 전략과 VIP 고객 특별 관리 통한 세계 최강 기업으로 성장	<p>20점 (논거 1개 당 10점)</p>
A(다각화 전략) 선택 정당화	C(집중 전략) 선택 정당화							
(가)의 논거: 다양성-창의성-혁신에 유리	(나)의 논거: 환경에 가장 부합한 곳에 총력 기울여야 번영							
(라)의 논거: 변칙현상-다양한 관점-과학 진보	(다)의 논거: 특정 부문 집중 전략과 VIP 고객 특별 관리 통한 세계 최강 기업으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의 논리성(10점)</li> <li>▷ &lt;제시문&gt;에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거를 심도 있게 서술함.</li> <li>▷ 글 전체가 선택한 입장을 중심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 있음.</li> </ul>	<p>10점 (각 항목 당 5점)</p>						
<p>점수</p>			<p>60점</p>					

[대학 감점요소]

<p>[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li> <li>•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li> <li>•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li> </ul>	<p>※ 문항 1번과 문항 2번 각각 (-)15점 이상 감점할 수 없음.</p>
---	--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조정			
문항 1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 10점
	500자 - 699자	10점 감점(-)	
	700 - 899자	5점 감점(-)	
	900자 - 1,100자	감점 없음	
	1,100자 초과	5점 감점(-)	

[대학 예시답안(1)] 1,000자 (A를 최적 대안으로 선택했을 경우)

A기업은 수출대상국과 주력상품 측면에서 나머지 세 기업에 비해 다각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제시문 (마)의 <자료 1>을 보면 A, B, C, D 기업은 세계경제위기 발생 3년 전에 수출대상국 수출비중이 약 50%, 주력상품 수출 점유율이 60% 정도로 비슷한 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기 3년 전, 이들 기업의 주요 수출국 선정과 주력상품의 전략은 달라졌다. 이들 기업의 수출국 선정과 주력상품의 전략 변화 양상을 다각화와 집중화 기준으로 보면, A기업은 다각화-다각화, B기업은 집중-다각화, C기업은 집중-집중, D기업은 다각화-집중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시문 (마)의 <자료 2>에 따르면, 세계경제위기 발생 이후 B기업이나 D기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A기업이나 C기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A기업은 C기업에 비하여 경제위기 발생 이후에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0.1% 낮지만, 경제위기 전까지 추구해온 전략의 성과가 연평균 0.1%씩 높았다. 만약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세계경제위기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위기상황이 아닌 시기의 매출액 증가율이 C에 비하여 높음으로 A전략이 더 바람직하다.

다문화주의와 혁신 간 관계나 변칙현상과 과학 발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기업의 다각화 전략은 매우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제시문 (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실리콘 벨리는 이민자의 다양성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첨단 기술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만약 특정 인종과 민족을 배제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제시문 (라)에서 볼 수 있듯이 변칙현상은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알려줌으로써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기존 이론만 고수하며 변화를 꾀하지 않았다면 양자역학은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서로 다른 관점의 이론이 공존함으로써 과학이 진보하고, 다양한 문화를 융합함으로써 혁신이 이루어졌듯이 기업도 다각화 전략을 통하여 기술을 혁신하여 세계경제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학 예시답안(2)] 1,000자 (C를 최적 대안으로 선택했을 경우)

C기업은 수출대상국과 주력상품 측면에서 나머지 세 기업에 비해 집중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제시문 (마)의 <자료 1>을 보면 A, B, C, D 기업은 세계경제위기 발생 3년 전에 수출대상국 수출비중이 약 50%, 주력상품 수출 점유율이 60% 정도로 비슷한 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기 3년 전, 이들 기업의 주요 수출국 선정과 주력상품의 전략은 달라졌다. 이들 기업의 수출국 선정과 주력상품의 전략 변화 양상을 다각화와 집

중화 기준으로 보면, A기업은 다각화-다각화, B기업은 집중-다각화, C기업은 집중-집중, D기업은 다각화-집중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시문 (마)의 <자료 2>에 따르면, 세계경제위기 발생 이후 B기업이나 D기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A기업이나 C기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C기업의 경우 A기업에 비하여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매출액 증가율이 0.1%p 낮았지만, 경제위기 전후의 종합적 성과와 경제위기 전후의 성장률 변화는 높았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C기업은 A기업보다 연평균 매출액이 오히려 0.1%p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A보다는 C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집중 전략은 생물종의 진화나 히든 챔피언 기업 전략을 살펴보았을 때도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 볼 수 있듯이 생물종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불필요한 신체 구조와 활동 양상을 버리고 집중 전략을 취하면서 번영하였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환경을 파악하고 핵심이 되는 곳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 볼 수 있듯이 히든 챔피언 기업은 집중 전략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VIP 고객들을 특별히 관리함으로써 규모는 작아도 세계 최강자에 오를 수 있었다. 따라서 세계경제위기 등과 같은 외부의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특정 분야를 선택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문항 2]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재반박하시오. (500±50자, 40점)

〈조건〉	
1. 반론의 논거는 제시문 (가)~(라)를 활용하여 제시할 것.	
2. 재반박에서는 제시문 이외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옹호할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논리평면] 논쟁 & [예시답안] 522자

문단	기능	제시문	내용
1	반론		다양화 입장에서 기업 전략을 주장할 수도 있다.
	논거		다양성이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	(가)	(가)에 나타난 실리콘 벨리의 성공한 기업들은 모두 다양성이 수용되는 사회 속에서 혁신을 일군 기업들이다.
	재반론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각화 전략은 지양되어야 한다.
	논거		다양성을 허용하면 조직적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적용		기업이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아 적합한 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2	반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화 전략에서는
	논거		다양한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봐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증거	(라)	(라)에 나타난 것처럼 한 가지 이론으로는 혁신의 뿌리가 되는 변칙현상을 제대로 감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반론		하지만 그렇게 다방면에 자원을 분배해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
	논거		자원이 집중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최고의 실력을 갖추지는 못하는 것이다.
	적용		다양한 국가에 대하여 다양한 상품을 모두 취급한다면, 어떤 국가에서도, 어떤 상품에서도 세계적인 위치를 만들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 채점기준] 2번

평가항목	내용(안)	배점
(가)~(라)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한 반론	자신의 선택에 대한 반론(20점)	
	A(다각화 전략) 선택에 대한 반론	C(집중 전략) 선택에 대한 반론
	(나) 활용: 선택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 번영할 수 있음.	(가) 활용: 다양성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첨단 기술 산업을 주도함.
	(라) 활용: 틈새시장을 집중공략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음.	(라) 활용: 다양한 관점으로 현상을 볼 때 진보가 이루어짐.
재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박의 포인트 고려하면서도 제시문 이외의 논거를 토대로 한 재반박(10점)</li> </ul>	
	A(다각화 전략) 선택 재반박의 합리성	C(집중 전략) 선택 재반박의 합리성
	답안 예시: 집중 전략은 세계경제위기 시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이외에도 집중 전략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작성한 경우.	답안 예시: 다각화 전략은 구성원 간 의견 합치가 어렵다거나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이외에도 다각화 전략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작성한 경우.
글의 논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에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거를 심도 있게 서술함.</li> <li>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 있음.</li> </ul>	10점 (각 항목 당 5점)
점수		40점

[대학 감점요소]

<p>[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li> <li>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li> <li>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li> </ul>	<p>※ 문항 1번과 문항 2번 각각 (-)15점 이상 감점할 수 없음.</p>
---	--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조정			(-) 10점
문항 2	25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250자 - 349자	10점 감점(-)	
	350 - 449자	5점 감점(-)	
	450자 - 550자	감점 없음	
	550자 초과	5점 감점(-)	

[대학 예시답안(1)] 500자 (A를 최적 대안으로 선택했을 경우)

기업전략 설정에서 히든 챔피언 기업이나 생물종의 진화 결과를 사례로 들어 다각화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불필요한 신체 구조와 활동 양상을 버리고 집중 전략을 취한 생물 종처럼 기업이 처한 환경을 파악하고 핵심 부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시문 (다)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분야의 제품 생산에 주력하여 VIP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성공한 작지만 강한 기업의 성공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화 전략은 다각화 전략에 비하여 세계경제위기 시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정 제품의 생산에만 집중하다 보면 경제위기 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몇몇 나라에 수출을 집중하다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출이 막히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생산품을 다양화하고 수출대상국을 다변화하는 다각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학 예시답안(2)] 500자 (C를 최적 대안으로 선택했을 경우)

기업전략 설정에서 다문화주의나 과학 발전의 사례를 들어 집중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시문 (가)에서 볼 수 있듯이 실리콘 벨리는 이민자의 다양성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첨단 기술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만약 특정 인종과 민족을 배제하였다면 이와 같은 발전은 어려웠을 것이다. 제시문 (라)에서 볼 수 있듯이 변칙현상은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알려줌으로써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다른 관점의 이론이 공존함으로써 과학이 진보하고, 다양한 문화가 융합됨으로써 혁신이 이루어졌듯이 기업도 다각화 전략을 통하여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각화 전략은 집중 전략에 비하여 구성원 간 의견 합치가 어렵다거나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수출 주력 기업의 경우, 세계경제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 대상국과 주력상품 측면에서 집중 전략을 택하는 것이 매우 타당할 것이다.

## 중앙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사회, 경영경제 1번

☞ 기술 사용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결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

자아 정체성이란 '나 자신에 대한 통합된 관념'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나'의 성격, 취향, 관심, 능력, 가치관 등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이 지속적이고 통합적일 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는 이미지나 메시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며 다중적이다. 여러 개의 아이디나 대화명, 아바타 등을 사용하면서 나이, 성별, 인종 등 신분이나 성격 등을 상황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대로 자아를 구성하고, 없애고, 재구성하다 보면 지속적이고 통일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현실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속성의 사이버 자아들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사이버 자아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한 폭력적인 행동을 실제 현실에서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자아로 인해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은 가치관에도 혼란이 올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행위자가 구속감을 훨씬 적게 느끼고 긴장감이 없어,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탈억제 심리가 잘못 작용할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즉 사이버 자아를 통해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거친 말을 사용하여 분노, 증오 등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주 하다 보면 가치관의 혼란이 나타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

(나)

기차가 등장하자 사정은 달라졌다. 철도가 나타날 무렵, 서양에서는 우편 마차가 가장 빠른 교통편이었다. 그 래 봤자 마차의 속도는 시속 17킬로미터 정도였다. 기차는 시간당 60킬로미터를 넘게 달린다. 그만큼 철도가 놓인 도시들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이제 시간은 제각각이어서는 안 되었다. 마차나 배는 마주치면 서로 비켜 가면 된다. 그러나 기차는 다르다. 철로 위에서 기차끼리 마주치면 대형 사고가 된다. 그렇다고 철로를 한정 없이 새로 깔 수도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기차끼리 마주치지 않으려면 여러 곳의 시간이 같아야 한다.

게다가 산업이 발전할수록 여러 도시는 같이 움직여야 한다. 예전에는 농사짓고 물건을 만드는 일이 대부분 한동네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철도가 놓인 다음에는 달랐다. 예컨대 아침에 다른 도시에서 부품이 들어오면,

날짜에 맞추어 조립하여 또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 ‘우리 마을 식으로’ 여유 있게 시간을 썼다간 열차를 놓치기 일쑤다. 그러면 다른 곳까지 피해가 돌아간다.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여 시간을 단속해야 했다.

기차가 더 많이 놓이고 세상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모든 것을 꿰뚫는 규칙처럼 되어 갔다. ‘철도 시간’은 무지막이었다. 마차는 말이 지치는 만큼만 달린다. 말의 숨소리가 거칠면 말에게 휴식을 주어야 했다. 그러나 기차는 말과 다르다. 기차는 절대 지치는 법이 없다. 출발과 도착 시간에는 멈춤도 예외가 없어야 했다. 철도가 지나가는 길이 숲이건, 사막이건, 습지가건 상관없이 없었다. 출발과 도착 시간만 중요할 뿐이다. 중간의 과정이 어찌 되었건 시간은 칼같이 맞추어야 했다.

시간은 세상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닦달하기 시작했다. 지쳤건, 힘든 일이 있었건, 모든 일은 ‘끝내기’로 한 날짜’에 맞추어야 한다. 안 그러면 그때에 맞춰 일을 시작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이제 ‘시간 엄수’는 아주 중요한 도덕이 되었다.

시간이 하나가 되자 기계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보다 식사 시간이기 에 밥을 먹는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수업 시간이 되었기에 공부한다. 쉬고 싶어서 쉬기보다 는 휴식 시간이기 에 책상에서 일어선다.

(다)

이제 어디를 가나 아리바바의 참깨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선가 전자 감응 장치의 음흉한 허끝이  
날름날름 우리의 몸을 훑는다 순간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하여 간다.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날개 없는 키위새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정작,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 하는  
그,  
어떤,  
문 앞에서는,  
키위키위 울고만 있을 것이다.

(라)

인터넷은 1960년대 미국에서 군사 및 학술적 목적의 정보교환을 위해 몇몇 컴퓨터들의 통신 네트워크를 만든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 칭하는 것은 World Wide Web(WWW)이라는 정보망이다. 웹(Web)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보망에 컴퓨터를 연결하면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거기에 올라있는 웹페이지, 문서, 사진 등 여러 형태를 가진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도 웹에 원하는 자료를 올릴 수 있다.

인터넷의 세계는 컴퓨터, 모뎀, 통신케이블, 여러 소프트웨어의 복합체 이상의 그 무엇이다.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자료를 교환하면서 만들어지는 가능성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 미국 철학자 허버트 드레퓌스의 말처럼, 인터넷은 처음의 개발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진화하는 새로운 종류의 기술 혁신이다. 그래서 그 완성된 모습에 대한 상도 없고 그 발전의 방향도 알 수 없다. 학술 및 군사용 정보 교환이라는 최초의 목적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행위들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중략]

인터넷을 ‘정보 고속도로(Information Highway)’라 부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정보의 장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는 세상을 더욱 투명한 곳으로 만들어 불합리한 억압을 없애기도 한다. 저소득층이나 저개발국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독재국가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방의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런 견해에서 비롯된다.

풍부한 정보의 보고라는 점과 더불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터넷의 특징으로 자주 거론된다. 이전의 미디어들은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일방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정보의 공급자가 될 수 있다. 개인 홈페이지는 물론, 댓글 달기나 토론게시판 등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존의 모든 미디어가 인터넷에서 통합되면서 쌍방향 의사소통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기술 사용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결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독해]

(가) 사이버 공간 ⇒ 가변적 자아 - 자아 통합 어려움 ⇒ 가치관 혼란 - 부도덕함 증가

(나) 기차 등장 ⇒ 광범위하게 통일된 시간관 ⇒ 시간의 지배 - 독축 문화

(다) 자동문 ⇒ 편안한 생활 ⇒ 기능 퇴화와 이로 인한 난관

(라) 인터넷 ⇒ 서로 연결되어 정보 교류 ⇒ 다양한 활동 + 불평등 감소 + 소통 심화·확산

[논리평면] 조건부 요약(내용상 비교)

구성	제시문	내용	
서론		기술 사용으로 인한 변화	그로 인한 의도치 않은 결과
본론	(가)	사이버 공간 ⇒ 가변적 자아	가치관 혼란 - 부도덕성 증가
	(나)	기차 등장 ⇒ 통일된 시간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억압적 문화
	(다)	자동문 ⇒ 편안한 생활	기능 퇴화와 이로 인한 난관
	(라)	인터넷 ⇒ 서로 연결되어 정보 교류	다양한 활동, 불평등 감소, 소통 확산
결론		자아 위기, 통일된 시간관, 생활 편리, 정보 교류	가치관 혼란, 억압적 문화, 기능 퇴화, 사회 혁신

[예시답안] 552자

기술은 다양한 변화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어냈다. (가)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자아를 쉽게 바꿀 수 있게 되어 통일된 자아 정체성 형성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 비윤리적 행동이 늘어나게 되었다. (나)에서는 기차의 등장으로 인해 통일된 시간관념이 나온다. 사고를 막기 위해 단일한 시간에 맞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통일된 시간은 결국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다)에서는 자동문 덕분에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 묘사된다. 자동화된 기계로 인해 수고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람은 서서히 기능 퇴화를 겪게 되고, 결국 위기에 처하게 된다. (라)에 나타난 인터넷은 무한한 정보 교류를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초기 의도를 넘어선 사회적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사람들은 기술로 인해 자아 위기, 시간관 변화, 생활 편리, 정보 교류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가치관 혼란, 억압적 문화, 기능 퇴화, 사회 혁신을 겪게 되었다.

## [대학 제시문 해설]

### 1. KEYPOINT

- 문제에서 주어진 핵심어를 통해 제시문 읽기.
- 각 제시문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논지가 직간접적으로 표현된 핵심어구 파악하기.
- 파악한 핵심어구들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요약하기.
- 각 제시문의 차이점을 종합하여 창의적인 결론 도출하기.

### 2. 해설

- 수험생들은 제시문을 독해하기 전에 먼저 주어진 문제를 두 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수험생들은 우선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공통적으로 ‘기술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즉 기술 사용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한 근본 ‘원인’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네 제시문의 논지가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출제 의도를 이해한 후, 각각의 제시문 속에서 ‘결과’와 ‘원인’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핵심 어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고 압축해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글쓰기가 필요하다. 제시문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해당 주제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선행 지식이나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출제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를 꼼꼼히 분석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제시문 (가)의 두 문장, 즉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대로 자아를 구성하고, 없애고, 재구성하다 보면 지속적이고 통일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에서 기술 사용의 ‘결과’, 즉 사이버 공간의 이용이 안정적인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를 어렵게 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제시문 (가)의 다른 두 문장, 즉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는 이미지나 메시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며 다중적이다.”와 “사이버 공간에서는 행위자가 구속감을 훨씬 적게 느끼고 긴장감이 없어,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를 통해 다중적 자아 형성이 가능하고 구속감이 적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앞서 언급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문 (나)를 읽어보면, 철도를 무한정 건설할 수 없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다른 지역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개인의 일상이 시간에 지배되는 예기치 못한 결과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시문 (다)는 문학 지문이기 때문에 결과와 원인이 직접 기술되어 있기보다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 암시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결과와 원인을 찾기가 다른 제시문에 비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지문을 잘 분석해 보면 핵심 어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하여 간다.” 혹은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와 같은 시구에서 기술의 반복적 사용으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차츰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와 같은 시구가 암시하듯이, 부지불식간 자동문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현대인의 모습에서 무기력한 수동성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시문 (라)에서는 컴퓨터 간의 연결이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애초의 발명자의 의도를 뛰어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터넷은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각 제시문에서 찾은 ‘결과와 원인’을 서론, 본론, 결론 형식에 맞춰 논리적으로 기술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주제에 대한 긴 배경 설명이나,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된 도입 부보다는 간단하고 짧게 서론을 기술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서론을 길게 쓰면 본론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글을 마무리 짓는 결론을 쓸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간명한 서론이면 충분하다. “(가)~(라)는 기술 사용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보여준다.” 본론을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안배 기술’이 필요하다. 제시문 별로 결과와 원인을 각각 다른 문장으로 나눠 기술하거나, 제시문 별로 결과와 원인을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하여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특정한 제시문에 대한 답안을 다른 제시문에 비해 너무 길게 쓰거나 짧게 쓰는 것은 피해야 한다. 네 제시문에 대한 답안의 분량이 균형 있게 배치되면 본론의 짜임새와 가독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결론의 분량은 짧지만 논술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본론에서 ‘결과와 원인’을 잘 요약했어도 결론을 맺지 않거나 너무 상투적이면 고득점을 받기 어렵다. 가장 피해야 할 결론 형식은 서론과의 동어반복이다. 말하자면 네 제시문에서 발견한 ‘결과와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를 서술하지 않고 “따라서 기술 사용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와 같은 추상적인 문장으로 결론을 대신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본론에서 압축한 요약문을 근거로 각 제시문 사이의 차이점을 찾고, 이를 종합하여 창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결론 쓰기에서 필요한 덕목은 본론에서 기술한 내용을 유사한 개념어로 압축하는 능력이다. 짧은 결론에 풍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결단력 있는 단어 선택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문제 1]의 결론을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정체성 혼란, 시간에 지배, 점진적 무기력화, 정보 접근과 쌍방향적 소통 범위의 확대 등 기술 사용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시간의 표준화, 편리성에 대한 적응, 통신기술의 혁신과 이용방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대학 채점기준]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 각 제시문에서 각각 결과와 원인을 찾아 제시(32점)
-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대학 예시답안] 569자

(가)~(라)는 기술 사용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보여준다. (가)는 사이버 공간의 이용이 안정적인 정체성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다중적 자아 형성이 가능하고 구속감이 적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서 비롯됐다. (나)는 개인의 일상이 시간에 지배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철도를 무한정 건설할 수 없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타 지역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다)는 개인이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의식하지 못한 사이 자동문의 편리함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인터넷이 정보 접근과 쌍방향적 소통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컴퓨터의 연결이 증가하면서 발명자의 의도를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체성 혼란, 시간에 지배, 점진적 무기력화, 정보 접근과 쌍방향적 소통 범위의 확대 등 기술 사용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시간의 표준화, 편리성에 대한 적응, 통신기술의 혁신과 이용방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 중앙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사회, 경영경제 2번

☞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견해를 비판해 보고,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라)

인터넷은 1960년대 미국에서 군사 및 학술적 목적의 정보교환을 위해 몇몇 컴퓨터들의 통신 네트워크를 만든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 칭하는 것은 World Wide Web(WWW)이라는 정보망이다. 웹(Web)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보망에 컴퓨터를 연결하면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거기에 올라있는 웹페이지, 문서, 사진 등 여러 형태를 가진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도 웹에 원하는 자료를 올릴 수 있다.

인터넷의 세계는 컴퓨터, 모뎀, 통신케이블, 여러 소프트웨어의 복합체 이상의 그 무엇이다.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자료를 교환하면서 만들어지는 가능성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 미국 철학자 허버트 드레퓔스의 말처럼, 인터넷은 처음의 개발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진화하는 새로운 종류의 기술 혁신이다. 그래서 그 완성된 모습에 대한 상도 없고 그 발전의 방향도 알 수 없다. 학술 및 군사용 정보 교환이라는 최초의 목적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행위들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중략]

인터넷을 ‘정보 고속도로(Information Highway)’라 부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정보의 장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는 세상을 더욱 투명한 곳으로 만들어 불합리한 억압을 없애기도 한다. 저소득층이나 저개발국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독재국가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방의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런 견해에서 비롯된다.

풍부한 정보의 보고라는 점과 더불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터넷의 특징으로 자주 거론된다. 이전의 미디어들은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일방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정보의 공급자가 될 수 있다. 개인 홈페이지는 물론, 댓글 달기나 토론게시판 등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존의 모든 미디어가 인터넷에서 통합되면서 쌍방향 의사소통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

노르웨이의 범죄학자 매티슨(Mathiesen, Thomas)은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패놉티콘이 근대 사회의 감시의 원리로 자리 잡았던 19세기 동안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할 수 있는 언론과 통신 기술이 발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발달을 시놉티콘(synopticon)이라고 명명했다. 패놉티콘과 달리 시놉티콘은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syn) 서로를 보는 메커니즘이었다. 19세기 이후에 사회의 패놉티

문화가 진행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과 권력이 서로를 감시하는 시놉티콘도 발달했다는 것이다. 매티슨은 패놉티콘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인 역감시의 존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바로 여기에 푸코의 역사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중요한 기제임이 분명하지만 이에는 한계가 있다. 의회와 언론이 비대해지면서 이것이 원래 취지와는 다른 그 자체의 독자적인 논리를 획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권력화했다는 점이 그렇다. 권력을 행사하여 재산 모으기를 일삼는 의원,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당락에 의해 좌우되는 입법 과정은 국회가 선거철에만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척할 뿐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말초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 경쟁에 여념이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특정 정당과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신문에 대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텔레비전을 끄거나 신문 구독을 중단하는 일밖에 없다. 게다가 정치인이나 사회의 권력자는 언론을 장악하거나 이를 잘 이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다. 물론 의회와 언론이 아직 역감시를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관들은 이제 그 자체가 역감시의 대상이 된 것이다.

## (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들이 각종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많아져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에 쉽게 의존하거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특정 정보에만 집착하게 될 수 있다. 지금도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될까?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효율 저하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또 양적 증대에 비해 정보의 질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는 현실은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한편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는 계층이나 기업은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며,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정보의 증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를 ‘정보 격차’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컴퓨터 조작에 서투른 중년층 직장인이 컴퓨터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을 느껴 결국 출근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정보 격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 격차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인종, 기업과 국가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없애려는 노력은 정부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차원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 통신 기술은 컴퓨터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두뇌와 신경’을 비약적으로 확장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 교육, 의료, 생활양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관계와 사고방식,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불러올 위험성도 있다.

(사)

우리 시대 이전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침해가 표면적이었으며, 자연의 확고한 균형 상태를 파괴하기에는 미약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 기술은 무한한 진보를 거쳐 자연을 파괴하였으며,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라는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통제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한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상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미리 예견된 인간의 왜곡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보존해야 할 인간의 개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래에 닥쳐올 공포와 재난을 미리 발견하여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려움과 경외감을 포함하는 책임감이 행위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먼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앙이나 참사를 미리 염려해 우리 스스로 막강한 권력을 제어해야 한다. 미래의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견해를 비판해 보고,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독해]

(라) 인터넷 ⇒ 서로 연결되어 정보 교류 ⇒ 다양한 활동 + 불평등 감소 + 소통 심화·확산

(마) 의회와 언론도 이제는 역감시(다수 시민이 소수 권력자를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바&사 통합)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초래될 불평등을 고려해 기술을 통제해야 한다.

(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 의존성과 편향성 증가 + 정보 격차(불평등) 증가

(사) 과학 통제의 윤리학: 위험 감지(공포) ⇒ 의사결정 : G(의무)

[논리평면] 가치추론, 대안제시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마)	의회나 언론	역감시의 대상	G
대상	(라)	인터넷 정보 교류 ⇒ 사회적 순기능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음	b

	전제	결론
주장 / 통합	정보 통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감지해서	윤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바)	정보 통신 발달 ⇒ 의존성·편향성 및 불평등 증가	
(사)	위험 감지 (공포)	책임있는 의사 결정

[예시답안] 562자

의회나 언론은 과거 역감시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제는 스스로가 역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마)가 말하듯 현재의 역감시 기관들은 권력과 야합하여 타락한 권력 기관이 됐기 때문에 다수 시민의 감시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 또한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라)에 나타난 인터넷은 그 연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 확장을 제공하고, 불평등 감소와 소통 확산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순기능도 어느 순간 사익 추구 욕망으로 인해 억압적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 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위협을 감지해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바)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기술에 대한 의존성 및 정보적 편향성을 증가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불평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는 이렇게 감지된 미래의 위협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학에 대한 맹목적 수용이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에 기술의 역기능을 고려한 보수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대학 제시문 해설]

### 1. KEYPOINT

- 비판 대상이 되는 제시문과 비판 기준이 되는 제시문의 핵심논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 비판 근거가 되는 제시문의 논지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 근거가 되는 제시문의 논지를 토대로 대안 제시하기.
- 두 개의 세부 문제를 고려하여 답안의 분량을 적절히 배분하기.

### 2. 해설

- [문제 2]는 두 개의 세부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세부 문제는 (마)의 논지를 근거로 하여 (라)의 견해를 비판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라)의 견해와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각 제시문을 읽어 보면 (라)는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마)는 기술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언급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어떤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지, 어떤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그 논지를 서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라) 제시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도약이나 정치적 해방이 가능해질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으로 인해 누구나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일어나고 쌍방향 소통으로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논지를 파악한 후, (라)의 견해를 예시답안처럼 ‘~덕분에 ~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로 간결하게 서술해야 한다. 제시문 (마)는 긍정적 역할을 했던 언론과 통신기술이 어떻게 역감시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마)의 논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며 (라)의 견해를 비판하는 근거가 된다. 제시문 (마)에서 “권력을 행사하여 재산 모으기”, “당락에 의해 좌우되는”, “시청률 경쟁”, “정당과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지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텔레비전을 끄거나 구독을 중단하는 일밖에 없다”, “언론 장악” 등과 같은 핵심 어구를 파악하여 어떻게 역감시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간결하게 서술해야 한다. 그런 다음 (마)의 논지를 다시 압축하면서 이를 간과한 (라)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으로 답안을 작성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두 번째 세부 문제는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의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라)의 견해는 첫 번째 세부 문제를 해결할 때 파악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파악하고 두 논지를 통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바)는 기술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 즉 정보의 편향, 정보 격차, 경제적 불평등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사)는 기술 사용에 따른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두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서로 보완되는 지점을 파악하여 하나의 논지로 묶어내야 한다. 제시문 (바)와 (사)의 연결고리는 기술 사용에 따른 위험성이므로, (바)는 (사)가 예견해야 한다는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사)는 (바)와 같은 기술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예견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두 논지를 통합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제시문의 논리적 연계성과 보완성을 찾아내어 예시 답안처럼 서술한다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채점기준]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 (라)와 (마)의 논지를 파악한 후 (마)에 근거하여 (라)의 견해를 비판했는지 평가(20점)
-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를 보완하는 접근법을 제시했는지 평가(20점)

[대학 예시답안] (553자)

(라)는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접근의 보편성과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 그리고 쌍방향 의사소통 덕분에 경제 발전 및 정치적 해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마)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론과 의회가 대중의 수동적이고 무비판적 태도를 이용하여 스스로 권력화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역감시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지에서 볼 때, 기술의 긍정적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라)의 견해는 기술이 권력자의 이익 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술 사용의 낙관론에서 벗어나서 정보의 편향, 정보격차,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등과 같은 기술 사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이 국내적 차원뿐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의 무비판적 사용이 현재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윤리학의 토대 위에 해야 할 일의 기준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 중앙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사회 3번

☞ 제시문 (아)의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제시문 (자)의 공리주의와 장자의 입장에서 각각 평가해 보시오. [20점, 400~420자]

(아)

영화 '네버 렛미고'에서는 복제 인간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완료'를 사용한다. 그들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에서는 인간과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영화에서는 복제 인간의 삶이 인간들보다 더 인간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복제 인간의 비참함이 잘 드러난다. 그들의 인생은 매우 짧다. 장기 이식을 20살부터 시작해서 그 후 몇 번의 반복된 수술을 거친다.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복제 인간들의 장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도 갖지 못한다.

(자)

결과론적 윤리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불행함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간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복과 만족을 불러오고 쾌락을 증진하는 삶을 도덕적인 삶으로 이해한다. 도덕적인 것이 그 자체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곧 도덕적인 것이므로, 좋음이 옳음을 낳게 된다. 결과론적 윤리는 이성의 보편타당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결과의 효용성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다른 행위보다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본다.

한편 장자는 자연스러운 본성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할 삶의 태도로써 자급자족과 평등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등은 인간과 사물의 자연적 본성은 같다고 보는 장자의 만물제동의 입장에도 일치한다. 장자는 “인간을 포함한 각각의 사물에는 도가 있으며, 도의 차원에서 보면 만물은 평등하다.”라고 말한다. 사물에 대한 귀천, 고하, 시비, 선악의 구별은 자기중심적 사고, 즉 편견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장자의 견해이다.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소요의 경지나 세상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보는 제물의 경지는 모두 장자가 추구한 도를 따르는 이상적인 상태이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아)의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제시문 (자)의 공리주의와 장자의 입장에서 각각 평가해 보시오. [20점, 400~420자]

[독해]

(아)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 복제 인간의 존엄성 무시, 신체적 자유 통제 ⇒ 인간에게 장기 이식

(자) 공리주의: 결정(행위) ⇒ 좋음(효용)을 상승: 바람직하다.

(자) 장자: 만물 ⇒ 평등: 도덕적이다.

[논리평면]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공리주의	결정(행위)	효용을 높이면	G
대상	(아)	복제 인간 이용	다수 인간 번영	g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장자	만물	평등	G
대상	(라)	복제 인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b

[예시답안] 418자

(아)에 나타난 인간은 복제 인간의 신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구한다. 그 과정에서 복제 인간은 반복되는 고통도 견뎌야 하고, 행동의 자유도 제약되며, 수명도 매우 짧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에 대해 장자는 비판할 것이다. (자)에 따르면 장자는 만물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고 본다. 만물에 대한 위계적 구분은 그저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한 잘못된 편견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복제 인간이 갖고 있는 평등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인간만을 위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리주의는 이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린다. (자)에 따르면 공리주의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좋은 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복제 인간의 희생시키는 행위 또한 다수 인간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되므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대학 제시문 해설]

### 1. KEYPOINT

- 제시문에 근거하여 핵심논지 압축적 요약하기.
- 위에서 파악한 기준들을 각각 적용하여 대상을 평가하기.

### 2. 해설

- [문제 3]이 요구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평가 대상으로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와 평가 기준으로서 ‘공리주의와 장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둘째, 공리주의와 장자의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 입장에서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먼저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와 ‘공리주의와 장자의 입장’을 정확하고도 압축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시문을 읽으면서 관련된 핵심 어구를 파악하고, 이를 본인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이 복제 인간에게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서술하기 위해 “장기 이식”, “반복적 수술”, “장기 보호”, “행동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등과 같은 핵심 어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어구를 활용하여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한 문장으로 서술해야 한다. 예컨대, 예시 답안에 서술된 바와 같이, “인간은 복제 인간의 장기를 반복적으로 이식하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신체를 관리한다.”로 표현할 수 있다. 공리주의 입장은 “결과론적 윤리”, “행복”, “쾌락”, “유익한 것이 곧 도덕적인 것”, “결과의 효용성”, “더 많은 공리” 등과 같은 핵심 어구들을 활용하여, 장자의 입장은 “만물제동”, “자기중심적 사고”, “인정”, “평등” 등의 핵심 어구를 활용하여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평가 대상과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공리주의와 장자의 관점에서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단순히 공리주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하다는 식으로 서술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를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라는 맥락에 적용하여 설명해야 한다. 즉, 결과론적 윤리인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는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결과론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서술해야 한다. 예시답안처럼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목숨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편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것을 강조하는 장자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복제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반론적 관점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근거를 제시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다 파악했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답안으로 엮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에 대한 답은 주어진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주어진 문제는 공리주의 입장과 장자의 입장에서 각각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병렬적 서술 방식을 취하면 된다. 예시 답안처럼, 평가 대상이 되는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해주고, 그 다음 ‘공리주의 입장에 대한 요약과 공리주의 입장에 근거한 평가’, ‘장자의 입장에 대한 요약과 장자의 입장에 근거한 평가’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면 가독성이 높은 문단 구성이 될 것이다.

[대학 채점기준]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 제시문 (아)에서 인간이 복제 인간을 대하는 행위를 파악한 경우(4점)
- 제시문 (자)의 공리주의와 장자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의 인간이 복제 인간을 대하는 행위를 각각 평가한 경우 (16점)

[대학 예시답안] 416자

(아)에서 인간은 복제 인간의 장기를 반복적으로 이식하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신체를 관리한다.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자)에 제시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장자의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리주의는 인간에게 행복과 쾌락을 주는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되는지를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르면 (아)의 인간의 행위는 복제 인간을 희생시켜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한편, 장자는 만물은 자연적 본성을 갖고 있고 동등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아)의 인간은 복제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 한국외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사회 1번

✎ (가)~(바)는 의사결정 기준에 관한 글이다. 제시문들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들을 요약 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가)



(나)

갈매기 조너선은 독창성과 자립심이 남달라 더 높이, 빠르게 나는 다양한 비행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한다. 조너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에게 비행이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권리이다. 자유는 개인의 본질 그 자체이며,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의식이든 미신이든 아니면 또 어떤 형태의 제약이든 떨쳐버려야 한다.” 이러한 조너선의 모습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는 ‘갈매기 집단의 위엄과 전통에 먹칠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집단적으로 이동하며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너선은 매일 홀로 비행 연습에 매진하고, 결국 다른 갈매기 사회의 갈매기들에게 그가 고안해낸 다양한 비행법을 전수하며 보다 고차원적인 삶의 의미를 깨우쳐준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재구성

(다)

조직에서의 효율적 의사결정 방식은 성공적인 조직 운영에 필수적이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조직은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단시간에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엄격히 지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협업과 타협은 ‘의외의 묘안’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최고의 전술서인 『손자병법』의 영어명이 ‘전쟁의 과학’이 아니라 ‘전쟁의 예술’이듯, 구성원 개인의 직감이나 창의성, 도전정신은 훨씬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즉, 조직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때 개인의 독창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어야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 ‘Decision Making - Art or Science?’ (www.illumine.co.uk)에서 재구성

(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각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상황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정보의 원천으로 삼아 자신이 할 행동을 결정하는데, 상황에 대한 타인의 해석이 더 정확해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세리프의 실험에 따르면,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한 점을 바라보도록 하고 불빛이 움직인 거리를 추정하도록 했을 때, 피험자들은 혼자서 불빛을 보았을 경우에는 각자 다양한 추정치를 제시하였지만, 집단으로 함께 모여서 타인들의 추정치를 들었을 때에는 그 말에 근거해 개인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모두 비슷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타인을 정보의 원천으로 삼아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중략>

한편 사회적 관계에 관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토대로 사람들은 타인에게 좋게 보이기를 원해서 타인이 하는 대로 따라 하고자 한다. 즉, 불확실한 상황이나 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확신에도 불구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고 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에 동조하게 된다. 집단의 구성원은 그 집단의 사회적 규범에 동조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회적 규범이란 용인되는 행동, 가치에 관한 암묵적인 규칙을 말한다.

-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에서 재구성

(마)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다 아무도 기부를 안해서 결국 체육관은 지어지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경제』에서 재구성

(바)

가족은 남성과 여성, 주인과 노예라는 기본적인 관계에서 최초로 등장한 공동체로서 인간의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일상적 욕구 이상의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몇 가족들이 결합해야 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가 마을이다. 국가는 여러 마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완전하고 자족적인 공동체다.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고,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된다. 국가는 다른 공동체들의 최종 목표인데, 사물의 본성은 그것의 마지막 혹은 완성된 형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국가는 자연적 창조물이며, 사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국가는 그 본성상 가족이나 개인보다 앞선다. 전체는 필연적인 부분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는 몸 전체가 파괴되면 손과 발도 생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개인 또한 고립 상태에서 자족할 수 없어 국가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판단이나 행동 기준은 국가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고등학교 철학』에서 재구성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가)~(바)는 의사결정 기준에 관한 글이다. 제시문들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들을 요약 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독해]

(가) 단체 > 개인

(라) 타인의 결정 반영하여 결정 ⇒ 불확실성 감소 및 규범 동조로 인한 사회적 인정

(바) 국가 - 개인에 우선하는 존재 ⇒ 훌륭한 삶을 위해 필요한 공동체의 완성된 형태

(나) 자유 - 본질적 권리 ⇒ 보장해야 ⇒ 고차원적인 삶 Good

(다) 독창성 발휘 ⇒ 최선의 해결

(마) 사람들은 공익보다 사익을 위하여 의사결정 ⇒ 공동체에 부정적 결과

[논리평면] 분류 & [예시답안] 440자

문단	문장	기능	내용
1-1	1	화제	제시문들은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2	분류	
	3	입장 A	먼저 집단을 위한 의사결정이 나타난다는 (가), (라), (바)가 있고, 개인을 위한 성향이 더 크다는 (나), (다), (마)가 있다.
	4	입장 B	

문단	문장	기능	내용
1-2	1	주장	집단중심적 관점에서 (가)는 단체보다 우선하는 개인은 없다고 말한다.
	2	핵심	
	3	상술	이는 (바)에서 말하듯 국가란 개인에 우선하는 존재이며, 국가로 인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4	핵심	
	5	상술	또한 개인들은 (라)에서 말하듯 불확실성을 낮추고 인정을 얻기 위해 타인을 참고한다.
	6	핵심	
	7	상술	

문단	문장	기능	내용
1-3	1	주장	이와 반대로 개인중심적 관점에서 (나)는 자유라는 본질적 권리를 보장해야 고차원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2	핵심	
	3	상술	(다)에서 말하듯 개인의 독창성이 발휘되어야 최선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4	핵심	
	5	상술	또한 (마)에서 보여주듯 개인은 공동체적 불이익도 상관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존재이다.
	6	핵심	
	7	상술	

[대학 출제의도]

[문제 1]은 제시문 (가)부터 제시문 (바)까지를 읽은 후,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제시문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시문들로부터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 개인과 집단이란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을 읽어낼 수 있는지, 나아가 (나), (다), (마)를 ‘개인’에 입각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가), (라), (바)를 ‘집단’을 중시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섯 개의 제시문을 해석, 요약하도록 함으로써 요약 능력을 보고자 하였다.

[대학 채점기준]

문항	[채점요소] 채점위원의 채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 핵심 주제 또는 핵심 문장(단어) 등을 가급적 상세히 기술	배점
문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결정 기준의 두 유형의 핵심어인 ‘개인’과 ‘집단’이 언급되어야 함.</li> <li>· 6개의 제시문들이 ‘개인’과 ‘집단’이란 유형에 맞춰 분류되어야 함.</li> <li>·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li> </ul>	210점

등급	[채점기준] 7개 척도에 해당하는 채점 기준을 가급적 상세히 기술
A	<p>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의 제시문을 ‘개인 중심’과 ‘집단 중심’이란 두 의사결정 기준으로 나누되, 제시문 (나), (다), (마)를 전자의 입장으로, (가), (라), (바)를 후자의 입장으로 기술한 경우</li> <li>· 이와 더불어 각 제시문의 요약에 ‘단체/팀/팀워크의 중요성’ (가), ‘독창성/자유’ (나), ‘개인의 독창성’ (다), ‘사회적 규범/동조’ (라), ‘개인의 이익/공동체에 부정적인 결과(마), ‘개인이 의존하는 국가’ 등의 핵심어를 포함하여 기술한 경우</li> </ul>
	<p>A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또는</li> <li>· 문장 구성 등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li> </ul>
B	<p>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의사결정 기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개인’과 ‘집단’이란 방식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또는</li> <li>· 각 제시문의 요약이 부실한 경우</li> </ul>
	<p>B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개인’과 ‘집단’의 구별이 완전하지 못하고 제시문들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 못된 경우)</li> </ul>
C	· 제시문 중 일부만을 요약하거나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
D	· 일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답과 거리가 멀고 글자 수를 현저히 채우지 못한 경우
F	·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한국민대 2020학년도 모의 인문·사회 2번

☞ (사)를 활용하여 (라)와 (마)에서 사용한 의사결정 기준의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각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상황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정보의 원천으로 삼아 자신이 할 행동을 결정하는데, 상황에 대한 타인의 해석이 더 정확해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세리프의 실험에 따르면,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한 점을 바라보도록 하고 불빛이 움직인 거리를 추정하도록 했을 때, 피험자들은 혼자서 불빛을 보았을 경우에는 각자 다양한 추정치를 제시하였지만, 집단으로 함께 모여서 타인들의 추정치를 들었을 때에는 그 말에 근거해 개인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모두 비슷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타인을 정보의 원천으로 삼아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중략>

한편 사회적 관계에 관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토대로 사람들은 타인에게 좋게 보이기를 위해서 타인이 하는 대로 따라 하고자 한다. 즉, 불확실한 상황이나 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확신에도 불구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고 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에 동조하게 된다. 집단의 구성원은 그 집단의 사회적 규범에 동조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회적 규범이란 용인되는 행동, 가치에 관한 암묵적인 규칙을 말한다.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에서 재구성

(마)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다 아무도 기부물 안에서 결국 체육관은 지어지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경제』에서 재구성

(사)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제공한 지식을 검색하여 읽을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글을 쓸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고치는 것 또한 자유롭게 되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교육 수준의 상승과 정보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전문가로 공인받지 않은 일반인도 자신들이 생활에서 체험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집단 지성이라 부른다.

집단 지성은 정보 사회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핵심 개념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개별 누리꾼이 서로 힘을 모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는데, 이렇게 모인 힘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집단 지성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자신의 견해만 고집하지 않고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의 폭이 넓어져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중략> 집단 지성은 ‘너 자신을 알라’를 포함하며 ‘함께 사유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아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처럼 집단 지성은 집단에 매몰되지 않고 개인의 특이성을 키우며 함께 성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서 재구성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사)를 활용하여 (라)와 (마)에서 사용한 의사결정 기준의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독해]

(라) 타인의 결정 반영하여 결정 ⇒ 불확실성 감소 및 규범 동조로 인한 사회적 인정

(마) 사람들은 공익보다 사익을 위하여 의사결정 ⇒ 공동체에 부정적 결과

(사) 집단 지성 - 일반 개인들의 협력적 정보 공유 ⇒ 집단 이익 상승 + 개인의 개성 존중

[논리평면]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사)	집단 지성	집단 이익 + 개성 존중	G
대상	(라)	집단 중심	개성 침해	b
	(마)	개인 중심	집단적 이익 감소	b

[예시답안] 513자

집단 지성은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넘어서는 진보된 협력체라고 볼 수 있다. (사)에서 나타나듯 집단 지성은 정보 기술과 교육 수준의 발달로 인해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정보를 습득하고,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방식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사회는 집단주의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개성을 존중,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라)와 (마)에서 사용한 의사결정 기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라)에서는 집단 중심적 의사결정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불확실성 감소와 사회적 동조를 위해 타인의 결정을 반영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개성이 집단에 매몰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마)는 개인 중심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공동체에 부정적 결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사익 중심의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에 이익은커녕 불이익을 주는 사고방식이므로 공동체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출제의도]

[문제 2]는 집단 지성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에 나타난 집단주의 결정방식과 (마)에 나타난 개인주의 결정방식의 한계점을 비판하는 문제이다. 이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의 기초가 되는 비판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사)는 집단 지성을 교육수준의 향상과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해 일반인들도 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지식의 공유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특이성이 집단에 매몰되지 않는 대안으로 집단 지성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바탕으로 (라)에 나타난 집단주의 결정방식과 (마)에 나타난 개인주의 결정방식을 묶어서 평가하고, 집단 지성의 특성에 비춰 각 결정방식의 한계점을 정확히 비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 채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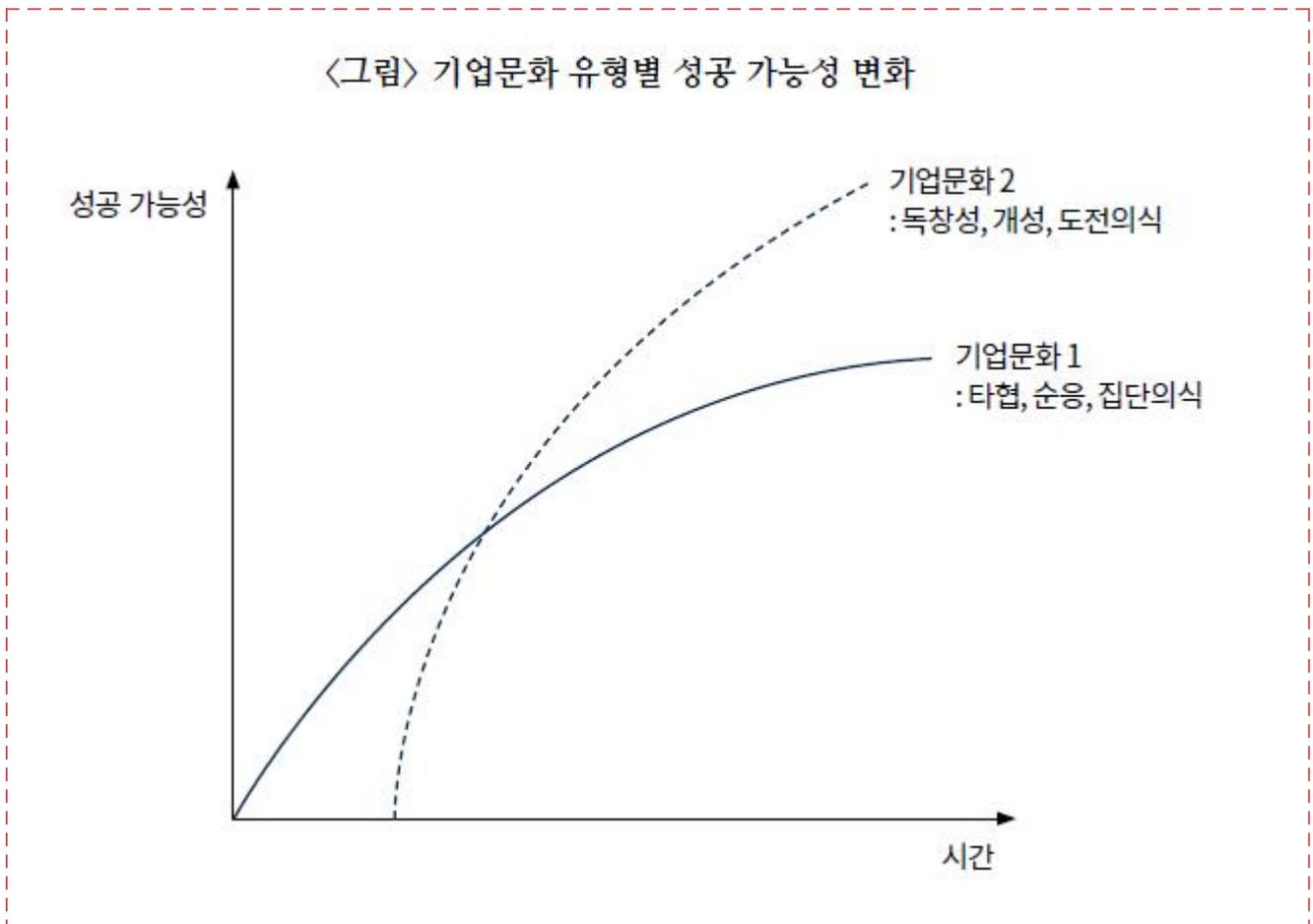
문항	[채점요소] 채점위원의 채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 핵심 주제 또는 핵심 문장(단어) 등을 가급적 상세히 기술	배점
문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에 나타난 집단 지성에 관한 개념이 서술되어야 함.</li> <li>· (라)와 (마)에 나타난 의사결정 기준의 한계가 무엇인지 언급해야 함.</li> <li>· (사)에 나타난 집단 지성이 (라), (마)에 나타난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밝혀야 함.</li> </ul>	210점

등급	[채점기준] 7개 척도에 해당하는 채점 기준을 가급적 상세히 기술
A	<p>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에 나타난 집단 지성에 관한 개념이 서술되어야 함.</li> <li>· (라)에 나타난 의사결정 기준의 한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함. - 개개인의 독창성(특이성)의 매몰.</li> <li>· (마)에 나타난 의사결정 기준의 한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함. - 공공의 이익 저해.</li> <li>· (사)에 나타난 집단 지성이 (라)에 나타난 개인의 특이성이 매몰되는 현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밝혀야 함.</li> <li>· (사)에 나타난 집단 지성이 (마)에 나타난 개인과 공공의 이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혀야 함.</li> </ul>
	<p>A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li> <li>- 핵심어를 파악하였으나 핵심어에 근접한 표현을 사용.</li> <li>-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함.</li> <li>-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li> <li>-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남.</li> </ul>
B	<p>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li> <li>- (라), (마)에 나타난 한계점 중 한쪽만 올바르게 밝힌 경우.</li> <li>- (사)의 집단 지성과 (라) 또는 (마)의 부정적 결과를 정확하게 연결하지 못한 경우.</li> <li>- (사)의 집단 지성과 (라) 또는 (마)의 부정적 결과를 한쪽만 정확하게 연결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가 없고, 문장의 표현이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음.</li> <li>- 어휘 사용의 실수가 가끔 나타남.</li> <li>-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런 연결이 가끔 나타남.</li> </ul>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li> <li>-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됨.</li> <li>- B+의 감점 요인 중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의 요지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못하고, 그 관점에서 (마), (바)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경우.</li> </ul>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 (바), (사)의 내용 중 핵심 내용과 관계없는 일부만을 나열한 경우</li> </ul>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li> </ul>

## 한국외대 2020학년도 모의 사회 3번

- ☞ 당신은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성장시키고자 한다. 다음 <그림>은 의사결정 기준이 반영된 기업문화의 특징과 이에 따른 성공 가능성이다. <그림>을 해석하고 [문제 1]의 두 유형을 모두 고려하여 어떤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할지를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당신은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성장시키고자 한다. 다음 <그림>은 의사결정 기준이 반영된 기업문화의 특징과 이에 따른 성공 가능성이다. <그림>을 해석하고 [문제 1]의 두 유형을 모두 고려하여 어떤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할지를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독해]

<그림> 초기 단계: 기업문화 1(집단중심) ⇒ 성공 가능성 높음 (상대적으로)

<그림> 성숙 단계: 기업문화 2(개인중심) ⇒ 성공 가능성 높음 (상대적으로)

[논리평면] 견해(종합)

	전제	결론
주장	초기: 기업문화 1, 성숙: 기업문화 2	성공 가능성 극대화
논거	창업 초기에는 공동체 중심적 문화가 강해야	빠른 발전을 이룩
증거	초기: 기업문화 1(집단중심)	성공 가능성 성장률 높음
적용	회사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만큼	팀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역량 극대화
논거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는 개성을 존중해야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
증거	성숙: 기업문화 2(개인중심)	성공 가능성 성장률 높음
적용	독창성이 발휘되어야	문제 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

[예시답안] 643자

회사를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운영하려면 초기에는 집단중심, 성숙기 이후에는 개인중심의 기업문화가 있어야 한다. 먼저 창업 초기에는 공동체 중심적 문화가 강해야 회사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다. <그림>을 보면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문화 1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 가능성을 보인다. 기업문화 1은 타협, 순응, 집단의식이 강조되는 단체 중심적 기업 문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기업문화 2는 창업 시작 단계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전혀 상승시키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창업 초기 단계의 특성으로 보면, 회사 전체를 위하여 각 개인이 회사 규율에 순응하고, 서로를 위해 타협하는 것이 빠른 성장세를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 성숙 단계가 오면, 이제 개인 중심적 기업 문화가 필요하게 된다. <그림>을 보면 기업문화 1의 성공 가능성 기울기가 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성공 가능성의 상승세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맞춰 기업문화 2는 회사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매우 가파른 기울기로 성공 가능성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는 회사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 도전의식을 갖고 독창적인 의식이 발휘되어야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학 출제의도]

[문제 3(사회계)]은 기업문화의 유형에 따른 성공가능성이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함에 있어 [문제 1]에 제시된 두 유형의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을 반영하여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프는 타협, 순응을 강조하는 “기업문화 1”과 독창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 2”의 성공가능성을 기업의 발전단계별로 비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는 발전초기 단계와 성숙단계에서 기업의 성공에 필요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의사결정 방식을 포함하는 기업문화 또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익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집단 중심의 기업문화가 적합할 수 있으나, 성숙단계에서는 개인의 창의성, 도전정신에 발휘될 수 있는 개인 중심의 기업문화의 형성이 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것이다. 적절한 답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이 적절히, 그리고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발견해야 하는 핵심어인 ‘개인’과 ‘집단’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대립적인 분류, 둘째, 기업의 단기적, 장기적 발전을 위한 조건을 도출하고, 셋째, 이를 두 가지 유형의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와 연계시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수험자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히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이러한 추론의 진행을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함께 보려는 것이 이 문제출제의 의도이다.

[대학 채점기준]

문항	[채점요소] 채점위원의 채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 핵심 주제 또는 핵심 문장(단어) 등을 가급적 상세히 기술	배점
문제 3	<p>(사회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논의되었을 대립적인 개념인 ‘개인’과 ‘집단’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이 언급되어야 함.</li> <li>· 추가로 제시된 그래프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핵심 개념인 기업문화에 따른 성공가능성을 인지하고 그 차이점과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설명되어야 함.</li> <li>· 기업이 특정 발전단계를 지나가면 집단 중심의 결정 방식보다는 개인 중심의 결정 방식이 더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li> <li>· 위 과정들이 적절한 어휘선택과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 가독성 있게 서술되어야 함.</li> </ul>	280점

등급	[채점기준] 7개 척도에 해당하는 채점 기준을 가급적 상세히 기술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래프의 해석에 있어 기업문화를 개인과 집단 중심으로 구분한 후,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성공가능성의 변화를 명확하게 설명한 경우.</li> <li>· 기업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집단 중심의 기업문화가 성공에 더 유리하나, 성숙 단계에는 독창성, 혁신이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인의 의욕과 행복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업문화 형성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한 경우.</li> <li>· 그래프에 설명된 기업문화에 따른 성공가능성을 [문제 1]에서 거론한 ‘개인’과 ‘집단’ 중심의 결정방식의 특성과 연관지은 경우.</li> <li>· [가점요인] A0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항목을 기술한 경우 A+로 인정함.</li> <li>- 타협과 순응, 집단의식에 기초한 기업문화를 채택한 기업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공가능성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li> </ul>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래프 해석을 통해 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개인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이 더 높은 성공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을 서술하고, 그 원인으로 성숙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독창성과 혁신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혔으나,</li> <li>- 개인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이 집단 중심에 비해 독창성, 개성, 도전의식을 높이는데 유리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li> </ul>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래프 해석을 통해 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개인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이 더 높은 성공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을 파악하였으나,</li> <li>- 기업이 성숙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왜 개인의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한 경우.</li> <li>- [문제 1]의 두 유형에 대한 설명과 답안을 구체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는 경우.</li> </ul>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기업문화 유형에 따라 성공가능성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나,</li> <li>- 기업문화의 유형별 특징을 개인 중심, 집단 중심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고,</li> <li>- [문제 1]의 두 유형에 대한 설명과 연계시키지 못하는 경우.</li> </ul>
	C	· 그래프나 [문제 1]의 요지는 기술하였으나 비교 분석 모두 모호한 경우
	D	·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 1]의 요지도 제시하지 못한 경우
	F	· 문제와 전혀 다른 내용을 서술한 경우

## 한양대 2018학년도 상경 모의 1번

④ (가)와 (나)에 나타난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분석한 후, 이와 함께 (다)를 참고하여 빈곤 문제의 해결책을 논하시오. (600자, 50점)

(가)

심리학자 하이트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이기적 개인임과 동시에 이집단적(利集團的) 집합체의 일원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또래와의 경쟁에서 자신의 이익을 능숙하게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갖가지 정신 기제가 들어 있다는 뜻이다. 그와 동시에 인간 본성이 이집단적이기도 하다는 것은 집단을 이룬 인간들이 타 집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기적 속성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뜻이다. 물론 개별 인간들이 이기심을 초월하여 자기보다 큰 무엇에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며, 특별한 조건들의 충족을 필요로 한다.

(나)

인간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하등한 동물에서도 집단적인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거미는 비사회적이어서 개별적으로 거미줄을 만들고 혼자 먹이사냥을 한다. 그러나 소수의 거미 종 개체들은 매우 큰 공동의 거미줄을 만들고 유지하며 협력적으로 먹이를 사냥하고 그들의 군집에서 함께 알을 품어 자손을 기른다. 수렵채집에 있어 이러한 사회성은 홀로 있는 거미보다 협력하는 개미들이 더 많고 큰 먹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회성이 진화된 거미 종의 일부가 멸종되었다는 사실이다. 생물학자 아그나르손과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미 종은 수렵채집의 성공과 같은 사회성의 단기적 이익으로 인해 처음에는 번영을 누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즉 사회성이 강한 거미 종은 높은 근친교배 성향을 보이게 되고, 때로는 10:1의 비율로 수컷보다 암컷이 많아지는 편향된 성비를 갖게 되기도 한다. 결국 근친교배와 편향된 성비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멸종에 다다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사회를 단순히 개인들의 합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 이상의 발현적 속성을 갖는 독립적 실체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낸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기의 노력에는 빈곤이 개인의 모자람이나 병약함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 즉 빈민은 기술이 없거나 정신이나 육체가 연약해 동기가 없거나 능력이 평균 이하라서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자로 여긴다.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로 보고 성공한 자는 성공할 만하니까 성공하였고, 실패한 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는 사람들은 복지 국가가 개인의 열망이나 자활 능력을 해쳤다고 주장한다.

빈곤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은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빈곤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과정을 강조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계급이나 성, 인종 등의 사회 내적인 구조적 힘에 의해 결정된 자원 배분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빈곤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빈곤을 막는 열쇠는 구조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개인을 비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개인의 태도를 바꿈으로서 가난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자원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 (가)와 (나)에 나타난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분석한 후, 이와 함께 (다)를 참고하여 빈곤 문제의 해결책을 논하시오. (600자, 50점)

[논제분석]

- ☞ **문제해결 유형을 풀 때는 ‘문제 상황’ 부터 확인해야 논점이 잡힌다.**

그냥 읽어보면 논제가 시키는 게 무엇인지 약간 애매하게 잡힐 수 있다. (가)와 (나)에서 각각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도 참고하라고 했는데, 그럼 (다)도 기준이란 말인가? 이럴 땐 ‘문제 현상’ 부터 짚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게 순서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빈곤 문제’ 이다. 이걸 어떤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가? ‘개인과 집단의 관계’ 이다. 일단, 빈곤 문제는 어떤 상황이고, 그게 어디에 제시되어 있는가? 그걸 먼저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 빈곤 문제가 개인과 집단의 관계와 관련하여 어떤 쟁점을 품고 있는지 확인한 뒤, 그 쟁점을 고려하여 (가)와 (나)를 분석하러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가)와 (나)는 개인과 집단 관계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우리는 (다)를 보면서 빈곤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 (다)부터 읽으면서 문제 상황을 파악해 보자.

- ☞ **논제의 세부사항을 모두 지키는 쪽으로 전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자.**

현재 제시된 논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와 (나)에 나타난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분석하라는 것, 다음으로 (가), (나), (다)를 참고하여 빈곤 문제 해결을 논하라는 것. 일단 첫 번째 요구사항이 제시되면서 ‘분석한 후’ 라고 되어 있으니, 먼저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대학에서 제공한 채점기준을 봐도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 우린 논제에서 ‘푸는 순서’ 를 명시해줬으면 그에 맞춰서 전개하는 걸 기본으로 해야 한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수순에 얽매일 필요까진 없다. 논리적 수순에 따라 명쾌하게 쓰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름대로의 전개를 보여준다고 해서 떨어질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딱히 자기 나름의 명쾌한 전개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면, 일단 시키는 수순 그대로 진행하는 걸 기본으로 하자.

[독해]

- (가) 인간은 이기성과 이타성을 모두 갖는 양면적 존재이다. 이타성이 발휘되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
- (나) 사회성으로 발현한 집단은 새로운 속성을 갖게 되는데, 그 집단적 속성에 따라 손해를 입을 수 있다.
- (다) 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된 두 입장: 사회명목론(집단은 개입의 합) Vs. 사회실재론(집단은 독립된 실체)
  - 사회명목론 - 빈곤은 개인의 부족함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복지는 개인의 자활력을 해칠 뿐이다.
  - 사회실재론 - 빈곤은 사회 구조적인 힘의 불평등 자원 분배로 인한 결과이므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논리평면] 조건부 요약(분석), 문제해결

개인 and 집단의 관계	
(가)	인간은 이기성과 이타성을 모두 갖는 양면적 존재이다. 이타성이 발휘되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
(나)	사회성으로 발현한 집단은 새로운 속성을 갖게 되는데, 그 집단적 속성에 따라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전제	결론
문제 (다)	빈곤 문제 - 사회실재론 Vs. 사회명목론	
해결 (가)	인간 - 이기성 + 이타성	이타성이 발휘되는 조건을 충족시켜 빈곤 해결
해결 (나)	빈곤 - 집단적 차원의 문제	집단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부작용 발생 않도록 조절

[예시답안] 582자

집단은 단순히 개인의 합으로만 이뤄진 게 아니라, 독립적인 속성을 갖는 독자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가)는 인간을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조건이 발휘되면 이타성까지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인간은 개별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나)도 개인과 구별되는 집단이 갖는 속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집단으로 살아가는 거미들은 그 단체의 속성에 따라 흥망이 갈린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빈곤 문제도 집단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다)에서는 빈곤을 온전한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는 관점이 제시된다. 물론, 빈곤에 있어 개인적 문제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구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에는 개인을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가 있다. 같은 성과를 내고도 다른 대우를 받는 구조적 불평등이 빈곤을 낳는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이타성을 살리고, 부작용을 줄이는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여 각 개인의 빈곤탈출 노력을 도와야 할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이번 상경계 모의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와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자는 취지에서 출제하였다. 모든 지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제시하였고 필요한 경우 EBS 교재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가)와 (나) 지문은 각각 하이트의 저서 ‘바른 마음’, 두카트킨이 집필한 ‘동물 행동학’ 교재의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으로 사회·문화 교과서(예: 비상교육 사회·문화 71쪽 개인과 사회를 보는 관점, 천재교육 사회·문화 75쪽 개인과 사회의 관계)와 생활과 윤리 교과서(예: 비상교육 생활과 윤리 164쪽 사회 구조와 제도의 윤리성)에 제시된 개인, 사회 구조, 사회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지문은 빈곤 문제의 해결책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EBS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122쪽 빈곤 이론에 대한 글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이 문제에서는 우선 (가)와 (나)를 통해 발현적 속성을 갖는 집단이 개별 구성 부분의 단순 합과 다르며 사회의 속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되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의 충족과 장기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어서 (다)에 제시된 빈곤 이론들을 바탕으로 개인 중심 이론의 한계, 사회 구조 중심 이론의 중요성과 보완책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요구하였다.

[대학 채점기준]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구성과 전개	(가)와 (나)에 드러난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적절히 분석한 후(전반부 단락 300자 내외), 이를 바탕으로 (다)에 제시된 두 가지 빈곤 이론의 한계와 가능성을 지적하며 빈곤 문제의 해결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후반부 단락 300자 내외).		10%
내용 이해와 분석	(가)에 나타난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속성과 집단의 속성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이해</li> <li>○ 집단의 긍정적인 발현적 속성이 자동적으로 발현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이해</li> </ul>	20%
	(나)에 나타난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현적 속성을 갖는 집단의 특징에 대한 이해</li> <li>○ 집단성의 발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해</li> </ul>	20%
	(다)를 바탕으로 빈곤 이론들의 한계와 가능성을 이해하고 빈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중심 빈곤 이론의 한계 이해</li> <li>○ 사회 구조 중심 빈곤 이론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li> <li>○ 빈곤 이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빈곤 문제 해결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li> </ul>	40%
논리와 표현	설명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의 논리적 긴밀성		10%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나열하는 것은 감점 요인임.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 반영함.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대학 예시답안] 학생 우수답안

사례 1. 602자

제시문 (가)와 (나) 모두 집단이 개인들의 합 그 이상이라는 입장이다. 제시문 (가)에서는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이기성을 발휘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집단에 속하게 되면 개인뿐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며 행동하여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 할지라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양상을 보임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집단의 영향력이 파악 가능하다. 제시문 (나)에서 기본적으로 비사회적 종인 거미가 사회적으로 모여 살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먹이사냥 등에서 이익을 얻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멸종에 도달하는 손해를 보게 된다. 개인으로 살 때는 생존에 아무 무리가 없었던 종이 무리를 지어 살게 되면서 멸종에 이르게 된다는 것에서 집단이 개인의 합 그 이상의 힘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다)에서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개인이라 해도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성격과 사회 구조에 의해서 빈곤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특정인들을 빈곤한 상태에 이르게 했던 사회제도, 구조를 변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 2. 646자

제시문 (가)는 하이트의 주장으로 인간은 이기적 개인이면서 동시에 이집단적 집합체의 일원이라고 말한다. (가)는 인간에게는 여러 정신 기제가 들어있어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이집단적이기도 하다는 것은 인간들이 집단 내에서는 각자의 이기적 속성을 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시문 (나)는 개별적 거미와 협력적 거미를 예로 들면서 집단적인 행동을 관찰한 결과에 대해 말한다. 대부분의 거미는 개별적인 사냥을 하고 소수의 거미만 협력적인 사냥을 하는데 협력하는 거미가 사회성이 더 뛰어나다. 하지만 결국 사회성이 강한 거미 종은 근친교배 성향이 증가해 뚜렷한 성비로 멸종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시문 (다)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말한다. 한 입장은 빈민을 능력이 없는 자로 생각하면서 복지 국가가 각자의 열망 및 자활 능력을 해쳤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한 입장은 빈곤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과정임을 강조해 자원 배분의 결과로 빈곤에 빠진다고 주장한다. 나는 빈곤 문제가 개인과 사회 모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자신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는 소득 및 자원의 고른 분배 그리고 복지 정책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3. 583자

집단 간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때로는 이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특징은 (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의미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속성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나)의 사회적 거미종의 사례를 통해 개인은 집단 내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 보다 이로 인한 장기적인 비용이 더욱 클 때 집단을 저버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처럼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가변적이고 상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둘 중 하나만을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처럼 개인과 사회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의 책임은 개인 그리고 사회에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거나 여러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개인이 노력할 수 있도록 접근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동시에 개인의 선천적 혹은 주변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희리를 완화하여 노력을 인정해 주기 위해 어느 정도 결과의 평등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 한양대 2020학년도 2차 모의 인문

- ☞ 지문 (가), (나)를 참고하여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 (다)의 [A], [B] 내용을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서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1,200자, 100점)

(가)

농민들에게 소 한 마리 가져보는 것은 평생 가장 간절한 꿈이었다. 농민들의 오랜 꿈은 소 사육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충족될 수 있었다. 15세기 초 3만여 마리로 추산되던 소는 20세기 초 110여만 마리로 늘어났다. 농사꾼에게 소는 가족이 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일원이 된 소는 커다란 축복과 함께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그중 소에서 유래된 홍역과 천연두는 조선 시대에 널리 성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시달리도록 했고 병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에 허덕이도록 만들었다.

그중 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천연두는 천연두, 마마, 포창, 손님, 호역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조선의 기록에 의하면 성인은 치사율이 20퍼센트 정도였지만 어린 나이에 걸리면 50~60퍼센트에 이르렀다고 한다. 천연두에 걸리면 시력을 상실하는 등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고통이 되는 추한 얼굴을 피할 수 없었다. 누구나 겪는 치명적인 질병이었기에 천연두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곤 하였다. 천연두의 유행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체의 문상과 조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였고, 대군을 베이징으로 보내라는 청나라의 요구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15~16세기까지 가축 사육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천연두의 발생은 국지적이었다. 그러나 인구와 소의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한 17세기 이후에는 천연두의 발병이 크게 늘어났다. 기록에 따르면 18세기에는 천연두 관련 발병 기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피해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7~18세기에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천연두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현종 10년(1669)에 함경도에서만 900명이었고, 숙종 19년(1693)에는 제주도에서만 1,950명이 발병하였다.

그런데 18세기에 편찬된 성호사설이나 연행록인 연행기사에 따르면 “만주인은 남녀를 막론하고 고통이 심히 드물다. 우리나라처럼 두창이 성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기록하여 청의 만주인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주인은 어떻게 하여 천연두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된 것일까? 만리장성 이북의 만주 지역에서 천연두 유행에 관한 기록은 16세기 중엽에야 등장하기 시작하므로 만주인들에게 천연두는 낯선 질병이었으며 그들은 유전적으로 취약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만주인들은 천연두를 마마라고 부르며 매우 두려워하였다.

천연두의 위협과 그에 대한 만주인의 공포는 평상시에 국한되지 않고 불결한 위생 상황이나 열악한 의료 체계로 인해 전근대 시기 전쟁터가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다는 상식을 고려하면 전시에 더욱 심했다. 만리장성 이남의 명나라 땅에서 전쟁을 할 때에는 천연두 유행 가능성이 높은 겨울에서 이른 봄을 피해 침공하거나, 침공하더라도 면역을 얻은 왕공과 장수 위주로 군사작전을 폈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도 조선이 마마가 도는 지역이므로 면역을 얻지 못한 왕공과 장수를 귀환시키고 점령지를 지킬 증원 병력은 면역을 얻은 인물들을 파견하고

자 하였다. 병자호란(1637) 당시에도 전쟁이 종결되자 이틀 만에 곧바로 2,300명의 병력만을 데리고 서울 도성에 입성하지도 않고 황급히 귀국길에 올랐다.

그렇다면 왜 조선인들은 18세기 들어 만주인이 천연두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천연두에 걸리는 사람이 적다고 인식하게 된 것일까? 여기에는 천연두를 극복하기 위한 강희제의 인체 실험에 힘입은 바 크다. 어려서 천연두를 앓고 살아남은 강희제는 마마자국이 남아 있어 천연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어느 해 겨울 그가 가장 사랑하는 12번째 아들에게 천연두가 발병하여 급히 치료법을 찾게 되었다. 궁정의 태의는 강희제에게 천연두의 고름을 소량 취하여 건강한 사람에게 주입하여 항체를 만든 뒤, 이를 다시 환자에게 사용하는 ‘인두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천연두 항체를 가진 사람을 취하는 것과 적당한 주입량을 찾는 것이었다.

강희제는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궁녀 중에서 인체 실험대상 30인을 선발하였다. 소량의 천연두 고름을 주입받은 이들 중 4명이 죽고 26명이 살아남았다. 다음으로 26명을 천연두 환자들 사이에 살게 놓아두니 다시 4명이 죽고 22명이 살아남았다. 이로써 천연두에 대한 항체를 보유한 22명의 ‘인두’가 확보된 것이다. 이들에게 얻은 항체를 다시 희석시켜 아들의 체내에 주입하였는데, 아들의 병세가 확연히 호전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의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강희제가 사용한 방법은 시묘(時苗)법인데 비록 성공은 했지만 성인에게도 사망률이 매우 높은 방법으로 아들의 병세가 호전된 것은 다소 행운이 따랐다고 한다. 이후 시묘법은 계속 접종자를 늘려 마지막에는 접종 7대 후에 독성이 사라진 항체를 얻어 이를 접종하는 숙묘(熟苗)법으로 발전하였고 이 방법이 청나라 백성들에게 보급되었다. 이로써 천연두는 적어도 청나라 내에서는 불치병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질병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18세기 청나라를 방문한 조선인들은 만주인 중 곰보가 드물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 (나)

고혈압은 현대인이 겪는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이다. 하지만 고혈압이 질병으로 정확히 정의되고 그 기준이 제시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이다. 사실 1960년대까지도 고혈압이 질병인지 아니면 신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을 정도였다. 1932년 미국 대선 기간 중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재선 선거 본부는 대통령의 혈압이 수축기 140mmHg, 이완기 100 mmHg로 정상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 후 대통령의 혈압이 188/105까지 상승했는데도 주치의는 혈압 증가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3년 4월 12일 뇌출혈로 사망했고 혈압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공론화되면서, 1948년 트루만 대통령은 National Heart Act를 공포하면서 고혈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과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100에 자신의 나이를 더한 숫자가 자신에게 정상인 혈압이라고 생각했고,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1977년 미국의 고혈압 가이드라인 합동제정위원회(JNC)에서 수축기혈압에 대한 언급 없이 이완기혈압이 105가 넘는 사람은 모두 고혈압으로 판정하였다. 이것이 고혈압의 의료적 기준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최초의 사례이다. 그 후 2003년까지 JNC는 7차에 걸쳐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는데, 각각의 가이드라인은 관련 과학연구가 축적되고 고혈압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변화되었다.

고혈압 정의에 근본적인 변화는 2003년 7차 정의에서 종전까지는 정상범위에 속했던 120 ~139/80~89를

고혈압 전단계로 규정된 사건이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은 향후 2~4년 사이에 20% 이상 고혈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전단계 혈압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 인구의 25~50%에 달하기에 이들을 고혈압 전단계로 지정하는 것이 질병 예방 효과보다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심장학회와 미국고혈압학회는 2017년 고혈압의 기준 자체를 종래 140/90mmHg 이상에서 130/90 mmHg 이상으로 낮추었다. 이 기준 변화에 대해 여러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었지만 대부분 논쟁적이었고 질병으로서의 고혈압에 대한 고려보다는 보건의료 측면에서 고혈압 환자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예방적 조치 및 고혈압 관련 이해당사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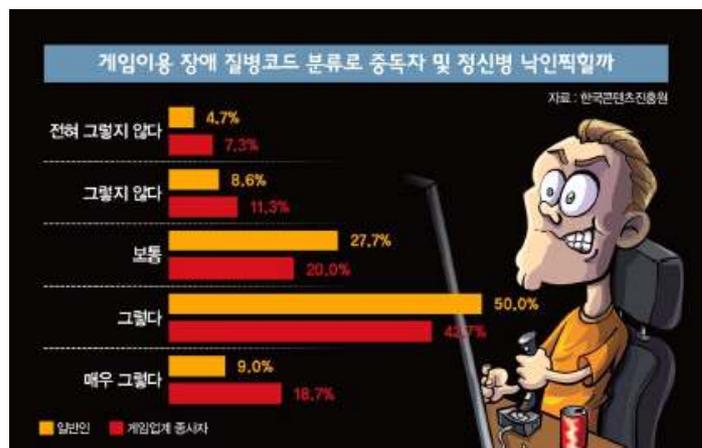
(다)

[A] 파스퇴르는 전염성 질병의 원인이 세균 때문임을 밝혀 이후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고, 코흐는 특정한 세균이 특정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히고 동물의 몸을 이용한 백신을 개발하여 질병 퇴치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인류는 많은 질병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는 1979년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사라졌다고 선언하였다.

[B]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2022년부터 사용될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에서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게임이용 장애’는 게임에 몰두하는 행동이 음식 섭취 등 생존을 위한 활동이나 직장에 출근하는 것 같은 사회적 활동보다 우선시 되는 양상이 적어도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에 해당된다.

백신은 볼거리와 홍역, 풍진 등의 국제적 발병 건수를 줄여줬다

1980~2017년 발병 보고 건수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지문 (가), (나)를 참고하여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 (다)의 [A], [B] 내용을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서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1,200자, 100점)

[독해]

(가) 인체 실험을 통하여 치료법 발전 → 질병에 대한 인식 변화 - 생리적 관점에서의 규정

(나) 다양한 사회적 인식 → 질병 규정의 변화 - 사회적 관점에서의 규정

(다) [A] 생리적 차원의 해법으로 질병 정복  
[B] 사회적 표준에 의한 질병 분류의 변화

[논리평면] 사실추론(종합)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통합	생리적 지표 및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질병에 대한 개념 결정
	(가)	실험을 통한 치료법 발전	질병에 대한 인식 변화
	(나)	다양한 사회적 인식 영향	질병에 대한 규정 변화
대상	통합	생리적 지표 및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질병 여부 판정 기준 결정
	(다)A	백신을 통한 질병 정복	생물적 차원의 질병 규정
	(다)B	게임으로 인한 생활 장애 → 질병	사회적 표준에 의한 질병 규정

[예시답안] 1,242자

질병이란 생물사회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생리적 차원에서 보면 치료법의 발전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지점을 고려할 수 있다. 제시문 (가)에는 천연두로 인해 재해 수준의 고통을 겪은 조선이 나타난다. 치료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번지는 천연두에 의해 조선은 강대국의 군사 원조 요청을 거부할 정도로 나라 전체가 마비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천연두가 청나라의 강희제에 의해 정복되게 된다. 강희제의 아들이 천연두에 걸리자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치료법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치료법은 개발되고 이는 청나라 백성에게 널리 보급되었고, 천연두는 공포의 전염병이 아닌 통제 가능한 병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생리적 통제 수준에 따라 질병의 영향력,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질병은 당대 사회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일반적 상태에서 현저히 벗어나 있는 상태를 질병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시문 (나)에 나타나듯 고혈압은 과거 질병이 아닌 노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분류되었다가, 사회적 우려가 발생하자 질병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더 나아가 사회적 관심의 증폭 및 다양한 사회적 압력 등이 종합되어 고혈압에 대한 정의는 종전보다 엄격해졌다. 이는 질병의 개념이 사회적 흐름에 의해 변화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질병의 개념은 현대 사회가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먼저 생리적 차원의 이상 증세를 바탕으로 질병을 규정하는 사례로 (다)의 [A]를 볼 수 있다. 파스퇴르와 코흐는 생리적 연구를 통해 이상 증세를 줄이는 해법을 찾아냈고, 결국 천연두를 정복했다고 한다. 이는 질병을 생물학적 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관점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질병의 사회적 규정을 보여주는 사례는 (다)의 [B]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생존 및 생산 활동보다 게임을 우선하는 상태를 새롭게 질병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정상이라고 규정하는 이상향을 기준으로 이와 거리가 먼 상태를 질병적 상태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차원의 질병 개념이 적용된 사례인 것이다.

이처럼 비정상적 상태를 규정하는 질병의 개념은 인간이라는 생리적 실체의 기본적 목표인 생존 개념에 의해 정해지기도 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는 바람직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이 두 차원의 개념은 모두 바람직한,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합의로서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문제해설]

이번 인문계 모의논술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질병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여 질병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식과 관련된 현대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해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출제되었다. 문제의 전반부에서는 천연두가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 방식의 역사를 조선과 청나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지문 (가)와 고혈압이 질병으로 규정되는 과정 및 그 진단 기준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과학지식의 축적과 사회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방식을 소개하는 지문 (나)를 활용하여 질병의 무엇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의 후반부에서는 수험생들이 자신이 제시한 질병 개념과 정합적인 방식으로 자료 (다)의 두 사례(질병의 세균설과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지정)가 자신이 보기에 사회적으로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를 조리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문 (가)는 『조선의 생태환경사』(김동진 지음, 푸른역사, 2017, 287~296쪽)의 내용과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구범진 지음, 까치, 2019, 259~284쪽)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지문 (나)는 고혈압 진단 기준의 역사와 변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설명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자료 (다)의 [A]는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질병의 세균설에 대한 내용으로, 예를 들어 천재교육 세계사 교과서의 236쪽에 소개된 내용이다. [B]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대중매체의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 [대학 채점기준]

#### 1. 평가의 내용

- 1) 지문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질병이 인류의 삶에 끼친 영향과 질병에 대한 인류의 대응의 역사적 특징을 적절히 분석하였는지 여부.
- 2) 지문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질병에 대한 규정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절적하

게 분석하였는지 여부.

- 3) 지문 (가)와 지문 (나)에 대한 자신의 설명과 일관적으로 자료 (다)의 [A]와 [B]를 활용하여 질병 진단 기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구성과 전개	질병이 역사적으로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에 대해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한 지문 (가)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에 더해 지문 (나)에서 서술된 고혈압의 사례를 활용하여 무엇을 질병으로 규정할 것인지와 그 진단기준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까지 포괄하여 질병의 의미를 분석한 후, 그에 입각하여 자료 (다)의 [A]와 [B]를 활용하여 질병 진단 기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		20%
설득력 있는 종합과 창의적인 분석	종합적 설명	지문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질병이 인류의 삶에 끼친 영향과 질병에 대한 인류의 대응의 역사적 특징을 적절히 분석한다.	20%
	종합적 설명	지문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질병에 대한 규정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절적하게 분석한다.	20%
	창의적 적용	앞서 제시한 질병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분석과 정합적으로 자료 (다)의 질병의 세균설이 질병 진단 기준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설명한다.	15%
	창의적 적용	앞서 제시한 질병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분석과 정합적으로 자료 (다)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 지정이 질병 진단 기준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설명한다.	15%
문장과 표현	정확한 단어 및 표현 선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평가한다.		10%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B〉 상-중-하	〈C〉 상-중-하	〈F〉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문 (가)에 소개된 인류 역사에서 질병이 갖는 중층적 의미를 적절하게 분석하였다.</li> <li>② 지문 (나)에 소개된 질병의 역사적, 구성적 성격을 적절하게 분석하였다.</li> <li>③ 자료 (다)의 두 사례가 질병 진단 기준에 대해 갖는 의미를 앞서 제시한 질병에 대한 분석과 정합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③의 내용 중 한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③의 내용 중 두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가지만 충족하거나 논제와 상관없이 피상적 나열에 그친 경우</li> <li>- 700자 미만</li> </ul>

4. 형식상의 감점 내용

(1) 분량 및 어문 규정

길이	1,150자 이상	1,250자 초과	1,000자 이상	950자 이상	900자 이상	850자 이상	800자 이상	750자 이상
	1,250자 이내		1,150자 미만	1,000자 미만	950자 미만	900자 미만	850자 미만	800자 미만
	감점 없음	-1점	-1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원고지사 용법·어문 규정	상(0-2개 틀림)		중(3-5개 틀림)			하(6개 이상 틀림)		
	감점 없음		-1 ~ -2점			-3 ~ -5점		

(2) 내용 조직

-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 내의 형식적·내용적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점

5. 유의 사항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나열하는 것은 감점 요인임.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 반영함.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자료 (다)의 의미 추론에 대한 평가에서는 창의성과 논리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함.

[대학 우수답안1] 1,242자

제시문 (가)와 (나)를 통해 질병은 내적, 외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국가적 차원에서 가능한 빨리 치료법을 찾아내 대책을 마련하고 사람들이 예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는 가축인 소로부터 발생된 두창 바이러스로 인해 시력을 상실하고 피부가 곰보가 되게 하는 전염병인 천연두에 관한 글이다. 소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가축이었으나 소에게서 발생된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당시의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구, 가축 수와 위생상황이 불결하고 의료 체계가 좋지 않은 실정에 전염병인 천연두는 더욱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반면 만주인은 인체 실험을 통해 치료법을 찾아냈고, 그로 인해 천연두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통제 가능한 질병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질병은 지속적인 실험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 고혈압은 원래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질병으로 지정되었다. 질병인지 나이가 늙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의견이 분분하던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죽음 이후, 혈압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그 후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밝혀진 것이다. 이전에는 질병이 아닌 것이 죽음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진 후에 질병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의 [A]에서는 전근대적인 관점에서 세균이 어떠한 질병이나 특정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세균이라는 원인을 찾아내고 없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B]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신체적 내, 외적 증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 또한 질병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21세기는 스마트폰과 여러 전자기기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제시문 (가)에서 소의 등장과 개체 수 증가로 인해 질병이 발생함과 같이 전자기기의 등장과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다. 생존을 위한 활동과 사회적 활동보다 다른 부차적인 것을 우선시한다면 건강과 생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질병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단순하게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반발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방책과 치료법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학 우수답안2] 1,201자

'질병'은 오늘날 가까운 존재가 되어있다. 이러한 '질병'에 대해 대부분은 '아픔'이라는 정도의 개념을 생각한다. 제시문 (가)의 천연두와 같은 질병은 소와 같이 일상적 변인에서 발생하여 국지적으로 사람들을 고통과 공포에 몰아넣기도 한다. 또한, 제시문 (나)의 고혈압과 같은 질병은 과거부터 일상에 존재했지만,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뒤늦게 정의되기도 한다. 또한 천연두와 같이 발병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질병이 있고, 고혈압과 같이 사회 속 이해관계를 고려해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질병이 있다. 즉, 일상 시에 균에 감염이 되거나 병이 발병하여 당장 환자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건강하다고 인지해도, 언제든지 발병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환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의 특징을 통해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질병이란, 일상에 잠입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일상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또한, 사회 속 이해관계로 인해 언제든지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질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어 '질병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질병의 여부는 (다)의 [A]에서 파스퇴르와 코흐가 연구한 바와 같이 감염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고전적인 질병 여부 판단법으로, 증상이 가시적인 질병에 대한 여부만 판단 가능하다. 하지만, [B]의 게임이용 장애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의 발달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 가시적이지 않은 질병도 존재한다. 이러한 질병은 환자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으나, 사회에서 새롭게 정의하여 제시한 발병 기준에 의해 정의된 질병이다. 종합적으로, '질병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면, 질병 여부는 가시적인 증상을 이용한 기준, 혹은 증상이 가시적이지 않은 질병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판단 기준에 대해 본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는 두 개의 기준을 모두 수용하여 질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사회와 기술 발달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질병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가시적인 증상만을 통해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면, 사회는 새롭게 등장한 병리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도, 그 현상에 종속된 사람을 구제할 수도 없다. 우리 사회는 두 기준을 중용하여 새 질병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대학 우수답안3] 1,235자

제시문 (가)는 천연두에 대한 조선과 청나라의 인식 차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강렬한 후유증,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천연두는 농민들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소'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으로, 17세기 이후 소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병률이 대폭 증가하였다.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항체 이용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천연두를 불치병으로 여기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청나라 황제 강희제의 천연두 극복 의지 덕분에 인체 실험으로 만들어진 항체를 통한 예방 접종이 성행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천연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지자 공포가 줄어들어 단순 전염병 취급하게 되었다.

제시문 (나)는 미국인들의 고혈압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고혈압이 질병인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이후 대통령 사망원인이 고혈압으로 밝혀지면서 고혈압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었고, 고혈압의 범위가 규정되고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들이 제시되면서 마침내 고혈압을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위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질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질병은 그 여파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에 따라,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발생하는가에 따라 그 중요성이나 의미가 변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의 [A]는 과거에는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천연두가 의학 발전에 따라 완전히 퇴치되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공식적으로 종식이 선언된 상황이다. 한편 [B]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병균에 의한 질병이 아닌 '게임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규정된 현대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A]와 같이 세균에 의해 발병되는,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감염'만을 질병으로 판단하였다. 강희제의 인체실험은 질병 치료를 위한 항체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으므로,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질병을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B]는 세균 감염에 의한 병이 아닌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현상인 게임이용 장애'마저 질병으로 규정하여 질병 판단 기준이 많이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질병 판단 기준이 '개인의 감염여부'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가'로 확대할 필요성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현대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조선의 천연두는 감염여부와 별개로 사회를 마비시킬 정도의 영향을 끼쳤으므로 질병으로 보고, 고혈압은 후유증에 대한 사회의 공통된 우려를 유발하므로 질병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 한양대(메리카) 2019학년도 인문 기출 모전 1번

☞ 제시문 <다>를 참고하여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 나타난 비용과 편익 비교에 근거한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500자, 40점)

<가>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이때의 비용은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음악회 표 한 장을 공짜로 얻었다고 하자. 공짜 표를 얻었다고 좋아하지 않는 음악인에도 무조건 보러 간다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시간에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예를 들어 한 시간 동안 경제를 공부하기로 선택한 순간 수학 공부의 포기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경제를 공부할 때 얻는 편익이 기회비용, 즉 수학을 공부할 때의 편익보다 컸다면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공부를 해서 얻는 편익이 선택하지 않은 수학 공부에서 얻는 편익보다 클 때, 다시 말해 선택에 따른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클 때 비로소 경제 공부를 선택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순편익이 0보다 클 때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말한다.

<나>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져 전치 3주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자. 그의 변호사는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 슈퍼마켓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슈퍼마켓 주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

판사는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위한 세 가지 요인으로 사고 발생의 가능성(P),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의 정도(L),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C)을 구분했다. 이 구분에 근거해 그는 사고에 따른 손해 또는 손실 비용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초과하면 피고는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나타내면  $P > C$ 이면 피고는 과실 책임이 있다.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질 확률이 20퍼센트라고 하자. 그리고 이때 입은 손해가 병원비, 결근에 따른 손해,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 등을 고려해 2천만 원이라고 하자. 따라서 P은 4백(0.2,000=400)만 원이 된다. 만일 슈퍼마켓이 4백만 원 이하로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슈퍼마켓은 분명한 과실 책임이 있다.

<다>

새만금 사업에서 갯벌의 가치와 관련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변경에 대해, 다수 의견은 계획 수립 당초에는 갯벌의 가치가 고려되지 않았지만 이후 민관공동조사단의 분석에서는 갯벌의 가치를 반영한 경제성 분석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민관공동조사단은 갯벌의 가치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전체 사업의 편익과 손실을 10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모두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비록 이 가운데 어느 시나리오나 특정 항목에 잘못이 있다고 하라도 전체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민관공동조사단의 분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류를 지적하는 비판이 많고 방법 등에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담수호 수질 관리를 위한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갯벌이 지니는 다양한 가치가 경제성 분석에 객관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갯벌의 가치는 더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고, 방조제 완공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보충의견을 통해, 반대의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뒤엎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새만금 사업 같은 국가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을 판단하는 데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의 가치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국가적·사회적 편익과 같은 공익상의 가치도 충분히 참작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다>를 참고하여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 나타난 비용과 편익 비교에 근거한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500자, 40점)

[독해]

- (가) 선택의 편익과 기회비용을 비교하여 순편익이 양수가 되면 합리적 선택이 됨
- (나) 사고발생가능성(P) \* 손해정도(L) > 사고예방비용(C) ⇨ 피고의 과실 책임 발생
- (다) 무형의 가치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음 ⇨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분석의 불안정성

[논리평면]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평가
기준	(다)	사회적 문제: 무형의 가치 개입 불가피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분석 ⇨ 불안정성	B
대상	(가)	비용-편익 분석으로 합리성 측정	분석 결과의 불안정성 발생	b
대상	(나)	사고상황 관련 요소들을 측정하여 계산		b

[예시답안] 552자

사회적 문제는 복잡해서 어떤 선택에 대한 합리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들다. 제시문 (다)에는 환경 개발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양측의 주장이 제시되는데, 양 측 모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요소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사회적 문제에 금액으로 쉽게 환원될 수 없는 가치들이 다양하게 개입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선택이 확정적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시문 (가)와 (나)에서 보여주는 합리적 판단들은 모두 위에서 언급한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먼저 (가)에는 합리적 선택의 원리가 제시되는데, 선택을 통해 발생한 비용이 기회비용보다 클 때 합리성이 담보된다고 한다. (나)에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하여 사고발생가능성과 손해정도 등을 측정하여 비교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 판단에 개입되는 요소들을 계량화하는 사고방식이 적용된 결과로서 측정불가능한 무형의 가치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는 무형의 가치의 개입으로 계산의 확실성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대학 채점기준]

배점	근거
36-40	1) 제시문 <가>와 <나>는 편익과 비용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밝힌 경우. 2) 제시문 <다>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통해 무형의 가치로 인해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분석은 적절치 않음을 밝힌 경우. 3) 제시문 <가>에서 편익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양한 기회비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없음을 밝힌 경우. 4) 제시문 <나>에서 사고발생가능성(P)와 손해정도(L)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있으며, 예방비용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함을 밝힌 경우.
31-35	1)~4) 중 어느 한 항목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26-30	1)~4) 중 두 항목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21-25	1)~4) 중 세 항목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20이하	· 1)~4) 중 네 항목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 250자 미만은 0점 처리.

[대학 우수답안] 493자

제시문 <가>와 <나>는 선택이나 판결과 같은 의사결정에 비용과 편익의 비교가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시문 <다>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비용과 편익의 비교에 의한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는 적지 않은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먼저 제시문 <가>의 경우 합리적 선택에서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회비용은 선택에 따라 포기한 여러 대안들 중 하나에 대해 정의되므로 기회비용으로 산정해야할 선택을 명시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의 경우 사고 예방의 편익 계산을 위해 사고 확률 P와 사고로 인한 손실 L을 상정하고 있는데 확률 설정에 주관성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손실 비용도 피해자의 주장에 의존하고 있어 사고 예방 편익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사결정에서 비용과 편익 비교의 합리성이 맹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한양대(메리카) 2019학년도 인문 기출 모전 2번

- ☞ 제시문 <가>에서 설명된 양적 연구 방법을 요약한 후,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참고하여 양적 연구 방법의 시행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를 참고하여 양적 연구 방법을 현실에 적용할 때 한계점에 대해 논하시오. (800자, 60점)

### <가>

사회·경제 현상에 대한 과학과 상식 간의 차이는 그것이 엄밀하게 정해진 연구 방법을 통해 얻어진 지식인지 아닌지에 있다. 연구 방법이 중요한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과학에서 널리 활용되는 연구 방법 중 하나로 양적 연구 방법을 들 수 있다.

양적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의해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란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그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할 때에는, 먼저 기업 경영의 효율성은 투입 노동량 대비 생산량으로, 기업 가치는 주식 시장에서 그 기업 주식의 가격으로 수치화한다.

그리고 투입 노동량 대비 생산량과 주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통계 기법을 통해 둘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여기서 기업 경영의 효율성은 독립 변수, 기업 주식의 가격은 종속 변수가 되며, 각각 원인과 결과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반화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만일, 기업의 효율성과 주가가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밝혀진다면, 기업의 노동 생산 효율성 정도를 통해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분석은 효율성이 높은 기업의 주가가 예측된 주가보다 낮은 경우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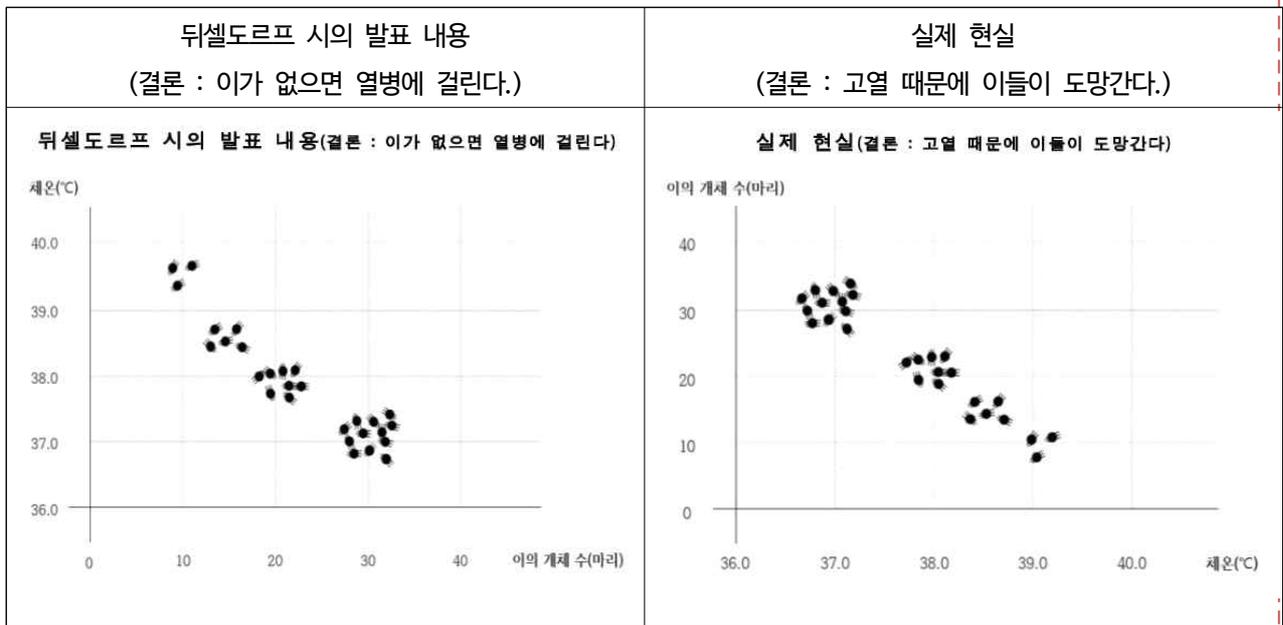
1809년, 뒤셀도르프 시에 전염병이 발생해 수백 명의 시민이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희생자들은 주로 가난한 수공업자와 그 가족들이었다. 워낙 갑자기 닥친 사태라 의사들도 미처 손을 쓰지 못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 당국은 해당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위원회 소속 의사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망자들의 시신과 침상을 검사했다. 유가족들의 옷가지와 잠자리도 검사 대상이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가족들의 옷과 침대에는 이(lice)가 버글거렸지만 망자의 몸과 침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사태를 냉철하게 분석한 뒤 몸에 이가 있는 사람은 열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시 당국은 그 결론을 바탕으로 ‘뒤셀도르프 칙령’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뒤셀도르프 시민에게 고함 -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몸에 이를 키우시오! 이가 없는 자들은 이가 있는

친척이나 이웃이 착용했던 옷을 구해서 입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가 들끓는 침상에서 잠을 자도록 하시오!”

그런데 칙령을 발표한 이후에도 병마가 근절되지 않았다. 열병은 도시 뒷골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번져 나갔다. 그러던 중 쾰른의 어느 의사가 실험을 통해 이와 열병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냈다. 그 의사는 이가 버글거리는 침대의 절반은 뜨거운 벽돌을 이용해서 데우고 나머지 절반은 차갑게 해두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들이 모두 차가운 곳으로 도망쳤다. 이를 통해 의사는 이 때문에 열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열이 이를 내쫓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뒤셀도르프 시 당국은 원인과 결과를 서로 뒤바꾸어 판단했다. 다음 두 그래프는 시 당국의 발표 내용과 실제 상황을 차례로 나타낸 것이다.



<다>

2005년 무렵부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니컬러스 네그로폰테는 ‘한 명의 어린이에게 한 대의 노트북을!’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 세계 어린이들,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어린이들에게 노트북을 무상으로 지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 기업의 협찬으로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어 노트북이 지급되었다. 예를 들어 페루에서는 200억 원의 돈이 이 정책에 투입되었다. 당시에는 노트북을 받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노트북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성적과 사고력이 향상된다’는 믿음이 퍼졌다. 그러나 2009년 미주 개발은행(IDB)이 페루에서 무작위비교시행으로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트북 지급 프로그램이 어린이의 성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작위비교시행이라는 통계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지 않은 이전 분석의 경우 노트북을 갖고 싶다고 손을 들었던 학생에게만 노트북을 무상으로 지급하고는 노트북을 받지 않은 학생과 성적을 비교하였다. 즉 학습 의욕이 노트북 지급과 성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분석했던 것이다.

<라>

새로운 정책의 효과를 예측할 때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양식을 근거로 하여 달라진 정책의 효과를 알아내고자 한다. 이는 정책이 달라지면 행동양식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양식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면 새로운 정책이 가져올 인간행동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필립스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실제로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산포도로 그려보니 우하향하는 관계 즉,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하자. 그러한 관찰로부터 물가상승률을 높이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정책당국자가 실제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썼다면 처음에는 실업률이 좀 하락할 수도 있으나 물가상승률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노동 공급이라는 행동양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실업률은 다시 원상태로 높아진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함에 따라 필립스곡선 자체가 상향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썼던 인플레이션 정책이 실업률은 낮추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만 높여 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마>

‘머니볼’이라는 용어는 마이클 루이스가 금융계의 통찰력을 야구에 적용한 내용으로 2003년에 발표한 베스트셀러『머니볼』에 등장한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값비싼 스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없는 작은 팀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오히려 부유한 뉴욕 양키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승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을 서술했다. 빌리 빈 단장이 이끄는 애슬레틱스는 통계학적 분석을 사용해서 야구계에서 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을 가려내고 인습적인 야구지식에서 벗어난 전략을 구사해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경쟁력 갖춘 팀을 구성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빈은 타율이나 장타율보다는 출루율이 높아야 승리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몸값이 비싼 강타자보다 지명도는 떨어지지만 포볼을 많이 얻어냈던 선수를 영입했다.

빈의 전략은 최소한 얼마간의 성공을 거두었다. 2002년 루이스가 팀을 따라가서 경기를 관람했을 당시 애슬레틱스는 아메리칸리그 서부 지구에서 우승했다. 비록 월드시리즈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애슬레틱스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같았다. 자금력이 부족하고 전력이 열세인 팀이 현대 계량경제학을 사용해 양키스 같이 부유한 최강팀과 경쟁했기 때문이다. 또한 애슬레틱스의 이야기는 현명한 투자가라면 시장 비효율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실례였다.

하지만 상황은 애슬레틱스에게 마냥 호의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애슬레틱스는 2006년에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이후로 한 시즌도 승리하지 못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이유는 머니볼 전략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타석에서 인내심을 발휘해 포볼을 많이 얻어내는 선수들의 연봉에는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데 공헌한 정도가 반영되었다. 따라서 빈이 활용했던 시장 비효율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 제시문 <가>에서 설명된 양적 연구 방법을 요약한 후,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참고하여 양적 연구 방법의 시행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를 참고하여 양적 연구 방법을 현실에 적용할 때 한계점에 대해 논하시오. (800자, 60점)

[논제분석]

□ 제시문 안에 있는 특정 내용을 정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건부 요약 유형이다.

본 논제의 유형이 무엇인지 고민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이다. 다양한 제시문이 등장하지만, 비교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같은 편끼리 분류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며, 특정 제시문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제시문에 적용하라는 추론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그저 다양한 조건에 맞춰 요약을 하되, 전체 글을 유기성 있게 연결하면 되는 유형의 문제였다. 독특하고 보기 드문 조건부 요약형 문제라고 보면 된다.

[독해] 논제의 요구를 고려하여 요약

- (가) 양적 연구 방법: 대상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일반화된 지식 습득
- (나) 연구 유의 사항 1: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인하여 현실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할 수 있다.
- (다) 연구 유의 사항 2: 단순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여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 (라) 연구 적용의 한계점 1: 연구 대상의 핵심 특성이 변화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 (마) 연구 적용의 한계점 2: 연구 성과가 사회적으로 전파되어 일반적 지식이 되면 연구 효과가 하락할 수 있다.

[논리평면] & [예시답안] 요약 유형 ⇒ 생략

[대학 채점기준]

배점	근거
56-60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양적 연구방법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인과관계 설정을 포함하여 적절히 요약 설명. 2) 제시문 <나>에서 인과관계 방향 설정을 언급. 3) 제시문 <다>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 4) 제시문 <라>에서 연구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때 연구 분석 대상의 행태가 정책에 의해 변화될 경우 정책적 예측이 어긋날 가능성을 언급

	5) 제시문 <마>에서 분석 결과가 일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그 유용성이 줄어들을 언급.
51-55	1)~5) 중 어느 한 항목을 언급하지 않거나 적절한 답이 아닌 경우.
46-50	1)~5) 중 두 항목을 언급하지 않거나 적절한 답이 아닌 경우.
41-45	1)~5) 중 세 항목을 언급하지 않거나 적절한 답이 아닌 경우.
31-40	1)~5) 중 네 항목을 언급하지 않거나 적절한 답이 아닌 경우.
30이하	· 1)~5) 중 다섯 항목을 언급하지 않거나 적절한 답이 아닌 경우. · 400자 미만은 0점 처리.

[대학 우수답안] 798자

양적 연구 방법이란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의해 계량화된 자료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상정하여 그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반화된 지식을 얻는 연구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양적 연구 방법에서 인과관계의 설정은 보기보다 쉽지 않다. 제시문 <나>는 드러난 현상의 관찰만으로 사람들에게 이가 많으면 열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이 큰 실패를 초래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양적 분석에서 인과관계의 설정은 논리적 이론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시문 <다>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나타난 비례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에 불과한 상황을 보여준다. 학습의욕이 있는 어린 이가 노트북을 갖고자 하고 동시에 성적이 향상되는 경우 노트북 소유와 성적향상은 비례적 관계를 보이지만 노트북 소유가 성적향상의 원인은 아니다. 이는 성적향상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노트북 소유 이외에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요소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 양적 연구 방법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실에 활용할 때는 그 한계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라>에 따르면 양적 연구 방법에 의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행되는 경우 연구 대상 행태 자체가 정책에 의해 변화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정책적 효과는 양적 연구 방법이 예측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 제시문 <마>와 같이 분석 결과가 일반적 지식이 되는 경우 그 지식의 유용성이 줄어들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항공대학교 2019학년도 기출 1번

☞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 대조하여 그 요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 다)와 라)를 해석하시오. (700자 내외, 띄어쓰기 제외)

가)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나와 바위에 부딪치며 사납게 흘러간다.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결, 구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은 내달리고 부딪치고 뒤엎어지며 울부짖고 으르렁대고 소리지르니, 언제나 만리장성마저 꺾어 무너질 기세가 있다. 1만 대의 전차와 1만 마리의 기병, 1만 대의 대포와 1만 개의 북으로도 그 무너질 듯 압도하는 소리를 비유하기엔 충분치 않다. 모래 위에는 큰 바위가 저만치 우뚝 떨어져 서 있다. 강가 독엔 버드나무가 어두컴컴하고 흐릿하여 마치 물 밑에 있던 물귀신들이 앞다투어 튀어나와 사람을 놀라게 할 것만 같다. 양옆에서는 교룡(蛟龍)과 이무기가 확 붙들어 낚아채려는 듯하다. 어떤 이는 이곳이 옛 싸움터인지라 황하가 이렇듯이 운다고 말하기도 하나,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강물 소리는 어떻게 듣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내 집은 산 속에 있는데, 문 앞에는 큰 시내가 있다. 매년 여름에 소낙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시내물이 사납게 불어 항상 수레와 말이 내달리고 대포와 북소리가 들려와 마침내 귀가 멍멍할 지경이 되었다. 내가 일찍이 문을 닫고 누워 비슷한 것에 견주어 이를 듣곤 하였다. 깊은 소나무에서 나는 통소 소리는 맑은 마음으로 들은 것이요,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소리는 성난 마음으로 들은 것이다. 개구리 떼가 앞다투어 우는 소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들은 것이고, 1만 개의 축(筑)이 차례로 울리는 소리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천둥이 날리고 번개가 내리치는 소리는 놀란 마음으로 들은 까닭이요, 찻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는 운치 있는 마음으로 들은 때문이다. 거문고의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어우러지는 소리는 슬픈 마음으로 들은 것이요, 문풍지가 바람에 우는 소리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은 탓이다. 듣는 소리가 모두 다 바름을 얻지 못한 이유는 단지 마음속에 생각을 펼쳐 놓고서 귀가 소리를 만들기 때문일 뿐이다.

이제 나는 한밤중에 한 줄기 황하를 아홉 번 건넜다. 황하는 장성 밖에서 나와 장성을 뚫고서 유하와 조하, 황화와 진천 등 여러 물줄기를 한데 모아, 밀운성 아래를 지나면서는 백하가 된다. 나는 어제 배를 타고서 백하를 건넜는데, 이곳의 하류이다.

내가 아직 요동 땅에 들어서지 않았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 불벌 속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강물이 앞에 나오는데, 붉은 파도가 산처럼 일어서며 그 끝 간 데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대개 천 리 밖에 폭우가 내린 때문이었다. 물을 건널 때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기에, 혼자 생각에 사람들이 고개를 우러러 하늘에 묵묵히 기도를 드리려는 듯싶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물을 건너는 사람이 물이 세차게 거슬러 올라가며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제 몸조차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은 강물을 따라 쫓아 내려갈 것만 같아 문득 어쩔해지며 빙글 돌아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봄은 하늘에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다. 또한 어느 겨를에 경각(頃刻)에 달린 목숨을 묵묵히 빌겠는가.

위태롭기가 이와 같은데도 강물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요동 평야는 평평하고 광활하기 때문

에 물줄기가 성내 울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황하를 모르고서 하는 소리다. 황하가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낮에는 능히 물을 볼 수가 있다. 눈이 온통 위험한 데로만 쏠려서 바야흐로 부들부들 떨려 도리어 그 눈이 있음을 근심해야 할 판인데 어찌 물소리가 들리겠는가? 이제 내가 한밤중에 강물을 건너매, 눈에 위태로움이 보이지 않자 위태로움이 온통 듣는 데로만 쏠려서 귀가 바야흐로 덜덜 떨려 그 걱정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이제야 도를 알았다.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한 사람은 귀와 눈이 탈이 되지 않고, 눈과 귀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더더욱 병통(病痛)이 되는 것임을.

(중략)

소리와 빛깔은 바깥 사물이다. 바깥 사물이 항상 눈과 귀에 탈이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험하고 위태로움이 황하보다 심하여 보고 듣는 것이 온통 병통이 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내 장차 내 산속으로 돌아가 다시 앞 시내의 물소리를 듣고 이를 살펴보아, 장차 몸놀림에 교묘하여 스스로 총명하다고 믿는 자를 경계하리라.

나)

침묵의 숲이 잔기침을 하면서 한 꺼풀씩 깨어나고 있다. 뒤꼍 고목나무에서 먹이를 찾느라고 쪼아 대는 딱따구리 소리가 자주 들리고, 산비둘기들의 구우구우거리는 소리가 서럽게 서럽게 들려오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숲을 찾아오는 저 휘파람새, 할미새가 뜰에 내려와 까불까불 가벼운 몸짓으로 인사를 한다. 저 아래 골짜기에서부터 안개처럼 보양계 새 움이 터서 밀물처럼 산허리로 올라오고 있다.

머지않아 숲에는 수련수련 신록(新綠)의 문이 열리리라. 그때는 나도 숲에 들어가 한 그루 정정한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들처럼 새 움을 틔우고 가지를 뻗으면서 연둣빛 물감을 풀어내고 싶다. 가리워 둔 속 뜰을 꽃처럼 활짝 열어 보이고 싶다.

허허, 이 봄날이 나를 흔들려고 하네.

귀는 항시 듣던 소리를 즐거워하고 눈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한다는 말은 그럴 법하다. 음악을 듣더라도 귀에 익은 곡만을 즐겨 듣고, 새것을 찾아 눈은 구경거리의 발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귀는 좀 보수적이고 눈은 제법 진보적인 셈이다.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찝찝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날날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 관념(固定觀念)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 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 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견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틀에 생기가 돌 것이다.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열리는 법이다.

인도의 철학자인 크리슈나무르티는 그의 저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보는 법을 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보면 된다.

그 어떤 고정 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허심탄회 빈 마음으로 보라는 것. 남의 눈을 빌릴 것 없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다)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느 님 오리마는  
지는 앞 부는 바람에 행여 권가 하노라

라)



페르난도 보테로의 『12세의 모나리자』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 대조하여 그 요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 다)와 라)를 해석하시오. (700자 내외, 띄어쓰기 제외)

[독해]

- (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감각 정보는 다르게 처리되고, 이에 따라 인식의 결과도 달라진다.
- (나) 보는 각도를 달리하면 새롭고 아름다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
- (다) 입을 향한 그리움에 갇혀 모든 감각이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 (라) 모자리자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탄생시켰다.

[논리평면] 비교,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감각에 대한 관점	인식 결과
기준	(가)	마음을 비우고 감각에서 벗어날 때	혼란을 벗어날 수 있다
대상	(다)	사랑하는 마음에 갇혀 있으니	감각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기준	(나)	시각의 각도를 달리할 때	아름다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대상	(라)	‘모나리자’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색다른 아름다움을 구현해 냈다

[예시답안] 723자

제시문 (가)와 (나)는 감각에 대한 관점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인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그 관점 변화의 방향과 인식 결과는 사뭇 다르다.

먼저 (가)는 마음을 비워 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두려운 마음을 안고 황하를 건너면 온갖 무서운 소리에 갇히게 되니,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황하를 건너면 무서운 소리에서 벗어나 혼란을 면할 수 있다.

반면 (나)는 보는 각도를 달리 할 때, 대상의 아름다운 면모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동일한 산봉우리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데, 이처럼 진부한 시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바라보면 평소보다 더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가)의 인식을 보여주는 제시문은 (다)이다. (다)에는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작은 일에도 착각이 생기는 모습이 나타난다. 입을 보고 싶은 마음에 작은 나뭇잎의 움직임에도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는 안정되지 못한 마음으로 감각 안에 갇혀 올바른 인식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인식을 보여주는 제시문은 (라)이다. (라)에는 모자리자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탄생시킨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 모나리자에 대한 기존의 시선을 거두고, 모나리자의 체형과 나이를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 색다른 작품을 만든 것이다. 이는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해 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채점기준]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비교 대조에 의한 요약(20점)

- 비교 대조의 개념을 숙지하고 글을 분석하는 데 적절히 적용했는가?
- 제시문 가)와 나)의 요약 과정이 논리적인가?
- 제시문 가)와 나)의 요약 내용이 적절한가?

제시문 다)와 라)에 대한 작품 해석(20점)

- 제시문 다)와 라)를 해석하는 데 제시문 가)와 나)의 요약을 적절히 적용하고 있는가?
- 제시문 다)와 라)의 해석 내용이 적절한가?
- 제시문 다)와 라)의 해석 과정이 논리적인가?

글의 완성도(10점)

- 분석한 내용을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로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는가?
- 문단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는가?
- 문장을 바르게 쓰고 있는가?
-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대학 예시답안] 1,049자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감각을 문제 삼는데, 양자는 모두 ‘텅 빈 마음’으로 이어진다. 가)에서는 청각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그것은 시각을 포함한 감각 일반을 대표한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이다. 나)는 시각(만)을 문제 삼는다. 눈의 시각을 달리할 때, 사물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러한 변화는 결국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 자동화된 감각은 고정관념(선입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감각을 새롭게 할 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세상(사물)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관점)을 갖게 된다.

가)와 나)에서 글쓴이는 모두 감각적 체험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한다. 마음을 비우고 사물(이 나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양자의 결과는 다르다. 가)에서는 감각에서 벗어날(감각을 배제할) 때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감각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글쓴이에게 중요한 것은 감각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이다. 하지만 나)에서 시각은 배제해야 할 것이 아니다. 감각은 열어서 늘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그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인간 이해와 삶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에서 지은이는 사랑에 빠져 있어 마음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 낙엽이 떨어지자 님이 오시는 것으로 착각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감각을 혼란시킨 결과이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더 어리석다고 한탄한다. 이는 제시문 가)와 연관된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면,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나)와 연관이 깊다. 라)는 여러 점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다. 그것은 균형 잡힌 인체를 작품의 대상

으로 삼고 있지 않다. 도리어 똥똥하다. 거기에 통상 아름다운 여인의 표준처럼 여기는 모나리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통상적인 사고(고정관념, 선입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대상이나 그 작품을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달리한 결과다.

## 항공대학교 2019학년도 기출 2-1번

☞ 제시문 가)와 <표 1>, <표 2>, <표 3>을 활용하여 선진국 G7의 환경에 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시오. (300자 내외, 띄어쓰기 제외)

가)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있다.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CO<sub>2</sub>)를 포함하는 여섯 가지 기체이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이나 개발도상국의 참여 등의 문제로 선진국 간, 선진국 개발도상국 간에 의견 차이가 심했다. 하지만 결국 이 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된다. 2008~2012년까지의 1차 공약기간이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으며,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감축 할당량 기준년도) 수준보다 최소한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 의정서의 의무 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7개국으로,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채택 당시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몇몇 선진국들이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캐나다, 일본, 러시아가 탈퇴하였다. 그 결과 의무 감축 대상국은 유럽연합과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를 비롯한 37개국이 되었다. 한국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표 1> OECD<sup>1)</sup>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 국가

국가	배출량(백만톤)	1990년 이후 증가율(%)
미국	5583.4	9.5
일본	1240.6	8.7
독일	810.4	-22.2
대한민국	589.4	138.7
캐나다	557.3	21.4
멕시코	466.6	48.4
영국	464.0	-21.5
이탈리아	413.4	-4.9
오스트레일리아	398.2	44.2
프랑스	364.8	-8.5
터키	345.7	144.2
폴란드	327.7	-12.6
스페인	280.9	23.5
네덜란드	168.1	5.5
체코	115.1	-30.1

(출처: UN 통계국, 2011년)

주1)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29개국으로 구성

<표 2> OECD 국가 중 1990년 이후 이산화탄소 증가율 상위 국가

국가	배출량(백만톤)	1990년 이후 증가율(%)
터키	345.7	144.2
대한민국	589.4	138.7
아이슬란드	3.3	54.3
멕시코	466.6	48.4
오스트레일리아	398.2	44.2
뉴질랜드	33.3	33.5
노르웨이	44.6	27.8
스페인	280.9	23.5
캐나다	557.3	21.4
아일랜드	37.7	16.3
포르투갈	51.2	13.6
그리스	94.3	13.6
오스트리아	70.4	13.4
미국	5583.4	9.5
일본	1240.6	8.7

(출처: UN 통계국, 2011년)

<표 3> OECD 국가 중 G7<sup>2)</sup> 과 G7 이외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교

국가	평균 배출량(백만톤)	1990년 이후 증가 총량(백만톤)
G7	1347.7	266.2
G7 이외 국가	153.8	778.1

(출처: UN 통계국, 2011년)

주2) 선진국 중 가장 크고 발전된 경제체제를 갖는 국가의 모임으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으로 구성됨.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가)와 <표 1>, <표 2>, <표 3>을 활용하여 선진국 G7의 환경에 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시오. (300자 내외, 띄어쓰기 제외)

[독해]

(가) 선진국(미국, 러시아, 일본 등) ⇒ 탈퇴 - 의무 이행 수준 낮음

<표 1> G7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최상위 국가에 포진되어 있고, 일부 국가들은 증가율도 높음  
반면, 유럽권 선진국(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했음

<표 2> 터키, 대한민국, 멕시코 등 신흥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도 높음

<표 3> G7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그 외의 국가보다 적지만, 절대적인 배출량이 월등히 많음

[논리평면] 조건부 요약 ⇒ 생략

[예시답안] 425자 (공백 제외 324자)

환경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현재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은 높은 편이다. <표 1>에 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이 배출가스 배출량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표 3>에 나오듯 G7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 외의 국가에 비해 10배 가깝게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에 나타나듯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는 자국 산업 보호 명목으로 기후 보호 협약에서 탈퇴했다. 물론, <표 2>에 나타나듯 대한민국, 터키 등의 신흥국들에서 보이는 이산화탄소 증가율은 환경에 위협적인 수준이지만 종합적으로는 여전히 선진국의 배출량이 월등히 높다. 그래도 유럽권 선진국은 선도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을 보면 독일, 영국 등의 유럽권 선진국들은 환경 합의 이후 눈에 띄는 수준의 배출가스 감축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1	<p>종합적 분석 (1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문항 해설에서 제시한 ①~⑤까지의 내용을 모두 언급하였다면 13-15점 (단, ①, ②, ⑤는 꼭 들어가야 함)</li> <li>■ 위에 제시한 ①~⑤까지의 내용 중 4개를 언급하였다면 11-12점 (단, ①, ②, ⑤는 꼭 들어가야 함)</li> <li>■ 위에 제시한 ①~⑤까지의 내용 중 3개를 언급하였다면 9-10점 (단, ①, ⑤는 꼭 들어가야 함)</li> <li>■ 위에 제시한 ①~⑤까지의 내용 중 2개 이하 언급하였다면 8점 이하</li> </ul> <p>※ 13-15, 11-12점 등 구간 내의 평가는 해당 단락의 전반적인 논리의 흐름과 완성도, 창의적 해석 등을 고려하여 구간 내에서 차등 채점함.</p>	15점

[대학 예시답안] 397자

전반적으로 G7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1>의 배출량 상황을 보면 G7 모두 상위 15위 안에 존재하고 <표 3>의 평균 배출량을 보더라도 G7 이외 국가 대비 약 9배의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 2>와 <표 1>의 감축 기준년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미국, 캐나다, 일본의 경우 공약기간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감축노력에 매우 소극적이다. 제시문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나라는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결국 탈퇴하였다. 반면 <표 1>의 증가율, <표 3>의 1990년 이후 증가 총량, 그리고 <표 2>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유럽권(EU 소속)의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의 경우 감축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판단된다.

## 항공대학교 2019학년도 기출 2-2번

☞ 제시문 가)와 <표 1>, <표 2>, <표 3>, <표 4>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2-1]을 고려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개인의 실천 방안을 논술하시오. (500자 내외, 띄어쓰기 제외)

가)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있다.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CO<sub>2</sub>)를 포함하는 여섯 가지 기체이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이나 개발도상국의 참여 등의 문제로 선진국 간,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에 의견 차이가 심했다. 하지만 결국 이 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된다. 2008~2012년까지의 1차 공약기간이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으며,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감축 할당량 기준년도) 수준보다 최소한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 의정서의 의무 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7개국으로,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채택 당시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몇몇 선진국들이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캐나다, 일본, 러시아가 탈퇴하였다. 그 결과 의무 감축 대상국은 유럽연합과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를 비롯한 37개국이 되었다. 한국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표 1> OECD<sup>1)</sup>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 국가

국가	배출량(백만톤)	1990년 이후 증가율(%)
미국	5583.4	9.5
일본	1240.6	8.7
독일	810.4	-22.2
대한민국	589.4	138.7
캐나다	557.3	21.4
멕시코	466.6	48.4
영국	464.0	-21.5
이탈리아	413.4	-4.9
오스트레일리아	398.2	44.2
프랑스	364.8	-8.5
터키	345.7	144.2
폴란드	327.7	-12.6
스페인	280.9	23.5
네덜란드	168.1	5.5
체코	115.1	-30.1

(출처: UN 통계국, 2011년)

주1)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29개국으로 구성

<표 2> OECD 국가 중 1990년 이후 이산화탄소 증가율 상위 국가

국가	배출량(백만톤)	1990년 이후 증가율(%)
터키	345.7	144.2
대한민국	589.4	138.7
아이슬란드	3.3	54.3
멕시코	466.6	48.4
오스트레일리아	398.2	44.2
뉴질랜드	33.3	33.5
노르웨이	44.6	27.8
스페인	280.9	23.5
캐나다	557.3	21.4
아일랜드	37.7	16.3
포르투갈	51.2	13.6
그리스	94.3	13.6
오스트리아	70.4	13.4
미국	5583.4	9.5
일본	1240.6	8.7

(출처: UN 통계국, 2011년)

<표 3> OECD 국가 중 G7<sup>2)</sup> 과 G7 이외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교

국가	평균 배출량(백만톤)	1990년 이후 증가 총량(백만톤)
G7	1347.7	266.2
G7 이외 국가	153.8	778.1

(출처: UN 통계국, 2011년)

주2) 선진국 중 가장 크고 발전된 경제체제를 갖는 국가의 모임으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으로 구성됨.

<표 4>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불안하지			보통	불안함			계
		않음	전혀	별로		불안함	약간	매우	
기후변화 (폭염, 홍수 등)	2014	10.1	1.2	8.9	27.0	62.9	49.6	13.3	100
	2016	10.9	1.7	9.2	26.3	62.8	48.8	14.0	100
	2018	19.1	2.4	16.7	31.6	49.3	41.2	8.1	100
미세먼지	2014	4.0	0.5	3.5	18.1	77.9	48.6	29.3	100
	2016	4.5	0.8	3.7	16.2	79.3	44.7	34.6	100
	2018	4.5	0.6	3.9	13.0	82.5	37.2	45.3	100

(출처: 통계청, 2014, 2016, 2018년 사회조사<sup>3)</sup>)

주3)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대국민 조사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가)와 <표 1>, <표 2>, <표 3>, <표 4>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2-1]을 고려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개인의 실천 방안을 논술하시오. (500자 내외, 띄어쓰기 제외)

[독해]

(가) 선진국(미국, 러시아, 일본 등) ⇒ 탈퇴 - 의무 이행 수준 낮음

<표 1> G7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최상위 국가에 포진되어 있고, 일부 국가들은 증가율도 높음  
반면, 유럽권 선진국(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했음

<표 2> 터키, 대한민국, 멕시코 등 신흥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도 높음

<표 3> G7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그 외의 국가보다 적지만, 절대적인 배출량이 월등히 많음

<표 4>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는 매우 민감한 것에 반해 집단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둔감함

[논리평면] 문제해결

기능	제시문	내용
문제 현상	종합	대한민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배출 증가량 모두 최상위권 국가
	<표 1>	이산화탄소 배출 최상위권 국가 + 증가율은 독보적 최상위권 국가
	<표 2>	이산화탄소 증가율 최상위권 국가
	<표 3>	G7 이외의 비선진국들: 현재의 배출량은 낮지만, 증가량은 매우 큼
	<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자발적 이산화탄소 감축을 요구해, 이에 응하기로 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응하지 않았음)
원인 분석	<표 4>	이는 한국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도 개인적 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공동체적 문제에는 상대적 무관심을 보이기 때문임
대안 제시	<표 1>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럽권 선진국들처럼 공동체적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 필요

[예시답안] 725자 (공백 제외 558자)

대한민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국가이다. 먼저 <표 1>에 나타나듯 한국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배출 증가율 모두에 있어서 최상위권에 위치한 국가이다. 특히 환경협약을 체결한 1990년을 기준으로 측정된 이산화탄소 증가율은 <표 2>에 나타나듯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환경 협약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전세계적으로는 G7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배출량이 비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1990년 이후의 증가 총량을 비교해 보면 비선진국이 선진국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 불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인이 가진 이기주의적 태도 때문이다. <표 4>에 나타나듯 한국인들은 미세먼지와 같이 개인적 이해관계가 직결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매우 민감하게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 차원의 환경문제에 해당하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수준의 불편감 호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차원의 의무감을 기반으로 국민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표 1>에 나타나듯, 유럽권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 협약 이후 많게는 20% 수준, 적게는 5% 이상의 감축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이 138% 배출량을 증가시킨 것에 비하면 유럽권 선진국의 모범이 매우 의미가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우리나라 문제점 파악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문항 해설에 제시한 ⑥~⑪까지의 내용을 모두 언급하였다면 17-20점 (단, ⑥, ⑦, ⑨, ⑩, ⑪은 꼭 들어가야 함)</li> <li>■ 위에 제시한 ⑥~⑪까지의 내용 중 5개를 언급하였다면 13-16점 (단, ⑥과 ⑦ 중 1개, ⑨, ⑩은 꼭 들어가야 함)</li> <li>■ 위에 제시한 ⑥~⑪까지의 내용 중 4개 이상 언급하였다면 9-12점 (단, ⑥과 ⑦ 중 1개, ⑨는 꼭 들어가야 함)</li> <li>■ 위에 제시한 ⑥~⑪까지의 내용 중 3개 이하 언급하였다면 8점 이하</li> </ul> <p>※ 17-20, 13-16점 등 구간 내의 평가는 해당 단락의 전반적인 논리의 흐름과 완성도, 창의적 해석 등을 고려하여 구간 내에서 차등 채점함.</p>	20점
문제 2-2	<p>실천방안 (1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문항 해설에서 제시한 ⑫, ⑬의 내용을 모두 언급하였고, ⑭와 ⑮의 대책이 최소 각 4개 이상 있다면 13-15점 (단, ⑫는 꼭 들어가야 함)</li> <li>◆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창의적인 답안이 있는 경우 우수</li> <li>◆ 세계 시민으로의 의식변화란 표현 들어가면 우수</li> <li>■ 위에 제시한 ⑫, ⑬의 내용을 모두 언급하였고, ⑭와 ⑮의 대책이 각 3개 이상 있다면 11-12점 (단, ⑫는 꼭 들어가야 함)</li> <li>■ 위에 제시한 ⑫ 또는 ⑬의 내용을 언급하였고, ⑭와 ⑮의 대책이 각 2개 이상 있다면 9-10점</li> <li>■ 위에 제시한 ⑫ 또는 ⑬의 내용을 언급하였고, ⑭와 ⑮의 대책이 각 1개 이상 작성 시 8점 이하</li> </ul> <p>※ 13-15, 11-12점 등 구간 내의 평가는 해당 단락의 전반적인 논리의 흐름과 완성도, 창의적 해석 등을 고려하여 구간 내에서 차등 채점함.</p>	15점

[대학 예시답안] 668자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감축 의무대상국은 아니지만 <표 1>과 <표 2>의 배출량과 증가율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표 3>을 보면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범주의 평균 배출량 보다 거의 4배 많은 배출을 하고 있다. <표 4>를 보면 최근 환경과 관련된 국민의 인식은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안함이 불안하지 않음이나 보통에 비해 상당히 큰 비중을 보인다. 다만 세계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함은 개인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와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지만 기후변화와 같은 범지구적 문제는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독일,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 나라가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방안을 파악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으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보호 및 육성,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연구, 환경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개인 차원으로는 대중교통 타기, 냉난방 온도 조절하기, 대기 전력 절약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하기 등의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 홍익대 2019학년도 기출 1번

✎ 제시문(가)~(라)는 옛것에 관한 글이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옛것의 의미'와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을 제시문별로 논하시오. (800±100자)

(가)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을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녀던<sup>1)</sup> 길 알퐁<sup>2)</sup> 잇너  
녀던 길 알퐁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당시(當時)에 녀든 길흘 몇 히를 브려 두고  
어디가 든니다가<sup>3)</sup> 이제아<sup>4)</sup>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 되<sup>5)</sup> 므음 마로리<sup>6)</sup>

청산(靑山)은 엇데흐야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유수(流水)는 엇데흐야 주야(晝夜)에 굿디<sup>7)</sup> 아니논고  
우리도 그티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sup>8)</sup> 호리라

- |         |        |               |                        |
|---------|--------|---------------|------------------------|
| 1) 녀던   | : 가던   | 5) 년 되        | : 다른 곳에                |
| 2) 알퐁   | : 앞에   | 6) 므음 마로리     | : 마음 두지 않으리            |
| 3) 든니다가 | : 다니다가 | 7) 굿디         | : 그치지                  |
| 4) 이제아  | : 이제야  | 8) 만고상청(萬古常靑) | :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푸르름 |

(나)

한자어로 고전(古典)은 옛날을 뜻하는 ‘고(古)’와, 법(法) 또는 표준을 뜻하는 ‘전(典)’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한자 문화권에서 고전은 주로 전범(典範)<sup>1)</sup>이 되는 옛날의 제도와 문물 또는 책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한편 한자어 고전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는 ‘클래식(classic)’인데, 이는 최고 계급을 뜻하는 라틴어 ‘클라스(classicus)’에서 유래한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학과 예술을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재평가하여 표준으로 삼으면서 클래식은 고대의 모범이 될 만한 시인이나 사상가, 그리고 이들의 작품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한자어 고전과 영어 클래식은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문화 활동의 표준이 될 만한 옛날의 작품이나 책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예컨대 동아시아에서는『시경』,『서경』,『예기』,『논어』등이, 서양에서는『오디세이아』,『국가』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전은 문명권별로 공동의 전범이 되는 고대의 작품을 지칭하다가 근대 이래 세계가 다원화되면서 여러 문명권과 여러 나라, 여러 분야의 명작들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우리나라 문학의『춘향전』,『구운몽』, 서양문학의『햄릿』,『돈키호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의『자유론』,『종의 기원』등이 새롭게 고전의 목록에 포함된 것이다. 고전은 인류가 축적한 인간, 사회, 자연 등에 대한 성찰과 탐구의 산물 중에서도 질적으로 최고·최상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1)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다)

통상 오래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오래된 것이라 주장하는 이른바 ‘전통들’은 실상 그 기원을 따져보면 극히 최근의 것일 따름이며, 종종 발명된 것이다. 전통을 발명해낸다는 것은 과거라는 창고에서 재료를 빌려와 이를 반복하여 공식화하고 의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인들은 각 씨족을 표시하는 격자무늬 천으로 만든 짧은 치마인 킬트를 입는다. 스코틀랜드인들은 킬트가 까마득한 고대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대체로 근대적인 것이다. 그것은 잉글랜드와의 통합 이후에, 때로는 그보다 한참 뒤에야 등장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통합에 대한 항의를 나타낸다. 격자무늬 천은 16세기에도 스코틀랜드에 있었지만, 짧은치마는 18세기 이전에는 상용되지 않았다. 짧은 치마는 1707년 통합 이후에 발명된 것이다.

그 외에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발하게 등장한 기념제와 동상 역시 발명된 전통에 해당한다. 이 시기 새롭게 형성되거나 급격한 변화를 겪은 사회 집단들은 사회 통합과 정체성을 확인할 새로운 장치가 필요했고, 당시 국가들은 국민의 충성을 공고히 할 새로운 방법을 도모해야 했다. 상징적이거나 영웅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공공 기념물이 이러한 목적 하에 대량 생산되기도 했다.

(라)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과 시설은 얼마동안은 최첨단으로 군림하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한때 최첨단이었던 후기 산업도시들도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급격히 쇠퇴하였다. 과거에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황폐화된 유산을 떠안게 되면서, 각 도시들은 여러 방향으로 타개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의 루르 지방에는 한때 유럽 최대 규모의 철강회사였던 티센 제철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뒤스부르크에 위치한 이 공장은 철강 산업의 쇠락으로 인해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나뒹구는 폐허가 되었다. 이 도시에서는 기존의 공장을 제거하는 대신 여가, 문화예술, 상업, 교육 시설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버려진 철강공장 지역은 1997년 새로운 개념의 ‘21세기형 친환경 도시공원’으로 재창조되었다.

또한 상하이에서는 2000년대 이후 역사적 가치의 보호를 강조하는 도심 정책이 실시되면서 스쿠먼 주택지역의 재개발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스쿠먼 주택은 상하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축약하여 드러내주는 비좁고 낡은 공간으로, 근대 도시 상하이를 특징짓는 가옥이었는데, 옛 상하이에 대한 향수가 부각되면서 상하이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제공해주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오래된 느낌을 살리면서도 내부 구조나 장식 등은 새로운 기능에 걸맞게 개조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카페와 갤러리, 레스토랑, 상점은 이제 상하이 도시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가)~(라)는 옛것에 관한 글이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옛것의 의미'와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을 제시문별로 논하시오. (800±100자)

[독해]

- (가) 옛것의 의미: 옛 성현의 유물(학문) - 불변성, 계승 방식: 그대로 온존하며 계승
- (나) 옛것의 의미: 예전에 만들어진 최고의 표준, 계승 방식: 후대에 재평가하여 계승
- (다) 옛것의 의미: 과거의 소재를 새롭게 의례화, 계승 방식: 사회적 목적을 위해 제작하여 계승(유지)
- (라) 옛것의 의미: 황폐화된 유산, 계승 방식: 옛것을 지금의 방식과 조화시켜 재창조하여 계승

[논리평면] 조건부 요약 ⇨ 생략

[예시답안] 722자

제시문들은 옛것의 의미와 이를 계승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제시문 (가)에 나타난 옛것은 옛 성현의 학문이다. 화자는 고인이 지나간 길, 즉 옛것이 변함없는 우수함을 보여주는 것을 예찬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옛것을 그대로 존중, 보존하며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옛것이 가리키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에 나타난 옛것이란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을 거쳐 다양한 분야에서 다듬어진 성찰의 산물이다. 이는 과거에 만들어진 최고의 표준을 말한다. (나)의 화자는 전세계에서 전통으로 전해지는 제도, 문물, 예술 등의 고전을 현대 입장에서 재평가하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계승하여 현재의 삶에 적응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다르게 제시문 (다)는 우리가 옛것으로 인식하는 전통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유산일 수 있다고 말한다. 스코틀랜드인의 킬트처럼 과거 전통에서 소재를 빌려오고, 이를 바탕으로 현 사회의 목적에 맞게 의례화하여 옛것을 계승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옛것이란 지금은 황폐화된 과거의 유산이다. 과거에는 찬란했던 문명이라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현재의 요구에 맞게 재창조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옛것을 현재의 문화와의 조화를 통해 새롭게 탄생시켜 계승하는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 [문제 1]은 옛것과 관련된 학문, 고전, 전통, 공간 기억 등을 담고 있는 제시문을 읽고 옛것의 의미와 그 계승방식을 서술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제시문의 독해를 통해 옛것이 갖는 의미와 옛것을 계승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일상적인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력을 요구한다.
- 제시문 (가)는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이황의 연시조『도산십이곡』의 일부(3수)를 발췌하였다. 제시문 (나)는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고전의 본질과 가치』중 개념 부분을 요약하여 편집하였다. 제시문 (다)는 에릭 홉스봄과 테렌스 레인저가 엮은『만들어진 전통』의 일부를 발췌·편집하였고, 제시문 (라)는 김정후의『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와 한지은의『도시와 장소 기억』의 일부를 발췌·편집하였다.
- 이 문제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화의 의미’, ‘문화의 요소’, ‘문화의 기능’, ‘문화를 보는 관점’, ‘문화변동’과 연관되어 있고, 국어과 교육과정의 ‘한국문학의 문학적 전통과 미적 특질’, ‘한국문학의 전승과 흐름’과 ‘정보의 선정과 내용 조직’, ‘독서와 문제해결’, ‘작문 맥락의 이해’에 관련되어 있다.

### [대학 문항해설]

- 인간 사회에서 시간은 항상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쌓아올린 것들은 언제나 옛것이 된다. 따라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옛것을 어떤 의미로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계승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 1]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먼저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옛것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때 옛것의 물질적인 대상을 그대로 나열하기보다 그것에 담겨 있는 추상적인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이 요점이다. 나아가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옛것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를 포함하여 그것에 대한 변형의 문제, 나아가 현재적 가치에 따른 활용의 문제까지 서술하여야 한다.
- 제시문 (가)는 조선시대 학자인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 쓴 연시조인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열두 수 중에서 세 수를 제시한 것이다. 문학 교과서 3종에 해당 시조들이 수록되어 있다. 옛사람을 실제로 볼 수 없지만, 옛사람이 갔던 길이 앞에 있으니 당연히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몇 해나 그 길을 가지 않고 버려두었던 자신을 자책하면서 옛사람의 길이 만고상청하리라는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옛사람의 길이란 앞선 사람들의 깨달음과 학문을 향한 길을 의미한다. 이황은 자연에 빗대어 인간의 학문적 계승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제시문 (나)는『고전의 본질과 가치』로, 고전의 개념-고전의 본질-고전의 가치를 설명하는 지문 중 첫 번째 부분인 고전의 개념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한자어 ‘고전(古典)’과 영어 단어 ‘클래식(classic)’의 어원과 용법 중심으로 고전의 정의를 파악하고, 이어서 고전의 범위가 시대에 따라 확장되었음을 설명한다. 고전은 인류가 축적한 인간, 사회, 자연 등에 대한 성찰과 탐구의 산물 중에서도 질적으로 최고·최상의 걸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 제시문 (다)는 에릭 홉스봄과 테렌스 레인저가 엮은『만들어진 전통』중「서장: 전통들을 발명해내기」,「전통의 발명: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전통」,「대량 생산되는 전통들: 유럽, 1870~1914」에서 발췌·편집한 것으로, 전통이라 불리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최근에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발명되기도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 제시문 (라)는 김정후의『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와 한지은의『도시와 장소 기억』에서 발췌·편집한 것으로, 과거의 산업유산과 전통주택이 현대와의 만남을 통해 옛것의 가치가 재건 내지 재창조되는, 독일과 중국의 예를 담고 있다.

[대학 채점기준]

1. 학생들은 제시문 (가)~(라)에 서술된 ‘옛것의 의미’와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을 제시문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옛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에 40%,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의 서술에 50%를 배점하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문제는 ‘옛것의 의미’와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 두 가지이므로 제시문 (가)~(라)에서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으면 감점한다.
3.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옛것의 의미’를 논하는 부분을 채점할 때는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표 왼쪽의 ‘옛것의 구체적인 대상’은 텍스트를 정확하게 독해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옛것의 단서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답이 될 수는 없다. 표 오른쪽의 ‘옛것의 의미’에 관련된 내용까지 서술했을 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표에 제시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답안은 점수를 부여한다. (40%)

	옛것의 구체적인 대상	옛것의 의미
제시문 (가)	-고인(古人) -당시에 녀든 길 -청산과유 -만고상칭	-고인이 가던 길 -옛사람이 이룩한 학문적 전통 -변함없는 가치
제시문 (나)	-고전 -명작, 걸작 -시경, 서경, 예기, 논어, 오디세이아, 국가, 춘향전, 구운몽, 햄릿, 돈키호테, 자유론, 종의 기원	-표준, 전범, 모범,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문화 활동의 표준 -인류가 축적한 인간, 사회, 자연 등에 대한 성찰과 탐구와 상상의 산물 중 최고와 최상의 것
제시문 (다)	-전통들 -킬트 -기념제, 동상 -공공기념물	-발명된 것 -과거라는 창고에서 재료를 빌려와 이를 반복하여 공식화하고 의례화된 것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에 대한 항거의 의미가 담긴 것 -사회를 통합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새로운 장치 -국민의 충성을 공고히 할 새로운 방법
제시문 (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건물과 시설 -황폐화된 유산 -티센 제철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나뉘는 폐허 -버려진 철강공장 지역 -상하이 스쿠먼 주택(지역) -비좁고 낡은 공간	-탈바꿈(변모, 재탄생, 재개발, 재창조)할 수 있는 과거의 유산 -자연 친화적 환경 -독특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제공해주는 공간 -향수, 오래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곳

5.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을 논하는 부분을 채점할 때는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아래 표의 예시와 표현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내용이 진술되면 점수를 부여하고, 아래 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점수를 부여한다. (50%)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
제시문 (가)	-옛것을 당연히 지키고 따라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함. -옛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함. -옛것이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확신함.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진리를 따름.
제시문 (나)	-옛것을 본으로 삼고 보존함. -옛것이 가지는 보편적, 항구적 힘을 인정함. -옛것의 범위를 시대와 문화에 따라 여러 공간과 분야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봄.
제시문 (다)	-전통은 정치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발명(창조, 구성, 고안)되어 계승된다고 봄. -전통의 생성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봄.
제시문 (라)	-옛것을 존중하면서도 현재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재창조함. -옛것의 재창조, 재발견, 재활용, 옛것과 새것의 공존, 과거와 현재의 조화

6. 문제의 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 3, 4번 채점 기준의 내용과 차이가 있더라도 설득력을 갖춘 답안이나 창의적 발상이 돋보이는 답안에 대해서는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다.

7.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10%)

[대학 예시답안] 828자

제시문 (가)~(라)에는 옛것의 의미와 계승 방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고인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고인이 갔던 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애착을 보인다. 또한 몇 해가 지나고 돌아와도 변함없는 청산유수의 불변성을 예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며 계승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미를 드러내 주고 있다. 즉 (가)에서는 옛것의 항상성을 강조한다.

(나)는 고전의 의미와 목적성을 설명하고 있다. 고전은 옛날을 뜻하는 의미와 표준을 뜻하는 의미가 결합된 단어로 여러 분야에 대한 성찰과 탐구의 산물이다. 따라서 고전과 클래식은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문화 활동의 표준이 되어 왔고, 이를 통해 제도, 문물, 예술 등을 재평가하여 학습하고 이를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이어 왔다.

(다)는 (가)와 (나)와는 달리 전통을 옛것으로 보지 않고 비교적 최근의 것이며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는 전통을 과거에서 소재를 가져와 근본으로 삼고 새롭게 공식화하고 의례화하며 발명해 낼 수 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인의 킬트, 다양한 기념제와 동상들의 경우 인류는 새로 형성되거나 급진의 변화를 겪은 집단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을 위해 전통을 발명해내고 생산해낸 예가 된다.

(라)에서는 거의 유물로 전락한 옛것을 현대식으로 변화시켜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통해 전통을 계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티센 제철소와 상하이의 스쿠먼 주택지역이 대표적인 예이며, 쇠퇴된 과거는 오늘날 기존의 용도와는 다르지만, 변화와 개조를 통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현대의 한 문화 부분을 상징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 홍익대 2019학년도 기출 2번

☞ 제시문 (마)에 나타난 법치주의 단계를 구분하는 두 기준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고, 이를 적용하여 제시문 (바)~(아)의 상황을 각각 설명하시오. (800±100자)

(마)

법치주의란 국가의 운영이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법치주의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 자의적인 지배가 금지되며,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만이 허용된다. 또한 금지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법률로 분명히 하여 국민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치주의의 등장으로 왕이나 소수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가 아니라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지배가 강조되었고, 국민은 과거보다 더 큰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인 합법성이 크게 강조되어,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적합하기만 하면 그 법률 자체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단계의 법치주의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치주의는 법률을 도구로만 이용한 합법적 지배, 즉 법률주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내용에 관계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하였는데, 독일 나치 정권이 통치의 합법성을 내세워 독재를 정당화하고, 무고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법의 권위는 그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식적 법치주의에 더하여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리를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한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권력과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데 비해, 실질적 법치주의는 권력과 통치의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도 강조한다.

(바)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특정 서비스가 필수적인데도 기존의 등급 제한에 걸려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장애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한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차등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던 해 일본의 ‘장애자등급제’에 기초하여 만들었다. 장애등급제의 문제는 판정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등급이 정해지면 정부는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같은 3급 장애인이어도 말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지만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동일하다.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등급이 지원대상 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경우도 많다.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제도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고 언어장애도 있는 장애인이 장애등급제로 인해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애종합판정체계는 ‘의료적 요인’, ‘기초근로능력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사정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중 ‘의료적 요인’ 평가는 장애유무와 장애정도를 파악해 복지지원 적격성 판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기초근로능력 요인’ 평가는 의학적 평가결과와 연동되어 취업 및 직업재활 지원 연계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사회환경, 복지욕구, 일상생활능력, 장애특성, 재활평가, 일주일 주요 활동 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설계된다.

한 전문가는 이 장애종합판정체계가 장애유형보다는 장애상태로 인한 기능 제한을 측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

A국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하여 주택가격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시장 안정 대책을 수립하였다. 그중 하나로 주택구입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축소하는 법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의도는 대출한도 축소로 주택 투기 수요를 감소시켜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다. 구매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은행의 자율 결정에 맡기지 않고, 구입하는 주택가격의 최고 30%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률적으로 그 한도를 강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만 은행에서 대출하고 나머지는 구매자가 조달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한도 축소 정책은 구매자가 집값의 나머지 70%를 직접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대출 희망자들의 주택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가 문제되지 않는 현금이 많은 주택보유자들은 매수 경쟁자가 사라진 주택 시장에서 더욱 수월하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만약 주택 가격이 지금과 같이 계속 오른다면 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

B국의 지도자들은 “짐이 곧 국가다.”라는 프랑스 루이 14세의 말로 요약할 수 있는 절대적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정도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통치 성향은 B국의 지도자 갑(甲)의 주도로 B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1970년 이후에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20여 년 가까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말을 국가의 최고 지도 규범으로 삼았다. 또한 강력한 권력을 이용하여 노동운동과 계급투쟁을 강조하면서 8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 동안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기간에 갑은 학생과 노동자의 지지를 기반으로 전통과 도덕을 자신의 사상으로 대체하였으며, 기존 질서의 혁신을 꾀하였다. 이러한 사회·문화·정치·경제상의 혁명적 변화는 앞서 언급한 통치 성향에서 비롯되었다.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마)에 나타난 법치주의 단계를 구분하는 두 기준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고, 이를 적용하여 제시문 (바)~(아)의 상황을 각각 설명하시오. (800±100자)

[독해]

- (마) 형식적 합법성만 충족: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합법성과 내용적 정당성 충족: 실질적 법치주의
- (바) 장애등급제: 획일적 기준으로 복지 수행 기능 부족, 장애종합판정체계: 종합적 판단으로 인해 효과적 복지
- (사) 일률적 적용으로 인해 복지 대상인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게 한 국가 정책
- (아) 자신의 의지로 국가를 통제하는 독재적인 지도자의 국가 통치

[논리평면]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마)	형식적 합법성 충족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합법성과 내용적 타당성 충족	실질적 법치주의
대상	(바)	획일적 기준으로 복지 수행 기능 부족	형식적 법치주의
		종합적 판단으로 효과적 복지 기능 수행	실질적 법치주의
	(사)	일률적 적용으로 인해 약자 혜택 부족	형식적 법치주의
	(아)	자신의 의지로 국가를 통제하는 통치	법치주의 아님

[예시답안] 759자

법치주의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제시문 (마)에 나타나듯 형식적 합법성과 내용적 정당성이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고, 법의 내용이 공익적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면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면, 제시문 (바)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바)에는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 효과가 부족했던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개개인의 장애등급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으로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종합판정체계로 바뀌었다. 이는 합법성만을 충족시킨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내용의 공익성까지 확보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기준에서 (사)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할 것이다. (바)에는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다주택자에게만 유리한 법령이 나온다. 이는 법률로서의 형식은 지켜졌고, 심지어 명분 자체의 공익성도 있으나, 실질적 차원에서 복지를 실현하지 못했으므로 내용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는 법치주의 자체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아)에는 법률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국가를 통제하는 절대적 권력의 지도자가 등장한다. 이러한 권력은 법률에 근거한 힘이 아니므로 형식적 합법성을 지녔다고 할 수 없기에 법치주의라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설령 내용적으로 공익성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문제 2]를 출제한 의도는 제시문 (마)를 통하여, 사회 교육과정 중 <법과 정치>과목에서 배우는 법치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 (사), (아)에 기술된 사회적 현상을 평가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임.

### [대학 문항해설]

- [문제 2]를 출제한 의도는 제시문 (마)를 통하여, 사회 교육과정 중 <법과정치>과목에서 배우는 법치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문 (바), (사), (아)에 기술된 사회적 현상을 평가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임.
- 제시문 (마)는 법치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법치주의의 두 가지 단계인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것임. 근대적 법치주의는 국가의 운영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법률이 형식적 합법성만을 갖춘 경우는 형식적 법치주의, 여기에 더해 법률의 정당성까지 충족된 경우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구분됨.
- 제시문 (바)는 목적상의 정당성은 확보하였으나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물러 있던 기존 장애인지원정책을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달성하는 내용임.
- 제시문 (사)는 무주택서민의 주택 마련 지원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 예고된 담보대출제한 정책이 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여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단계를 설명함.
- 제시문 (아)는 통치자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사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예로서 법치에 이르지 못한 단계를 설명함.

### [대학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글 전체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10%
제시문 (마)	법치주의의 단계와 그 단계를 구분 짓는 기준을 설명	15%
제시문 (바)~(아)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을 법치주의 단계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 분석	75%

1. (마)에 제시된 법치주의의 단계와 그 단계를 구분 짓는 기준을 설명하는 부분에 15%, (마)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여 (바), (사), (아)에 나타난 상황을 분석하는 부분에 각 25%,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
2. 법치주의의 단계와 그 단계를 구분 짓는 기준을 설명.

구분	요약	배점
제시문 (마)	법치주의란 국가의 운영이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 단계를 형식적 법치주의라 하고, 이와 함께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단계를 실질적 법치주의라 한다.	15

3.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을 법치주의 단계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데에 대한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구분	적용되는 법치주의 형식	채점 기준	배점
제시문 (바)	실질적 법치주의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재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종합판정체계는 통치의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25
	형식적 법치주의만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오답 처리 현재의 장애인등급제 관련 형식적 법치주의를 언급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 새로 도입되는 종합판정체계 도입(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장애등급제의 유지를 전제로 문제를 풀 경우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제시문 (바)는 종합판정체계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므로 감점 처리함.		
제시문 (사)	형식적 법치주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택 담보대출 기준을 조정하였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였음. 따라서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법치주의에 필요한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음.	25
	형식적 합법성의 기준 충족에 관한 논의가 없을 경우 감점 처리 정당성 확보의 논의에서 내용 및 목적의 정당성 두 가지 모두에 관해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오답 및 감점 처리		
제시문 (아)	법치주의 단계에 이르지 못함	법에 의하지 않고, 최고 지도자 개인의 의지나 말에 의해 국가를 운영하므로 형식적 법치주의를 충족하지 못함. 형식적 법치주의에 필요한 통치의 합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 법치주의 역시 충족하지 못함.	25
	형식적 혹은 실질적 법치주의로 판단한 경우 오답 처리 실질적 법치주의 조건 충족에 관한 논의가 없을 경우 감점 처리함.		

[대학 예시답안] 868자

제시문 (마)에 나타난 법치주의 단계를 구분하는 두 기준은 ‘형식적인 합법성’과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이다. 형식적인 합법성만을 갖추게 되면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동시에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도 함께 갖추면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제시문 (마)의 기준을 적용할 때, 제시문 (바)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변하는 상황이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복지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형식을 정해놔서 이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대로 된 복지를 받지 못하여, 목적인 것과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그러나 곧 시행될 장애종합판정체계는 개개인의 장애등급과 생활여건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복지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성격을 띠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사)의 주택구입가격의 최대 30%까지만 대출을 보장하는 법령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사례이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와 주택 보유자 간의 빈부격차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편적인 기준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서로 상이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일률적인 법의 적용만을 강제한 것이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에 부합한다.

제시문 (아)에서 B국의 지도자들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따르지 않은 채 개인의 자의적인 지배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속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형식적 법치주의’에도 속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 B국의 지도자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조건인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말을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 삼았다. 이는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